

북한 ‘사회주의’ 노동자의 형성과  
생산현장의 변화(1945~1960)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이 세 영

북한 ‘사회주의’ 노동자의 형성과  
생산현장의 변화(1945~1960)

지도교수 김 성 보

이 논문을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7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이 세 영

# 이세영의 박사 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김 성 보 인

심사위원 도 현 철 인

심사위원 이 기 훈 인

심사위원 한 성 훈 인

심사위원 노 경 덕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0년 7월 일

# 차 례

1. 서론 .....	1
1) 문제 제기 .....	1
2) 연구 목적 .....	4
3) 기존 연구의 검토 .....	8
4) 자료 .....	13
5) 구성과 내용 .....	16
2. 노동자의 민주개혁 참여와 인민경제 건설 .....	18
1) 해방 직후 경제적 어려움과 극복 노력 .....	18
(1) 노동자·기술자의 절대 부족 현상과 공장 복구 과제 .....	18
(2) 소련의 지원과 소련 기술자의 기술 원조 .....	28
2) 민주개혁으로 인한 노동조건급변 .....	35
(1) 노동법령의 실시와 노동자의 인식 .....	35
(2) 노동시간 감소 및 임금 인상애 따른 일상의 변화 .....	49
3) 모범노동자들의 등장과 노동자 동향 .....	57
(1) 인민경제 발전 2개년 계획의 시행과 증산경쟁운동 .....	57
(2) ‘노정관계(勞政關係)의 쌍무성’과 개인적 노동 동기 .....	63
4) 소결 .....	69
3. ‘신세대’ 노동자의 등장과 사회주의적 산업화 추진 .....	71
1) 전시/전후 노동환경 변화와 정책적 대응 .....	71
(1)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 .....	71
(2) 물자 부족 및 낭비 현상에 따른 생산 차질 .....	79
2) 노동자들의 생산현장 복구 노력과 외부원조 .....	83
(1) 파괴된 공장 복구·조업 재개와 전후 복구건설 노력동원 .....	83

(2) 전후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원조를 통한 산업화 추진 .....	91
3) 노동자의 세대교체에 따른 생산현장의 변화 .....	109
(1) 신규 노동자들의 생산현장 진출 .....	109
(2) 노동생산성 저하 현상 극복을 위한 강온양면책 .....	121
(3) ‘신세대’ 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생산현장의 정치’ .....	140
4) 소결 .....	162
<b>4. 노동자간 연대의식의 강화와 자립을 위한 산업화의 강행 · 164</b>	
1) 대규모 군중운동을 통한 제1차 5개년계획 수행 .....	164
(1) 대내외적 정치 불안 속에서 추진한 제1차 5개년계획 .....	164
(2) 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집단적 혁신운동(천리마운동) 실행 ·	175
(3) 기술에서 사상 우위로의 전환 : 천리마작업반운동 .....	183
2) 자립경제 건설을 위한 생산현장의 고투 .....	188
(1) 원자재 절약과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시도 .....	188
(2) 노동력 부족 극복을 위한 기술혁신의 강조 .....	210
3) 작업반을 단위로 한 노동자간 연대의식 강화 .....	215
(1) 노동자간 관계 강화의 주도자 : 열성노동자와 천리마 작업반장	215
(2) ‘작업반 공동체’와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의 시도 .....	224
(3) 속도에 대한 강박과 자기희생의 정당화 .....	236
4) 소결 .....	244
<b>5. 결론 .....</b>	<b>247</b>
참고문헌 .....	253
Abstract .....	269

## 표 차례

<표 1> 1945~1950년 평균 재직 노동자 수 .....	20
<표 2> 1946~1948년 국영 부문 월평균 종업원 수 .....	20
<표 3> 1946~1948년 광공업 분야 종업원의 구성 .....	21
<표 4> 공장에서의 기술자 양성 .....	25
<표 5> 1946~1948년 설립된 상설 기술교육기관 .....	25
<표 6> 1949~1950년 노동자들의 유동성 지표 .....	28
<표 7> 1946~1950년 북한의 노동법령 .....	36
<표 8> 1946~1947년 북한의 물가 인상 동향 .....	37
<표 9> 휴양소의 일과표 .....	41
<표 10> 1946~1949년 공업 부문 노동자, 사무원들의 임금 증가율 .....	52
<표 11>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한 생산 능력의 저하 .....	77
<표 12> 1953~1956년 평균 재직 노동자 수 .....	110
<표 13> 임금 노동자의 책임작업량 달성/미달성 비율표 .....	124
<표 14> 1957~1960년 평균 재직 노동자 수 .....	213

## 그림 차례

<그림 1> 스프링 해머 설계도 .....	138
<그림 2> 새로 건축한 노동자 아파트 .....	148
<그림 3> 북한이 시혜적으로 제시한 대남 경제 협력 청사진 .....	174
<그림 4> 용마에서 비롯된 천리마의 이미지 .....	182
<그림 5> 신목(장작) 가스 발생로의 구조 .....	197
<그림 6> 원심력 가스 확산기의 구조 .....	197
<그림 7> 북한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트랙터 .....	206
<그림 8> 북한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화물 자동차 .....	207
<그림 9> 북한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굴착기 .....	207
<그림 10> 북한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불도저 .....	207
<그림 11> 길확실 .....	222

## 국 문 요 약

### 북한 ‘사회주의’ 노동자의 형성과 생산현장의 변화(1945~1960)

본 논문은 북한의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노동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그들의 인식과 실천이 다시 북한 생산현장과 경제 건설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1945년 해방부터 1950년 한국전쟁 이전까지 북한은 민주개혁을 추진하며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부터 노동을 해오던 이들이 주축이 되어 북한의 노동자층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경제 건설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시기 북한 생산현장의 중요 과제는 일제가 파괴하고 떠난 생산시설을 복구하고, 부족한 노동자와 기술자를 보충하면서 생산력을 확충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1948년의 민주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실시된 노동법령에 따라 8시간 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보험제, 노동보호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일제강점기보다 진일보된 노동조건 속에서 노동자들은 새 국가를 건설하는데 참여한다는 열정을 갖거나, 생활 수준의 향상, 고급 직종으로의 진출과 같은 개인적 동기에 의거하여 자발성을 보였다. 그렇지만, 새 국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기에 보은(報恩)해야 한다는 인식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생산현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노동자들도 나타났다. 이들도 사상적인 추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성실함이나 노력, 경쟁심에 근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은 북한의 노동 문제에도 큰 변화를 야기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생산시설은 극심하게 파괴되었으며, 기존의 남성 노동자들도 대거 생



산현장에서 사라졌다. 전후 복구와 산업화를 위해서는 파괴된 생산현장을 복구하고 새로운 노동자를 충원해야만 했다.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농민, 여성, 군인, 청년 등에서 새로운 신입 노동자가 대거 들어오면서 노동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이 ‘신세대’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해 정권과 관리자 측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자들을 강한 노동규율과 비판·자아비판을 통해 통제하려고 한 것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 결국 관리자들은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생산에 더 긍정적임을 배워야 했다. 작업반장과 반원의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어야 노동자의 ‘열성적’ 생산 참여가 가능했던 것이다.

북한의 생산현장 복구와 산업화는 소련, 중국,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원조에 힘입어 진행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원조를 바탕으로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원조 결과 생산현장에는 신기계, 신기술·작업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외국의 기술자들이 직접 북한에 와서 생산현장과 도시 복구를 도왔다.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북한 경제와 노동 문제에도 영향이 미쳤다.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당 주류는 자립경제 건설을 위하여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강행하였다. 그렇지만, 해외 원조가 급감하고 있었기에,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열의가 없이는 그러한 경제 건설은 요원한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공을 위해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추진하였다. 천리마운동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 완료 선언 이후 공산주의 발전을 전망하는 가운데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발전하여, 작업반을 단위로 한 증산과 인간개조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다.

제1차 5개년계획 시기, 생산을 위한 각종 원자재, 연료 등의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국산화 문제가 불거졌다. 수입에 의존했던 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연탄의 대량 채굴과 대체연료 활용이 모색되었다. 또한 기계공업의 발전에 힘입어 다

수의 기계, 설비 등의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1958년 북한은 사회주의 이행 완료를 선언하였다. 이제 사회주의 너머를 전망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의식개조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집단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태도를 의미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 속에서 이기주의적 태도에 대한 대대적 비판이 전개되었으며, 의식개조를 위한 수단으로 칭찬과 긍정 교양이 강조되었다. 개조의 과정은 바로 작업반 내 인간관계를 통해 실천되었다. 그러려면 작업반을 상호부조와 '우애'에 입각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작업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는 노동자들의 열의와 참여를 높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제1차 5개년계획의 조기달성을 위한 정권의 욕망은 노동자들에게 헌신을 넘어 희생을 요구하고 있었다. 속도의 강요는 생산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안전을 고려하며 일하는 것을 멸시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책임을 다하는 것을 상찬하게 만들었다. 그에 따른 인명 손실이나 희생은 마치 노동계급의 숭고한 자기희생처럼 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본 논문이 찾은 결론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 이후 노동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젊은 신입 노동자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생산현장에서 연대의식이 높아질 때 직장에 대한 애착을 갖고 노동 의욕을 고취할 수 있었다. 상호부조가 강화되면서 연대의식이 높아진 노동자 계급은 적극적인 증산 의욕을 보일 수 있었다. 이것은 북한식 '사회주의' 노동자의 중요한 특성이 되었다.

둘째, 국가에 의한 강한 노동통제와 강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도 나름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의거하여 자기 노동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동기나 물질적 이득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유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이 인민경제 건설에 이바지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의 노동자는 국가와 관리자 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

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해 존중하고 합당한 대우를 제공할 때 그만한 열성과 의욕을 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범 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투철했던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인정 욕구가 강해서 모범이 된 것이었다. 체제에 충실하고 실력이 뛰어난 노동자라 하여도 자기 기분에 따라 의식적으로 ‘낙후한’ 행동을 자행할 수도 있었다. 일견 ‘낙후’해 보였던 노동자들도 계기에 따라서 적극적이며 성실한 노동자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자료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 군상이 보인 다양하고 역동적인 인식과 실천은 북한 체제를 정권의 동원과 통제로만 설명하는 것이 편협한 지반 위에 서 있음을 반증한다.

---

핵심되는 말 : 노동자, 노동법령, 신세대, 외부원조, 산업화, 자립경제, 집단주의, 상호부조, 우애, 작업반

# 1. 서론

## 1) 문제 제기

북한에서 노동<sup>1)</sup>은 사회의 물질적 및 문화적 재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목적의식적인 활동으로 정의된다.<sup>2)</sup> 사회의 물질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드는 활동이 노동이라고 한다면, 노동이란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문명이나 생활은 결국 본인 혹은 타인의 노동의 결과물로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의 가치는 근대 산업사회에 들어 더욱 커져 인간과 인간의 활동을 가치 평가하는 중심적인 기준이 되었다. 전통적으로 인간을 명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가 아니라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가 중심적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인간은 주로 임금 노동 또는 취업 노동을 통해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보하게 되었다. 대가가 지급되는 노동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sup>3)</sup>

자본주의의 착취에 저항하여 인간의 인간에 의한 착취를 끊고자 나온 사회주의 또한 그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인간의 노동을 중시하였다. “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마라”는 경구는 노동에 대한 오래된 관념이자, 공산주의 미래를 추구하던 이들도 받아들이던 윤리였다.<sup>4)</sup> 뒤집어 말한다면 “일하는 자가 먹게 하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생업을 유지하게 하는 것, 걱정없이 일할 수 있게 하는 것,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한 국가나

---

1) 문화어로는 “로동”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문을 인용하거나 고유명사의 경우 문화어로 표기하겠다.

2) 『조선대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1998, 469쪽.

3) 손철성, 「노동의 종말과 호모 라보란스의 위기」, 『시대와 철학』21권 2호,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0, 236~237쪽.

4)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개역한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이며, 사회주의 체제에서 이를 더 중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여서, 북한에서의 노동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산업화와 체제 건설을 위한 불가결의 요소이며, 노동자들에게는 생계 유지와 자아 발전을 위한 수단이자, 정체성 형성의 요소였다. 더 나아가 공산주의 미래를 예비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즉, 여러 가능성이 중첩되는 분야가 노동이었다. 게다가 북한에서의 노동은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로 이어지는 체제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기에 자본주의의 노동과 보편적으로 연결되면서도, 자본주의와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및 사회주의 체제 건설에서 경제 건설은 중요한 요소였다. 경제 건설이란 곧 근대화를 추동하는 힘이기에 오랜 식민지 경험에서 벗어난 신생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한 ‘추격 발전’의 욕망은 강한 것이었다.<sup>5)</sup> 게다가 분단과 전쟁, 냉전이라는 강도 높은 체제 경쟁 하에서 남북한 모두 경제 건설에 집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제는 그러한 과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산업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기에 북한 정권은 동의와 통제의 기제를 만들어 노동자를 동원하려 했지만, 그것의 수용 여부는 결국 노동자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노동자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거나 혹은 협력을 거부할 동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어떻게 동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것은 북한의 노동자들은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노동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조선 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세기에 농업생산력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그 결과 농촌사회가 크게 분화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임노동층은 일제하에 하나의 노동계급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세

---

5) 추격 발전에 관해서는 Gerschenkron, Alexander,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NY: Fredrick A. Praeger, 1965 참조.

계대전으로 팽창한 일본의 산업자본이 공황으로 타격을 입자, 그 유희자본의 일부를 조선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공업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1911년 1만 4,575명이었던 종업원이 1930년 10만여 명으로 증가하고, 임금노동자에서 공장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였다. 이후 일제가 전쟁에 나서면서 조선에서는 군사적 공업화가 진전되고 이는 노동자계급의 급격한 성장을 초래하여 1945년 1월 현재 공업노동자는 49만여 명에 이르게 되었다.<sup>6)</sup> 이처럼 성장한 조선인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 맞서 노동조직을 결성하여 저항하였으며, 총독부의 강력한 억압으로 집단적 저항이 힘들 경우에는 생산현장에서의 무단 이탈이나 이직을 통해 소극적이거나 저항하기도 하였다.<sup>7)</sup>

이런 전통 속에서 성장하던 노동자층은 식민지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자주적인 산업화의 실행 주체로서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신생 노동자계급의 형성 과정에서 경제 건설에의 참여 동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노동자들은 어떤 이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들의 사상과 인식, 실천의 어떤 측면이 북한 노동자층의 성격을 구성하는지, 나아가 북한 사회와 체제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른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이해는 그 주체의 이해가 되어야 하고, 그렇다면 북한의 인민을 역사적으로 복원하는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8)</sup> 이 경우에도 노동을 통해 인민에 보다 가깝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노동은 북한에서도 체제 구성원이자 건설의 주체로 호명당한 인민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인민으로 살아가는 이상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근로’ 즉, 노동이었다. 1958년을 즈음하여 북한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완료

6)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2006, 25~29쪽, 264쪽.

7) 일제하의 노동 문제와 노동자에 관해서는 이상의, 위의 책, 2006; 郭健弘, 『日帝의 勞動政策과 朝鮮勞動者』, 신서원, 2001; 임해원, 「식민지 산업화시기 노동자들의 대응 연구 - 노동이동을 통해 본 식민권력과 저항-」,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참조.

8) 해방 이후 남북 분단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인민을 어떻게 정의하려고 했는지에 관해서는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144, 한국사연구회, 2009. 참조.

되었다고 선언할 때에도 그것은 인민이 산업노동자, 협동조합농민, 근로인테리라는 노동의 형태로 구분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였다. 즉,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체제 이행은 인민들의 계급적 구성, 그리고 정체성을 노동자나, 농민이나, 근로인테리나 하는 범주 안으로 단순화, 재편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생산현장을 중심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직면한 현장의 과제는 무엇이고 그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노동에 대해 갖는 태도와 그 형성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북한 경제 건설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때 대상이 되는 노동자는 성별로는 남녀를 포괄하고, 직종 및 분야별로는 산업화의 주력이었던 중공업과 광업을 중심으로 경공업, 운송 분야를 함께 살펴본다.

## 2) 연구 목적

북한 역사의 초기부터 노동자 문제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식민지 수탈과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극악한 착취에서 간신히 벗어난 조건에서 당대의 지도자들과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가 전근대적 농업국가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로 생길 국가의 정치체제적 성격은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다시는 식민지로 돌아가지 않을 경제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은 곧 근대화 과정이자 산업화 과정이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남북을 아울러 공통적인 것이었다. 산업화 과정은 필수적으로 다수의 노동자를 요구하는 바, 새로운 노동자층의 형성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였다.

한편 북한 정권의 주류가 된 사회주의자들은 노동계급을 가장 혁명적이고 선진적인 계급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언젠가 도래할 공산사회의 가장 이상

적인 ‘인간형’이어야 한다는 당위성까지 부여하고 있었다. 보다 현실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직 취약한 자신들의 당과 정권의 굳건한 지지기반이자 인력공급 풀로서 광범한 노동자층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노동자층의 존재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체제 건설, 즉 ‘자발적 협력’까지 절실히 기대해야만 했다.

이는 고도의 자본주의 국가가 아닌 저발전 상태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자리 잡기 위한 과정과 연관되어 있었다. 사회주의자들은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해 내어,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들을 주로 ‘물질적 풍요’라는 측면에서 ‘따라잡아 추월하고자’ 했다. 오직 급속한 산업화 만이 도시와 농촌의 광범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물질·사회적·문화적 생활조건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토대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었기에, 공업화 성패 여부에 전 사회의 발전 여부가 걸려 있었다. 사회주의 산업화는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을 핵심으로 하면서 산업화를 최단기간에 완수한다는 경제발전전략과 결부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제발전전략에 수반되는 엄청난 경제적 과제와 그것의 최단기적 집행을 위하여 국가는 물질·인적자원의 배분을 선택된 전략목표들과 채택된 경제방식에 부합하도록 강요했다. 국가는 영토 내 모든 경제주체의 활동을 국가적-당적 목표에 종속시켰고, 이러한 체제에서 모든 경제 단위체와 전체 노동력은 급속한 산업적 축적을 위한 체제의 부속품으로 변화하여 기능해야 했다.<sup>9)</sup>

북한 또한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적 산업화를 추구한 점은 동일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정권의 의도와 지향이 그러하다 해서 그것이 반드시 현실에서 관철되었는가는 별개라는 것이다. 노동자를 비롯한 인민의 이해와 동의, 협력이 없다면 사회주의 ‘추격 발전’은 요원한 꿈일 뿐이다. 따라서 정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로 포괄되는) 인민대중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을 찾아야만 했고, 그러한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연마하지 않을 수 없었다.

9)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 연구사, 1994, 15~17쪽.



하지만 노동자의 대응은 정권의 의도에 순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예상 외의 방식으로 그것을 전복하기도 한다. 예컨대, 정권에서 노동자를 통제(개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무기는 사회주의의 전통적인 방법인 비판-자아비판이었다. 노동자들은 이를 수용하지만, 어떤 이들은 불쾌감 표명, 형식적 실행, 자포자기 등의 방식으로 정권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기도 하였다. 정권 측은 이제 비판-자아비판이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그중 하나는 모범 인물의 서사를 들이대는 것이었다. 즉, 항일빨치산을 귀감으로 따라하자는 식의 설득 작업이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이들은 그런 모범 사례는 다 알고 있다는 식의 태도로 나오고, 정권 측은 ‘긍정교양’이라는 방법을 새로 추가한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효과에 한계가 있음이 드러나기도 한다.<sup>10)</sup> 이처럼 정권과 노동자 간의 힘겨루기는 노동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정권이 억압하건 포섭하건 간에, 노동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화답하느냐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은 억압·포섭의 방식, 즉 체제의 성격에도 피드백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은 북한 정권의 강력한 동원과 통제의 압력을 기정사실로 놓고, 그것이 성공적이었나 여부만을 알기 위해 노동자의 대응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 경우, 정권의 압력이 강하고 또 통제가 성공적이라고 가정하면 할수록, 노동자들은 과편적이고, 종속적이며, 그 대응 또한 마지못한 협력이나, 소극적 저항으로 단순화시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당시 노동자의 의식과 행위를 단순화시키고 많은 부분을 생략해버리는 것이며, 노동자를 정태적인 존재로 단정 짓게 만든다.

그렇지만, 노동자가 종속적이거나 정태적인 존재인가는 학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다. 당시 산업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모로 당사자에게도 이익인 측면이 있었다. 노동자들 또한 제약된 조건 속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

10) 노동자의 ‘의식 개조’를 둘러싼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세영, 「북한 노동자층의 형성과 의식 변화-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24~25쪽, 31~32쪽, 39~41쪽,

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노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 또한 가능한 것이다. 또한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 과정이 지난했던 만큼, 노동자들의 노동과정도 결코 순탄할 수는 없었다. 단지 그러하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노동은 고역(苦役)이니 싫은 것, 피해야 할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측면이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 참여를 통해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이었는지, 노동자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또한 노동자가 생각하는 노동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 노동자가 정권의 의도에 협력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저항한다면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북한의 노동과 노동자 문제를 입체적으로 파악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1950년대 전쟁의 참화에서 빠른 속도로 벗어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인은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에 의해서 가능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박형중 또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인민에 대한 동원과 인민의 자발적 참여가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11)</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극적 참여 여부를 검증해야 할 것이며,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바로 노동자의 구체적 참여의 형태인 노동 행위가 이루어지는 생산현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정책 수준의 논의로는 결국 노동자의 동인을 파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데, 현재 북한 연구 수준에서 접근 가능한 것은 작업장, 즉 생산현장이다. 본 연구는 생산현장을 위주로 노동자의 실천과 인식을 파악하여 노동의 동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노동자를 분석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노동자란 개인이면서도 집단적인 성격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많은 이들이 산업노동자라는 직업을 자의건 타의건 선택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노동자는 일률적인 집단으로 만들어져 존재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양한 배경과 성격, 특성을 지닌 개인들의 집합으로서 형성되어 가는 것이었다. 개개인은 노동자로서 적응하거

---

11) 박형중, 위의 책, 1994, 160쪽.

나 부적응하기도 하였고, 노동을 통해 추구하는 바도 달랐으며, 노동에 대한 태도도 각자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상이하였다. 그와 동시에 노동자의 노동은 산업화가 진행될수록 분업과 협업의 형태로 발전하며 이는 곧 생산현장에서 집단으로서 존재하고 노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게다가 북한의 노동자들은 일터뿐만 아니라 생활세계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삶을 살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자가 동료 노동자와 맺는 관계성 또한 노동자의 의식과 행위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따라서, 노동자가 갖는 개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집단의 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함께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이며 입체적인 노동자의 상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개별 노동자와 노동자가 모여 집단을 이루고, 그러한 노동자 간의 관계가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곳, 바로 생산현장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생산현장에 분석의 초점을 맞춰 노동자의 인식과 실천을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북한 초기 역사는 해방과 민주건설, 전쟁과 전후 복구, 제1차 5개년계획을 통한 산업화 시기로 세분할 수 있고, 각각의 시기는 북한 노동자의 구성이나 주어지는 과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북한의 노동자들 또한 이러한 역사적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시기에 따른 노동자 구성의 변화, 정권의 노동 정책의 변화, 북한이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맺는 관계가 생산현장에 미친 변화 등도 살펴보고자 한다.

### 3) 기존 연구의 검토

1980년대 후반 ‘북한 바로알기 운동’의 흐름 속에서 북한사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상당한 성과를 축적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의 노동과 노동자 문제는 북한 경제사의 한 부분으로, 혹은 북한 체제 건설사의 한 부분으로서 노동 정책 측면을 위주로 다루어져 왔다.<sup>12)</sup> 그리고 이런 연구들은 북한에서

‘수령제’ 혹은 북한식 사회주의 형성의 기원을 밝히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기에, 노동자 문제를 다룰 때에는 그들을 어떻게 체제 내에 포섭 혹은 통제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주 관심사였다. 즉 노동자 조직인 직업동맹의 조직화 추이, 국가의 강압적 노동통제나 증산경쟁운동의 의의 등을 밝히는 방향에서 접근하였다.

국가의 강압적 통제와 노동자의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느 쪽에 더 방점을 찍는가에 따라 두 가지 연구경향이 나뉘게 된다. 위로부터의 통제와 동원에 더 방점을 둔 연구로는 차문석,<sup>13)</sup> 남근우<sup>14)</sup>, 김지형(Cheehyung Harrison Kim)<sup>15)</sup>, 박영자<sup>16)</sup> 등을 들 수 있다.

차문석은 노동전체주의가 20세기 모든 체제에서 관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사회주의권 비교 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북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국가 주도의 노동 통제와 노동 관리 체제의 형성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노동자의 ‘은밀한 투쟁’을 분석하고 있다. 남근우는 생산현장에서의 사회관계 분석을 통해 기본적으로 북한 체제로부터의 지배와 복종의 강요, 억압적 노동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의 소극적 저항 양상, 그것이 북한 경제의 한계를 짓는 지점에 대해 밝히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나온 1950년대 북한 노동 관련 연구인 김지형의 연구 또한 차문석 등과 유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그는 현재 전세계를 관통하는 신자유주의적 착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면서 북한에서 전쟁 이후 어떻게 국가가 노동의 이데올로기화를 통하여 노동자를 강제하고자 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박영자는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사회주

12)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김재웅, 『북한 체제의 기원』, 역사비평사, 2018;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들녘, 2001; 이주철, 「북한의 국영기업관리와 노동정책: 1946~1948년을 중심으로」, 『史叢』46, 高大史學會, 1997; 하재룡, 「북한 산업화와 노동정책」, 『노동연구』14, 1997.

13)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박종철출판사, 2001.

14) 남근우, 「북한의 복종과 저항의 정치: 생산현장에 나타난 공식/비공식 사회관계(1950-70년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15) Kim, Cheehyung Harrison, *Heroes and toilers: work as life in postwar North Korea, 1953-1961*,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16) 박영자, 『북한 여자 -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엘피, 2017.

의는 과연 여성을 해방시켰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70년이란 긴 시기를 정리하는 방대한 작업을 해냈다. 그 결과 북한의 여성은 주체로서도 2등, 노동자로서도 2등인 채 가사와 노동의 2중 부담을 떠 안고 살아갔음을 비판적으로 밝혀냈다.

이런 연구경향은 정권의 통제와 이데올로기적 동원 장치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으나, 노동자들을 수동적인 객체로서 바라보고 있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 또한 인간이기에 시간의 흐름 속에 인식과 판단, 행동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외재적인 압력에 대응하여 대다수 노동자가 갖는 대응이 단지 소극적 저항이라고만 하기에는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보이는 노동자들의 열의와 열성은 설명이 어렵다. 노동자들의 참여와 열의가 발양될 수 있는 측면, 노동자들이 정권의 요구에 동의하는 내적 계기의 분석 또한 필요한 것이다.

이에 더하여,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장치로서 증산경쟁운동을 살펴보려는 연구 흐름이 있다.<sup>17)</sup> 증산경쟁운동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징적인 생산력 증강 방법이다. 기실 증산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즉 기술혁신과 노동자의 증산 의욕 고취에 달려 있고, 산업화 과정에서 더 큰 성과는 기술혁신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북한에서의 증산경쟁운동에 대한 연구 경향은 노동력 동원 측면에 더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는데, 이는 북한 체제가 인민의 의식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이어진 일련의 증산경쟁운동은 시기에 따라 강조점이나 성격이 변화하는데, 대개의 연구가 개별 운동을 분석하는 식이어서, 증산경쟁운동 자체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까지 이르진 못하고 있다. 또한, 증산경쟁운동에 대한 정권의 의도와 실행 과정을

---

17) 장인숙, 「북한의 '대중운동'의 성과와 한계: '천리마운동'에서 '제2 천리마대진군'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연구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1; 김재웅, 「북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현실』56, 한국역사연구회, 2005; 김보근, 「북한 '천리마 노동과정' 연구: '소련식 테일러주의'의 도입·변질과정」,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신대원, 「전후 북한의 사상개조운동 연구: 1955년 '反貪汚·反浪費 투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조수룡, 「1945~1950년 북한의 사회주의적 노동관과 직업동맹의 노동통제」, 『역사와 현실』77, 2010.

밝히는 데 집중함으로써 운동의 실행 주체가 되는 노동자들의 대응에 대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상대적으로 ‘아래로부터의 시각’, 즉,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원인을 규명하려는 흐름의 연구 경향은 주로 노동자 조직으로서의 직업총동맹(이하 ‘직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주목하였다.<sup>18)</sup> 직맹에 주목한 연구들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직맹을 통해 노동자의 자율성을 파악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되었다. 그렇지만 실제의 연구들은 자료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직맹 조직 자체가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지닐 수 있었는가 여부, 직맹의 노동자 동원·통제 기능에 대한 평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노동자의 자율성 여부는 직맹 연구를 통해 온전히 밝혀지지 못하였다. 또한 노동자가 직맹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또한 노동자의 노동, 생활, 복지 등에서 직맹이 행한 역할을 규명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제도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한편, 김연철은 사회주의 경쟁운동 과정에서 모범노동자, 노력영웅, 천리마기수들이 상층 사회이동을 하는 부분도 강조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참여 동기에 대해 일부 설명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아래로부터의 입장에 선 연구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당시 북한 노동자의 인식과 행위를 당사자의 입을 빌려 밝히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다. 부분적으로나마 노동자 의식에 대해 다룬 연구들이 이를 극복해보려고 하고 있으나,<sup>19)</sup> 인간의 의식이란 다면적이고, 그 범위도 어떤 의견이나 태도부터 고도의 추상적인 사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므로 자료와 방법론 측면에서 역사학에서 다루

18) 박정진, 「북한의 ‘생산정치(Politicis of Production)’와 노동자 조직의 성격변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권오윤, 「해방 후 노동조합으로서 북한 직업동맹의 성격 변화(1945~1950)」, 『北韓研究學會報』8권 1호, 2004; 권오윤, 「북한의 변화추진 가능세력으로서 직업총동맹의 검토」, 『大韓政治學會報』13권 2호, 2005; 예대열, 「해방이후 북한의 노동조합 성격논쟁과 노동정책 특질」, 『역사와 현실』70, 2008; 박장희, 「정전 후 북한 노동자 조직의 성격 변화 - 1953~1958년을 중심으로-」, 『사람』34, 수선사학회, 2009; 조수룡, 위의 글, 2010.

19) 윤해숙, 「북한 대중 동원 정책의 전개와 노동의식의 변화(1946-1961)」,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남근우, 「북한 노동문화의 형성과 균열에 관한 연구: 공업화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50-4, 2010; 이세영, 「1950년대 북한 노동자층의 형성과 의식 변화」, 『한국사연구』163, 2013.

기 쉽지 않은 난점이 있다.

한편, 북한의 노동자는 전체 인민의 일부분이면서,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에서 전체 인민의 가장 선진적인 존재로서 위치지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인민 형성을 다루는 연구경향은 노동자 이해와 연관성이 있다. 북한사와 남북한 비교사 연구에서 인민 형성의 중요성을 제안한 연구로는 김성보가 있다.<sup>20)</sup> 김성보는 남북 지배층의 대민 인식을 분석하여 남북의 인간개조의 역사적 연원을 찾고, 양자가 상호 공통된 욕망을 담지하고 있었음을 밝혔다. 그것은 체제에 충성하며 성실하게 노동하여 산업화의 과제에 부합하는 ‘근대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었다. 다만 김성보의 연구는 북을 노동을 통한 인간개조, 남을 교육을 통한 것으로 대비하였는데, 북한에서도 교육은 중요한 인간개조의 수단이었으며, 남한에서도 ‘산업전사’ 이데올로기와 같이 노동을 통한 인간개조가 강조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비교의 폭이 협소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정체성이란 지배층이 만들려고 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인민이 자신들을 호명하는 방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자신들이 처한 조건 속에서 어떤 욕망을 갖고 대응해 가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인민 형성 문제를 접근한 연구 흐름 속에는 한성훈도 위치지을 수 있다. 그의 연구는 사회학적으로 국가 폭력을 통해 주조되어 간 근대적 인민형에 대한 분석을 문제의식으로 하고 있다.<sup>21)</sup> 저자는 근대국가의 국민 형성에 관한 다양한 서구 이론들을 통해 북한 인민의 형성을 이해하였는데, 특히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국가 구성원과 정치적 주체로서 북한의 인민이 형성되었으며, 이는 1958년에 완결되었다고 결론지었다. 이 연구의 주된 검토 시기가 1950~1958년에 국한되는 점, 인민의 정체성의 기원을 전쟁 경험 하나만으로 설명 가능한지는 보다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인민은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해가는 주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958년으로서 인민 형성이 완결되었다고

20)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韓國史研究』144, 한국사연구회, 2009; 김성보, 「1960년대 남북한 정부의 인간개조 경쟁」, 『역사와 실학』53, 역사실학회, 2014.

21) 한성훈, 『전쟁과 인민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 돌베개, 2012.

보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상의 연구성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자의 본령인 노동이란 곧 생산현장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따라서 생산현장의 과제와 그에 대응하는 노동자의 행위를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노동 자체가 생산현장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노동자를 집단 주체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그렇기에 노동자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생산현장에서 작업반 조직이 노동자들의 연대를 가능하게 할 수 있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4) 자료

본 연구를 위해 아래와 같은 자료를 주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북한 노동자의 실천과 생각에 최대한 접근하기 위하여 『로동자신문』을 활용하였다. 『로동자신문』은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서, 1946년 2월 9일 창간되었다. 신문 자료가 근현대사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인 문헌 자료임은 두말할 나위 없으나, 현재 북한에서 간행된 신문 자료는 『로동신문』을 제외하고는 국내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 없다. 설령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 습득과 활용은 법적, 현실적 제약이 매우 크다. 『로동자신문』은 북한에서 모든 근로계층을 포괄하는 사회단체인 직업총동맹의 기관지로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 신문에는 직맹 조직들과 활동과 경험, 직맹원들과 노동자들의 각종 소식, 교양 자료, 과학기술 지식, 외국 노동계급과 직맹조직들의 활동 등을 담고 있으며, 4면 구성으로 격일~주3일 발행하였다. 현재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으나, 러시아국립도서관 동양분관에 소장중인 자료 중 1950년대 전 분량과 1960~62년 분량을 개인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기에 본 연구에 크게 활용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로동신문』도 함께 활용하였다.



또한, “오체르크(실화문학)”를 통해 북한 노동자들의 생각과 활동을 추적하고자 하였다. 오체르크는 소련,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권 문학에서 등장하는 독특한 장르 구분이다. 오체르크는 “엄중히 현실적 사실을 요구하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서사적 작품군(群)을 의미한다.<sup>22)</sup> 북한에서는 오체르크를 구체적이며 현실적 사실들을 기록하고, 그 안의 인물들은 실제 현존한 사람들이며, 그 사건들은 일정한 지역과 연관되는 산문으로 정의하였다.<sup>23)</sup> 이 장르의 자료들은 45년 이후 리태준의 『쏘련 기행』, 백남운의 『쏘련 인상』 등 기행문 형식으로 나온 것을 비롯하여,<sup>24)</sup> 1950년대에 꾸준히 생산되었으며, 1961년경 실화문학으로 장르 명칭이 변경되었다. 오체르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대상은 노동자, 농민 등 근로인민들이며, 작가가 실제로 현지 공장 등에 취재를 나가 수집한 사실에 기초하여 쓰여졌다는 점에서, 비록 문학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긴 하지만 현장의 살아 숨쉬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료로서 활용 가치가 높다.

모범적인 노동자들의 활동에 대해서 다룬 수기나 경험집류의 자료도 활용 가치가 있다.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기는 『강철전사의 수기』, 『천리마작업반장의 수기』, 『건설작업반장의 수기』 등이 있으며, 국내에는 없지만 러시아국립도서관 동양분관에 소장되어 있는 수기류도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이 자료들의 주인공들은 북한 체제에 충성스러운 모범노동자, 노력영웅이라는 점에서 체제선전용, 일반 노동자 교양 목적을 지닌 자료라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의 노동 정형, 노동자들 간의 갈등, 정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등에 대해 제법 상세히 밝혀준다는 점에서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22) 이영미, 「북한의 문학 장르 오체르크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413쪽.

23) 리효운, 「문학 장르 오-체르크에 관하여 - 창작 방법을 중심으로-」, 『문학예술』5권 12호, 문예출판사, 1952. 12, 128쪽.

24) 리효운, 앞의 글, 1952, 133쪽.

소련이 해체된 이후, 소련의 비밀문서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이른바 ‘문서고 혁명’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서구에서 사회주의권 연구는 큰 변화를 겪었다. 북한사 연구 또한 이 러시아 자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러시아 자료의 가장 큰 이점은 북한이 생산한 자료들과 달리, 어떠한 기밀정보라도 내용상의 여과 없이 사실 그대로를 전달한다는 점이다.<sup>25)</sup> 따라서 러시아 자료들을 활용하여 북한의 공식 문헌에 나타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교차 검증이 부분적이거나 가능해졌다. 다만 러시아 자료는 말 그대로 러시아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우선 언어적 장벽이 있으며, 자료 수집을 위해서 상당한 재원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에 개인 차원에서 수집 및 활용이 쉽지 않은 난점이 있다. 그럼에도 국내외에서 꾸준히 러시아 문서가 번역되고 있기에 본 주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와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의 자료를 번역한 『러시아문서 번역집』 시리즈, 『러시아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소련군 주요 장성들의 기록인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쉬띠꼬프 일기』, 『레베데프 비망록』 등을 활용하였다.

비록 한국어 번역 자료는 아니지만 북한 경제에 관한 중요한 러시아 자료 번역집으로 기무라 미쓰히코(木村光彦)가 편역한 『旧ソ連の北朝鮮經濟資料集 1946-1965年』(知泉書館, 2011)가 있다. 이 자료집은 K. 웨더스비(Weathersby)와 기무라 미쓰히코가 수집한 러시아 외무성공문서관과 국립경제공문서관의 자료들 중 가치있는 자료를 선별해 일본어로 번역한 편집물이다. 1946년부터 1965년에 이르는 북한의 공업·농업·상업·화폐개혁·금융재정·무역 등의 전반적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풍부한 통계와 정보들이 이 자료집에 수록되었다.<sup>26)</sup> 해당 시기 북한 경제 건설의 난맥상, 노동 문제, 노동자 동향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북한관계사료집』70~80권에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

25) 김재웅, 앞의 책, 2018, 16쪽.

26) 김재웅, 앞의 책, 2018, 17쪽.

문서들을 원문과 함께 번역·수록하고 있다. 이 자료들은 특히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 북한 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특히 73~76권은 당시 북한 주재 소련 대사들의 업무 일지 자료로서, 북한 공식 문서에 드러나지 않는 내부 실상을 소련과 연결된 북한 고위층 인사들을 통해 직접 획득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외에도 러시아국립도서관 동양분관에서 수집해온 국내에 없는 해당 시기 북한 단행본, 연속간행물 등도 활용하였다.

## 5) 구성과 내용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이른바 민주건설기인 1945~1950년 사이 제기되는 노동 문제와 노동자의 대응을 살펴보도록 한다. 1절은 해방 직후 북한 산업 분야의 난맥상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 지도부와 노동자, 소련의 노력과 결과에 대해 살펴본다. 2절에서는 민주개혁의 실시가 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과 일상에 어떤 변화를 주었으며, 노동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다룬다. 3절에서는 북한이 점차 경제를 정상화하는 가운데 노동자들 중에서 등장한 모범노동자에 대해 분석하고,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추적한다.

3장에서는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노동의 성격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 분석하고, 노동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산업화의 전단계로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고자 한다. 1절에서는 전쟁과 정전 이후 노동력과 생산력이 급감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해갔는가를 살핀다. 2절에서는 파괴된 공장 복구 및 조업 재개와 도시의 복구 건설 과정에서 노동자를 비롯한 인민들은 무엇을 해야 했는지, 그리고 전후 복구 건설 과정에 주어진 ‘사회주의적 형제국가’들의 원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한다. 3절에서는 줄어든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급증한 신규 노동자들의 존재가 생산현장에 어떤 변화를 야

기하였는지, 그리고 노동자와 관리자 간에 생산을 둘러싼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가는지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1차 5개년계획이 시행되면서 북한이 본격적으로 산업화를 진행시키는 시기를 다룬다. 1절에서는 북한이 어떤 상황 속에서 산업화를 추진하며, 그것을 풀어나간 군중운동의 변천 과정에 대해 이해한다. 2절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부딪히는 각종 난제들에 대해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추적한다. 3절에서는 작업반을 단위로 한 연대 의식의 강화가 북한 노동자들의 적극성 발양을 위해 어떻게 작동할 수 있었으며, 그 귀결에 대해 추적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마지막 5장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제1차 5개년계획을 거치며 형성되는 북한의 노동자 계급의 성격과 실천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 2. 노동자의 민주개혁 참여와 인민경제 건설

### 1) 해방 직후 경제적 어려움과 극복 노력

#### (1) 노동자·기술자의 절대 부족 현상과 공장 복구 과제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의 해방은 분명 민족적 경축일이지만, 오랜 기간 구축되어 온 제국-식민지 경제구조가 하루아침에 단절된 일대 사건이며, 한반도의 38도선 분단으로 인해 조선 자체의 경제구조 또한 박살난 재앙의 날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조선의 산업시설을 장악하고 있던 일본인 자본가, 기술자들은 대다수 공장, 광산 등의 주요시설을 파괴, 방화, 침수시키는 사보타주를 감행함으로써 북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는 거의 생명을 잃기 직전이었다.

그런 가운데, 해방 직후 각 지역 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각 기업, 공장에서 노동자들 자신에 의한 접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sup>27)</sup> 그렇지만, 일본인들이 자체적인 방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커다란 공장, 기업들에 대한 접수는 소련군이 들어온 이후 소련군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개 일본인이 도망친 중소기업에서 노동자들에 의한 접수, 관리가 이루어졌다.<sup>28)</sup>

이 시기 북한 산업 분야에서 노동자의 부족 현상은 심각한 문제였다. 우선 일제강점기에 조선 북부 지역의 공업지대에서 노동을 하던 다수의 이남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절대적인 노동자 부족 현상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해방 직후의 산업 마비로 인한 휴업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노동자들은 공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군대 창설 또한 노동력 부족현상의 한 원인이 되었다.<sup>29)</sup> 또한, 토지개혁의 실시로 인하여

27) 서동만, 앞의 책, 2005, 111~112쪽.

28) 전현수 편저, 『쉬피꼬프 일기(1946~1948)』, 국사편찬위원회, 2004, 3쪽; 이주철, 앞의 글, 1997, 182쪽.

29) 일제하 노동문제 관련하여서는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2006; 박건홍, 『

농민에서 노동자로의 유입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려워졌다. 1950년대에 노력영웅이 되는 주병선이 신의주 방직공장의 노동자가 된 것이 1948년 1월이었는데, 그 또한 선뜻 노동자가 되기를 결심하지는 못하였다. 공장에 취업하기 위해 기껏 토지개혁을 통해 얻게 된 자기 땅을 내어놓기가 쉬운 결정은 아니었던 것이다.<sup>30)</sup>

노동력의 부족, 특히 숙련 노동자의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는 데에는 노동당과 정권도 한몫을 하였다. 당과 정권기관에 필요한 간부 부족을 메꾸기 위해 다수의 고참 노동자들을 지방 당 및 정권기관 간부, 생산기업 간부, 사회단체 일꾼으로 등용하였다.<sup>31)</sup> 흥남비료공장의 예를 들면, 다수의 노동자들이 간부로 진출한 결과 1947년 12월 말 현재 4년 이상의 공장 근무연한을 지닌 노동자·기술자는 2,830명, 그 중 6년 이상은 1,079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전체 공장 노동자의 3분의 1에 불과한 숫자였다.<sup>32)</sup> 북로당 제2차 대회에서 채택된 결정서는 일제강점기부터 “기본 생산노동자로 동일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사업에 종사한 로동자”를 지도적 지위에 등용한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 생산에 많은 실적을 올린 ‘모범노동자’를 중앙위원이나 후보위원으로 발탁하고 있었다. 중앙위원(5명)에 김고망(사동탄광 모범노동자), 김직현(아오지탄광 노동자), 최숙량(성흥광산 노동자), 리중근(함남고원선 철도기관사), 김태련(길주펄프공장 노동자) 등, 후보위원(4명)에 리영화(흥남비료공장 모범노동자), 박원술(신창탄광 채탄부, 모범노동자), 박영화(황해제철소 노동자, 공장당 간부), 최광렬(덕산탄광 모범노동자, 북조선인민회의대의원) 등이었다.<sup>33)</sup>

이 시기 산업 부문 노동자의 증감 추이에 대해서는 북한과 소련에서 나오는 수치들이 있는데, 서로 다르기에 정확한 수치를 논하기가 어렵다. 뒷 시기

---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신서원, 2001 참조할 것. 서동만, 앞의 책, 2005, 284쪽.

30) 리직, 「10년간」, 『조선문학』13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7, 21~23쪽.

31) 서동만, 앞의 책, 2005, 287쪽.

32) 리국순, 「흥남비료공장 로동자들이 걸어 온 승리의 길」, 과학원역사연구소근세및최근세사연구실 편, 『력사문집 제4집(사회주의건설편)』, 과학원출판사, 1960, 194쪽.

33) 서동만, 앞의 책, 2005, 299~300쪽.

인 1958년도 북한 자료에 의하면 1946~1950년 북한 평균 재적 노동자 수의 증가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1945~1950년 평균 재적 노동자 수 (단위 : 천 명)

연 도	1946년	1947년	1948년	1949년	1950년
평균 재적 노동자 수	260.0	367.6	442.6	565.0	465.0

출처 : 『조선중앙년감』 1958년도, 조선중앙통신사, 1958, 178쪽(이하 『조선중앙년감』 인용년도까지만 표기한다).

이에 따르면 1946년 평균 26만 명이었던 노동자들이 1949년에는 56만 5,000명까지 증가하였다가, 한국전쟁으로 인해 46만 5,000명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서 평균 재적 노동자의 범주는 어디까지인지 불분명하다. 농민을 제외한 것은 확실하지만, 산업 노동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국영과 민간기업 노동자를 다 합친 것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노획문서에서 발굴된 인민위원회 기획국의 통계들을 엮은 자료에 따르면 1946~1948년 국영 부문 종업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2> 1946~1948년 국영 부문 월평균 종업원 수 (단위: 명, 매년 말일 현재)

연 도	1946년	1947년	1948년
인 원	116,948	129,363	124,157

출처 : 『1946·1947·1948년도 北韓經濟統計資料集』,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57쪽, 151쪽, 227쪽을 재구성.

\* 1948년 수치는 예정 숫자이다.

이 수치는 국영 부문에 속하는 일반 노동자, 숙련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을 합산한 수치이기에 노동자만의 수치를 구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비록 국영 부문의 비중이 크다 하더라도 개인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수를 알 수 없는 점도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한편 소련군 측 자료에서는 1946년 북한

지역 공업 종사자는 11만 8,906명으로, 일제 치하의 24만 9,000명에 비해 48%로 격감한 상황이었다.<sup>34)</sup> 또 다른 소련 자료에서는 북한의 광공업 분야에는 1946년 12만 7,960명, 1947년 12만 9,960명, 1948년 13만 4,663명이 노동하고 있었다. 그 종사자의 구성은 <표 3>과 같이 변화하였다.<sup>35)</sup>

<표 3> 1946~1948년 광공업 분야 종업원의 구성

분 류	1946년	1947년	1948년
1. 노동자	107,191	88,591	91,534
2. 숙련노동자	-	29,993	34,199
3. 기술자	1,778	1,378	1,338
4. 사무원	9,937	7,998	7,608
합 계	118,906	127,960	134,679

출처: 김선안 역, 『번역집 29』, 2017, 281쪽; 木村光彦 編譯, 「資料 17. [北朝鮮産業の資料]」, 『旧ソ連の北朝鮮經濟資料集 1946-1965年』, 知泉書館, 2011, 124쪽, 표 21을 재구성.

\* 1946년 수치는 『번역집 29』에 나온 것으로, 노동자와 숙련노동자의 구분이 없다.

\*\* 원문 내용과 표에 나오는 1948년 종업원 합계가 상이하다. 원자료 작성 과정, 또는 편집 과정의 오류로 보인다.

북한과 소련의 수치가 어느 정도 불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기획국 통계와 소련군 통계의 불일치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다른 소련 자료에서 개인기업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숫자를 1947년 6만 8,733명, 1948년 7만 1,549명, 1949년 7만 3,850명으로 별도 집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sup>36)</sup> 위 자료들은 국영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기술자·사무원을 아우른 수치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련이 집계한 수치는 생산일자가 다른 여

34) 김선안 역, 「1947년 3월 28일자 북조선 상황 보고」, 『러시아문서 번역집 XXIX -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ABIP),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PTACIII)』, 선인, 2017, 281쪽. (『러시아문서 번역집 XXIX』는 이하 『번역집 29』로 표기함.)

35) 木村光彦 編譯, 「資料 17. [北朝鮮産業の資料]」, 『旧ソ連の北朝鮮經濟資料集 1946-1965年』, 知泉書館, 2011, 124쪽.

36) 木村光彦 編譯, 「資料 22. 報告: 北朝鮮の鐵道と鑛工業」, 위의 책, 2011, 181쪽.



러 보고서들에 산재되어 있기에 같은 기준과 분류로 집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1958년 『조선중앙년감』에 실린 것에 비해 당대 자료들은 해방 직후 노동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시간이 흘러도 종업원 증가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은 당시 노동자 확보가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셋째, 이는 또한 숙련 노동자와 기술자가 부족한 현실도 알 수 있게 한다.

북한 지역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1948년 1월 1일 현재 부양가족을 포함한 북한의 노동 인구는 전체 인구의 19.35%인 178만 9,191명에 달했다. 부양가족을 제외한 총노동자 수 51만 5,299명 가운데 국영기업·소비조합기업 노동자 수가 25만 1,766명, 민간기업 노동자 수가 6만 8,822명, 계절노동자 수가 19만 4,711명으로 집계되었다. 일시적으로 고용된 계절 노동자의 비중이 전체 노동자의 37.8%에 달했다는 점은 북한의 노동력 부족난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또한 드러내 주고 있었다.<sup>37)</sup>

노동력 부족은 곧 생산의 차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다. 1948년 7월, 소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제철, 석탄, 전기공업은 생산계획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근본적으로 노동자가 부족하여 산업시설을 충분히 가동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성진금속공장에서는 노동자 부족으로 전기제강로 11기 중 5기만 가동할 수 있었다. 강선금속공장은 노동자 부족으로 3교대를 할 수 없어 2교대로 전환해야만 했다.<sup>38)</sup>

이 시기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김일성도 그 심각성을 언급하고 있었다. 김일성은 1948년 열린 남북조선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북한 지역에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솔직히 말한 바 있다. 또한, 분단정권 수립 이

37) 김재웅, 앞의 책, 2018, 343쪽.

38) 木村光彦 編譯, 「資料 16. 報告: 1948年7月北朝鮮の經濟·政治狀況」, 앞의 책, 2011, 99쪽.

후인 1949년 11월에는 토지개혁 이래 공업 분야에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노동력이 매우 줄어들었기에 조직적으로 노동력을 보충하는 사업과 이미 근무 중인 노동자들을 직장에 고착시키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노동자들의 숙련도나 노동의 강도에 따라 보수에 현저한 차이를 두도록 임금제를 정비할 것, 둘째, 노동력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노동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노동조건 개선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기계화를 진척시킬 것, 둘째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 대책의 마련, 특히 주택과 문화시설을 서둘러 공급할 것, 셋째, 노동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 그것이었다.<sup>39)</sup>

북한 지도부 또한 이러한 기조에서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해방 직후에는 주로 빈농 계층에서 산업 노동자를 충원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토지개혁의 결과, 농촌으로부터 자연 이농이 거의 사라지게 되자, 토지개혁으로 인해 재정적 기반을 상실한 중농, 부농, 상인, 지주와 자본가 출신, “떠돌아 다니던 건달군”, 산지 농민이나 화전민, 도시 무정직자(無定職者), 인민학교 또는 중학교 중퇴자로서 취업해야 할 자, 여성 노동력 등 다양한 계층에서 신규 노동자를 확보하려는 조치들이 취해졌다.<sup>40)</sup> 1947년 3월 4일 인민위원회 결정 제1호 “노동소개소 설치에 관한 결정서”를 발표하여, 평양, 신의주, 진남포, 해주, 원산, 함흥, 청진, 성진 등 9개 도시에 노동소개소를 설치하였다.<sup>41)</sup>

39) 김일성, 「북조선 정치정세 - 남북조선 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에서 한 보고(1948년 4월 21일)」, 『김일성 저작집 4』, 조선로동당출판사, 1979; 김일성, 「새 환경과 새 조건은 새로운 사업태도를 요구한다 - 산업부문경제 및 직맹열성자대회에서 한 연설(1949년 11월 19일)」, 『김일성 저작집 5』,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40) 조정아, 산업화 시기 북한 공장의 노동규율 형성 - 교육과 동원의 결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7-1, 북한연구학회, 2003, 158~159쪽; 鄭義烈, 「勞力需給事業을 成果있게 保障하자」, 『로동』1, 로동성, 1949. 3, 70~71쪽; 金章烈, 「火田農民의 職場轉出에 關한 內閣決定의 正確한 實施를 爲하여」, 『로동』5, 1949. 12, 69~73쪽; 박임선, 「二개년인민경제 계획과 로력수급 및 정착에 관한 몇가지 문제」, 『인민』4권 12호, 1949(『북한관계사료집 39』, 국사편찬위원회, 2003, 407쪽. 『북한관계사료집』은 이하 『사료집』으로 약칭한다.); 윤행중, 「2개년 인민경제계획과 1950년도의 보다 높은 성과를 위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인민』1950년 1호, 1950, 29~34쪽.

41) 「勞動紹介所設置에 關한 決定書(北朝鮮人民委員會決定 第一號)」, 『사료집 5』, 1987, 726쪽.

그런데, 신규 노동자 확보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이나 기능을 갖춘 노동자, 즉 숙련 노동자의 절대적 부족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당시 소련 문서에 따르면 북한 산업의 생산이 차질을 빚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는 기술 간부의 부족현상이었다.

기업소에서 기술직을 차지하고 있는 조선인 간부들의 기능 정도는 완전히 형편없는 수준이다. 왜냐하면 이들 중 대다수가 기술교육을 다 마치지 못한데다가 일본 치하 때는 부수적인 직책에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sup>42)</sup>

예컨대, 철도 노동자들의 경우,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고 석탄으로 증기기관차를 가열하는 과정을 제대로 습득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들의 미숙련 때문에 1945년에 101대의 증기기관차가 전소되었다.<sup>43)</sup> 1947년도 당시 공업기술자의 부족 상황은 고급기술자 5백여 명, 중급기술자 1천여 명에 달하였다.<sup>44)</sup> 앞서 언급한 1948년 소련 보고서에서도 전기공업 분야에 필요한 기술자, 숙련노동자는 2,320명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로는 단지 합계 852명이 노동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이 분야의 생산계획 달성 실패의 주원인으로 꼽혔다.<sup>45)</sup>

그렇기에 북한 지도부는 1946년부터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고심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결정 제62호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여 전문학교나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닌 기술자는 조선인이건 일본인이건 가리지 않고 관련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일을 하게 하였다.<sup>46)</sup> 또한 중장기적으로 정규 대학 과정을 통한 과학기술자의 양성을 꾀하는 동시에, 기존의 생산 현장에서 새로운 기술자를 숙성으로 키워내고자 하였다. 생산현장에서의 기술

42) 김선안 역, 앞의 글, 『번역집 29』, 2017, 281쪽.

43) 김선안 역, 위의 글, 2017, 296~297쪽.

44) 정준택, 「1947년도 인민경제발전에 관한 예정숫자 실행에 대한 전망」, 『인민』1947년 4호, 1947, 42쪽.

45) 木村光彦 編譯, 「資料 16. 報告: 1948年7月北朝鮮の經濟·政治狀況」, 앞의 책, 2011, 100쪽.

46)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 편, 「기술자 확보에 관한 결정서(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62호)」, 『北朝鮮法令集』, 1947, 47쪽, SA 2005, Box 10, Item 54.

자 양성은 노동자에 대한 공장 단위의 강습, 개별적인 기술 전습, 기술전문학교 교육 등을 통해 진행하였다. 1946년~1948년 사이 공장에서의 기술자 양성과정과 수료 인원은 아래 <표 4>와 같았다.

<표 4> 공장에서의 기술자 양성

훈련 방법	1946년		1947년		1948년		3년간 수료자 합계
	인원	수료자	인원	수료자	인원	수료자	
공장내에서의 강습	944	-	1,505	-	7,902	-	-
기술전문학교	653	-	787	-	1,478	783	1,436
개별훈련의 조직화	-	-	-	-	36,487	8,576	8,576
합계	1,597	-	2,292	-	46,867	9,359	10,012

출처: 木村光彦 編譯, 「資料 17. [北朝鮮産業の資料]」, 앞의 책, 2011, 124쪽.

<표 5> 1946~1948년 설립된 상설 기술교육기관

교육시설명	개설 연도	1946년 학생수	1947년 학생수	1948년 학생수
생산직장 부속 야간교육기관	1948	-	-	270
기술교육기관	1946	407	709	-
홍남 화학·기술교육기관	1947	-	500	598
교육성 기술학교	-	2,000	5,500	7,900
생산현장 부속·교육성 기술학교	-	-	400	1,900
실업학교	1948	-	-	300
합 계	-	2,407	8,109	10,960

출처: 木村光彦 編譯, 「資料 17. [北朝鮮産業の資料]」, 앞의 책, 2011, 125쪽 재구성.

또한 상설 기술교육기관들도 설립되어 갔다. <표 5>에서 나온 것처럼 3년 사이에 약 1만여 개의 교육기관들이 조직되었다. 또한, 주요 도시와 공업중심지에 1년제·3년제의 기술전문학교가 개설되었다. 3년간 1,360명이 이 학교를 수료하고, 생산현장에서 하급 기술자로 일하게 되었다.<sup>47)</sup>

이런 노력의 결과, 불충분하나마 북한 노동자 수는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

47) 木村光彦 編譯, 「資料 17. [北朝鮮産業の資料]」, 앞의 책, 2011, 124쪽.

다. 1950년 1/4분기에 산업성에 속한 노동자 수는 20만 2,666명이며, 그 중 16만 2,577명은 기간산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구성은 노동자 14만 1,662명(87%), 기술자 3,459명(2.15%), 사무원 1만 2,771명(7.85%), 기타 4,685명(3.0%)으로 이루어져 있었다.<sup>48)</sup> 한국전쟁 직전의 통계에서는 노동자 수는 21만 1,790명으로 집계되었다.<sup>49)</sup> 물론 이 증가세는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것이었다.

노동자 확보 노력과 더불어 강조된 것은 이미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하게 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을 고착시키기 위해서는 임금 인상 및 적절한 차등 지급, 노동자들의 생활 개선, 노동보호 조치 등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노동법령의 시행을 통해 구체화되어 갔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당시 북한 지도부에서 노동력 고착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이 시기에 노동자들이 한 직장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직장을 찾아 떠나는 유동 현상이 심각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는 유동 현상이 노동자들의 규율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해 노동자에 대한 포섭과 통제를 병행하였다. 포섭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생활 안정을 꾀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했다.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후술하겠지만, 민주개혁과 노동법령 제정, 사회보험제 실시, 임금 인상 등이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통제를 위한 방법으로는 ‘노동수첩제’가 실시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전쟁 이후에 노동수첩제가 실시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미 1948년도 2월 4일 제58차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111호로서 생산직장의 노동자·사무원들에게 “노동수첩”을 교부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고, 이에 의거하여 동 4일 북조선인민위원회 노동국이 규칙 제5호로 “노동수첩 규칙”을 발표하였다.

48) 木村光彦 編譯, 「資料 26. 報告: 1950年第1四半期DPRK産業課業」, 위의 책, 2011, 198쪽.

49) 木村光彦 編譯, 「資料 29. 1950年第2四半期·上半期DPRK産業課業報告」, 위의 책, 2011, 213쪽.

이 규칙에 의하여 1948년 7월에 우선 국영생산직장의 종업원들에게 일제히 노동수첩을 교부하였다.<sup>50)</sup>

노동수첩은 노동에 대한 경력, 즉 어느 직장에서 어떤 직위 및 직종에 얼마나 근무하였으며 그 기술기능 정도는 어떠한가며 임금급수는 몇 급을 받았는가 하는 것 등을 기록한 수첩으로, 정당한 수속을 밟아 타 직장에 이동할 때 전 직장에서 받던 대우를 새 직장에서 계속하여 받을 수 있게 증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sup>51)</sup> 북한 지도부는 노동수첩은 노동규율을 강화하며 노동력을 정확하게 배치하고 유동현상을 방지하여 생산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임을 밝혔다.<sup>52)</sup> 즉, 노동자가 제대로 퇴직수속을 밟지 않고 무단으로 직장을 떠나 다른 직장을 찾는 행위를 통제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1950년 6월 9일에는 내각결정 제117호를 통해, 노동자학교 또는 직공양성소의 수료자에게 국영기업에 적어도 2년간 노동할 의무를 부과할 것을 결정하였다.<sup>53)</sup> 이 또한 노동력의 유동을 막기 위한 통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시기부터 시작된 노동수첩제가 어느 정도의 유동성 저하 효과를 보았는지는 미지수였다. 이후로도 노동자들의 유동 현상은 북한 지도부의 골칫거리였기 때문이다. 소련 자료에 의하면 노동수첩제가 실시된 이후인 1949~1950년에도 노동자들의 유동 현상은 여전히 높은 비율로 계속되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6>과 같았다.

1949년 2/4분기에는 취업한 수의 80%에 육박할 정도의 노동자들이 다시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떠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1950년 초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노동자들의 유동현상이 줄어들지 않는 것은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

---

50) 尹義燮, 「勞動手帖制를 正確히 實施하여 勞動者의 技術技能을 향상하자!」, 『로동』1, 1949. 3, 74쪽.

51) 尹義燮, 위의 글, 1949, 75~76쪽.

52) 金民道, 「民主主義勞動規律의 強化에 對하여」, 『근로자』17, 1948(『사료집 45』, 2005, 502쪽).

53) 木村光彦 編譯, 「資料 29. 1950年第2四半期·上半期DPRK産業課業報告」, 앞의 책, 2011, 213쪽.

다. 1947년도 2/4분기에 황해제철소에서는 노동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조치가 미흡하여 686명의 노동자가 떠났다.<sup>54)</sup> 그로부터 2년 뒤인 1949년 8월에도 황해제철소에서는 새로 들어온 노동자들에게 주택과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700명 중 400여 명이 3일 만에 다른 곳으로 떠나고 말았다.<sup>55)</sup>

<표 6> 1949~1950년 노동자들의 유동성 지표

구 분	1949년 2·4분기	1950년 1·4분기	1950년 2·4분기
취업한 노동자 수	27,953	36,322	49,412
줄어든 노동자 수	22,324	28,742	30,461
취업 대비 감소 비율	79.5%	79.0%	61.5%

출처: 木村光彦 編譯, 「資料 29. 1950年第2四半期·上半期DPRK産業課業報告」, 앞의 책, 2011, 213쪽.

## (2) 소련의 지원과 소련 기술자의 기술 원조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경제건설에 있어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소련의 지원이었다.<sup>56)</sup> 해방 직후 상황에서 소련 주둔군은 우선 자체의 전문가, 기술자를 동원하여 조업 재개에 주력하였다. 소련군 대좌 코르쿨렌코(Korkulenko)가 소련주둔군 총사령관 직속 산업고문에 임명되었으며,<sup>57)</sup> 휘하의 177명의 소련인 전문가들은 공장의 복구 및 가동을 위한 사업을 전개했다.<sup>58)</sup> 소련인 전문가는 주요 228개 기업의 재건과 시동을 직접 지휘하였다.

54) 「황해제철소 전반기 생산 예정수자 실행에 있어서 당단체의 협조정형에 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40차 회의 결정서, 1947년 7월 31일)」, 『사료집 30』, 1998, 245쪽.

55) 「산업부문 경제 및 직맹 열성자 대회에서 진출한 김일성수상의 총결 연설」, 『근로자』1949년 22호, 1949(『사료집 52』, 2007, 282쪽).

56) 소련의 대북 원조와 관련해서는 다음 연구들이 자세하다. 백준기, 「소련의 북한 전후 복구지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I』,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이시연, 「북한 원조의 정치 경제학 : 1950년대 소련 중국 동유럽 사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Agov, Avram Asenov, “North Korea in the Socialist World: Integration and Divergence, 1945-1970”,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0.

57) 木村光彦 編譯, 앞의 책, 2011, 105쪽.

58) 김선안 역, 앞의 글, 『번역집 29』, 2017, 278쪽.

또한 중소 504개 기업의 재건과 시동에 필요한 조연과 기술원조를 제공하였다. 당시 직장 재건의 큰 문제는 기술간부와 숙련노동자의 부족, 일본인에 의해 파괴되어 결여된 기술서류, 교환·예비부품과 보조·주요자재의 부족 등이었다.<sup>59)</sup>

북한에 주둔한 소련군은 본국을 향해 북한 산업 재건을 위한 원조를 요청하였다. 소련 정부의 실질적인 원조는 1946년경부터 시작되었는데, 종전 직후 소련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상당한 규모의 식료품, 연료 등을 제공하였다.<sup>60)</sup> 또한 소련군은 본국에 기술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1946년 6월 1일 시점에서 소련군은 북한의 중공업 분야 재건만 따져봐도 적어도 150~160명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요청하였다.<sup>61)</sup> 시티코프는 동년 12월 10일에도 82명의 기술자와 4명의 사무원을 파견해달라고 모스크바에 요청하였다.<sup>62)</sup> 그에 따라 다수의 기술전문가들이 소련에서 파견되어 들어왔다. 소련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은 당시 기술자가 극히 부족하여 곤란을 겪고 있던 북한 산업 분야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은 1946년 한해 동안에만 24개 주요 산업 시설의 공장장들에게 기술교육을 시행하였고, 511명의 직공장과 약 5,000여 명의 숙련공들에게 현장 교육을 실시하였다. 1947년에는 100여 명의 공장장들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고, 319명의 기술자, 933명의 직공장, 1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교육을 이수하였다.<sup>63)</sup> 그런 가운데, 소련군은 일단 ‘적산’으로 접수하였던 공장, 기업 등 1,034개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소관으로 이전하였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1946년 8월 10일 산업국유화 법령<sup>64)</sup>을 발표하여 이 기업들을 국유화하였다.<sup>65)</sup>

59) 木村光彦 編譯, 「資料 17. [北朝鮮産業の資料]」, 앞의 책, 2011, 106쪽.

60) 백준기, 앞의 글, 2001, 680쪽.

61) 木村光彦 編譯, 「資料 9. [1946年の産業狀況]」, 앞의 책, 2011, 46~48쪽.

62) 전현수 편저, 앞의 책, 2004, 47쪽. 지금까지 슈티코프, 쉬딕코프 등으로 쓰여 온 Штыков는 국립국어원 러시아어 표기법에 따르면 시티코프라고 쓰는 것이 정확하다.

63) 백준기, 앞의 글, 2001, 681쪽.

64) 자료는 『사료집 5』, 1987, 177쪽.

65) 『주북한소련민정국 3개년 사업총결보고: 1945년 8월~1948년 11월』,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



소련인 전문가들은 1948년 소련군의 철수와 함께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렇지만, 1949년 3월, 북한과 소련 사이에 ‘경제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소련의 교수요원 및 기술전문가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sup>66)</sup> 이 때 들어온 전문가들은 청진금속공장, 자동차 조립 공장, 고무제품공장, 선탄(選炭)공장 등에 새로운 생산기법 등을 전수하고, 변압기, 전기모터, 금강석 베어링 생산기술을 지원했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북한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전황에 의하여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소련으로 돌아갔으나, 일부는 다시 북한에 들어와 계속 기술지원을 하기도 하였다.<sup>67)</sup>

북한 지도부에서도 북한의 산업 분야가 조업을 재개하고 생산을 증대할 수 있었던 원인은 오직 소련의 원조와 선진과학<sup>68)</sup>으로 무장한 소련인 기술자들의 지도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고 찬사를 보냈다.<sup>69)</sup> 또한 1949년에 소련인 기술자·전문가들이 다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환영하였다. 국가계획위원장 이었던 정준택은 1949~1950년 2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 건설하기로 예정된 공장에 대한 선진적인 기술적 설계가 필요하며, 기술자도 부족하다고 토로하였다. 따라서 협정 체결에 따라 소련에서 설계를 지원하여 주고, 기술자를 파견하게 됨으로써 실로 곤란한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며 기

---

관소, 6쪽.

66) 태성수, 「조소량국간의 경제 및 문화협조에 대한 협정과 우리공화국의 변영 발전의 一年」, 『인민』5권 3호, 1950, 72쪽.

67) 박鐘濤 편, 「1954년 1월 5일 평양 주재 소련 대사관 2등 서기 삐뜨로프가 정리한 소련이 북조선에 제공한 기술 원조에 대한 참고자료」, 『러시아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I』, 선인, 2010, 54~55쪽.

68) 소련의 과학, 기술, 작업방법 등이 정말 ‘선진적’인가 여부는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당시 북한 지도부는 소련이 고도의 산업 및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인식 하에 일제가 남겨놓은 산업시설, 기계, 기술보다 소련의 그것을 보다 선진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당대의 역사적인 용어로서 ‘선진’을 이해하고 사용하고자 한다. 해방 후 북한 정권과 지식인들의 소련 인식에 관해서는 이세영, 「1945~1950년 북한의 과학기술과 근로인민 형성에 대한 인식」, 『동방학지』174, 2016. 참조.

69) 조달봉, 「소련기사들의 방조로 조선산업은 면모일신」, 『로동자』조소조선 특별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1, 39~40쪽.

빠하였다.<sup>70)</sup>

소련인 전문가들의 도움에 힘입어 해방 후 1년이 지난 1946년 9월경, 북한에서는 합계 822개의 기업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물론, 소련 입장에서 소련인 전문가들의 노력은 단지 ‘재능 기부’는 아니었다. 그들의 도움으로 조업을 재개한 기업의 제품 대부분은 소련에 수출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출을 통해 입수한 자금은 북한 기업의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지불과 산업에 필요한 당면 과제를 위해 지출되었다.<sup>71)</sup>

실제로 황해제철소는 소련인 기술자들의 힘으로 복구 건설되었다고 할 정도였다. 해탄기술자인 가리질로후 기사와 제강기술자 아-아 일리인 기사, 그리고 압연기술자 제바킨 기사들은 황해제철소를 복구시키는데 주도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리질로후 기사는 일제강점기에 쓰던 코크스탄(cokes, 짐결탄)의 원료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배합법으로 석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조선인 기술자들을 지도하며 직접 협조하여 주었다. 일리인 기사는 불진정강(non-killed steel)을 생산할 수 있게 지도하여 주었다. 불진정강은 탄력이 있고 용접이 용이하여 보일러나 철강선 건조 등에 다량으로 필요한 생산품이었다. 제바킨 기사는 압연 가열로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무순탄과 와사를 대신하여 국산 석탄과 화태탄(사할린산 석탄)을 혼합 사용하는데 성공하여 품질향상과 원가저하에 도움을 주었다.<sup>72)</sup>

함북탄전은 일제의 파괴로 인하여 부흥 가능성이 없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으나,<sup>73)</sup> 소련인 기술자들의 실질적인 지도와 생산방법 개조로 완전히 복구될 수 있었다고 평가받았다. 광산기술자인 시스라니꼬브 기사와 아베링 기사는 해방 직후 함북탄전을 답사하고 복구 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직접 현장에

70) 정준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맹 방문사업 경과보고에 대한 토론」,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國土統一院, 1988, 457~458쪽.

71) 木村光彦 編譯, 「資料 17. [北朝鮮産業の資料]」, 앞의 책, 2011, 106쪽.

72) 조달봉, 앞의 글, 1948, 40~41쪽.

73) 김두만, 「쏘련채탄기사들의 방조로 탄주식 채탄을 장벽식으로」, 『로동자』조쏘친선 특별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1, 64쪽.

나가 지도하였다. 두 기사는 함북탄전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하던 탄주식 채탄법과 잔주식 채탄법 대신 장벽식 채탄법으로 전환할 것을 지도하였고, 새 채탄법을 갱도에서 직접 전수하였다.<sup>74)</sup> 그 결과 고참탄광, 하면탄광, 학포탄광, 궁심탄광 등 각 탄광에서는 장벽식 채탄법을 실시하여 생산능률을 1945년도 대비 1947년도에는 284%로, 노동생산성도 1947년 대비 1948년도에는 183%로 제고할 수 있었다.<sup>75)</sup>

기초공사만 끝난 채로 파괴된 강선제강소도 소련인 기술자들의 활동으로 건설될 수 있었다. 특히 소련에서 제강공장 지배인 경험을 가진 풀빈 기사의 역할이 컸다.<sup>76)</sup> 풀빈 기사는 1947년 9월부터 1948년 1월까지 무게 2,500 톤에 달하는 선재 압연기의 설계를 지도하였다. 또한 당시 자체 생산이 불가능 하였던 수도용 파이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는 “만일 당신들이 못 만들면 내가 해줄 터이니 파이프 공장을 만들어 놓자”고 북한 기술자와 노동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기존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수입하여 오던 칠드 롤(chilled roll)을 자체 생산할 수 있게끔 롤 주조 성분 조정법, 주조법 등의 기술을 전수하였다.<sup>77)</sup> 철도 운송 부문에 있어서도 소련인 기관사들이 파견되어 북한 기관사들에게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였다. 1946년 10월 소련의 기관사와 기관조수들이 파견되어 당시 운송 사고를 빈발하고 있는 북한 기관사들을 지도하게 되었다.<sup>78)</sup>

소련인 기술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선진기술을 전수하여 주었다. 아오지 탄광의 김직현, 고건원탄광의 정승수, 주을탄광의 유영록 이외 많은 노동자와

74) 조달봉, 앞의 글, 1948, 41쪽.

75) 김두만, 앞의 글, 1948, 64쪽.

76) 조달봉, 앞의 글, 1948, 41~42쪽.

77) 김원만, 「쏘련기사의 기술적 방조로 강선제강소는 복구되었다」, 『로동자』조쏘친선 특별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1, 58~59쪽. 그 밖에도 『로동자』조쏘친선 특별호에는 홍남인민공장 류산공장을 복구하는데 중요한 원조를 제공한 구리고레프 기사, 해주 기계제작소의 아르지난프 기사의 사례 등이 실려 있다.

78) 김정호, 「뽀나도리 기관수에게 운전기술을 배우던 때를 회상하면서」, 『로동자』조쏘친선 특별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1.; 이정화, 「모범로동자가 되기까지」, 『로동자』1949년 11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기사들이 소련인들의 경험을 작업에 도입하여 성과를 거두었다.<sup>79)</sup> 물론, 그 전제 조건은 소련의 기술이 일본의 그것보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이어야 했다. 소련인 기술자들은 실제 작업에서의 모범, 강좌 개설, 기술지도서의 작성·보급 등을 통해 북한 노동자·기술자들에게 소련과 다른 나라의 생산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sup>80)</sup>

그러면 소련인 기술자들의 지도를 받은 북한 노동자들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당시 문헌에서는 북한의 산업이 일제의 파괴와 기형성을 벗어나 균형적인 발전에 들어선 것은 오직 소련의 선진경험을 가진 수많은 기사들의 땀흘린 결정으로 보장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였다.<sup>81)</sup> 북한 노동자들의 눈에 비친 소련인 기술자들은 기술 수준이 우수한 것은 기본이고, 누구나 친절하였다. 김정호는 뽀나도리 기관수가 언제나 몸 아낄 사이 없이 운전, 점검, 투탄, 급유에 이르기까지 친절히 기술을 전수하여 주었다고 회상하였고,<sup>82)</sup> 조명수는 섬유화학기사 찌스토프가 몸소 각 현장으로 나와 우리들의 손을 잡아가면서 그의 풍부한 경험과 선진적 기술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의 훌륭한 기술과 친절한 태도 때문에 모든 노동자들이 그를 경애하였다고 기억하였다.<sup>83)</sup>

소련인 기술자들의 친절함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기술자들의 태도와 대비하여 더욱 빛나보였다. 리정화가 시글로 기관사와 미카라이 기관사의 친절한 지도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제강점기에 무엇을 좀 알려고 물어보면 “우루사이요(うるさいよ)”하며 도리어 화를 벌컥 내는 일본인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인 기사는 무엇을 물어보아도 상대가 이해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sup>84)</sup>

---

79) 김두만, 앞의 글, 1948, 64쪽.

80) 木村光彦 編譯, 「資料 17. [北朝鮮産業の資料]」, 앞의 책, 2011, 123쪽.

81) 조달봉, 앞의 글, 1948, 44쪽.

82) 김정호, 앞의 글, 1948, 70쪽.

83) 조명수, 「현지보고 - 소련기사 찌스토프씨와의 반년간」, 『로동자』1949년 10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52쪽.

84) 리정화, 앞의 글, 1949, 76~77쪽.

또한 북한 노동자들은 일본인 기술자들에 비하여 소련인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기술을 전면 공개한다는 점도 높이 평가하였다.<sup>85)</sup> 씨쓰또브 기사가 1주 2회씩 고급반과 초급반으로 나누어 실시한 기술 이론 학습은 공장 노동자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sup>86)</sup> 그리고 소련인들의 성실하고 치밀한 작업 태도도 인상적으로 기억되었다. 황해제철소 복구를 지원나온 소련인 기사들은 그 날 할 일을 다음날로 미루는 일이 없었으며,<sup>87)</sup> 소련인 기관사들은 발차 전에 세밀하게 기관차의 기계 상태를 검사하고, 혹시 어느 기관이 조금이라도 위험하거나 불량 부분이 있다면 결코 발차를 하지 않았다.<sup>88)</sup>

소련인 기술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함께 일을 한 노동자들은 자신의 기술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소련인들이 보여준 우호적인 태도에 감격하며 친선의 정을 나눌 수 있었다. 소련은 북한의 기술자들이 소련인의 도움을 받아 이전의 일본인 기술자들이 하던 업무를 대체해 가는데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다.<sup>89)</sup>

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다 소련 기술자들에게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1950년 6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결정서에 따르면, 당시 일부 광산들에서는 “낡은 기술에 인습되어 선진적 기계 기구의 사용방법을 태만하고 자기의 기술을 고집하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즉 소련의 기술과 기계가 현장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그리고 “쏘련 기술자들의 기술적 지시를 등한시하는 경향”에 대해서도 지적되었다.<sup>90)</sup> 기술자들 사이에서 “자기 기술에 자만자족하여 쏘련 과학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는 이들이 문제라는 당의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노동당 중앙조직위원회는 일부 기술자들

85) 김문웅, 「현지보고 - 건설의 투사들」, 『로동자』1949년 10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39쪽.

86) 조명수, 앞의 글, 1949, 52쪽.

87) 김문웅, 앞의 글, 1949, 39쪽.

88) 이정화, 앞의 글, 1949, 75쪽.

89) 『번역집 29』, 2017, 281쪽.

90) 「생산직장내 기능로동자 양성사업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제14차 회의 결정서)」, 1950년 1월 4일(『사료집 29』, 1998, 502~504쪽).

이 낮은 기술과 낙후한 이론을 고집하는 경향들에 대하여 날카로운 사상투쟁을 전개하고, 소련 기술 보급에 필요한 러시아어 학습을 조직할 것을 결정하였다.<sup>91)</sup> 여기에는 기층에 존재한 ‘반소감정’도 일정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 해방 직후 소련군의 일탈상, 물자 징발과 반출 행위 등으로 인해 북한 사회에는 반소적인 분위기가 생겨났다. 이는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해소되어 갔지만, 여전히 기층에서는 반소감정의 표출행위가 나타나곤 하였다.<sup>92)</sup>

## 2) 민주개혁으로 인한 노동조건급변

### (1) 노동법령의 실시와 노동자의 인식

1946년 3월의 토지개혁에 이어 실시된 일련의 ‘민주개혁’ 조치는 북한 지역 인민의 삶에 극적인 변화를 주게 되었다. 민주개혁이 갖는 정치적 목적이나 신체제 건설 도상에서의 의의는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이 조치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노동력의 확보와 고착화, 그로 인한 북한 경제의 안정화, 노동자의 정권 지지도 향상 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민주개혁은 보다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당시 소련은 민주개혁이 무엇보다도 도시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여건들을 조성하게 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sup>93)</sup> 즉, 노동법령을 비롯한 민주개혁의 제반 조치들은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의 하나였다.<sup>94)</sup>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 취해진 일련의 노동법령들은 아래 <표 7>과 같다.

91) 「2개년 인민경제계획 실행에 있어서 기술인 단체들의 역할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조직위원회 제16차 회의 결정서)」, 1950년 1월 16일(『사료집 29』, 1998, 416~418쪽).

92) 김재웅, 앞의 책, 2018, 490~495쪽.

93) 『주북한소련민정국 3개년 사업총결보고: 1945년 8월~1948년 11월』,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7쪽.

94) 『번역집 29』, 2017, 233쪽.

<표 7> 1946~1950년 북한의 노동법령

시 기	제 목
1946. 8. 18.	노동자 및 사무원 봉급에 관한 결정서
1947. 3. 4.	노동 소개소 설치에 관한 결정서
1947. 5. 29.	산업 운수 부문의 도급제 및 노동 능률 제고를 위한 특별 배급제와 상급제에 관한 결정서
1947. 8. 20.	기업소, 사무소 내부 정리 규칙
1947. 8. 29.	평균 임금 계산 규정
1949. 11. 29.	노동 간부 양성소 설치에 관하여
1949. 11. 4.	휴가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
1949. 12. 27.	노동자 임금 개정에 관한 결정서, 노동자 임금 적용에 관한 규정
1949. 12. 8.	특수 기능자 우대에 관한 규정
1950. 1. 31.	국가 기관, 사회 단체, 협동 기관, 기타 일반 기업소 및 사무 기관의 노동자, 사무원에 대한 노동 내부 질서 표준 규정
1950. 3. 15.	단체 계약 체결에 관한 결정서

출처 : 위로부터 『北韓法令集 4』, 大陸研究所, 1990, 299쪽, 247쪽, 200쪽, 279쪽, 304쪽, 240쪽, 248쪽, 293쪽, 307~308쪽, 244쪽, 283쪽, 270쪽; 차문석, 앞의 책, 2001, 33쪽에서 재인용.

일련의 민주개혁 조치들은 노동자들의 생활을 향상시켜 그들이 노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하며, 지도부와 지도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와 충성심을 높여려는 의도가 있었다. 민주개혁의 조치들, 예컨대 8시간 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등은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노동권으로 생각되었지만, 일제하의 극악한 노동환경에서 견뎌야 했던 당시 노동자들에게 이는 ‘혁명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한편 이 시기 시장 물가 인상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올라가고 있었기에 더더욱 생활 안정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소련군은 북한의 물가 상승 지속, 생필품 부족 현상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동향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조사하였다. 1946년에서 1년 사이에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의 시장가격 인상은 아래의 <표 8>과 같았다.

그들은 상당수의 노동자와 사무원들이 생필품 부족과 그에 따른 고물가, 그리고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을 표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sup>95)</sup> 평안남도 서룡광

산 노동자 한인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민주 국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하루하루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받는 급료로는 15일밖에 못 지냅니다. 나머지 15일은 간신히 연명할 수밖에 없습니다.”<sup>96)</sup>

북한 지도부는 물가 인상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쳐 생필품의 국정가격 인하 조치를 취하였지만, 많은 상품의 가격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 지속되었다.<sup>97)</sup>

<표 8> 1946~1947년 북한의 물가 인상 동향

품 목	단위	46.1.1. 기준 시장가격(평균)	47.1.1. 기준 시장가격(평균)
쌀	kg	15	56~80
조	kg	12	46~10
고량	kg	8~50	33~40
감자	kg	6	20~30
고기	kg	50	151~00
생선	kg	35	42~70
고무신	켈레	85	317~90
내복	벌	50	567~60
본건	m	30	295~00
성냥	곽	4	11~60
세탁비누	kg	10	44~60

출처: 김선안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XXIX -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Р),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 선인, 2017, 235쪽.

이런 가운데, 1946년 6월 24일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29조, “제9차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에 대한 결정서”의 공포를 통해 노동법령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법령의

95) 전현수 편저, 앞의 책, 2004, 69쪽; 『번역집 29』, 2017, 234쪽.

96) 『번역집 29』, 2017, 235쪽.

97) 木村光彦 編譯, 「資料 17. [北朝鮮産業の資料]」, 앞의 책, 2011, 124쪽.



내용은 제1조에서 8시간 노동제(제2조에서 유해환경/지하노동은 7시간), 제3조에서 14~16세 소년 노동의 6시간 제한, 제4조에서 14세 미만의 유소년 노동 금지, 제5조에서 시간외 노동은 1년 동안 250시간으로 제한, 제7조에서 동일노동/동일기술의 노동자에 대한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는 동일임금 지불, 제12조에서 1년에 최소 2주일간의 정기 휴가, 제14조~제17조에서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 제18조에서 의무적 사회보험제의 제정, 제20조에서 노동보호 대책의 강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98)</sup> 당시 북한의 노동법령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것의 하나로 평가받았다.<sup>99)</sup> 그렇지만, 노동법령이 실시된지 3년이 지난 1949년에도 8시간 노동제를 위반하고 시간외 노동을 시키는 경우, 임금 지불에 있어서의 파행, 문화시설·복지시설의 정비 부족, 여성 노동자의 제한적 고용 사례 등 노동법령 위반사례가 나오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제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sup>100)</sup>

이 시기 일련의 노동법령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실감하는 변화들은 크게 봐서 첫째, 노동시간 감소와 임금 인상, 둘째, 사회보험제의 제정과 운영, 셋째, 노동보호 조치의 실시, 넷째, 남녀평등권 법령 제정에 따른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 신장 등이었다. 이 중 노동시간 감소와 임금 인상에 따른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하고, 여기서는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법령의 제정은 그 18조에서 규정하는 의무적 사회보험제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사회보험은 소련의 사회적 소비기금과 유사한 것으로 이는 마르크스가 「고타강령비판」에서 말했듯이 사회주의에서의 국가 개입정책, 재분배정책, 구조정책의 중요한 형태였다.<sup>101)</sup> 레닌과 볼셰비키 또한 일찍부터 사회보험 도입을 주장하였다. 1917년 10월, 러시아의 국가권력을 장악한 볼셰비키는 당

98) 자료는 『사료집 5』, 685~688쪽.

99) 이주철, 앞의 글, 1997, 193쪽.

100) 원기년, 「로동행정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로동』2, 1949. 6, 74쪽.

101) 송두율, 『소련과 중국: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한길사, 1990, 98쪽.

새 후인 19월 29일, 각종 사회보험 조치의 채택을 예고하는 법령을 발표하였으며, 굴곡을 거치면서도 사회보험 제도는 소련에서 정착하여 나갔다.<sup>102)</sup>

북조선인민위원회는 노동법령에 의거하여 1946년 12월 19일에 사회보험법을 제정 발표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947년 1월 24일에는 전 북조선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사회보험의 효과를 발생케 하였다.<sup>103)</sup> 사회보험은 우선 노쇠, 질병 또는 노동력을 상실한 경우에 정상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도록 물질적으로 원조하는 각종 보조금, 연휴금, 의료상 방조(치료) 등의 사업과 둘째, 노동자, 사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증진과 이병률 저하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한 요양소, 정양소, 휴양소, 탁아소, 의료상 방조(예방) 등 기타 각종 보건 및 문화 시설의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sup>104)</sup> 즉, 사회보험은 의료보험, 퇴직금, 연금 등 일련의 사회보장제도를 하나로 합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제도의 혜택은 노동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sup>105)</sup>

사회보험에 관한 비용은 노동자·사무원이 자기의 임금의 1%를 부담하는 이외의 전 비용은 국가 및 기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혜택은 평균 화폐임금의 10% 이상이 되는 것으로 당시 북한 지도부는 파악하고 있었다.<sup>106)</sup> 그들은 사회보험제를 통하여 노동자·사무원 및 부양가족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물질적 보상과 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노동자들이 생산직장에서 안심하고 생산능률을 제고시키는 한편 노동에 대

---

102) 소련에서의 사회보험제도의 추이에 관해서는 조준배, 「소련 사회보험제도의 기원: 질병급여 지급소에서 사회보장 현장까지」, 『서양사연구』47, 한국서양사연구회, 2012; 조준배, 「복지국가를 향하여?: 스탈린 공업화와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1933~34」, 『동국사학』50, 동국사학회, 2011 참조.

103) 로수익, 「직장위원회의 사회보험 협조사업에 대하여」, 『로동자』1949년 5호, 북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1949, 5쪽.

104) 李樂默, 「社會保險의 長成과 成果」, 『로동』3, 로동성, 1949, 7, 44쪽.

105) 노동자 중에서는 사회보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개인기업들이 그 부담으로 인하여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가나 소비조합, 사회기업소에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임금의 5~8%인데 비하여 개인기업소의 부담은 10~12%에 달하였기 때문이었다(李樂默, 위의 글, 1949, 52~53쪽; 이주철, 앞의 글, 1997, 194쪽).

106) 李樂默, 위의 글, 1949, 43·49쪽.

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sup>107)</sup>

그에 따라 우선 노동자들은 의료상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 사회보험법이 발표된 1947년 1월 24일부터 1949년 3월까지 급부종류별로 그 혜택을 받은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자 사무원(피보험자)에 대한 무료치료 연(延) 인원 5,988,893명
2. 노동자 사무원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상 방조(비용의 60% 혹은 70%를 방조) 연인원 3,399,774명
3. 일시적 보조금 연인원 2,788,075명
4. 산전산후 77일간의 휴가에 대한 임금 전부를 보장하는 보조금 실(實)인원 2,121명
5. 해산비 영아양육 부조금 및 영아부조금 실인원 2,516명
6. 피보험자로서 입원방조를 받은 자 연인원 551,510명
7. 피부양자로서 입원방조를 받은 자 연인원 122,715명<sup>108)</sup>

그리고, 노동자들은 1947년 2월부터 휴양소, 요양소 등에 입소할 수 있게 되었다. 첫 휴양소 입소자는 20,300명, 요양소 입소자는 990명으로 집계되었다.<sup>109)</sup> 1947년 4월 18일, 북로당 중앙상무위원회는 오기섭에게 요양소와 휴양소의 보수, 내부 시설의 정비, 입소자들을 위한 신문, 잡지, 서적, 장기, 바둑, 운동용품, 라디오의 구입, 그 밖의 준비 사업 일체에 관해 위임하였다.<sup>110)</sup>

주를 휴양소를 이용했던 신유선탄광 채탄부 김두석의 수기를 보면, 당시 휴양소의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휴양소는 하루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이는 아래 <표 9>와 같았다.

107) 로수역, 앞의 글, 1949, 5쪽.

108) 李樂默, 앞의 글, 1949, 44~45쪽.

109) 「북조선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노동법령 발표 1주년에 관하여(북조선로동당 중앙상무위원회 제36차 회의 결정서, 1947년 5월 29일)」, 『사료집 30』, 1998, 216쪽.

110) 「노동자 기술자 및 사무원들을 위한 요양소와 휴양소 설치계획에 대하여(당 중앙상무위원회 제 31차 회의 결정서, 1947년 4월 18일)」, 『사료집 30』, 1998, 183~184쪽.

시간표에는 자유시간이 많은데 낮의 자유시간에는 제각기 즐기는 운동을 하고 밤이면 가끔씩 오락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휴양소에서의 식사는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하게끔 구성되어 있었으며, 퇴소시에는 휴양자들의 체중을 측정하여 일일이 통계를 작성하였다.<sup>111)</sup> 당시 북한 지도부는 노동자들이 휴양소 등을 이용하고 건강이 증진되는지 여부를 체중 증가에서 찾았다.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곧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건강이 좋아지면 노동생산성도 높아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평양사동탄광 채탄부 리길수는 1949년 봄에 신천정양소에서 정양을 마치고 돌아와 체중이 2 Kg 증가되고 생산책임량을 입소 전에는 120%로 실행하던 것을 퇴소 후에는 208%로 수행하였다.<sup>112)</sup>

<표 9> 휴양소의 일과표

시 간	일 정
6시 30분~6시 40분	기침, 침구 정리
6시 40분~7시 10분	점명[점호?], 보건체조
7시 10분~7시 30분	세면, 실내 및 정원소제
7시 30분~8시 30분	아침식사
8시 30분~12시	자유시간
12시~13시	점심시간
13시~18시	자유시간
18시~19시	저녁식사
19시~21시 30분	자유시간
21시 30분~21시 50분	점호
21시 50분~22시	소등, 취침

출처: 김두석, 「오늘의 휴양은 내일의 증산」, 『로동자』1949년 6호, 북조선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56~57쪽.

정권 입장에서 사회보험제도는 노동자들을 직장에 고착시키고 규율을 강제

111) 김두석, 「오늘의 휴양은 내일의 증산」, 『로동자』1949년 6호, 북조선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57~59쪽.

112) 李樂默, 앞의 글, 1949, 46~47쪽.

하는 방법으로 쓰이기도 하였다. 사회보험의 혜택은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적으로 골고루 돌아가기보다는 노동경력, 특히 중단 없는 계속적 노동경력(입사 후 7개월)이 있을 때 우선 보장받을 수 있었다.<sup>113)</sup> 예컨대 휴·정양소 이용, 의료상 지원 등에서 그러한 차등을 두었다. 기존 연구자들은 이 점에서 사회보험 운용에 대하여 비판적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1948년 6월 24일, 북조선인민위원회 제149호 결정에 의하여 노동자·사무원들(피보험자)은 취업 당일부터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상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도 참작해야 할 것이다.<sup>114)</sup>

1948년 2월 4일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는 제110호 결정으로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에서 작업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였다. 이 규정은 생산 부문의 특성과 관련하여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의 종류와 범위,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노동위생 시설과 조치, 특별히 여성 노동자와 소년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 취해야 할 노동보호 조치의 종류와 범위 등 총칙 포함 6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sup>115)</sup> 그리고 이를 집행하기 위한 노동보호 감독기관을 설치하였다. 또한 1948년 6월 4일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148호로써 각 생산 현장에 안전기사·기수를 배치하여 노동자들의 작업에 안전에 대해 감독하도록 하였다.<sup>116)</sup>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노동보호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기에 북의 노동보호 조치는 시급히 필요하였으며, 또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정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노동법령에서 규정한 일련의 노동보호 조치들은 곧바로 제정과 시행에 들어가게

113) 李樂默, 위의 글, 1949, 51쪽.

114) 로수억, 앞의 글, 1949, 5쪽.

115) 로동성 로동과학 연구소 편,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북조선 인민위원회 결정 제110호, 1948년 2월 4일), 『로동법규집 제1부』, 국립출판사, 1954, 79~86쪽.

116) 金成律, 「勞動災害와 豫防對策」, 『로동』1, 1949. 3, 83쪽.

되었다. 1948년 9월까지 노동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만 7,243개소의 위험 장소를 퇴치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였다. 예컨대, 흥남비료공장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배소로(焙燒爐) 사이의 높이가 약 6~9 m나 되는 위험한 장소에 널조각 한 장을 놓고 건너다니던 것을 해방 후에는 널빤지를 넓게 깔고 손잡이를 튼튼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였다. 승호리시멘트공장에서도 중앙창고 크레인대 위에 일제강점기에 널빤지를 깔지 않아 노동자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도 있었는데 해방 후에는 발판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1948년도의 노동재해 건수는 1/4분기에 비하여 2/4분기는 72.4%로 저하하였으며 재해 빈도는 1/4분기 10.1%에서 2/4분기 7.8%로 저하되었다.<sup>117)</sup> 1949년도에는 원동기 및 동력기계·기대의 노동안전시설 및 갱내 안전시설 총 16만 3,104건, 노동위생·환기시설 803건, 제진시설 2,772건, 방독시설 1,291건, 방열시설 1,085건, 기타 방음·조명·방한·방온시설 총 5만 9,103건을 설치하였으며, 직장 진료소 992개, 직장 목욕탕 7,136개, 그리고 1,149개소의 여성 위생실도 설치하였다.<sup>118)</sup>

생산현장마다 노동보호가 필요하였을 터이지만, 특히 탄광·광산은 갱도의 붕괴, 낙반 사고, 지하수나 가스 유출, 폭발물 오발 사고, 분진에 의한 질병 등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였다. 탄광·광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대개 목숨과 직결될 정도로 위험한 것이었으나, 일제는 조선의 탄광·광산 등에 아무런 안전시설도 하지 않았기에 조선의 탄광·광산 노동자들은 위험, 건강에 대한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안전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일본인들은 전쟁기간 동안 닥치는 대로 난굴하였으며, 패전 직후 다수의 탄광·광산을 파괴·침수하고 갱내 참고도면까지 불살라버렸기에 복구 및 조업재개 과정 또한 극히 곤란한 상황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 없었다.<sup>119)</sup> 그렇기에 탄광·

117) 金成律, 위의 글, 1949, 83~84쪽.

118) 고창훈, 『노동보호 실제 사업에 있어서의 제문제』, 국립출판사, 1955, 25~26쪽.

119) 홍지훈, 「탄광에 있어서의 안전시설」, 『로동자』2,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집행위원회, 1948. 6, 40~41쪽.

광산에서의 노동보호 조치는 매우 시급한 것이었다.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노동국에서는 1947년 6월 12일, “해로운 조건을 가진 생산부문과 지하노동 및 보충적 휴가를 주어야 할 직업원 종목에 관한 규정”을 규칙 제6호로 정하였다. 이는 노동법령 제2조에서 유해 노동과 지하노동의 범주에 들어갈 직업 종목을 규정하라고 되어 있었기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다. 지하노동자의 범주는 지하 3 m 이하에서 상시 일하는 자로 규정되었으며, 당연히 탄광·광산 노동자들 중에서 갱내에서 작업하는 이들을 칭하는 것이었다. 지하노동자는 또한 보충적 휴가를 받아야 할 특별히 해로운 직업 종목에도 포함되었다.<sup>120)</sup>

상기하였던 “노동보호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탄광·광산의 책임자는 낙반, 가스 폭발, 화약류 사용 등의 위험 여부를 검사하고 필요한 안전 대책 및 노동보호 시설을 갖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또한 권양장치로 승강해야 하는 수직갱이나 40도 이상의 사갱(斜坑)에는 반드시 다른 비상용 탈출로를 설치해야 했다. 또한 분진이나 유해가스에 대한 방호용구를 노동자들에게 무료로 대여하여야 하며, 필요한 의료 기기와 약재를 비치할 책임도 부과되었다.<sup>121)</sup>

한편, 지하노동자의 노동시간이 일반 노동자보다 1시간 짧은 이유 중 하나는 분진이 많이 날 수 밖에 없는 갱내에 사람이 오래 머물면 규폐증(硅肺症)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기 때문이었다. 규폐증은 무수규산이 폐에 쌓여 발생하는 병으로, 당시 북한 노동자들은 흔히 굽병이라고 불렀다. 규폐증은 폐 조직을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sup>122)</sup> 1947년 3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보건국에서는 규폐증을 직업병으로 규정하였으며, 광산·탄광에서의 노동이 규폐증의

---

120)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 편, 「해로운 조건을 가진 생산부문과 지하노동 및 보충적 휴가를 주어야 할 직업원 종목에 관한 규정(노동국 규칙 제6호, 1947년 6월 12일)」, 앞의 책, 1947, 248쪽, SA 2005, Box 10, Item 54.

121) 고창훈, 앞의 책, 1955, 140~145쪽.

122) 배영기, 『생산 직장에서의 노동 위생』, 국립출판사, 1955, 26~28쪽.

발병 원인이 된다고 인정하였다.<sup>123)</sup>

분단정권 수립 이후인 1948년, 북한에서는 내각결정 제27호,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향상 대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고, 이 결정에 따라 동년 11월 1일부터 탄광·광산 노동자들에게는 식량 배급량이 200 g 더 증가하여 하루에 900 g을 배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동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노동보호 물자인 방독면, 보호의류, 장갑, 보호안경, 보호화, 영양제, 그 밖에 작업복과 노동화 등 필수품을 1949년 1월 1일부터 무상 대/급여하기로 결정하였다.<sup>124)</sup>

이처럼 일제하에 비해 노동보호 조치가 적극적으로 취해졌지만, 생산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완전히 사라질 순 없었다. 해방 이후 3년간의 안전사고 원인과 빈도는 아래와 같았다.

1. 안전시설과 노동보호구를 장비치 않은데서 원인 된 것이 38%
2. 교양이 부족하여 본인의 주의심을 환기시키지 못한 데에 원인이 된 것이 30%
3. 작업방법과 조작이 불충분한데서 원인이 된 것이 21%
4. 기술부족에 원인이 된 것이 7%
5. 로력조직을 정밀히 하지 못한 데에서 원인 된 것이 2%<sup>125)</sup>

역시 가장 많은 비율은 생산현장의 안전시설과 노동보호 장구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고, 다음으로는 본인 부주의에 의한 것이었다. 정권과 관리자 측에서 적극적으로 노동보호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면, 작업 중 사고의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노동보호 조치의 필요성은 매우 높았으며, 또한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

123)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 편, 「직업병 규칙(보건국 규칙 제2호, 1947년 3월 20일)」, 앞의 책, 1947, 212쪽, SA 2005, Box 10, Item 54.

124) 韓昌南, 「勞働者 事務員들의 生活水準改善向上對策에 關하여」, 『근로자』21, 1948(『사료집 46』, 2005, 470쪽).

125) 金成律, 앞의 글, 1949, 85쪽.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노동보호 사업을 형식적으로 실행하는 직장들이 존재하였다. 흥남제련소에서는 니켈 가루 분쇄기 모터의 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청진제강소 선별실 각층에 설치한 추락 예방 울타리는 간격과 높이가 적절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료도 적당하지 않았다. 또한 일부 직장에서는 안전시설을 다시 뜯어 치우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의 “조작법 위반” 등 개인의 잘못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sup>126)</sup>

한편 당시 소련에서는 북한의 민주개혁 중 가장 큰 성과는 남녀평등권법령으로 꼽았다. 이 법령에 근거해 여성들은 남성과 동등한 정치, 경제적 권리를 획득하였고,<sup>127)</sup> 노동 분야에 있어서도 여성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모성 보호가 가능해짐에 따라 여성의 생산직장 진출이 용이해지는 획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 남성 노동자들에 비해서도 더욱 혹심한 차별 대우를 받아왔기에, 노동 현실의 변화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제 여성 노동자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산전·산후 보조금, 영아양육비 등의 노동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며, 여성 노동자가 많은 직장에는 탁아소, 아동공원, 급유소, 위생실 등을 설치하여 어린 아기를 맡기고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었다. 또한 유아를 가졌다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하거나, 임금을 인하당하지 않게 되었으며, 임산부 또는 만 1세 이하의 유아를 가진 어머니에 대한 임의 해고도 불가능하게 되었다.<sup>128)</sup>

이에 따라 여성들이 생산 분야에 보다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여성 노동자들의 진출 증가율을 1946년 말을 100으로 보면 1947년 말에는 117.8%로, 1948년 말에는 161.3%로, 1949년 3월 말에는 179.1%로 급속

126) 尹祥鎬, 「工場安全施設에 對하여」, 『로동』2, 로동성, 1949. 6, 35~36쪽.

127) 『번역집 29』, 2017, 230쪽.

128) 리금순, 「로동법령과 녀성」, 『로동』3, 로동성, 1949. 7, 76~77쪽.

히 늘어났다. 이것을 남성 노동자들에 대비하여 보면 1946년 말에는 남성의 7%, 1947년 말에는 8%, 1948년 말에는 10%, 1949년 3월 말에는 11%로 여성 노동자들의 진출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29)</sup>

평양연초공장의 경우 국가가 경영하는 탁아소 시설이 완비되자 136명의 가정부인이 공장에 들어왔다.<sup>130)</sup> 유경숙은 가정부인의 생산직장 진출이 여성 노동에 있어 큰 변화의 원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과거에는 여성의 노동은 결혼 전까지의 일시적 노동으로 인식되었고, 실제로 그러하였기에 기술 숙련이 요구되는 중요한 작업에 여성들이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여성 노동이 미혼 전의 일시적 노동이 아니라 항구적 노동으로 변화해 감으로써 그 숙련도가 향상되고 그만큼 노동자로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었다.<sup>131)</sup>

조선무공장 노동자 홍복수는 두 차례의 산전산후 유급휴가를 받은 감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왜놈들에게 겪어온 갖은 학대와 천대 중에서도 특히 산모가 받은 천대란 얼마나 혹심하였는가는 로동녀성들이 누구나 다같이 당해온 사실임으로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중략)

이런 환경에서 나는 귀여운 자식을 둘이나 병원 문 밖에도 가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그 때를 생각하면 악이 뻗칩니다.

그러던 것이 해방 후 인민정권의 올바른 시책으로 베풀어진 여러 가지 선진적 법령 중에서도 로동법령은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제일 큰 감명을 주었으며 이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사회보험의 산전산후 유급휴가제의 실시는 우리 로동녀성들을 무엇보다도 기쁘게 하였고, 그 기쁨으로 더욱 증산에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략)

129) 유경숙, 「로동녀성들의 투쟁 - 남녀평등권법령 발표 삼주년을 맞으며」, 『로동자』1949년 7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34쪽.

130) 이 시기 북한 탁아소의 일상에 관해서는 박종모, 「탁아소의 하루」, 『로동자』1949년 6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참조.

131) 유경숙, 앞의 글, 1949, 34~35쪽.

지금 어린애는 내가 아침 출근할 때에 엮어다 공장 탁아소에 마음놓고 맡깁니다. (중략)

더욱이 하루에 네 번씩 젖먹이는 시간까지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가는 아무 탈 없이 순조롭게 자라고 있습니다.<sup>132)</sup>

이런 가운데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1949년 평양철도공장에는 1년 전 7명이었던 여성 노동자들이 32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들은 과거에 맡지 못했던 작업부문을 맡아 남성과 똑같은 도급기준으로 노동을 하고 있으며, 남성 이상의 생산율을 올리는 모범 노동자도 많이 나왔다고 한다. 이 공장의 선반공 김재옥은 “많은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남성 노동자들을 이길 수 없으나 이와 같은 것은 노동행정에서 극히 드문 일이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세밀한 주의력과 밀접한 동작이 더 많은 관계로 높은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이 공장에서는 모두들 이해하고 있다. 우리 공장에서는 노동여성들이 매일 증가하고 있다. 이들 여성 노동자들은 모두 과거와 같이 남성들의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여성으로써의 씩씩한 의지로써 직접생산부문에 서 일하고 있으며 또 그것을 원한다”라고 말하였다.<sup>133)</sup>

1947년도와 1948년도에 인민경제계획이 실시되자 여성 노동자들의 90% 이상이 자기의 책임량을 100%~400%로 완수하였다. 그 중에서 1948년도 연간계획을 11월에 360%로 초과완수하고 1949년도 연간계획을 3월 30일에 102.4%로 초과완수한 평양견직공장의 당운실을 비롯하여 함흥고무공장 김문손, 신의주 방직공장 김정옥, 우옥경, 서흥광산 최숙량, 흥남화약공장 고분순, 남포견직공장 심정희 등은 모범노동자로 인정받았다.<sup>134)</sup>

---

132) 홍복수, 「산전산후의 보호를 받고」, 『노동자』1949년 6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52~53쪽.

133) 유경숙, 앞의 글, 1949, 32~33쪽.

134) 리금순, 앞의 글, 1949, 78쪽.

## (2) 노동시간 감소 및 임금 인상에 따른 일상의 변화

노동법령 제정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8시간으로 감소하였으며, 임금도 인상되어 갔다. 노동시간 감소와 임금인상은 노동자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주었다. 노동시간이 감소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여유 시간이 생겨났다. 노동자들은 여유 시간을 활용하여 ‘자기 계발’을 할 기회가 생겨났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교육의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일 것이다. 교육 기회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전망하게 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였다. 특히 일제하에서 이른 나이에 공장에 취업하여 배울 기회를 얻지 못했던 미성년 노동자들은 6시간 노동 이후 성인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sup>135)</sup>

그리고 앞서도 다루었듯이, 해방 이후 일본인의 철수로 기술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게 되었기에 노동자를 기술자로 양성하는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지면서, 노동자들은 기술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이 늘어났다. 흥남비료공장과 같이 규모가 큰 공장·기업소들은 주야간 기술학교, 기술전문학교, 경리사무원 양성소 등을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기술교육에 힘을 쓰거나, 속성 성인학교를 설치하여 문맹퇴치사업을 벌이기도 하였다.<sup>136)</sup> 원산조선소를 탐방한 김귀는 조선소 자체적으로 고등기술원양성소를 비롯하여 기능자양성소, 초급기술원양성소, 야간공업전문학교 등의 교육망을 갖추고 있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고등기술원양성소 학생들은 대부분이 실제 작업경험을 가진 노동자들로 1년간 단기학습을 받고 졸업하면 공업전문 출신과 동등한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공장 노동자들은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 학교에 등교하여 4시간 씩 수업을 받고 밤 10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갔다.<sup>137)</sup> 또한 비록 학교를 다니

135) 南宮滿, 「製絲工場記」, 『朝鮮文學』장간호, 北朝鮮文學藝術總同盟, 1947. 9, 261쪽.

136) 신승만, 「날로 향상되어가는 로동자의 물질문화생활」, 『로동』1, 로동성, 1949. 3, 62쪽.

137) 김귀, 「현지보고 - 원산조선소의 하루」, 『로동자』1949년 4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34쪽.

지 않는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은 직장 내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학습할 기회도 늘어났다.<sup>138)</sup>

교육 기회의 확대와 함께, 여유 시간을 통해 문화생활을 영위할 기회가 늘어났다는 점도 중요하였다. 노동법령 실시 이후, 북한에서는 각 직장 내에 다양한 문화시설과 복리시설을 설치하여 노동자들에게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권장하였다. 규모가 큰 공장에서는 구락부(클럽), 도서실, 영화관, 휴게소, 운동장, 무용장, 오락시설 등을 갖추고, 주택지구엔 탁아소, 아동공원, 오락실, 도서실 등을 설치하였다. 예컨대, 흥남비료공장에서는 문화구락부 20개소, 문예씨클이 40개, 민주선전실 139개소, 노동회관, 극장, 운동장과 문화씨클 조직 18개, 연극 18단체, 무용 19개로 이에 망라된 인원은 1,753명이었으며, 체육씨클로는 축구, 농구, 수영, 배구, 육상, 체조부, 역기, 권투 등에도 참가하고 있으며 매월 혹은 정기적 공연회와 경기회를 열었다.<sup>139)</sup>

그 결과 북한 전체적으로 볼 때, 1949년 3월 말 현재, 직장 문화씨클의 수는 4,380개로 참여인원 6만 5,643명, 영화관을 포함한 구락부 수가 157개, 도서실 3,775개, 직장민주선전실 7,907개, 대형 체육단 4,975개로 그 성원은 27만 6,701명을 포괄하였다. 1949년도 1·4분기 3개월 동안 북한의 노동자들은 자기 손으로 1만 3,897회의 운동회를 개최하였다. 문화씨클이 공연을 가진 횟수는 254회, 연극 공연 967회, 음악 3,443회, 무용공연 1,548회, 미술전람회 112회 등이었다.<sup>140)</sup> 조수룡은 이러한 문화시설이 노동자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가하였다. 그렇지만,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기존에 향유할 수 없었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할 수는 없다.

평양연초공장에서는 무용씨클 활동이 활발하였는데, 그 결과 1949년에는

138) 본사기자, 「함북탄전 답사기」, 『로동자』2,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집행위원회, 1948. 6, 43쪽; 박철, 「증산에 돌격하는 원산철도공장」, 『로동자』5,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0, 55쪽.

139) 신승만, 앞의 글, 1949, 62쪽.

140) 최호동, 「로동법령과 문화건설」, 『로동』3, 1949. 7, 88쪽.

무용씨클원 중에서 두 사람이 노동자 극단에 들어갔고, 또 한 사람인 정옥순 노동자는 내무성 협주단에 들어가기도 하였다.<sup>141)</sup> 문화사업을 통해 새로운 재능을 개화시킬 기회를 얻은 것이다. 꼭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시 노동자들은 노동이 끝나면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씨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sup>142)</sup> 노동자들은 씨클에서 음악이나 미술, 연극, 무용, 스포츠 등을 배울 수 있었으며, 단지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극 공연, 전람회, 체육대회 등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작품이나 실력을 드러낼 기회를 갖기도 하였다.<sup>143)</sup> 학포탄광의 연극씨클에서는 1947년도에 23회의 공연을 가졌으며, 1만 3,400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이를 관람하였다.<sup>144)</sup> 심지어, 씨클사업에 너무 도취하여 노동규율을 지키지 않으며 태업을 하는 노동자도 나타날 정도였다.<sup>145)</sup>

이처럼 직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생활은 노동자들에게 직장에 애착을 갖게 하는데 유용하였다. 남포건설공장을 탐방한 고일환은 젊은 여성 노동자들에게 직장문화사업이 매우 긴요하다고 평가하였다.<sup>146)</sup> 또한 직장 내 문화사업을 직맹이 주도하면서, 노동자들은 직맹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었다. 지주부 강일봉은 구락부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상을 표하였다.

7시간 로동을 하는 우리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은 썩 많다. 우리는 이 시간을 구락부에서 보낸다.

구락부에는 각종 오락시설이 되어 있기에 로동의 피로를 풀기에 충분하다.

구락부에서는 때때로 강연회가 조직되기에 우리는 이런 두메에 살면서도 국제정세와 국내정세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락부는 권위

141) 김태선, 「나는 구락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로동자』1950년 1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50, 35쪽.

142) 박철, 앞의 글, 1948, 54~55쪽.

143) 김문웅, 앞의 글, 1949, 38쪽; 박철, 위의 글, 1948, 55쪽.

144) 본사기자, 앞의 글, 1948, 44쪽.

145) 김태선, 앞의 글, 1950, 35쪽.

146) 고일환, 「현지보고 - 남포건설녀공들」, 『로동자』1949년 3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33쪽.

있게 대중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구락부에 존경을 표할 수 있다.<sup>147)</sup>

하면탄광 오병수도 “직업동맹은 오늘 우리들의 어머니와도 갔으꼬마”라며 직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냈다.<sup>148)</sup>

8시간 노동과 더불어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임금을 비롯한 ‘물질적 유인책’의 증가였다. 우선 이 시기에 노동자의 임금이 꾸준히 인상되었다. 임금 인상은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었다. 북한 정권은 노동자들의 증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기본급 자체도 인상하였지만, 도급임금제(성과급제)를 도입하여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임금 격차를 두고자 하였다. 이 시기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몇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1946년 8월 18일 노동자·사무원들의 노력 보수를 규정한 복인위 결정 제66호 봉급표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었으며, 1947년 5월 27일에는 복인위 제37호 결정으로 도급임금제, 상금제 및 도급특배미 실시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고,<sup>149)</sup> 1948년 10월 12일 내각 제6차 회의 결정 제27호로 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의 생활향상 대책에 대한 결정이 발표되었다.<sup>150)</sup> 북한 공식 문헌에서는 공업 부문의 노동자·사무원들의 임금이 아래 <표 10>과 같이 인상되었다고 정리하였다.

<표 10> 1946~1949년 공업 부문 노동자, 사무원들의 임금 증가율(단위 : %)

1946	1947	1948	1949
100	134	146	152.8

출처 : 김춘점,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 『우리 나라의 인민경제발전 1948-58』, 국립출판사, 1958, 367쪽.

147) 본사기자, 앞의 글, 1948, 43쪽.

148) 본사기자, 위의 글, 1948, 44쪽.

149) 예컨대, 흥남비료공장에서 도급제에 참가하는 노동자들은 1개월에 평균 4~5Kg의 식량을 더 받았다(리국순, 앞의 책, 1960, 212쪽).

150) 신승만, 앞의 글, 1949, 58쪽.

북한 지도부는 도급제를 도입하면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1947년 5월, 노동정량을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전 직종에 대하여 임금지불을 도급제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sup>151)</sup> 출근을 저하와 노동유동성 증가의 원인이 ‘평균주의적 임금지불’에 있다고 보고, 일을 더 잘,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열성노동자와 기능공들이 더 좋은 대우를 제공하는 직장을 찾아 계속 이동하게 되어 생산성이 저하된다는 것이다.<sup>152)</sup> 또한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는 노동자가 좋은 대우를 받아야만, 신입 노동자들도 자극을 받고 작업에 대한 흥미를 높여 막연한 유동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sup>153)</sup>

그렇지만, 도급제를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노동의 질과 양을 따져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려면 개별 노동자의 노동의 질과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도급제가 되면 기존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의 불만도 고려해야 했다. 따라서 도급제 시행에서의 난맥상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북한의 문헌에 등장하였다.<sup>154)</sup>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그리고 도급제 실시에 따라 노동의 질과 양에 따른 차등적 임금 지급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노동의 동일성과 차등성을 구분지을 기준이 필요하였다. 이는 또한 한 노동자가 직장을 이동하더라도 자신의 기술·기능 수준에 따라 예전 직장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해줘야 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었다. 그에 따라 북한 지도부는 장차 모든 직종을 아우르려는 목표를 가지고 노동임금표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실제로는 1950년

151) 예대열, 앞의 글, 2008, 237쪽.

152) 로수억, 「정확한 도급제 실시를 위한 몇가지 문제」, 『로동자』1949년 12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50쪽.

153) 근로자편집부, 「로동규율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1949년 14호, 1949(『자료집 50』, 2006, 297~298쪽).

154) 도급제 시행의 난맥상에 대해서는 辛承萬, 「建設部門의 賃金調節 및 都給制의 正確한 實施를 爲하여」, 『로동』2, 로동성, 1949. 3; 채규달, 「正當한 賃金組織은 生産力을 높인다」, 『로동』2, 로동성, 1949. 6; 蔡奎達, 「鑛山炭鑛部門에 있어서의 正確한 賃金制 實施를 爲하여」, 『로동』5, 로동성, 1949. 12; 로수억, 앞의 글, 1949.



1월 1일부터 황해제철소, 본궁화학공장, 흥남비료공장, 홀동광산, 아오지탄광, 룡성기계제작소, 사리원방직공장부터 우선 실시하였다.<sup>155)</sup> 노동임금표의 도입에 대해, 소련 대사관 측에서는 그 결과 도급제가 한층 더 보급되었다고 평가하였다. 1950년 1/4분기에 도급제에 참여한 노동자는 1949년 4/4분기에 비해 16% 증가하여, 전체 노동자의 47.3%에 달하였다.<sup>156)</sup>

임금뿐만 아니라 1949년 8월에는 소득세를 개정하면서, 노동자·사무원의 소득세는 6~20%의 단순 누진세율에서 4~14%의 초과 누진세로 저감되었다. 전체 북한 인민들의 세금 부담은 5~6억원이 경감되었다고 계산되었는데, 이 또한 실질임금을 인상시키는 효과를 가졌다.<sup>157)</sup>

임금 수입의 증가 이외에도 노동자들은 다른 근로자들에 비하여 특별 대우를 받았다. 1947년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특별 대우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노동자들과 사무원들은 직장 내에 설치된 매점에서 시장가보다 싼 값에 양곡을 구입할 수 있었다. 국가가 인민들에게 제공한 물질적 혜택은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혜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 가운데 가장 큰 특권을 누린 이들이 바로 노동자층이었다. 평양 라디오방송은 화폐교환사업을 기념해 1947년 12월 28일부터 3일간 열릴 평양시 농민시장에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들에게 부여한다고 공지했다. 물질적 혜택의 계급별 차등 부여는 배급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수송 문제를 비롯한 어떤 돌발 사태로 생활필수품 배급이 지연될 경우, 배급 우선 순위는 제1위가 노동자, 제2위가 “교육문화인·보건일꾼·도시사무원”, 제3위가 “농촌사무원·대학생·전문학교학생”이었다.<sup>158)</sup>

노동자·사무원 및 그 부양가족들에 대한 식량배급은 꾸준히 증가되었으며,

---

155) 『로동자임금표』, 로동성, 1949.

156) 木村光彦 編譯, 「資料 26. 報告: 1950年第1四半期DPRK産業課業」, 앞의 책, 2011, 195쪽.

157) 김춘집,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 『우리나라의 인민경제발전 1948-58』, 국립출판사, 1958, 368쪽.

158) 김재웅, 앞의 책, 2018, 355쪽.

그 중에서도 지하 유해노동자, 중노동자는 특별 대우를 받아 더 많은 배급을 받을 수 있었다.<sup>159)</sup> 1949년 6월 18일 내각 회의에서는 “광산 탄광에서 일하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우대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었다.<sup>160)</sup> 이 결정으로 당시 경제 건설의 기초가 되는 원료인 광석, 석탄, 목재 등을 생산하는 노동자들은 근속연한에 따라 상금과 가급금(加給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노동자가 받는 상금과 가급금은 그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에 따라 정비례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특별배급물자의 우선 공급 권한, 주택 건축을 위한 대부금을 지원 혜택, 자녀 교육을 위한 보조금 지급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부양가족들은 노동자·기술자들과 같은 대우로 국가의료기관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sup>161)</sup>

노동자들의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 또한 간과할 수 없다.<sup>162)</sup> 공장 등에서는 우선 기준에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사택을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였다. 흥남비료공장의 경우, 해방 전 일본인들이 사용하던 주택들은 노동자들의 제의에 의하여 이 공장에서 오래 전부터 일하던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되었으며, 여러 등급의 주택이 근무연한에 따라 결정되었다. 또한 1947년 이후부터 전쟁 직전까지 2천 4백 세대의 주택이 새로 건설되었다.<sup>163)</sup> 북한 전체적으로는 1948년에 노동자에게 제공된 주택은 15만 4,959호였다.<sup>164)</sup>

기존 연구들은 이 시기 북한의 심각한 물가 인상과 생필품 부족 현상으로 인하여 임금 인상과 도급제가 노동자들의 생활을 개선시켰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러한 견해는 더 나아가 당시 ‘물질적 자극’이 노동자들의 증산 의욕

159) 신승만, 앞의 글, 1949, 58~59쪽.

160) 박임선, 「탄광 광산 로동자들의 우대에 관한 내각결정은 공화국북반부의 정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실증한다」, 『로동』3, 로동성, 1949. 7, 12쪽.

161) 박병일, 「광산 탄광 립산 로동자들의 우대에 대한 정부의 배려」, 『로동자』1949년 7호, 북조선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19쪽; 박임선, 앞의 글, 1949, 14~16쪽.

162) 서동만, 앞의 책, 2005, 285쪽.

163) 리국순, 앞의 글, 1960, 212~213쪽.

164) 김찬, 「산업발전과 인민의 물질·문화수준향상에 대한 전망」, 『근로자』1950년 3호, 1950(『사료집 53』, 2007, 447쪽).

고취에 별로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결론까지 이어진다. 한편, 북한의 연구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이 시기 노동자들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한다. 생활의 개선을 평가하는 것은 수치나 지표로 볼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도 중요하였다. 당시 북한 인민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처우는 일제강점기에 비해 가장 많이 좋아지고 있었으며, 그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국가에서는 나에게 훌륭한 집을 주었다. 나의 주택 안에는 가구들도 붙었고 라디오도 갖추게 되었다.

아침 저녁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음악 톤설 등을 들을○○○○한 착취 속에서 쓰라린 생활만 하여오던 늙은 나의 부친은 오늘의 행복을 무한히 감격하였다.<sup>165)</sup>

탄광촌에 새로운 주택은 구축되었고 파괴된 주택은 수리되었다.

학포탄광에는 92호의 문화주택이 신축되었고 271호의 주택이 수리되었다. (중략)

학포탄광 채탄부 김선금 동무는 신축된 주택에 이사하였다. 동무의 가정에는 해방후 구입한 라디오가 걸려있고 인민위원회의 표창장은 윗방에 빛나고 있다.

동무는 묻지 않는 말에 혼자 감동되어 “요 동리의 이처럼 새 집이 서니 락원갔으꼬마 나는 일제 때에는 이런 집을 구경도 몇 번 못했으꼬마 집에는 시계도 작년에 상금을 받아 싸놓았으꼬마 거기다가 새집에 들자 경사가 있다고 아들놈 충길이를 학교에 보냈으꼬마. 나는 이제부터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으꼬마. 그러기에 일하기도 힘드는 줄 모르겠고...” 즐거움을 말하는 것이었다.<sup>166)</sup>

3개의 분광촌에는 소비조합상점이 로동자들 앞에 개방되었다. 이제는 과거

165) 리창덕,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일하자」, 『로동』3, 로동성, 1949. 7, 196쪽.

166) 본사기자, 앞의 글, 1948, 43쪽.

의 슬픈 생활을 기억하지 않아도 좋게 되었다.

로동자들은 축음기 83대, 라디오 98개, 재봉침 114개(해방 후에 산 것이다)를 가지고 있고 아오지탄광촌에는 초급중학교와 인민학교가 개교되었다. 로동자들의 아들딸들은 활기치며 학교로 등교한다.

공업기술학교에 51명, 중학교 5명, 여자중학교 55명, 성인중학 16명, 인민학교 551명의 로동자들의 자제가 통학한다.

아오지탄광 로동자들의 문화적 진전은 북부탄전 로동자들의 상징으로 된다.<sup>167)</sup>

로동자들은 해방 이전에는 생각하기 힘들었던 자기 집을 가질 기회가 생겼다. 또한 당시로서는 귀한 물건이었던 라디오나 소련제 “즈베즈다(звезда)” 손목시계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식이 있는 경우, 북한의 교육제도가 확충되어 감에 따라 새로운 교육 기회를 자식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도 중요한 변화였다. 삶이 극적으로 풍요로워질 수는 없었겠지만, 당시 로동자들에게 당면한 현실은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만한 상황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3) 모범로동자들의 등장과 로동자 동향

#### (1) 인민경제 발전 2개년 계획의 시행과 증산경쟁운동

산업국유화 이후 1947년과 1948년, 북한에서는 1년 단위의 인민경제계획에 의거하여 산업활동을 수행하였다. 1947년과 1948년의 공업 발전의 기본방향은 일본의 군수공업에 복무해 온 일부 공업을 국내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시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으로 개조하고, 현지 원료와 연료를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조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sup>168)</sup>

---

167) 본사기자, 위의 글, 1948, 52쪽.

이 2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1949년에 들어 인민경제 발전 2개년 계획이 시행되었다. 194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제2차 회의에서 1949~1950년도 2개년 계획을 채택하였다. 2개년 계획의 임무는 첫째, 전쟁전 공업 생산 수준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초과할 목적으로 생산 성장 속도를 현저히 제고시킬 것, 둘째, 산업의 편파성을 청산하며 자주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축성할 것, 셋째, 조국이 통일된 후 미국인들이 파괴한 남조선 경제를 단기간 내에 복구하기 위한 제반 필요 조건들을 준비할 것, 넷째, 기본 생활 필수품을 풍부히 생산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제고시킬 것 등으로 설정되었다.<sup>169)</sup> 2개년 계획은 산업 부문에 국한하여 볼 때, 1950년 총생산액을 1948년 대비 2배 성장, 야금공업, 기계공업과 조선공업, 화학공업, 방직공업의 발전, 탐광 및 굴진사업의 추진 등이 주요 목표였다.<sup>170)</sup> 그리하여 기계공업은 1944년 대비 1949년 말에는 246.9%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sup>171)</sup>

2개년 계획의 시행과 함께, 이 시기부터 북한에서는 증산경쟁운동이 실시되었다. 사회주의권 노동 문제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증산경쟁운동이었다. 북한의 경우도 이미 1946년 2월 15일 조선공산당북조선분국 제4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노력영웅운동’이나 ‘생산경쟁운동’의 전개를 결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증산경쟁운동에서 특출난 성과를 내는 이들은 당시 ‘모범노동자’로 불리며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sup>172)</sup>

이 시기 증산경쟁운동의 시작과 발전과정은 조수룡의 연구에서 정리되어 있다. 1946년부터 시작된 증산경쟁운동은 점차 대중화되어 감에 따라 1948년에는 기업 간, 작업반 간, 개인 간의 경쟁운동으로 보편화되었고, 1949년에

168) 전현수, 「산업의 국유화와 인민경제의 계획화: 공업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2-1, 북한대학원대학교, 1999, 100~101쪽.

1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경제법학연구소, 『해방후 우리나라의 인민경제 발전』, 과학원출판사, 1960, 51~52쪽.

170) 정준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반부 인민경제계획 부흥발전을 위한 1948년 계획실행 총결과 1949년~1950년 2개년계획에 관한 법령」,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第1輯)』, 1988, 271쪽.

17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경제법학연구소, 앞의 책, 1960, 53쪽.

172) 서동만, 앞의 책, 2005, 287쪽.

들어서는 생산의 파동성을 야기하는 돌격대식 운동을 지양하고, 일상에서 꾸준히 경쟁하는 개인경쟁운동 방식이 나왔다.<sup>173)</sup>

증산경쟁운동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애국심<sup>174)</sup>이나 이데올로기를 자극하여 목표를 달성하려 하는 운동, 혹은 운동 자체가 그러한 사회주의적 노동관을 노동자 개개인에게 내면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지만, 증산경쟁운동의 성패 여부는 노동자 개 개인의 기술숙련도 향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기계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배가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상적 측면, 선전선동의 측면은 개개 노동자에게 어떤 경쟁에 참가하는 동기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증산경쟁운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는 없었다.

예컨대, 북한 자료에서 1949년 흥남비료공장 노동자, 기술자들은 개인서약에 기초한 бригада(бригада, 작업반) 경쟁을 광범하게 전개하여 아그레카-트(агрегат, 집합기계)의 역할을 제고시켰으며, 그 결과 11월 29일에 해당년도 류안비료 생산계획을 100%로 완수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생산계획을 초과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쏘련 기술자들의 성의있고 친절한 지도 밑에 질소분리기의 근본 문제인 석면건조장치의 확장과 레이스 개조 및 고열냉각기 설치 등을 비롯하여 질소공장 5호 압축기 분해조립 작업과 류안부 산도 조절을 위한 모액 분석 시험 등”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175)</sup>

이 시기 모범노동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부각된 이는 김희일이었다. 김희일은 1909년생으로 해방 이전에는 철도국 평북 정주 기관구장이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는 철도상, 교통상 등을 역임한 인물이었다. 그는 1946년부터 실시된 건국사상총동원운동 당시 생산돌격대운동을 제안하여 유명해졌다. 1947년 1월 16일 평북 정주지구 철도종업원대회에서는 기관사로서 채탄운동을 받기

173) 조수룡, 앞의 글, 2010, 398~402쪽.

174) 채규달, 「로력임금부 사업의一年」, 『로동자』1949년 12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34쪽.

175) 채규달, 위의 글, 1949, 35쪽.

한 김회일을 기념하여, ‘김회일채탄돌격대’를 조직하여 채탄돌격운동을 강화한다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20일에는 김일성이 김회일과 정주 철도종업원에게 격려 서신을 보내고, 22일에는 직맹 상무위원회가 열려 건국사상총동원운동과 결부시켜 ‘김회일운동’을 광범히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김회일은 북한에서 최초로 증산경쟁운동의 상징이 된 노동자였다.<sup>176)</sup>

증산경쟁운동을 통해서 북한에서 많은 모범노동자들이 배출되고, 북한 지도부는 이들이 산업현장의 중심이 되어 다른 노동자를 이끌면서 생산성을 향상할 것을 기대하였다. 특히 숙련 노동자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모범노동자들은 단지 홀로 성과를 거둘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기능 수준이 낮은 동료 노동자들을 이끌어주는 역할도 해야 했다.<sup>177)</sup>

그런 점에서 볼 때 최초의 모범노동자들은 후일, 당과 정권기관의 간부로 성장할 기회를 얻기도 하였고, 이후 나타날 여타의 노력영웅의 원형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모범노동자들은 1948년 8월 25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되는 영광을 누렸다. 대의원으로 선출된 이들 중 몇 명에 대해서는 『로동자』에 그 이력이 실려 있다. 이들이 모범노동자로 부각된 계기는 해방 직후 공장 복구 과정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었다. 김성학은 빈농 출신으로 일제하에서 평양곡산공장에서 14년을 근무하였다. 해방 직후 공장 복구 과정에 열심히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장을 떠난 노동자와 기술자들을 찾아다니며 다시 공장에 나오게 하였다. 그 결과 5명의 기능공과 30명의 신입 노동자를 확보하여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sup>178)</sup> 길주펄프공장의 김태련은 일제하에서 소학교 졸업 이후 노동자로 생활하다가 1943년 여름 일본군에 강제 징병 당하였다. 해방 직후 일본군에서 탈영하여 귀향한 다음 공장 복구를 위

176) 서동만, 앞의 책, 2005, 321쪽; 김재웅, 앞의 논문, 2005, 264~265쪽.

177) 유경숙, 앞의 글, 1949, 35쪽.

178) 김호철, 「로동계급 속에서 자라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성학 동무」, 『로동자』5,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0, 42쪽.

해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1946년 가을에 “환부락구(丸釜落口)”가 파손되어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주자, 이것을 혼자 수리하는데 성공하였다.<sup>179)</sup>

그런데, 이들 대의원이 된 모범노동자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강렬한 ‘사상성’을 지닌 투사는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즉, 이들은 말 그대로 모범적인, 우수한 개별 노동자로서의 모습이 더 드러났다. 물론 모범노동자들이 정권이나 직맹의 의도에 충실하게 부응하였다는 점을 볼 때, 그들이 민주개혁이라는 당면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모범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성공 비결은 테일러리즘적인 기술숙련도 향상과 창의고안의 성공에 달려있었다.

5월 12일에 자기의 책임량을 100.2%로 완수한 평양건직공장 당운실 동무를 위시한 사동탄광 김원경, 아오지탄광 지주공 박병남, 사리원방직공장 한선옥 동무 등의 금년 6개월간에 산업성 산하만 하여도 2,700여명의 생산혁신자들이 계속 배출되어 1,500여건의 창의고안을 성공하였다.<sup>180)</sup>

또한 모범노동자가 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그만한 ‘실력’을 갖추기 위한 성실함과 노력이었다. 제주도 출신으로 1948년 9월 11일부터 혼자 8대의 직기를 운전하여 당시 최고의 방적공으로 인정받은 김춘길은 매일 출퇴근 전후 30분, 휴식시간 30분을 이용하여 기계 청소와 점검을 엄밀하게 실시하였다.<sup>181)</sup> 평양건직공장의 모범노동자 당운실 또한 아침에 30분에서 한 시간을 일찍 나와 기계 청소와 작업 준비를 마쳐 놓았다.<sup>182)</sup>

그들은 또한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는 태도를 보여주

179) 양기영, 「모범노동자 대의원 김태련 동무」, 『로동자』5,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0, 44~46쪽.

180) 채규달, 앞의 글, 1949, 35쪽.

181) 박일, 「八대지공에 빛나는 김춘길 동무」, 『로동자』8,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2, 53쪽.

182) 리인건, 「제품의 질적향상을 위해 싸우는 당운실 동무」, 『로동자』1949년 1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48쪽.



었다. 8대지공이 된 김춘길은 해방 후 꾸준히 기술 전습을 받았고, 당운실은 학습에 열성적으로 참가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성인중학교에서도 성적이 우수하였다.<sup>183)</sup> 금강산 발전소의 김정수 운전공 또한 매일 기술 전습에 참가하였다. 그는 거기서 얻은 지식으로 자기 기술을 검토하고 기계의 성능을 분석하는 데 최대의 헌신성을 발휘하였다는 평을 들었다.<sup>184)</sup> 한편, 모범노동자들은 단지 자기 실력만 좋은 것이 아니라 동료 노동자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이들이어야 했다. 그래야 동료 노동자들의 신임을 얻고, 그들을 추동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sup>185)</sup>

이들이 모범노동자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개인적’인 동기가 많이 작동하였다. 예컨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싶다는 경쟁심이나 호승심(好勝心), 최고의 생산실적을 내서 맞보는 자부심과 같은 것들이다.

장룡경 : 역시 사람이란 경쟁심이 있으니까 서로를 지기는 싫어하는 모양이군요. 그렇지요? 내만 보드래도 개인경쟁 후엔 집에 돌아가기만 하면 머리를 동이고 책을 읽지요. 그렇잖으면 남보다 뒤떨어지니까요.<sup>186)</sup>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리복덕 동무와 김봉덕 동무의 기술을 따라가기 위한 노력에서 출발하는 개인경쟁심의 성과였다.<sup>187)</sup>

내가 모범노동자가 되기에는 실로 공장직장위원회에서 주는 교양을 작업에 똑바로 옮긴 것과 더불어 나의 크나큰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평양견직공장에 들어온 것은 해방된 해 11월이었다.

183) 박일, 앞의 글, 1948, 52쪽; 리인건, 위의 글, 1949, 48쪽.

184) 최인준, 「현지보고 - 금강산 발전소」, 『로동자』1949년 3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26쪽.

185) 박철, 앞의 글, 1948, 53쪽; 김문숙, 「기술자 양성에 결의높은 김용길 동무」, 『로동자』1949년 1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49쪽.

186) 「모범로동자 좌담회 - 치열히 전개되는 개인경쟁」, 『로동자』1949년 4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44쪽.

187) 한선옥, 「六대기를 운전하기까지」, 『로동자』1949년 11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81쪽.

이리하여 불합격품을 평균 60% 이상이나 생산하였을 때 내 마음은 실로 아팠다.

이럴때마다 나는 우리 공장에서 가장 기술이 능란한 당운실 동무에게서 기술을 배우며 또 기술전습회에 열심히 참가하였다.

이러한 나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직맹에서는 말하기를 4·4분기에 들어서 나의 생산량은 당운실 동무의 기록을 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장의 최고 기록이라고 격려를 하여 주는 것이다.<sup>188)</sup>

이처럼 모범노동자들은 딱히 국가나 혁명을 위해서라기보단 스스로의 성실함과 노력, 개인적인 경쟁심에 기반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너무도 당연한 보수”로서 높은 임금과 상금을 받으며, “물질적인 생활조건”의 향상과 윤택함을 누렸다.<sup>189)</sup>

## (2) ‘노동관계(勞政關係)의 쌍무성’과 개인적 노동 동기

북한 지도부는 민주개혁을 통해 노동자의 물질적 조건을 향상시키고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그렇듯 권리를 보장받았다면 동시에 그에 따르는 의무도 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차순봉은 전체 노동자·사무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적 해방을 찾아오는 모든 권리를 보장받는 동시에 새로운 민주주의적 노동관계를 건립하며 고상한 규율 밑에 민주조국 건설의 용사가 되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sup>19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동자에게만 의무가 주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노동자가 지는 의무가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사측, 그리고 정권 측의 의무도 있다고 보았다. 노

188) 한봉선, 「나와 모범노동자」, 『로동자』1949년 12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39쪽 내용을 축약함.

189) 최인준, 앞의 글, 1949, 26쪽.

190) 車淳鵬, 「勞動法令違反者와의 鬭爭」, 『로동』3, 1949. 7, 55~56쪽.

동자가 지는 의무는 일단 “공민은 로력하여야 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로 표현되는 전반적 노동의무가 있고, 두 번째로 규정된 노동량을 완수할 의무 및 노동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반면, 사측과 정권 측에는 노동자·사무원들의 권리를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sup>191)</sup>

이러한 ‘노정관계(勞政關係)’, 즉 노동자 측을 일방으로 하고, 사측과 정권 측을 일방으로 하는 노동관계는 쌍방의 의무 이행을 전제하는 점에서 근대적 고용계약이 갖는 ‘쌍무계약’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sup>192)</sup> 다만, 자본주의 국가의 고용계약처럼 노무제공과 보수지급의 의무만이 아닌 보다 포괄적인 의무의 교환을 제시한다는 점, 그리고 고용계약이란 대등한 개인과 개인의 관계에서 성립되지만, 북한의 경우 노동자 대 국가의 관계가 더 강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북한의 노정관계가 보이는 쌍무성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사관계의 쌍무성보다 보다 포괄적인 동시에, 제한적인 속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북한 지도부 측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만큼 노동자들로 하여금 몇 가지 의무를 지킬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노동규율의 준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제 시간에 출근하고, 근무 시간에는 다른 짓 하지 말고 업무에 집중하라는 것이었다. 북한의 노동규율을 이야기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단결근을 지속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다. 즉, 그만

---

191) 車淳鵬, 위의 글, 1949, 56쪽.

192) 고용계약에서 노무자와 사용자는 각각 노무제공 의무와 보수지급 의무를 기본적 급부의무로 하는 쌍무계약이다. 고대 로마법 시기부터 고용계약에 속하는 노무의 임대(locatio conductio operarum)는 노무자가 사용자에게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쌍무계약이었다(梁在憲, 「민법상 고용계약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88쪽, 22~24쪽). 우리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 4항에서도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다. 즉 개별적 근로관계 성립의 효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되며 양 당사자는 이와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김대영, 「勤勞契約의 本質과 法的 效力에 관한 研究」,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57쪽).

큼 북한의 노동규율이 엄격하고 폭력적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이른바 ‘전시노동규율’의 문제로서 전쟁 이후 시기를 분석할 때 보다 검토해야 할 측면이다.

이 시기 노동규율의 준수는 노동자 개개인의 ‘자각성’에 달려있음이 강조되었다. 자발적으로 노동규율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를 법적, 혹은 행정적 강제조치로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즉, 노동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적인 도덕 규범의 위반으로 보아야 하기에, 도덕적인 해설·설복 사업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고용주 측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혹은 노동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장 엄격하게 법적 처벌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았다.<sup>193)</sup>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을 자극하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우선 상기한 내용에서 다루었듯이 노동을 통해 개인적인 성취감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물질적으로도 보다 윤택해질 수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 시기 노동자의 다수는 일제하에도 노동을 한 이들이었기에 일제하와 달라진 현실에 대해 더 실감할 수 있었을 것이다. 노동성 기관지인 『노동』은 1949년 노동법령 실시 3주년을 맞아 특집호를 꾸렸다. 이 문헌에서 사동련탄공장의 채탄부 김원경은 자신이 누리는 생활상의 혜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격을 표하였다.

나는 지금 노동법령의 혜택으로 늙은 어머니와 처와 또 세 어린 것을 다리고 아담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장녀 순옥이는 지금 인민학교 5학년이 다니고 있습니다. 노동법령에 의하여 공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도급제라든가 상급제로써 매월 기본임금 외에 국가의 특배미와 약 2천원 가까운 도급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뿐이 아닙니다.

과거 일제 때에는 우리 노동자가 꿈도 꿀 수 없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작년 7월에 사회보험 화진포 휴양소에 가서 즐거운 생활을 하며 해수욕도 하였습니다. 또 재작년에는 삭주 휴양소에 가서 처음 온천이라는 것이 어

---

193) 車淳鵬, 위의 글, 1949, 62~65쪽.

떠한 것인가를 알고 문화적인 휴양생활을 보냈습니다.

내가 오늘 이와 같은 희망에 가득 차 일할 수 있으며 지하로동자로서 7시간로동을 하고 있으며 작업복을 비롯한 여러 배급물자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하다 상하여도 무료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으며 또 가족에게까지 치료를 하여주니 근심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sup>194)</sup>

1916년부터 황해제철소(일제하의 ‘검이포 제철소’) 노동자로 근무하였던 원도중에게 있어서도 해방 이후의 변화는 해방 이전, 일제하에서의 그 “지긋지긋한 저주로운 30년”을 더욱 떠올리게 하였다.<sup>195)</sup>

또한 이 시기에는 오랜 일제 치하에서 벗어나 스스로 새로운 국가 혹은 체제를 건설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열정이 존재하였다. 일제에게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았다는 감격은 특히 파괴된 공장·탄광 복구 건설에서 적극성을 끌어내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해방 당시 전로공 브리가다반장이었던 한도겸은 “일본놈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하고 생산을 적게 낼가 하는 것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해방 후에는 어떻게 하면 일을 더 많이 하여 생산을 많이 낼 수 있겠는가만 생각”했다고 회고하였다.<sup>196)</sup> 심지어 황춘식이라는 젊은 노동자는 집에서 장가들러 오라는 기별이 왔지만, 자기가 공장을 비우면 브리가다의 생산 성적이 떨어진다고 자리를 비우지 않았고, 결국 그의 부친이 며느리가 될 처녀를 데리고 공장에 찾아와 결혼식을 하기도 했다.<sup>197)</sup>

아오지탄광의 복구 건설 과정을 서술한 자료에서도 그와 유사한 “애국렬”이 흘렀다. 원래 6,000명이 일하던 아오지탄광은 해방 직후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고, 500명의 노동자들로 재건을 시작하였다. 탄광 복구 작업은 일본인들이 파괴한 3개의 변전소를 노동자들의 힘으로 복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

194) 김원경, 「국가의 우대에 대하여 열화같은 증산으로 보답」, 『로동』3, 로동성, 1949. 7, 68쪽.

195) 원도중, 『강철 전사의 수기』, 직업동맹출판사, 1963, 1~2쪽.

196) 윤두현, 「창조자들 - 8·15 해방 10주년을 맞는 한도겸 동무를 찾아서-」, 『조선문학』1955년 8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8, 123쪽.

197) 윤두현, 위의 글, 1955, 123~124쪽.

였다. 복구를 위한 자재들은 부족하였다. 아오지탄광에서 작업하려면 “캡프램 푸”(전기안전등이 달린 헬멧)가 있어야만 하였다. 아오지탄광은 메탄가스가 많이 나와서 “칸테라”(가스등)를 사용하면 갱도가 폭발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해방 전에 사용하던 캡 램프는 대부분 고장났기에 한 사람당 하나씩 써야 하는 캡 램프를 7~8명 당 하나씩 밖에 쓰지 못하면서 탄광 복구 작업을 해야만 하였다. 노동자들은 복구 과정에서 부딪히는 자재난을 자력으로 해결하였다. 전기공 김병화는 “전기타르테재생기”를 창안하고, 113대 만들었다. 찰공 이규식과 박수선은 동발 톱을 창안하여 54개를 제조하였다. 리규식은 트리루꼴을 1,234본을 만들었고 김병화는 전동기를 12대 수리하였다. 강태연은 탄차 10대를 복구하였다. 리기식은 전기 드릴 10대를 만들었다. 박수선은 “스파이크”를 2만 7,000개 생산하였다. 노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아오지탄광은 1946년 2월 귀락항을 시작으로 다시 출탄을 하게 되었다.<sup>198)</sup>

한편 일제하에서는 조선인 노동자에게 금지되어 있던 ‘고급’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노동의욕 고취에 긍정적인 측면이었다. 일제하에서 조선인은 기차의 기관사가 될 수 없었으나, 해방 이후 당연하게도 조선인 기관사를 양성하였고, 이정하는 그토록 원하던 기관사로 일하게 되면서 모범노동자로 선정도 되고, 상과 상금도 받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였다.<sup>199)</sup>

이처럼 노동자들은 해방 이후의 사회 변화 속에서 일제하보다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보았고, 또한 그만한 열정과 헌신을 기울였다. 그렇기에 그들은 북한 지도부의 개혁 방향이나 체제 건설 방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소련 자료에서도 북한의 노동자들의 충성심과 높은 정치참여의식이 북한의 권력 형성과 개혁 조치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하였다.<sup>200)</sup>

이와 관련하여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처우의 변

198) 본사기자, 앞의 글, 1948, 50~51쪽.

199) 이정하, 「무사고 정시 운행으로」, 『로동』3, 로동성, 1949. 7, 92쪽.

200) 『주북한소련민정국 3개년 사업총결보고: 1945년 8월~1948년 11월』,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7쪽.

화를 그간의 노력의 대가로서 당연히 받았어야 할 권리의 회복이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국가로부터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였다는 점이였다. 일제강점기와 비교하여 “개변된 노동조건에 감사 감격을 금할 수 없”는데, “일제 강점기에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많은 수입”을 받고 “훌륭한 사택을 국가에서 받고 있으며 일상적으로 많은 생활필수품을 배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노동자들은 국가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sup>201)</sup>

나는 노동법령 실시 3주년을 맞이하여 나의 행복된 생활을 다시금 느끼면서 있는 힘 정성을 다 바쳐 부강통일민주국가 건설을 위하여 더 한층 과감하게 투쟁할 것이며 내가 맡은 부문에 있어서의 온갖 창의성을 다 발휘하여 물자절약을 하면서 무사고 정시운행을 100%로 보장할 것을 새로이 결의하는 바이다.<sup>202)</sup>

노동법령의 혜택에 보답하기 위하여 2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며 개인경쟁운동을 누구보다도 앞서 실행하며 특히 1949년도 채탄책임량을 기어코 7월초에 완수하겠습니다.<sup>203)</sup>

어머니들은 젓먹이는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마음놓고 누릴 수 있는 오늘의 행복한 처지를 말하면서 이처럼 행복한 조건을 지어준 인민정권에 감사하며 제각기 생산능률을 높여 그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결의를 북돋우며 있습니다.<sup>204)</sup>

이처럼 은혜와 보은의 맞교환이라는 감각은 노동자의 증산 의욕을 고취시

---

201) 당운실, 「생산책임량을 초과 완수하는 기쁨으로」, 『로동』3, 로동성, 1949. 7, 144쪽; 이정하, 앞의 글, 1949, 92쪽.

202) 이정하, 앞의 글, 1949, 92쪽.

203) 김원경, 앞의 글, 1949, 68쪽.

204) 홍복수, 앞의 글, 1949, 54쪽.

키는 요인이 되는 한편 정권에 대한 지지를 높여주는 요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정당한 계급적 권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권의 은덕으로 받아들이는 점은 계급의식의 성장에 한계로 작동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것이 북한 초기 근로인민의 형성 과정에서의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4) 소결

해방 직후 북한의 산업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상당수 생산시설이 일본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다수 흩어진 상황이었다. 게다가 일본인을 대체할 고급 기술자도 매우 부족하였다. 이런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의 노동자들과 인민위원회는 공장을 복구하고 조업을 재개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소련 주둔군과 소련에서는 북한의 산업을 복구하도록 지원을 하였다.

1946년 시작된 일련의 민주개혁 조치는 북한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 노동법령의 실시를 통해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보험제, 노동보호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노동시간의 감소와 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은 자기 계발과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사회보험제의 실시에 따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었다.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실시되었다. 남녀평등권 법령의 적용에 따라 여성 노동자들의 권리도 신장되었다.

북한에서 계획경제가 시작되고,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증산경쟁운동이 도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생산현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노동자들이 등장하였다. 이 모범노동자들은 사상적인 추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성실함이나 노력, 경쟁심에 근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당시 북한 정권은 노동자들과 일종의 ‘쌍무적 계약관계’를 지향하였다. 즉,



노동자에게는 증산과 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정권과 관리자에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양자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인 것은 아니었으나, 일제 하에 비해 노동조건이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였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는데 참여한다는 열정을 갖거나, 생활 수준의 향상, 고급 직종으로의 진출과 같은 개인적 동기에 의거하여 자발성을 보였다. 그렇지만, 새로운 국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기에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식의 인식도 드러내고 있었다.

### 3. ‘신세대’ 노동자의 등장과 사회주의적 산업화 추진

#### 1) 전시/전후 노동환경 변화와 정책적 대응

##### (1)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과 생산력 감소

전쟁의 발발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하던 노동력을 더욱 줄어들게 만들었다. 북한 지도부는 이미 1949년 5월부터 18~50세에 해당하는 남성들을 일제히 조사해 군사적령자로 등록해 놓았다. 북한의 군사적령자들은 전쟁이 시작되면서 현역과 보충역으로 동원되었다. 이와 동시에 노동당은 개전 직후부터 입대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선출동 탄원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6월 말까지 약 48만 명의 청년들이 전선출동을 탄원하였다.<sup>205)</sup> 공장의 남성 노동자들도 대다수가 군에 입대하였다. 최성수는 자신의 직장 작업반을 끝까지 지켰지만, “나중에는 제호의 당 책임자와 민청 초급 단체 위원장”이었던 자신만 남자, 작업을 중지하고 군사동원부를 찾아갔다.<sup>206)</sup> 흥남 비료공장의 경우 1950년 9월 말 전체 종업원의 약 60%를 넘는 2,422명이 전선에 출동하여 1951년 12월 말 현재 종업원 수는 1,690여 명, 그 중 노동자는 1,389명에 지나지 않았다.<sup>207)</sup>

부족한 일손을 메꾸기 위해 여성의 생산현장 진출이 독려되었다. 전쟁 발발 10여일 동안 함경북도에서만도 2,300여 명의 여성들이 제철, 방직, 제유(製油) 등 여러 주요 부문 공장에 진출하였다. 기존의, 그리고 새로 취업한 여성 노동

205) 김선호, 「6·25전쟁기 북한의 서울시민 진출사업 연구」, 『서울과 역사』102, 서울역사편찬원, 2019, 93쪽.

206) 윤시철, 「로력 영웅 최성수」, 『조선문학』 1955년 10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10, 120쪽.

207) 서동만, 앞의 책, 2005, 449~450쪽.

자들은 파괴된 공장과 시설을 복구하면서 전시물자 생산을 위해 폭격을 피해 가며 기술을 익히고 생산을 지속해야 했다.<sup>208)</sup>

여성을 공장노동자로 조직·동원했던 공식적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는 전선에 나간 노동자를 대신하여 근거리에 사는 그들의 부양가족들(여동생, 아내, 누나 등)을 공장으로 동원한 후 기능공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둘째는 전선 출동을 자원한 여맹과 조선노동당, 그리고 국가기관에 열성적이었던 여성들을 시기와 정세에 따라 일부는 전선에 보내고 나머지는 광산과 공장으로 전출시키는 것이었다. 셋째는 여맹을 통해 여성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공장에 배치하는 방법이었다. 그리하여 전쟁 발발 후 3개월 만에 공장노동자가 된 여성들은 31,366명이었으며, 1951년 6월까지 함경북도에서만도 19,000여 명의 여성들이 노동자가 되었다.<sup>209)</sup>

이처럼 청장년 남성 노동력이 부재한 가운데, 생산현장에서는 여성 노동자들과 나이든 남성 노동자들 위주로 생산을 이어가야 했다.<sup>210)</sup> 전시생산은 그 자체로 위험과 고통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자들은 미군의 폭격 목표가 된 공장의 설비를 안전한 산악지대의 지하동굴 같은 곳으로 직접 이설(移設)해야만 했고, 그 곳에서 생산을 계속해야 했다.<sup>211)</sup> 성진제강소 노동자 김태활은 “전쟁 초기에 잠시 무산 철산에 후퇴해서 그 광산에서 일하다가 재진공이 시작된 뒤 51년 4월에 다시 이 공장으로 돌아와서 저 뒷산 속에 굴을 파고 지하 전기로를 건설했”다고 회고하였다.<sup>212)</sup>

급하게 폭격을 피해 옮긴 산악지대 지하동굴에서의 노동은 그만큼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진행되는 것이었다. 평양제사공장의 당운실과 전춘복 등은 유

208) 박영자, 「6·25전쟁과 북한여성의 노동세계: ‘파괴와 反생산’의 전쟁에서 ‘창조와 생산의 주체’였던 여성 연구」, 『아시아여성연구』45-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6, 69~70쪽.

209) 박영자, 위의 글, 2006, 70~71쪽.

210) 박진, 「오체르크 - 체석 브리가다」, 『조선문학』1954년 1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1, 98쪽.

211) 윤두현, 위의 글, 1955, 123쪽.

212) 한설야, 「강철 - 성진 제강소에서-」, 『조선문학』1955년 9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9, 165~166쪽.

엔진의 1.4후퇴 이후 공장에 남은 설비들을 직접 머리에 짊어지고 덕천 투명 골로 이설하였다. 이 곳은 협곡이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홍수가 지고, 봄에는 눈이 녹은 물이 넘쳐 들어와 작업장을 진흙탕으로 만들곤 하였다. 더 큰 어려움은 겨울이었다. 겨울에는 골짜기에 물이 마르는데, 제사공장은 물이 있어야만 작업을 할 수 있었다. 조사공들은 급수대를 조직하여 근무의 시간에 “작공과 눈보라와 폭격 속을 뚫고 왕복 십리가 되는 거리에서 하루 30톤 내지 35톤의 물을 지고” 날라야만 했다.<sup>213)</sup>

그나마 지하동굴에서의 노동은 상대적으로 목숨의 위험은 덜한 것이었다. 전쟁 개시와 함께 철도는 미 공군의 가장 중요한 군사목표 중 하나였다. 북한은 화물과 여객 수송의 많은 부분을 열차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철도를 통한 전쟁물자 보급은 북한의 한국전쟁 수행과정에서도 중요한 것이었다. 북한 지도부는 미 공군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철도 노동자들이 전선 수송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다. 철도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열차를 운행하고 부서진 철로를 복구해야만 했다.<sup>214)</sup>

한편 건설 작업에 필요한 석재를 캐는 활석공들도 미군의 폭격에 노출되는 산등성이에서 목숨을 걸고 작업을 해야 했다. 휴전 이후 여성 활석공 전군명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그런데 그게 바로 정전이 되기 열흘 전인 7월 17일 밤이었어요. 석벽을 깨내는 내 정 끝이 짹하고 굳은 암석에 닿았거든요. 나는 그만 어찌나 기뻐든지, 아바이 돌이 나와요! 하고 외쳤지요. (중략) 이 쪽에서 보던 돌덩이와 똑같은 질의 청석 암층이 보이질 않겠어요. 됐다! 됐다! 우리들은 기뻐서 막 떠들썩했지요. 그런데 별안간 번갯불이 굴 밖에서 번쩍 번쩍하드니 썩- 소리가 들려오질 않겠어요.

213) 임순득, 「따뜻한 손'길 속에서 - 조사공 전춘복의 걸어 온 길-」, 『조선문학』114,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2, 93~95쪽.

214) 김태우, 『폭격 - 미공군의 공중폭격 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창비, 2013, 339~340쪽.

(중략)

그 지긋지긋한 폭탄 쏟아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팡! 팡! 팡 하고 바로 우리들 머리 위에서 터지더군요. 그 바람에 굳이 막 움찔거리고 흠이 내려썩워 난 그만 좋은 석맥을 발견하자마자 죽나부다 했드랬지요. 호호...215)

북한 지도부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남한점령지역의 노동자들을 북한지역의 산업시설과 공사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고안하기도 하였다. 북한지역으로 이주시킬 대상자는 서울시와 경기북부 거주 노동자였다. 이 중 서울시민 전출사업은 7월 15일에 처음 조직된 조선직업동맹 서울시평의회가 주도하였다. 사업대상은 서울시 각 구에 있는 공장·직장이었다. 사업은 7월부터 9월 초순까지 진행되었으나, 각종 쫓기대회, 선전선동사업, 의용군 모집사업, 전쟁피해 복구사업과 동시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출대상자가 될 수 있는 성인 남성 노동자가 급감하면서 8월 14일 즈음을 고비로 사실상 완료되었다. 전출의 규모를 정확히 추산하긴 어려우나, 1950년 8월 1일~13일까지의 사업의 결과, 서울시에서 1,882명이 북한지역으로 전출되었다.<sup>216)</sup> 김선호는 평남 관개공사에 투입된 전출자까지 합치면 총 전출자는 최소 3,0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217)</sup> 북한 지도부는 전출사업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오는 노동자들 중에 이승만 정권의 간첩이나 월남민이 잠입하여 넘어올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각 치안기구들에 이에 대한 감시와 적발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sup>218)</sup>

전시노동은 그 자체로 고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기에 정권 측은 노동

215) 박진, 앞의 글, 1954, 102쪽.

216) 김선호, 앞의 글, 2019, 94~103쪽; 「全評中央宣傳指導委員會 事業報告(1950. 8.)」, 『사료집 10』, 1990, 428~447쪽.

217) 김선호, 위의 글, 2019, 117쪽.

218) 인천시 내무서장 박명구, 「서울시민전출사업에 관한 협조사업에 대하여(1950. 9. 6.)」, 하인천 파출소, 『1950년도 기밀관계서류』, 1950, NARA, RG 242, SA 2009, Box 4, Item 124; 강원도 내무부장 최상술, 「서울시민 전출사업에 관한 협조사에 대하여(1950. 9. 5.)」, 『사료집 16』, 1993, 160~161쪽; 평남도정치보위부장 리창술, 「월남 로동자들의 동태 감시 강화에 대하여(1950. 9. 1.)」, 『사료집 18』, 1994, 431~432쪽.

자들의 동요나 직장 이탈 등의 현상을 막으며, 전시에도 생산을 지속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강한 전시 노동규율을 부과하여 노동자들 또한 전시에 걸맞는 자세를 갖출 것을 강요하였다. 1950년 7월 6일 군사위원회 결정 제6호 “전시로동에 관하여”가 선포됨에 따라 직장 책임자의 권한으로 필요한 경우 2~4시간 이내의 시간외 노동을 시키고, 정기적·보충적 휴가도 보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노동자, 사무원의 자의적 직장 이탈, 작업 이탈 및 결근 등에 대하여 일정한 형사 책임을 지우고, 일체의 노동규율 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을 회피하거나 태만히 하는 직장책임자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부과하였다. 또한 7월 26일 군사위원회 결정 제23호 “전시의무로력동원에 관하여”가 공포되어 “18세 이상 55세 미만의 남자는 국가의 지시 없이는 임의로 그 거주지역에서 이동할 수 없다”고 하여 자유 이동이 금지되고, “국가의 지시에 의해서 전쟁에 필요한 생산과 복구사업에 의무적으로 동원”되며 위반자는 엄벌에 처해지게 되었다.<sup>219)</sup>

그런데, 북한 지도부가 엄격한 전시 노동규율을 설정하였건만, 생산현장에서의 규율이 반드시 강화된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전쟁 정전을 약 3개월 정도 남겨둔 1953년 4월 24일, 당 조직위원회에서는 “전시 국가 및 노동규율 강화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조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일부 직장들에서는 여전히 노동시간 중 무단 외출, 사담·농담, 불필요한 회의 등이 허용되고 있었으며, 노동규율 해이에 따른 기계 고장과 도난, 화재 등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또한 노동자들의 무단결근·지각·조퇴·칭병 등도 다시 늘어나고 있었다. 노동력 유동현상도 여전하여, 전기국에서는 1952년에 채용한 전체 노동자의 76%가 같은 기간 직장을 이탈하였다.<sup>220)</sup>

어쨌든, 엄한 전시 노동규율을 부과하는 것이 생산을 독려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면, 다른 방법은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우선, 임금 인상은 별 실

219) 서동만, 앞의 책, 2005, 448~449쪽.

220) 「전시 국가 및 노동규율 강화에 대하여(조직위원회 제137차 회의 결정서(1953년 4월 24일)」, 『사료집 30』, 1998, 438쪽.

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대신 전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었다. 1951년 11월 10일, 당 중앙정치위원회에서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부업경리 확장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즉, 생산직장들은 노동자들에게 제공할 급식 및 부식물, 육류나 어물 생산, 산나물 채취 등의 사업을 책임지고 적극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노동자 가족들의 수입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업을 앞선할 것도 결정하였다. 즉, 맛벌이를 통해 수입을 증대시키라는 것이었다.<sup>221)</sup>

한편, 사회적 보상 체계로서 ‘로력 영웅’ 칭호가 제정되었다. 1951년 7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경제, 문화 건설 부문에 ‘로력 영웅’(이하 노력영웅) 칭호를 제정하였다. 이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산업, 농촌, 경리, 운수, 상업 부문에서 과학적 발전이나 기술적 발명으로 국가에 특별한 공훈을 세우거나, 인민경제 문화 및 과학의 향상 제고와 공화국의 영예와 위력의 장성을 방조한 자”로 규정되었다. 노력영웅은 동시에 국기훈장 제1급 금메달 “마치와 낫”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물론 노력영웅 칭호는 단순한 명예직은 아니었다. 노력영웅이 되면 국기훈장 제1급에 따르는 연금의 2배를 수령할 수 있으며, 국기훈장 제1급에서 제3급에 규정된 모든 특전과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sup>222)</sup> 그 특전과 권리로 는 수훈자가 노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남자 55세, 여자 50세에 달하는 경우 연금을 받을 권리, 연봉 2,400원, 철도, 수상, 운수, 전차, 국영 자동차를 무료로 이용할 권리 등이었다.<sup>223)</sup>

한국전쟁의 결과, 북한은 참혹한 전쟁 피해를 입었다. 1954년 3월 소련의 2등 서기관 페트로프(П. Петров)가 북한의 중앙통계국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221) 「산업 운수 기타 인민경제기관들의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물질생활을 향상시킬 대책들에 관하여(당중앙정치위원회 제140차 회의 결정서, 1951년 11월 10일)」, 『사료집 29』, 1998, 150쪽.

22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령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집 2(一九五一~一九五三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54, 375~377쪽.

2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령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집 1(一九四八~一九五〇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54, 551~552쪽.

한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부터 1953년 전쟁 기간 동안 북한 인민경제에 가해진 총 물질적 피해는 4,201억 2,800만 원이었다. 이 금액은 다시 국가 부문의 물질적 손실 2,301억 7,500만 원, 개인 부문의 물질적 손실 1,710억 4,000만 원, 정당 및 협동·사회단체가 입은 손실 189억 1,300만 원으로 분류되었다. 물질적 피해의 총 금액을 산정하는 데는 공업과 농업의 생산 축소로 인해 입은 손실과 유출, 노동력 상실 및 군 징집과 관련한 피해, 기업의 소개와 재소개로 인한 지출과 비용, 파괴된 군 시설에 대한 비용과 손해 그리고 여타 군사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sup>224)</sup>

페트로프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경제 손실 중 인민경제 주요부문의 생산량은 전쟁전 기간과 비교하여 1953년에 30~40%가 축소되었다. 그 중 특히 공업의 피해가 막심하였다. 금속공업, 화학공업, 연료공업과 같은 중요 부문은 완전히 쓸모없게 되거나 주요제품을 생산해내지 못하였다. 혹심한 파괴로 인해 가장 중요한 공업제품의 생산이 급감하였다.<sup>225)</sup>

<표 11> 한국전쟁으로 인한 북한 생산 능력의 저하

항 목	1949년	1953년
전력 생산	59억 2,400만 Kw	10억 1,600만 Kw
석탄 채굴	3,943,300 톤	688,000 톤
강철 생산	144,000 톤	3,500 톤
압연제품 생산	60,000 톤	3,000 톤
카바이드 생산	136,000 톤	6,100 톤
시멘트 생산	537,000 톤	26,500 톤
소금 생산	280,000 톤	42,000 톤
비누 생산	9,200 톤	3,100 톤
어획고	273,000 톤	126,500 톤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38쪽.

2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41쪽.

22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2001, 37쪽.



미 공군의 맹렬한 폭격으로 인해 코크스, 선철, 구리(조동(粗銅)), 납, 가성·석회 소다, 화학비료, 슬레이트 등의 생산공장들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전력 생산, 석탄 채굴, 철 제련, 압연, 카바이드, 종이, 비누, 기름 생산 등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중공업성 산하 기업 120개가 완전히 무너졌고, 그것은 금속공업 14개, 석탄공업 30개, 광석 채굴업 36개, 연광 24개, 기계제작공업 16개 등이었다.<sup>226)</sup> 전쟁 전 북한의 대공업 부문의 하나였던 화학공업은 전시에 가장 심하게 파괴되었다. 흥남비료공장과 본궁화학공장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으며, 화학공업 부문은 1950년 8월부터 거의 생산활동이 중지되었다.<sup>227)</sup> 중공업성 기업들의 파괴로 북한 경제가 입은 손실은 411억 8,500만 원에 달하였다. 경공업도 마찬가지로 커다란 손실을 입었다.<sup>228)</sup>

북한의 에너지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모든 수력발전소, 대규모 변전소 그리고 송전선 일부는 폭격과 기총소사로 인해 큰 파손을 입거나 전혀 쓸모 없게 되었다. 파괴된 송전선은 전장 8,400 Km에 달하였다. 허천강, 장진강, 부전강 발전소들은 거의 90%가 파괴되었다. 수풍 수력발전소가 입은 피해는 7억 3,6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sup>229)</sup>

북한 생산시설의 파괴만큼이나, 노동자의 수 또한 격감하였다. 대규모 공장 기업소들의 파괴로 인해 공업 종사자 수는 1949년 24만 5,000명에서 1953년 16만 5,000명으로 8만 명이 감소하였고, 그 결과 공업 종사자 비중은 전쟁 전 43%에서 1953년에는 31%로 감소되었다.<sup>230)</sup> 정전 이후, 파괴된 공장 등을 복구하고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부족한 노동력 문제 해결은 급선무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53년 9월 조선노동당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부적으로 새로운 노동자를 확보하고 내부적으로

22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2001, 38쪽.

227) 박창욱, 「1954-19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에 관한 보고」, 『로동자신문』, 1954. 4. 23, 2면.

22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01, 38쪽.

22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2001, 39~40쪽.

2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위의 책, 2001, 58~59쪽.

는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겠다고 결정하였다.<sup>231)</sup> 노동력 충원은 농민, 제대군인, 여성의 순으로 충당되었다.<sup>232)</sup>

노동력 부족 현상은 단지 노동자가 줄어들어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노동력이 '합리적'으로 배치되지 않은 것도 부족을 심화시킨 원인이었다. 많은 공장에는 원료 부족이나 기타 이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다수의 잉여 노동자가 고용되어 있었다.<sup>233)</sup> 전후복구도 끝나가던 1956년 초, 김일성은 소련 대사 이바노프와의 면담 자리에서 건설 부문에서의 노동력 감축 방안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다. 당시 16만 명의 노동자가 건설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데, 건설 분야가 기계화되어 있지 않아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만 진행하고 있었다. 김일성이 보기에 건설 규모상 절반인 8만 명의 노동자만 있어도 될 일에 너무 많은 노동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었다.<sup>234)</sup>

## (2) 물자 부족 및 낭비 현상에 따른 생산 차질

전쟁으로 인해 생산력이 급감한 상황에서 급속한 전후 복구를 위해 자원을 투입하면서 노동력뿐만 아니라 자재 및 원료, 그리고 연료의 부족 현상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북한 지도부는 한편으로는 원료, 원자재 등의 증산을 통해 부족 현상을 극복하려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생산 과정에서 물자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전후 복구 사업에는 대규모의 건설 자재가 필요하였다. 특히 시멘트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였다. 1954년 1월 28일, 남일 외무상은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를 초청하여 북한의 복구 사업에 시멘트가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소련이 서둘러서 송호리시멘트공장을 복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235)</sup> 실제로 당시

231) 김황일, 「로력 후비와 로력 원천 해결의 길」, 『근로자』96, 1953. 11, 70쪽.

232) 노동력 충원과정에 관해서는 이세영, 앞의 논문, 2010, 18~21쪽 참조.

233)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1954년 2월 1일~2월 28일)」, 『사료집 73』, 2013, 97쪽.

234)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6년 1월 20일~1월 30일)」, 『사료집 73』, 2013, 376쪽.

시멘트를 비롯한 벽돌, 목재 등의 건설 자재가 부족하여 복구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곤 하였다.<sup>235)</sup> 심지어 소련 대사관에서 국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광현에게 대사관에서 필요로 하는 50m<sup>2</sup> 규모의 크지 않은 창고를 건설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을 때, 김광현은 그 정도의 건설도 수행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왜냐하면 국가건설위원회는 심각한 건설자재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다. 생산지에 자재들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철도운송이 이것들의 운반을 감당하지 못하여 자재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sup>237)</sup> 건설 자재 이외에도 철재, 강재, 원사 등 생산 전반에 걸쳐 원료가 부족한 상황이었다.<sup>238)</sup>

당시 주된 연료였던 석탄 또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1954년 내각 결정 제90호를 채택하여 석탄을 증산할 것을 결정하였다. 동 결정에 따라 1954년내에 유연탄 11만 톤, 무연탄 25만 톤을 추가 생산할 것이 결정되었으며, 탄광 부문 노동자들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동년 7월 1일부터 탄광 노동자들에 대하여 생산계획 초과 실행에 대한 상금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sup>239)</sup>

건설 자재 부족과 운수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1955년도에도 전후 복구 건설은 차질을 빚고 있었다. 1955년 3월 1일 김일성은 수즈달레프 소련 대사에게 북한 내 도시의 모든 건설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고백하였다.<sup>240)</sup> 8월에 들어서서도 문제는 더 악화되었다. 박창옥은 시멘트, 목재, 철, 관 및 기타 자재들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건설계획이 20% 감소할 것이라고 실토하였고,<sup>241)</sup> 김일성은 시멘트 생산계획이 70% 밖에 수행되지 못하고

235)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1954년 1월 1일~1월 31일)」, 『사료집 73』, 2013, 92쪽.

236) 「건설 자재가 량비되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4. 9. 22. 2면.

237) 「소련 임시대리대사 페트로프의 일지(1954년 11월 29일~12월 20일)」, 『사료집 73』, 2013, 182쪽.

238) 「철재와 강재들이 량비된다」, 『로동자신문』, 1954. 10. 14. 2면; 「원료 자재가 량비되는 원인」, 『로동자신문』, 1954. 10. 20. 2면.

239) 「석탄 증산 및 절약에 대한 내각 결정 채택」, 『로동자신문』, 1954. 7. 6. 1면.

240)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1955년 3월 12일~4월 16일)」, 『사료집 73』, 2013, 235~236쪽.

241)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5년 7월 25일~8월 25일)」, 『사료집 73』, 2013, 276쪽.

있으며, 소련에서 조속히 새로운 시멘트공장 건설에 힘써줄 것을 애원하다시피 했다.<sup>242)</sup>

북한 지도부는 노동자들이 각종 자재 및 원료를 낭비하는 것도 물자 부족난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파악하고, 낭비를 줄이고 절약할 것을 요청하였다. 실제로 당시 노동자들은 복구와 생산에 급급하여 자재나 물자를 아껴 쓰는 것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243)</sup> 희천기계제작공장 가공직장 라창옥 선반공은 19 mm 두께의 제품을 만드는데 46 mm 철봉을 선반기에 물리고 깎아서 제작하여 만드는 제품보다도 두꺼운 직경 27 mm의 소재를 낭비하여 신문기사에 올랐다.<sup>244)</sup> 원산직물공장에서는 면직물 제작에 필요한 원료를 154.75% 초과 즉, 실제 필요한 양보다 50% 넘게 더 소모하여 제품을 생산하였다.<sup>245)</sup>

물자 낭비는 공장 관리자측의 관리 소홀도 한 몫을 하였다. 강연춘이 지도하는 공장은 수입한 비괴탄(B塊炭)이 장맛비에 유실되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었다.<sup>246)</sup> 리득영이 사업하는 발전소에서는 생산 전력을 합숙소의 전기온돌 등으로 돌려 사용하고 있었다.<sup>247)</sup> 경우에 따라선 낭비를 넘어서 유용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함흥자동차사업소에서는 화물 수송 도중 자동차의 휘발유를 뽑아서 판 것이 적발되었다. 이 사업소에는 국가기관의 “지도원”들이 찾아와 휘발유를 유용해가기도 하였다.<sup>248)</sup>

낭비를 줄이려면, 노동자들이 낭비를 줄이려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또한 정해진 표준조작법을 숙지하여 그에 맞게끔 노동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물자를 소모하지 않아야 했다. 석탄 증산을 결정한 내각 결정 제90호에는 또한 교통

---

242)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5년 7월 25일~8월 25일)」, 『사료집 73』, 2013, 280~281쪽.

243) 「건설 자재가 낭비되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4. 9. 22. 2면.

244) 「철재와 강재들이 낭비된다」, 『로동자신문』, 1954. 10. 14. 2면.

245) 「원료 자재가 낭비되는 원인」, 『로동자신문』, 1954. 10. 20. 2면.

246) 「석탄이 낭비되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4. 9. 4. 2면.

247) 「전력 절약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자」, 『로동자신문』, 1954. 10. 12. 1면.

248) 「귀중한 휘발유가 낭비되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4. 9. 6. 2면.

성, 중공업성 등 생산 부문의 성들이 석탄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선진 기관사, 선진 노동자, 기사, 기수들의 경험에 기초하여 석탄 소비 기준을 7월 10일까지 재사정하고, 그에 맞춰 해당 각 산하 기관들은 기존보다 석탄을 적게 받게 할 것이라는 결정도 포함되어 있었다.<sup>249)</sup> 동년 9월에는 내각 지시 제115호로 설비 기자재의 취급 규율을 강화하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라는 내용을 결정하였다. 설비와 기자재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만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이 지시에서는 국가 자재들을 무단 출고, 낭비, 횡령한 데 대한 책임 추궁과 질서와 규율을 확립할 것 또한 강조하였다.<sup>250)</sup>

노동자들은 원단위(原單位) 소비규정<sup>251)</sup>, 표준조작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고 기술 숙련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받았다.<sup>252)</sup> 물자 절약은 증산경쟁의 의무 조항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은 생산협의회와 작업검토회 등을 통해 물자 절약 방법을 탐색하였다. 청진 제유공장에서는 보일러 투탄(投炭) 횟수를 조절해 본 후 한번에 6삽 이상 투탄하던 기존 방법 대신 3~4삽씩 투탄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그 방법을 일반화하였다. 그 결과 석탄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투탄시에 보일러 화구를 여는 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되어 보일러 속에 찬 기운이 들어가는 것이 방지되었고, 또한 클링커(clinker)가 없어서 석탄이 완전 연소되게 되었다. 그리고 기존에 매 교대마다 4~5회씩 하던 보일러 청소도 2~3회로 줄일 수 있어 그만큼 보일러가 식는 시간도 단축되었다.<sup>253)</sup>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정밀한 제작도면을 작성하고, 만드는 과정이 세

249) 「석탄 증산 및 절약에 대한 내각 결정 채택」, 『로동자신문』, 1954. 7. 6. 1면.

250) 「설비 자재 특히 국가 예비 및 조절 폰드에 속하는 설비 기자재의 취급 규율을 강화하며 그를 합리적으로 리용할데 관한 내각 지시 발표」, 『로동자신문』, 1954. 9. 24. 1면.

251) 원단위 소비기준이라고도 한다. 단위제품을 생산하거나 단위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노력, 연료, 원료, 자재, 설비, 자금 등의 이용 및 소비 한계를 규정한 국가적 기준으로 풀이된다. 원단위 소비기준을 낮추는 것은 더 많은 생산과 건설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다(『경제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85, 730쪽).

252) 「원료 자재가 낭비되는 원인」, 『로동자신문』, 1954. 10. 20. 2면; 「가장 적게 들고 가장 많이 생산하자」, 『로동자신문』, 1954. 12. 17. 1면.

253) 「석탄 소비량을 50% 절약」, 『로동자신문』, 1954. 9. 28. 2면.

밀히 적혀있는 기술공정표를 제작하거나, 원단위 소비규정을 재사정하여 낭비 현상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sup>254)</sup>

그렇지만, 이런 조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낭비 현상이나 물자 부족 현상이 쉽게 근절되지는 않았다. 1954년 12월 27일자 『로동자신문』 기사에는 남신의 주역 하차장에 800여 톤의 유연탄이 방치된 채 풍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리는 기사가 실렸다. 이 유연탄을 찾아가야 할 신의주 요업공장 측은 노동력과 운수장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찾아가지 않고 있었다.<sup>255)</sup> 소련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원조로 보내준 각종 기계, 자재들도 표준조작법대로 사용하지 않아 고장나거나 방치, 낭비되기도 하였다.<sup>256)</sup>

## 2) 노동자들의 생산현장 복구 노력과 외부원조

### (1) 파괴된 공장 복구·조업 재개와 전후 복구건설 노력동원

북한 지도부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에 대해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정전이 되면서 김일성을 비롯한 당 주류 세력은 '민주기지' 강화와 자립경제 구축을 근거로 급진적인 사회주의 이행 노선을 추구하였다.<sup>257)</sup> 급격한 사회주의 이행이란 곧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추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는 소련의 사회주의 산업화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소련에서 1920년대 중반 당내 격렬한 토론을 통해 결정된 급격한 산업화 방식은, 국가 주도 하에 인위적으로 산업간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경공업 및 농업 분야를 희생해서 중공업 분야의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다.

254) 「낭비 현상이 없도록 대책을 취하였다」; 「각 부문에서 절약을 강화」; 「취대가 적어졌다」; 「철강재 절약을 위한 투쟁」, 모두 『로동자신문』, 1954. 12. 17. 2면.

255) 「신호등 - 못 쓰게 되는 유연탄」, 『로동자신문』, 1954. 12. 27. 3면.

256) 「수입 기자재를 적극 아끼며 옮겨 활용하자」, 『로동자신문』, 1954. 12. 29. 1면.

257) 조수룡, 앞의 논문, 2018, 23~27쪽.

이를 위해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요구되었기에,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고취하려는 노력도 강조되었다.<sup>258)</sup>

북한의 경우, 정전 이후 전후 복구 건설과 함께 사회주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농업협동화도 진행되었지만,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원조가 있었기에 상대적으로 농업 분야를 덜 희생하면서 산업화를 진행할 수 있었다.<sup>259)</sup> 또한 전쟁의 경험으로 인해 인민들의 정치의식을 자연스럽게 고취시킬 수 있었던 점도 유리하게 작동하였다.<sup>260)</sup> 이 절에서는 먼저 전후 복구를 위한 노동자와 인민들의 노력을 살펴보고, 다음 항에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원조가 북한의 사회주의적 산업화에 미친 영향을 다루겠다.

북한 지도부는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전후 복구에 주력하였다. 이 계획에서 공업 부문은 1956년까지 공업생산을 1.5배 성장시킬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인민들의 생활이 파폐해진 만큼, 소비품 생산에도 주의를 기울여 1956년에는 전쟁 전인 1949년 수준을 능가하여 2배로 성장할 것을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3년간 373억 6,000만 원을 공업 부문에 투자하기로 하였다.<sup>261)</sup> 이제 당면 과제는 파괴된 공장을 복구하고 조업을 재개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은 공장의 관리자 측 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전부 총력을 기울이고 협력하면서 진행되었다. 『로동자신문』과 같은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각 공장 복구와 조업 재개 기사를 비중있게 실으며 소식을 전파하였다.<sup>262)</sup> 1954년 5월 9일 전후 복구를 마친 남포유리공장의 조업식

258) 강윤희, 「스탈린의 산업화 전략과 소련 공산당 기능의 변화, 1928-1932」, 『국제정치논총』 42-4,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450~451쪽.

259) 차문석, 앞의 책, 2002, 67~70쪽.

260) 한성훈, 앞의 책, 2012, 438쪽.

261) 박장욱, 「1954~1956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에 관한 보고」,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第1輯)』, 1988, 645~646쪽.

262) 「회천 기계 제작 공장 조업식 거행」, 『로동자신문』, 1954. 7. 30. 2면; 「회천 자동차 부속품 제작 공장 준공식 거행」, 『로동자신문』, 1954. 7. 30. 2면; 「강선 제강소 분괴 압연 직장 조업식 거행」, 『로동자신문』, 1954. 9. 8. 1면; 「황해제철소 대형 조강압연직장 조업식 거행」, 『로동자신문』, 1954. 9. 14. 1면; 「성천 선광장 조업식 거행」, 『로동자신문』, 1954. 9. 22. 1면; 「해주 세멘트 공

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동 공장 기사장 손택은 복구사업 과정을 보고하였다.<sup>263)</sup> 이 보고는 당시 공장 복구과정의 실제 전형을 드러내주고 있다.

남포유리공장은 복구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우수한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을 선별하여 실태조사 위원회를 조직하고 조사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을 통해 당장 시급한 생산에 요구되는 시설과 건물의 복구부터 결정할 수 있었다. 남포유리공장은 생산을 재개하기 위하여 파괴된 가스 발생로 1대와 제관기 4대를 비롯한 용해로부터 복구하고, 제관장과 용해장 건물도 복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지만 복구를 위해서는 많은 자재와 기능자들이 필요하였는데 이것들이 부족하였다. 직맹 초급단체 위원회와 반 총회가 열렸고, 부족한 부분은 '내부 원천'을 동원하여 해결하자고 결의하였다. 많은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생산협의회를 개최하여 어떻게 하면 주어진 조건에서 복구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을지 의견을 모았다. 노동자들이 내놓은 의견들은 행정 기술 협의회에서 검토되었고, 공장에 파견된 소련 기사인 막심 빼또로위츠와 알렉산돌 이와노위츠, 그리고 중국 기술자 계국평, 마진방, 유덕보, 조진방 등의 기술 지원을 통해 현실화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남포유리공장은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고, 5월 11일 대대적인 조업식 행사가 열렸다. 이 시기 공장 복구 조업식 등은 정부 고위층 인사부터 공장 관계자들의 가족, 지역 주민들까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남포유리 공장 조업식에는 박창욱, 김일, 최창익, 홍명희 부수상들을 비롯한 정부 요인들과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 그리고 소련 및 중국 기술자들이 주석단으로 초빙되었다. 조업식이 시작되면 먼저 김일성이 공장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축하문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남포유리공장 축하문은 최창익 부수상이 전달하였다. 이어서 공장 지배인이 공장 복구 과정에 대하여 보고를 하고, 정부측에서는 공장 복구에 공이 있는 노동자, 기술자들에 대한 훈·포상을 진행하였다. 같

---

장 조업식 거행, 『로동자신문』, 1954. 12. 11. 1면.  
263) 손택, 「판유리를 생산하기까지」, 『로동자신문』, 1954. 5. 11. 3면.



은 6월 6일 열린 황해제철소 제1호 평로 출강식에서는 동 제철소 19명의 노동자, 기술자들에게 로력 훈장, 국기훈장 제2급 및 제3급, 그리고 공로 메달 등을 수여하였다.<sup>264)</sup> 남포유리공장의 경우 화학건재공업상 정준택이 동 공장에 증산경쟁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며 화학건재공업성 및 직업총동맹 공동순회 우승기를 수여하고, 75명의 노동자, 기술자들에게 상품을 수여하였다. 이어서 정부측 내빈의 축하 연설이 있는 후, 노동자들은 김일성에게 그 해의 생산계획 초과 달성을 결의하는 편지를 보낼 것을 채택하면서 본행사가 마무리되었다.<sup>265)</sup> 황해제철소의 경우는 본행사가 끝난 다음, 동 제철소 문화씨클과 노동자 예술단 그리고 송림 시내 학생 씨클의 경축 공연을 진행하였다.<sup>266)</sup>

공장 복구 건설 과정은 노동자들의 열성과 협력에 의해서 성과를 거두었다. 부족한 복구 건설용 물자는 이른바 ‘내부 원천’을 통해 확보해야 했다. ‘내부 원천’을 동원하는 것은 순전히 노동자들이 감내해야 할 몫이었다. 공장 관리자 측은 ‘내부 원천’을 찾아 없는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수령의 교시임을 상기시키며 독려하였다. ‘내부 원천’을 동원하는 문제는 노동자들의 증산경쟁 의무 조항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청진 스테이트공장의 노동자들은 공장 복구를 위한 벽돌을 며칠 안에 2,000여 매 모으겠다고 맹세하였고, 철공들은 버려진 철 조각들을 모아서 건설용 도구를 제작하겠다고 나섰다. 노동자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 공장은 한달만에 30만 5,000여 원에 해당하는 복구용 원자재를 해결할 수 있었다.<sup>267)</sup> 또한 노동자들은 구락부, 민주선전실, 도서실, 탁아소, 체육장 등 공장 내 문화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른바 사회적 애국노동, 즉 무보수 시간외 노동으로 복구해 나가야 했다.<sup>268)</sup>

26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중공업성 산하 황해 제철소 노동자 기술자들에게 공화국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관하여」, 『로동자신문』, 1954. 6. 10. 2면.

265) 「남포 유리 공장 조업」, 1954. 5. 11. 3면.

266) 「황해제철소 제1호 평로 출강식 거행」, 『로동자신문』, 1954. 6. 10. 2면. 공장 복구 조업식 뿐만 아니라 제철소, 제련소와 같은 경우에는 평로나 용광로를 복구하여 생산을 재개할 때에도 출강식이나 화입식과 같은 행사가 열렸다(남포 제련소 제4호 용광로 화입식 거행, 『로동자신문』, 1954. 7. 10. 1면; 「황해 제철소 조강 직장을 복구하기까지」, 『로동자신문』, 1954. 9. 12. 2면).

267) 「모든 원천을 동원하여」, 『로동자신문』, 1954. 12. 31. 3면.

노동자들이 주로 공장 복구에 전념하였다면, 파괴된 도시 등의 재건은 민주 청년동맹(이하 민청)이나 민주여성동맹(이하 여맹)에 속한 청년, 여성들이 주로 담당하였다. 이들은 전후 상시화, 일상화된 노력동원의 대상이었으며, 순전히 육체노동과 다를 바 없는 동원을 통해 집단적 노동의 위력을 경험하면서, 일부는 노동자로의 길에 들어서기도 하였다.

전후 복구와 관련한 대규모 노력동원 사업은 주로 건설·건축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평양의 복구 건설이었다.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평양시를 재건하기 위하여 평양시 주민들과 각 행정기관의 사무원, 조선인민군, 그리고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 여성들이 동원되었다.<sup>269)</sup> 특히 1954년 6월 1일부터는 8월 15일까지 복구 공사를 끝내자는 목표를 잡고 경쟁운동에 들어서면서, 매일 평균 1만 3,000명씩 동원되었다. 동원된 이들은 첫 45일간에 이미 11만 2,000 m<sup>2</sup>의 콘크리트 포장과 5만 4천m<sup>2</sup>의 윤회선 머캐덤 포장(Macadam's paving, 돌을 사용한 도로 포장방법), 연장 2만 3,000 m에 달하는 우수관(雨水管), 오수관(汚水管)을 부설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270)</sup>

전후 복구건설 뿐 아니라 이후 대규모 토목공사나 탄광 개발과 같이 단기간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어김없이 노력동원이 이루어졌다. 송남 청년 탄광 개발지는 이름 그대로 원래 탄광 노동자가 아닌 청년들의 자원을 받아 개발하기 시작한 탄광이었을뿐더러,<sup>271)</sup> 탄광 철도 인입선 공사는 김책공업대학 학생들이 동원되어 진행되었다.<sup>272)</sup> 독로강 발전소 건설과정에서도 청년·학생들의 동원은 어김없이 이루어졌다. 민청 돌격대원들은 발전소 건설을 위해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서 수심 1 m 이상이 되는 강물에 뛰어들어 6,000 m<sup>3</sup>가 넘는 얼음 덩어리들을 끌어내야만 했다. 또한 굴착 작업도 수백명

268) 「애국적 사회로동으로 문화시설들을 복구 정비하자」, 『로동자신문』, 1954. 6. 30. 1면.

269) 「영웅도시 평양의 복구 건설 투쟁에 총궐기- 건설의 불길 드높은 쓰팔린 대동로 공사장」, 『로동자신문』, 1954. 6. 4. 3면; 「들끓는 평양시 복구 건설장」, 『로동자신문』, 1954. 8. 7. 3면.

270) 「평양시 근로자들의 빛나는 로력 성과」, 『로동자신문』, 1954. 8. 9. 2면.

271) 김근오, 「우리는 송남으로 간다」, 『조선문학』12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10, 110쪽.

272) 김영철, 「젊은 개발자」, 『조선문학』133,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9, 155쪽.

의 학생들을 동원하여 이루어졌다.<sup>273)</sup>

정전 이후 북한 전역의 복구 건설장에서 노력을 기울인 것은 청년과 여성들이었다. 정전 직후 한달여 사이에 함흥 시내의 청년들 연 6,300여 명은 함흥역, 함흥 요업공장, 본궁화학공장 등의 복구 건설장에 노력동원되었다. 흥남 지역의 청년들 연 5,100여 명도 같은 시기에 공장 복구 건설장에 동원되어 공장구내의 많은 폭탄구멍들을 메꾸고, 부서진 기계부속품들과 파고철(破古鐵)을 수집하였다.<sup>274)</sup> 성혜랑은 “북조선의 복구건설은 대학생들에 의해서 수행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단정지어 회고하였다. 그녀가 속해있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전후복구 당시 서평양 경기장 건설을 맡았다. 서평양 경기장은 모란봉 울밀대 밑에 있는 암반지대로서, 당시 아무런 기계도 운반 기계도 없이 그들은 손 등짐과 곡괭이로 바위를 까서 퍼 나르고 경기장을 건설하여야만 했다. 그녀는 노력동원으로 대부분 수업시간을 배우고 4년중 실제로는 1년 8개월 밖에 공부를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기억하였다.<sup>275)</sup>

이처럼 전후 복구건설 단계에서 청년층의 역할이 중요했던 만큼, 북한 지도부는 1954년 전국 청년 열성자 대회를 열어 청년들의 적극적인 체제 건설과 참여를 독려했다. 전국 청년 열성자 대회는 1954년 7월 10일~13일 평양에서 열렸다.<sup>276)</sup> 대회장에는 각 도와 조선인민군, 내무성, 교통성 청년대표들 800여 명이 모였으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인 김두봉, 박정애, 박창욱, 김일, 박영빈, 박금철 등과 내각 부수상인 최용건, 최창익, 홍명희, 정일룡, 박의완 등, 그리고 김기수, 김영숙 등의 민청 간부, 노력영웅, 노력 혁신자, 모범 농촌 청년들, 학생 대표, 교원 대표 등 50명으로 대회 주석단이 구성되었다. 주석단에는 중국 청년 대표단 단장과 전체 단원들도 포함되었다.

대회 첫날 이들은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투쟁

---

273) 조정국, 「독로강의 분류」, 『조선문학』13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7, 101쪽.

274) 「복구 건설에 나선 청년들」, 『로동자신문』, 1953. 9. 21. 2면.

275) 성혜랑,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0, 257~258쪽.

276) 「전국 청년 열성자 대회를 열렬히 축하한다」, 『로동자신문』, 1954. 7. 10. 1면.

에서의 청년들의 과업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 후 민청 중앙위원회 김기수 부위원장의 “전후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 실행을 위한 투쟁에서의 청년들의 과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6시에 제1일 회의가 끝났다.<sup>277)</sup> 대회 제2일 및 3일 회의부터는 보고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에는 성진 제강소 중앙 민청 조직원 김종식, 선반공 리진구, 다수확 여성 농민 강온순, 노력영웅 김창선, 공화국영웅 김성진, 내무성 군무자(軍務者) 박필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김두순 등 청년들이 참가하였다.<sup>278)</sup>

대회에서는 “김일성 원수에게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의 초과 완수를 위하여 증산경쟁운동을 더 열심히 벌이겠다는 것이었다. 맹세문에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홉 가지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어졌는데 그 중 1~3번은 산업 노동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관련된 것이며, 4번은 노력 동원에 적극 참가하겠다는 것, 5~7번은 농민, 학생, 군인으로서의 자세, 8번은 국가 안보, 9번은 민청 간부로서의 자세에 관한 것이었다.<sup>279)</sup> 북한의 전후 복구와 경제 건설을 위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맹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북한 지도부는 7월 18일에는 12만여 명의 청년들이 참가한 평양시 복구 건설 제1계단 사업 총화와 전국 청년 열성자 대회 호소문지지 평양시 청년 군중 대회를 열어, 열성자들뿐만 아니라 대다수 청년들 또한 적극적으로 노력동원을 비롯한 경제 건설에 참가해 줄 것을 유도하였다.<sup>280)</sup>

청년들 만큼이나 여성들의 노력동원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sup>281)</sup> 당시 농촌에서 여성들이 농사일을 주로 담당하고 있었던 만큼이나,<sup>282)</sup> 도시에서는 복

277) 「전국 청년 열성자 대회 개막」, 『로동자신문』, 1954. 7. 12. 1면.

278) 「당과 수령이 부르는 길에서 헌신 충직할 것을 결의」, 『로동자신문』, 1954. 7. 16. 1면.

279) 「김일성 원수에게 드리는 맹세문」, 『로동자신문』, 1954. 7. 16. 1면.

280) 「평양시 청년 군중 대회 성황」, 『로동자신문』, 1954. 7. 20. 1면. 1면.

281) 청년이라는 범주에는 당연히 남자와 여자를 포괄하고 있다. 이 시기에 노력동원의 대상으로 지칭되는 여성은 주로 전업주부인 기혼여성을 의미하였다.

282) 박영자, 『북한 여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엘피, 2017, 266~272쪽.

구 건설을 위해 많은 여성들이 동원되고 있었다.<sup>283)</sup> 순전히 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복구 건설은 여성들에게 힘이 부친다고 하여 완력을 요하는 일은 남성들에게 떠 넘기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이 하는 일을 못할 리가 없다는 생각으로 애쓰는 여성들도 있었다.<sup>284)</sup>

청년들의 동원을 독려하기 위해서 청년 열성자 대회가 열린 것처럼 1954년 8월 17일에는 “전국 녀성 대회”가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대회가 열린지 8년만이였다. 대회에는 690여 명의 여성 대표들이 참석하였고, 주석단에는 김일성을 비롯하여 박정애, 박창옥, 김일, 최창익, 홍명희, 박의완, 박영빈, 박금철, 하양천 류영순, 허정숙, 김영수, 리경희, 정철성, 안신호 및 기타 당과 정부 인사들과 각 사회단체 대표들이 포함되었다. 역시 이 전국 여성대회는 전후 복구를 위해 여성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조직된 자리였다.<sup>285)</sup>

앞서 성혜랑의 언급처럼 전후 복구를 위한 노력동원은 고역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자로 진출할 것을 결심하는 이들도 나오고 있었다. 평양 복구사업에 동원되었던 한선옥은 이 공사가 끝나면 직장에 들어가 기계를 돌리겠다고 결심하였다. 노동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고 문화를 창조하는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이었다.<sup>286)</sup> 물론 한선옥의 생각은 너무나도 정권의 입장, 노동관과 합치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과연 진심이었는지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지만, 한편으로 이 시기 노력동원의 경험이 북한 인민의 생산현장 진출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전후 복구 건설의 중요성을 놓고 자신의 직업을 선택한 사례도 있었다. 리명원은 원래 방직공 경력이 있었는데, 전후 평양시의 복구 건설 과정을 목격하고 건설 노동자가 되기로 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간호병으로 복무했던 리명

---

283) 「건설장에 나온 녀성들」, 『로동자신문』, 1953. 10. 15. 3면.

284) 리춘진, 「복구장으로」, 『조선문학』1954년 7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7, 107쪽.

285) 「전국 녀성 대회 개막」, 『로동자신문』, 1954. 8. 19. 1면.

286) 리춘진, 앞의 글, 1954, 106~108쪽.

원은 1954년 10월 제대하고 방직공이 되기 위해 평양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리명원은 흑심하게 파괴된 평양 거리에 놀라고, 또한 대대적인 복구 건설 현장의 역동적인 모습에 또 한번 놀랐다. 리명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인민들이 살 집을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직공의 꿈을 포기하고 평양 제3건설 트레스트를 찾아가 건설 노동자로 취업하였다.<sup>287)</sup>

한편, 대규모 노력동원의 경험은 북한 인민들에게 ‘집단’의 위력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노력영웅 최성수는 스탈린 거리 공사에 동원되었던 수많은 인민들의 힘에 비교하면 자신의 성과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느꼈다. 그는 “매일 아침 일터에 나올 때마다 수백 수천의 군중의 손에 등을 떠받들려 오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 힘에 고무”된다고 취재 기자에게 말하였다.<sup>288)</sup> 이러한 집단적 규모 속에서 느끼는 고양감은 개인들로 하여금 집단과 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자극할 수 있었고, 그것은 노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이어질 수 있었다.

## (2) 전후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원조를 통한 산업화 추진

전화로 잿더미가 된 북한의 전후 복구를 도운 것은 사회주의권 국가들이었다. 김일성을 위주로 한 북한 지도부는 외부로부터의 원조를 발판으로 삼아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1953년 7월 24일 정전 협정이 체결된 후, 소련 내각 수상인 말렌코프는 소련 정부가 북한을 위해 가능한 모든 원조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전하였다. 8월 13일 수즈달레프 북한 주재 소련대사가 김일성을 방문하여 소련 정부가 소련 국가예산에서 10억 루블을 조선의 파괴된 인민경제 복구에 배정하기로 결정했음을 통지하였다. 그러자 김일성은 수즈달레프 소련 대사를 통해 첫째, 소련 정부가 청진제철소,

287) 리명원, 『건설 작업반장의 수기』, 민청출판사, 1961, 3~26쪽.

288) 윤시철, 앞의 글, 1955, 121쪽.

남포유색금속공장, 승호리시멘트공장, 성진제강소, 흥남화학공장, 수풍수력발전소 등 6개 공업대상의 복구를 담당해 줄 것, 둘째, 소련 정부가 조·소원유가공주식회사 가동을 재개할 것, 셋째,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조·소해운주식회사(Мортранс)의 활동을 재개할 것 등을 요청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소련 정부의 원조금 이용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8월 말경 대표단 및 전문가들과 함께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sup>289)</sup>

8월 24일 수즈달레프 대사는 김일성을 방문하여 소련 정부가 북한의 요청에 동의하였음을 전하였다.<sup>290)</sup> 이후 김일성을 비롯한 박정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일용 내각 부수상, 정준택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남일 외무상, 김희일 교통상 등 북한 정부 대표단은 9월 10일 원조와 관련된 협의를 위해 소련을 방문하였다. 9월 19일 북한과 소련은 의정서를 체결하여, 소련은 2년 동안 10억 루블을 무상원조하고 이중 6억 루블은 공장 복구나 확장에 사용하며, 4억 루블은 신설 공장과 시설에 사용하도록 합의를 보았다.<sup>291)</sup> 복구·확장될 공장들은 김책제철소, 성진제강소, 흥남비료공장, 남포제련소, 승호리시멘트공장, 수풍발전소, 평양방직공장 등이었으며, 견방직공장, 육류종합공장, 해어(海魚)통조림공장, 염산공장, 염색공장 및 표백공장, 트랙터수리공장, 중앙라디오방송국 등을 신설하기로 하였다.<sup>292)</sup> 또한 기존의 차관과 채무를 절반으로 삭감하고, 삭감된 채무의 상환을 1960년까지 유예하였다.<sup>293)</sup>

특히 공장 복구와 관련해서, 소련의 원조 제공 방법은 첫째, 설계 사업 진행, 둘째, 시설품 및 자재 제공, 셋째, 복구 건설 과정에서 기술 원조를 제공하며 해당 공장에 필요한 특허 및 기술 문건 제공, 넷째, 해당 공장을 위한 북한

289) 「소련 임시대리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1953년 8월 1일~8월 28일)」, 『사료집 73』, 2013, 54~56쪽.

290) 「소련 임시대리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1953년 8월 1일~8월 28일)」, 위의 책, 2013, 64쪽.

291) 이시연, 「북한 원조의 정치 경제학 : 1950년대 소련 중국 동유럽 사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47~51쪽.

292) 김일성, 「소련·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보고」,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第I輯)』, 1988, 620~621쪽.

293) 「소련 인민의 위대한 원조」, 『로동자신문』, 1954. 8. 9. 2면.

간부들을 양성하는 방법 등을 포괄하였다. 그 밖에도 철도 운수와 체신 부문의 복구를 위한 시설품 및 자재 제공, 농어업 분야에서는 농기, 농구, 비료, 우량종 가축 및 말, 어선 제공, 주택-공공시설, 병원 및 교육 기관 복구에 필요한 기계 시설품 및 자재들도 소련이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소비품도 공급하기로 하였다.<sup>294)</sup>

중국 또한 북한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였다. 중국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북한에 원조한 일체의 물자와 비용을 전부 무상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1954년~1957년까지 4년간 8조위안의 원조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원조로 북한은 석탄, 포목, 면화, 양곡, 건축 기자재, 운수 기재, 금속 제품, 기계, 농구, 어선, 지류 및 문방구 등을 포함한 각종 물자들과 대량의 일용 필수품들을 받기로 하였다. 또한 기관차와 여객차 및 화물 차량도 중국에서 공급하기로 하였다.<sup>295)</sup> 1953년 11월 23일 북한과 중국은 「조·중 경제 및 문화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 의거하여 중국은 한국전쟁 기간 북한에 제공한 물자와 부채까지 전부 감면해 주었다. 추가로 「북·중 기술원조협정」 등 7개 분야에 관한 교류협력도 체결하였다.<sup>296)</sup> 그에 따라 북한의 기술자, 기능자들이 중국에 파견가서 실습을 하고, 중국의 기술자, 기능공들이 북한에 와서 일부 생산 부문에서 사업을 돕기로 하였다.<sup>297)</sup> 그에 따라 1954년 중국은 295명의 기사와 기술 인력을 북한에 파견하였다.<sup>298)</sup>

동유럽 국가들도 북한에 원조를 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무상으로 자동차

294) 「소련 정부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간의 회담에 관한 소련-조선 콤포지션」, 『로동자신문』, 1953. 9. 23. 1면.

295) 「중국 방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 환영 평양시 군중 대회에서 하신 김일성 원수의 귀환 보고」, 『로동자신문』, 1953. 11. 29. 1면.

296) 이시연, 앞의 논문, 2019, 52쪽.

297) 「중국 방문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 대표단 환영 평양시 군중 대회에서 하신 김일성 원수의 귀환 보고」, 『로동자신문』, 1953. 11. 29. 1면; 김일성, 「소련·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보고」, 앞의 책, 1988, 623쪽.

298) 선즈화 저,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역, 『최후의 천조(天朝)』, 선인, 2017, 402~403쪽.



공장, 자동차부속품공장, 공구공장 등 많은 공장들을 신설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또한 시멘트공장과 장진강, 허천강, 부전강 발전소들을 복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sup>299)</sup> 체코슬로바키아는 또한 북한에 ‘스꼬다(Škoda)형’ 증기기관차를 원조로 제공하였다.<sup>300)</sup> 폴란드는 1954년~1956년 간 무상으로 기관차수리공장, 객화차수리공장의 신설, 3개 탄광의 배수 및 개조, 복구사업에 필요한 물자의 무상 제공을 약속하였다. 헝가리는 유기화학공장, 도량형기공장, 공작기계제조공장 등을 무상 설치하고, 전기기계, 통신기구 등을 무상 제공하며, 기술자들도 파견하기로 하였다. 동독은 디젤엔진공장, 전기기구생산공장, 출판인쇄공장의 신설, 그리고 생필품과 공장설비 기자재의 원조, 루마니아는 시멘트공장과 아스피린공장, 벽돌 제조 기계, 객차, 어선, 유조차, 불가리아는 목제품제조공장과 벽돌 생산 기계 제공 등을 약속하였다.<sup>301)</sup> 1954~1956년 사이 동유럽 국가의 북한 경제 지원은 10억 루블을 상회하였다. 몽골 역시 농경제(農經濟) 회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였다.<sup>302)</sup>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받은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였다. 원조를 통해 소련 등으로부터 선진적인 공장설비나 기계를 어느 정도 갖추 수 있었지만, 그에 맞추어 필요한 것들이 계속 생겨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속품의 추가공급이나 선진적인 제품 생산에 필요한 새로운 설비나 기계가 계속 요구되었다.

김일성은 시시때때로 북한 주재 소련대사를 만나 구체적이고 세세한 사항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요청하였다. 1955년 10월 19일, 김일성은 강선제강소에 설치하려는 가스관 생산용 설비와 압연기에 대한 주문을 접수하고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북한에는 설비가 없기 때문에 가스관을 생산할 수

299) 김일성, 「소련·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보고」, 앞의 책, 1988, 624쪽.

300) 「체코에서 온 기관차가 달린다」, 『로동자신문』, 1953. 9. 29. 1면.

301) 김일성, 「소련·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보고」, 앞의 책, 1988, 624~626쪽.

302) 이시연, 앞의 논문, 2019, 52~53쪽.

없으며, 가스관이 없기 때문에 주택건설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수입할 외화가 부족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청진의 김책제철소에 필요한 보일러청소용 설비가 소련에서 공급되지 않았으며, 이 설비를 신속하게 공급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 그 밖에도 제철소의 제2 해탄로(骸炭爐) 복구 작업을 위한 소련인 기사 1명과 기술자 1명의 파견을 요청하였기도 하였다.<sup>303)</sup>

전후 경제 복구 건설 3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1956년에 들어서도 북한의 원조 요청은 계속되었다. 김일성은 이바노프 대사를 불러 북한 인민들의 생활 수준은 여전히 전쟁 이전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소련의 추가원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이어서 김일성은 철 40만 톤, 매해 2,000만 m의 천과 5,000 톤의 목화, 알곡 5만 톤과 설탕 1만 톤, 트랙터와 자동차, 탄광 및 광산을 위한 설비 등을 포함하여 총액 5억 루블에 이르는 무상원조를 소련에게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sup>304)</sup>

소련 대사가 김일성의 발언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후 소련이 약 3억 루블의 무상원조를 결정하였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김일성이 원하는 것들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1956년 5월 29일 정부 결정에 따라 공장 작업도면 제공, 공장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 제공, 제품생산설비 제공, 강철압연제품 제공, 소련 전문가의 북한 체류 기간 연장 조치 등을 북한에 통보하였다.<sup>305)</sup> 이처럼 이 시기에는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 국가들로부터 많은 양의 원조가 북한에 제공되었다. 북한은 이 원조를 바탕으로 빠른 전후 복구와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

전후 복구를 진행하는 인민들에게도 외부원조는 희망을 주는 소식이었다. 『로동자신문』과 같은 매체들은 각종 원조와 관련된 소식들을 주기적으로 기사

303)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5년 10월 19일~10월 28일)」, 『사료집 73』, 2013, 322쪽.

304)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6년 5월 17일~6월 1일)」, 『사료집 73』, 2013, 440~442쪽.

305)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6년 6월 14일~6월 20일)」, 『사료집 73』, 2013, 472쪽.

화하였다.<sup>306)</sup> 소련의 10억 루블 원조 제공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생산직장들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직장대회를 열었다.<sup>307)</sup> 원조를 받는 것이 확정된 공장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기도 하였다. 성진제강소에서는 소련에서 보내올 기계들과 기술자들을 맞아들이기 위한 준비사업을 진행하였다. 기사들은 소련의 기술서적들을 번역하는 한편 소련 기술자들의 편의를 위해 공장 복구건설 계획과 도면들을 노어로 번역하였다. 또한 소련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기사들과 기사장은 소련에서 올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준비와 소련식 작업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술보급사업도 진행하였다. 노동자들은 새 기계가 설치될 위치에 대한 정리 및 수송도로 신설 작업, 소련 기술자들에게 제공할 주택시설 준비등을 담당하였다.<sup>308)</sup>

생산직장에서 받는 사회주의권 국가, 주로 소련의 원조는 크게 보면 기계, 기술과 작업방법, 기술자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각각의 원조 형태와 관련하여 생산현장과 노동자들의 대응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① 기계

소련에서 보내온 기계들은 당시 일제하부터 쓰던 기계들에 비해 성능면에서 뛰어난 것들이었다. 특히 일제하부터 발전이 억제되어 낙후하였던 기계공

306) 「소련에서 보내온 최신식 려객 자동차가 달린다」, 『로동자신문』, 1953. 12. 6. 1면; 「소련에서 건설 기자재가 계속 오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3. 12. 8. 1면; 「소련과 중국인민들이 보내준 기자재 각지에 계속 도착」, 『로동자신문』, 1954. 2. 4. 1면; 「새로 설치된 선진적 기계로 - 생산능률을 수배로 높이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4. 3. 16. 2면; 「소련으로부터 다량의 원호물자 계속 도착」, 『로동자신문』, 1954. 4. 19. 1면; 「소련 인민이 보내준 기계로 능률 제고」, 『로동자신문』, 1954. 4. 3. 2면; 「우방에서 보내 준 기계로 생산능률 제고」, 『로동자신문』, 1954. 7. 6. 1면; 「새 기계를 다루어」, 『로동자신문』, 1954. 7. 27. 3면; 「소련 인민의 위대한 원조」, 『로동자신문』, 1954. 8. 9. 2면; 「위대한 소련의 원조는 우리의 승리의 튼튼한 담보」, 『로동자신문』, 1954. 11. 5. 3면; 「새로 마련되는 공장」, 『로동자신문』, 1954. 11. 5. 3면; 「새 장치·새 기계」, 『로동자신문』, 1954. 12. 31. 3면.

307) 「소련의 원조에 대한 로동자들의 감사」, 『로동자신문』, 1953. 9. 17. 1면; 「위대한 소련의 원조에 대한 로동자들의 뜨거운 감사」, 『로동자신문』, 1953. 9. 25. 1면.

308) 「소련의 원조를 받기 위한 준비사업 진행」, 『로동자신문』, 1953. 11. 20. 1면.

업 분야에서 원조로 들어온 소련제 기계들은 노동자들의 큰 환영을 받았다. 소련에서 보내온 선반기, 연마반(연삭기), 후라이스반(밀링 머신), 볼반(보링 머신), 홉빙반(호빙 머신), 자동반(자동 선반), 만능기계 등 일련의 공작기계들은 고속도 생산이 가능하고 강력절삭과 함께 조작법이 편리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와 자동 급유장치를 갖추었고 속도변동과 역회전 및 정회전 등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공작기계들은 일체가 남기고 간 것들에 비하여 가공속도의 회전수가 평균 3배 이상으로 높으며 최고 7~8배까지 달하였다고 한다.<sup>309)</sup>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산 능률은 크게 오르게 되었다. 선반공 김동기는 “전에 사용하던 ‘영식 선반기’로는 ‘샤후트’를 겨우 두 개바께 못깎았는데 지금은 일곱 개나 깎아”내어 8개월 14일만에 연간 계획을 초과달성할 수 있었다.<sup>310)</sup> 여성 노동자 김명자는 ‘쁘라야빙’을 깎는 작업에서 소련제 ‘베루나’ 기계를 쓰게 되면서 한 개의 오작품도 없이 매일 자기 책임량의 210% 이상을 실행하게 되었다.<sup>311)</sup>

기계공업 분야 뿐 아니라 소련의 원조가 들어온 북한 산업 제분야에서 소련제 기계는 큰 도움이 되었다. 광산에는 소련제 착암기들이 배정되어 굴진 작업에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sup>312)</sup> 락연광산 착암공 전경선은 소련제 자동 착암기를 사용하여 자기의 책임량을 7배로 초과 실행하였고, 홀동광산 김룡수는 낙광 책임량을 5배 초과 실행할 수 있었다.<sup>313)</sup> 락원기계제작소에는 ‘샤링그’가 설치되어 16 mm 철판을 잘라낼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계가 들어 오기 전까지 철판은 산소로 녹이거나 일일이 망치로 때려서 절단해야만 했다.<sup>314)</sup> 남포 제련소에는 소련에서 보내온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어 광석과

309) 「소련의 공작기계들로 생산 능률을 높인다」, 『로동자신문』, 1953. 12. 12. 1면.

310) 김웅진, 「위대한 원조 속에서」, 『로동자신문』, 1954. 8. 11. 4면.

311) 「소련에서 보내온 우수한 기계들」, 『로동자신문』, 1953. 11. 6. 3면.

312) 「새로 온 기계를 잘 리용하자 - 소련에서 보내온 착암기로 굴진 속도는 높아가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3. 12. 20. 1면.

313) 「소련으로부터 다량의 원호물자 계속 도착」, 『로동자신문』, 1954. 4. 19. 1면.

석탄 등 원료를 수송하는데 사용되었다. 그에 따라 기존에 40여 명이 하던 작업을 이제는 4명의 운전공들이 맡아 할 수 있게 되었다. ‘에쓰까바뜰(экскаватор, 굴착기)’은 노동자들의 가장 힘든 일을 대체하였다.<sup>315)</sup>

한편, 당시 북한 생산현장에는 소련제 이외에도 중국에서 원조로 들어온 기계들도 배치되었으며,<sup>316)</sup> 철도 운수는 체코슬로바키아제 ‘스꼬다형’ 기관차도 들어와 기존에 일제하부터 쓰고 있던 ‘파시형’, ‘데호유형’ 기관차보다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였다.<sup>317)</sup>

노동자들은 뛰어난 성능의 기계를 사용하게 된 기쁨을 드러내었다.<sup>318)</sup> 철단공 정봉세는 “어떻게 쏘련 로동자들의 은혜로운 원조를 한시라도 잊겠습니까? 전에는 중일되는 함마질에 손바닥이 부르텠는데 오늘은 가만히 앉아서 구랏지(클러치)만 당기면 됩니다.”<sup>319)</sup>라면서 감격을 표하였다. 노동자들은 새로 들어온 기계의 유지 보수에 보다 주의를 기울였다.<sup>320)</sup>

하지만, 모든 노동자들이 새로 들어온 기계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1953년 9월 중순에 곡산광산에는 소련제 자동착암기 “까챗 4호”가 배당되었지만, 일부 착암공들은 이 기계가 무겁고 불편하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sup>321)</sup> 노동자들의 신기계에 대한 거부감은 그동안 익숙하게 쓰던 것 대신 낯선 물건을 써야 하는데서 오는 것일 수 있었다. 그렇지만 조작법이 다르고, 입을 줄 모르는 러시아어가 적혀 있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존재하였다. 에스 때 35호 고속도 자동 전신기가 도입된 중앙 전신국 노동자는 새 기계의 조종에 익숙하지 못하였고, 기계 부속의 이름도 몰랐다. 그

314) 김웅진, 「위대한 원조 속에서」, 『로동자신문』, 1954. 8. 11. 4면.

315) 「새 장치·새 기계」, 『로동자신문』, 1954. 12. 31. 3면.

316) 「중국제 새 미링그 앞에서」, 『로동자신문』, 1953. 12. 4. 3면; 「중국에서 보내온 기계로써 더 밝고 오래가는 전구를 생산」, 『로동자신문』, 1953. 12. 18. 1면; 「쏘련과 중국인민들이 보내준 기 자체 각지에 계속 도착」, 『로동자신문』, 1954. 2. 4. 1면.

317) 「체코에서 온 기관차가 달린다」, 『로동자신문』, 1953. 9. 29. 1면.

318) 「쏘련에서 보내온 우수한 기계들」, 『로동자신문』, 1953. 11. 6. 3면.

319) 김웅진, 「위대한 원조 속에서」, 『로동자신문』, 1954. 8. 11. 4면.

320) 「쏘련의 형제적 원조를 받으면서 - 새 기대 앞에서」, 『로동자신문』, 1954. 1. 11. 3면.

321) 「새 굴착법을 연구 적용」, 『로동자신문』, 1953. 12. 4. 3면.

러다 보니 기계 고장도 자주 일으켰고, 기계의 회로도를 국문으로 번역하여 알기 쉽게 붙여 놓는 수고도 하여야 했다.<sup>322)</sup>

조작 미숙에 따른 기계 고장은 꽤 심각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는데, 고장난 부속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으면 수리가 불가능하여 소련에 다시 원조 물품으로 신청하고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기껏 외국에서 들어온 각종 기계, 자재들이 조작 미숙으로 고장나 방치되거나 낭비되는 현상도 나타났다.<sup>323)</sup>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기계의 표준 조작법을 빠른 시간 안에 배우고 익혀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sup>324)</sup> 이 과제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이들은 그만큼 높은 생산성과를 올려 이득을 볼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이런 상황이 불만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기계란 여러 부속품들의 조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각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물건이었다. 이런 점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소련제 기계 사용에 하나의 과제를 던져 준 것이다. 즉, 단지 기계에 익숙해지는 문제뿐 아니라 이 기계를 북한의 생산 수준에 맞게끔 적응시켜 성능을 끌어내야 하는 것이었다.

정성훈 선반공이 일하는 직장에 소련제 고속도 선반기가 들어왔으나 문제가 발생하였다.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 선반에 붙여 금속을 깎는 공구인 바이트(bite)가 견뎌 내질 못하고 망가지는 것이었다. 이는 이전부터 써오던 바이트의 재질이 근본적으로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속도 및 강력절삭이 가능한 ‘꼬레썬브(플레썬브) 바이트’를 사용하였는데, 이번에는 바이트의 압력에 의하여 기계 회전이 200회로 떨어지고 ‘고정 썬타(center)’가 녹아버렸다. 정성훈은 꾸준한 연구 끝에 고정 썬타를 회전 썬

322) 「소련에서 온 기계를 나는 능숙하게 다룬다」, 『로동자신문』, 1953. 12. 22. 2면; 「새로 온 기계를 잘 리용하자 - 소련에서 온 자동 고속도 인쇄 전신기가 설치되었다」, 『로동자신문』, 1953. 12. 20. 1면.

323)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1954년 2월 1일~2월 28일)」, 『사료집 73』, 2013, 97쪽.; 「수입 기자재를 적극 아끼며 옹기 활용하자」, 『로동자신문』, 1954. 12. 29. 1면.

324) 「소련 인민이 보내준 기계로 능률 제고」, 『로동자신문』, 1954. 4. 3. 2면.

타로 개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sup>325)</sup>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문제는 다른 직장에서도 벌어졌다.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에서는 소련제 선반기는 있지만, 플레썬브 바이트가 없었다. 플레썬브 바이트란 특수하게 강한 강철로 구운 바이트를 의미하는데, 이 바이트의 날을 세우려면 그에 걸맞는 고속도 연마기가 필요하였다. 당시 공장에는 그러한 고속도 연마기가 없었지만, 희천기계제작공장에서 새로운 선반 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선반공 황찬재의 노력으로 창안에 성공하였다. 그 결과 플레썬브 바이트 제작에 성공하여 선반기의 속도를 견뎌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물론 그 결과 이 선반기의 썸타도 가열로 인해 타버렸고, 공장 노동자와 기술자들은 다시 이 문제에 매달려 썸타에 베어링을 달수 있게끔 개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sup>326)</sup>

위의 일화들만 봤을 때, 소련제 선반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특수 제작 바이트(플레썬브 바이트)가 필요했음을, 그리고 바이트가 있으면 이번에는 선반의 썸타가 타지 않게 개조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플레썬브 바이트가 없다면, 이를 자체 생산할 고속 연마기도 필요했다. 즉 소련제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 수준을 끌어 올리는 것은 총체적인 기계와 기술, 노동자와 기술자의 역량의 결합에 의해서 가능하단 것을 의미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두 개의 사례가 약 1년여의 시간적 격차를 두고서 각각 다른 공장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소련제 선반기의 도입과 그에 따른 문제 해결 방식이 북한 전체 생산현장에 고르게 전파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증한다. 따라서 소련제 선반기를 써야 하는 다른 수많은 공장들에서는 여전히 많은 해결 과제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며, 이는 북한 노동자들에게 외국 기계의 도입에 대해 반드시 긍정 일변도의 반응만이 나오지는 않았음을 가늠하게 한다.

## ② 기술·작업방법

325) 「쏘련에서 보내온 새 기대를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다」, 『로동자신문』, 1954. 3. 8. 2면.

326) 한성, 「맹세」, 『조선문학』103,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3, 83~86쪽.

소련제 기계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소련식 기술, 소련식 작업방법의 도입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전쟁 전에도 북한 사회 여러 분야에서는 소련을 향하여 배우자는 캠페인이 지속되었지만,<sup>327)</sup> 전후 복구 건설과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이 시기야말로 생산 분야에서 소련 따라 배우기가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선진적’인 기술과 작업방법의 학습은 따라 배우기의 본령이라고도 할 수 있었다. 북한 지도부는 복구 건설 과정에 선진기술과 작업방법을 적극 도입할 것을 요구하였다. 예컨대 건설 분야의 경우, 노동당과 정부는 노동자들을 위해 소련 등의 건축 시공 기술에 대한 견학과 실습을 조직하였고, 이 부문 동맹단체들은 선진적 기술을 습득할 것을 노동자들에게 선진하였다.<sup>328)</sup> 또한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적용하여 좋은 성과를 낸 사례들은 『로동자신문』과 같은 언론매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선진기술 도입을 장려하였다.

또한 미군의 폭격으로 기존 시설이 거의 파괴되거나 고장났기 때문에, 복구 과정에서 단지 기존의 설비나 시설로의 복구가 아니라 신기술과 장비를 갖추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도 수월하였을 것이다. 리국순은 흥남비료공장 재건을 위해 소련에서 각종 건설 기계, 자동화 장치 계기류, 변압기, 전동기를 비롯한 동력 설비 등을 보내어 왔는데, 이는 공장의 단순 복구가 아니라 새로운 선진기술을 도입하며 낡은 설비를 갱신하고 기술 공정을 개선할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sup>329)</sup> 강선 제강소 분괴 압연 직장의 경우, 복구 과정에서 소련 압연기사 효도르 쉐묘노위츠와 제강기사 와실리 지묘노위츠의 직접적인 기술 원조를 받았고, 압연기사 리재천은 소련의 드네쁘르메뜨로브스크 제철공장을 비롯한 여러 제철공장의 가열로, 압연기, 프레스 등의 특성을 본받아 가열

327) 1945~1950년 시기에 이미 소련의 과학기술은 북한의 산업화와 근대화를 위해 반드시 배워야 할 것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었다. 관련 연구로는 이세영, 「1945~1950년 북한의 과학기술과 근로인민 형성에 대한 인식」, 『동방학지』174, 2016. 참조.

328) 「건설장에서 새 기술과 선진 작업방법을 보급하자」, 『로동자신문』, 1954. 7. 6. 2면.

329) 리국순, 앞의 글, 1960, 248쪽.



로와 축로, 기계들을 시설하였다.<sup>330)</sup>

한편 1955년 북한과 소련은 조·소 과학기술협력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1956년부터 연 1~2회씩 정기적으로 조·소 과학기술협력위원회의 의정서에 조인하였다.<sup>331)</sup> 이 협정으로 양국의 과학기술의 성과물들을 무상으로 상호 교환할 것을 합의하였는데, 이는 북한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었다. 이 협정에 의거하여 소련은 1955~1956년 동안 1,000여점 이상의 기술지침 문서와 기록들을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며, 기간산업·자본재 건설 분야의 139건의 기술문서, 172건의 기계장비 설계도면, 60여점의 생산공정 기술 문건 등도 무상제공하였다.<sup>332)</sup> 1957년 북한에서 소련 전문가가 철수한 이후 조·소 과학기술협력위원회는 북한이 소련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는 중요한 창구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는 선진기술 도입 사례가 계속해서 부각되었다.<sup>333)</sup> 선진기술의 도입이 성공한다면, 기존의 생산 성과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었다. 굴진 착암공 김춘보는 소련식 작업방법인 ‘진동식 발파법’을 적용하여 자기 굴진계획 40 cm를 120 cm로 높일 수 있었다. 같은 광산 채굴 착암공 리영권은 자기 책임량을 457%로 실행하였으며 대당 낙광량(落鑛量)을 평균 10 톤씩 더 증가시켰는데, 그 비결은 ‘계단식 채굴법’을 적용하면서 소련제 착암기 407호와 자동식 스톱퍼(stopper)를 함께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sup>334)</sup> 강선 제강소에서는 소련 기사의 지도를 받아 기존에 평균 18~20시간 걸리던 제강 시간을 13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었다.<sup>335)</sup>

330) 「선진 과학 기술로 장비된 분괴 압연직장」, 『로동자신문』, 1954. 9. 8. 2면.

331) 신효숙, 「조소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자료로 본 북러 과학기술협력」, 『현대북한연구』8-3, 북한대학원대학교, 2005, 32쪽.

332) 백준기, 앞의 글, 2001, 712쪽.

333) 「건설의 불길 높은 제강소」, 『로동자신문』, 1953. 9. 15. 2면; 「선진적 작업 방법을 써서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3. 11. 16. 2면; 「소련의 선진 작업방법을 널리 적용」, 『로동자신문』, 1953. 12. 10. 1면.

334) 「소련의 선진적 작업방법을 적용하여」, 『로동자신문』, 1953. 12. 14. 2면.

335) 「위대한 소련을 향하여 배우자! - 기술을 배우는 로동자들」, 『로동자신문』, 1954. 11. 7. 3면.

선진기술 도입 과정에서 함께 강조된 것은 선진기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는 외국의 기술이 북한의 생산 수준이나 특질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끔 응용하여 적응하라는 것이었다. 아오지탄광의 김직현은 자기 1일 채탄 책임량을 1,458%까지 실행하였다. 그는 원래 소련식 채탄방법을 쓰려고 하였으나 기자재와 기능 숙달 정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소련의 사정과 많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자기 직장 사정에 맞게 새 작업 방법을 고안하였던 것이다.<sup>336)</sup> 철도 운수 분야에서는 최기룡, 정도명등이 맡기한 자검자수(自檢自修) 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방법은 소련의 알렉산드로비츠 루닌 기관사의 작업방법을 적절하게 변용한 것이었다.<sup>337)</sup>

선진기술의 도입과 함께 노동자들에게는 이른바 ‘선진적인 작업방법’을 채택할 것이 강조되었다. 이 선진적인 작업방법이란 소련에서 실시되고 있는 ‘꼬왈레브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꼬왈레브 방법이란 간단히 말하자면 소련식 테일러리즘으로서, 동일한 작업에 여러 노동자들의 작업 동작을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뜯어서 분석하고 그 중에서 제일 우수한 동작과 방법을 종합 선택하여 이를 일반화하는 것이었다.<sup>338)</sup>

이처럼 선진기술과 작업방법의 도입 문제에 대해 노동자들의 대응은 엇갈렸다. 개천탄광에서는 소련의 다중단(多中段) 동시 채탄법을 도입하려고 하였는데, 많은 노동자들은 채탄 작업을 기계화하여 예전처럼 힘들게 육체노동을 하지 않고도 더 많은 석탄을 캐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도입을 찬성하였다. 하지만 일부는 방대한 채탄장을 만드는데 노동력이 많이 든다는 점, 무연탄을 캐기에는 불안전하다는 점 때문에 도입을 반대하였다.<sup>339)</sup>

336) 「새로운 작업 방법 - 김직현 동무의 “복식 연속 발파법”」, 1953. 11. 4. 2면.

337) 「우리 철도에서 날로 확대되는 루닌식 “기관차 자검자수” 운동」, 『로동자신문』, 1953. 9. 21. 2면.

338) 「선진적 꼬왈레브 방법을 적용」, 『로동자신문』, 1954. 10. 16. 2면; 박충상, 「꼬왈레브 방법으로」, 『우리들의 작업합리화』, 로동자신문사, 1954, 3쪽. 북한에서 소련식 테일러리즘의 도입과 적용을 둘러싼 제문제에 대한 분석은 김보근, 「북한 ‘천리마 노동과정’ 연구 : ‘소련식 테일러주의’의 도입·변질 과정」,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을 참고할 것.

339) 「무연탄 채탄에서 새로운 혁신 - 최두식 기사의 다중단 동시 채탄법」, 『로동자신문』, 1954.

직맹은 『로동자신문』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선진적인 과학 기술과 작업 방법을 받아들여 널리 보급하는 것이 증산과 건설의 속도를 보다 높이는 중요 조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선진기술과 경험을 대담히 받아들이라고 채근하였다.<sup>340)</sup> 그러나 노동자들, 그리고 기술자들 사이에서 신기술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쉽게 근절되지는 않았다.

벽돌을 제작하는 요업 분야에서는 소련 기사 깐뎨꼬가 주도하여 새로운 벽돌 제작 방법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기존 방법을 고수하는 노동자들은 새로운 기술 적용을 달가워하지 않았다.<sup>341)</sup> 대성요업공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자 “벽돌의 질이 낮아진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견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경험교환회에서 신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노동자들을 수위나 식당 관리원으로 배치해버리기도 하였다.<sup>342)</sup> 심지어 어느 요업공장에서는 단순히 거부감 표시를 넘어서 새 방법을 적용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일도 벌어졌다. 소성공 김영재가 소련식 작업방법을 적용하여 벽돌을 굽자 제1 브리가다 책임자 김대성은 새 기술로 조절하는 댐퍼(damper, 공기조절판) 네 개를 몰래 닫아버려 벽돌 생산을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이다.<sup>343)</sup>

노동자들 사이에 존재했던 거부반응을 극복하고 신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결국 신기술에 의한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그러려면 신기술을 배운 노동자나 기술자가 솔선하여 생산성으로 증명하여야 했다. 신기술 전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은 소련에서 파견나온 소련인 전문가, 소련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북한 기술자, 그리고 ‘경험 교환회’에 파견나가 신기술과 작업방법을 연수받은 노동자 등이었다.

12. 5. 3면.

340) 「선진 기술과 경험을 대담히 받아들이자」, 『로동자신문』, 1954. 3. 4. 1면; 「건축 및 경험 교환회의 성과를 일반화하라 - 왜 낡은 방법이 계속되고 있는가?」, 『로동자신문』, 1954. 7. 18. 2면; 「선진 기술과 경험의 습득을 위한 투쟁」, 『로동자신문』, 1954. 7. 22. 1면

341) 안명철, 「선진방법을 도입하여 얻은 새 성과」, 『로동자신문』, 1954. 11. 7. 3면.

342) 「건축 및 경험 교환회의 성과를 일반화하라 - 왜 낡은 방법이 계속되고 있는가?」, 『로동자신문』, 1954. 7. 18. 2면; 「선진 기술과 경험의 습득을 위한 투쟁」, 『로동자신문』, 1954. 7. 22. 1면.

343) 「새 것은 낡은 것을 승리한다」, 『우리들의 작업 합리화』, 로동자신문사, 1954, 75~81쪽.

소련에서 파견나온 소련인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후술할 터이지만, 이들은 자연스럽게 북한에서 소련 기술 전파의 선봉에 섰다. 앞서 언급된 강선 제강소에서도 와실리 기사와 효도르 기사의 지도에 의해 제강 시간을 대폭 단축시켰기에 노동자들은 소련 기술의 선진성을 인정할 수 있었다. 많은 노동자들이 소련 기사가 직접 출연하는 강연회에 참석하여 기술을 배우고자 하였다. 소련 기사들은 강연 이외에도 매주 화, 금요일마다 작업시간 이후 30분씩 노어 학습을 지도하였으며, 그 이외의 날에는 기술 전수나 이론적 기초 강의 등도 도맡아 진행하였다.<sup>344)</sup> 어떤 경우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소련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소련 노동자에게 직접 편지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지르브 드릴 작업 방법을 도입하는데 난항을 겪던 공장에서는 소련 꾸이브체브 기계 제작소 볼반공 웨. 이. 지르브에게 편지로 구체적인 지도를 청하였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지르브로부터 자세한 회신이 돌아왔고, 그 결과 도입에 성공할 수 있었다.<sup>345)</sup>

소련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기술자들도 생산현장에서 소련식 기술을 전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sup>346)</sup> 소련의 우랄 공과대학을 마치고 귀국한 기술자 한석린은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소련식 ‘고속도 후라이스’ 가공법을 전파하였다. 또한 같은 공장의 노동자 라시흡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어 그로 하여금 3 mm 이하의 정밀한 드릴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을 주었다.<sup>347)</sup> 락연광산에서는 소련 스페르도롭스크 광산대학을 졸업한 기사장 김학영이 ‘웨트식’ 발파법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여 착암공 구자성으로 하여금 한번의 발파에서 714 톤을 낙광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게끔 하였다.<sup>348)</sup>

소련인 기술자나 소련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기술자가 없는 공장에서는 노

344) 「위대한 쏘련을 향하여 배우자! - 기술을 배우는 노동자들」, 『로동자신문』, 1954. 11. 7. 3면.

345) 「지르브 드릴 작업방법을 도입」, 『로동자신문』, 1954. 10. 16. 2면.

346) 「쏘련에서 배우고 도래온 기술자들」, 『로동자신문』, 1953. 11. 6. 3면.

347) 「쏘련의 선진기술 적용하여 가공부문의 능률 30배로」, 『로동자신문』, 1953. 11. 2. 2면.

348) 「쏘련의 “웨트식” 발파법을 적용하여 한 발파에 714톤 낙광」, 『로동자신문』, 1954. 9. 18. 3면.

동자들이 ‘견학 및 경험 교환회’ 등에 참석하여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견학 및 경험 교환회’는 각급 직업동맹 단체들에서 노동자들의 기술과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선진 작업방법을 보급하기 위하여 조직하였다.<sup>349)</sup> 경험 교환회는 소련인 기술자나 모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기술이나 경험을 발표하고 전수하여 주는 자리였다.<sup>350)</sup> 예컨대 덕천제사공장의 모범노동자 김옥순은 견학 및 경험 교환 사업차 함흥제사공장에 파견나왔다. 김옥순은 노력영웅 당운실의 직장 동료로서 당운실의 선진적 작업방법을 체득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김옥순은 함흥제사공장 노동자들에게 당운실의 작업방법과 작업 도면을 세미나를 통해 가르치고, 실제 작업 동작도 시연하였다.<sup>351)</sup> 경험 교환회에 참가한 각 공장 노동자들은 여기서 선진기술이나 작업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각자의 직장에 돌아가 이를 실제 생산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았다.<sup>352)</sup> 지역별, 부문별로 경험 교환회가 열리면 각 공장에서는 많은 노동자들을 파견하였다.<sup>353)</sup> 신천직조공장의 최광옥, 문정자, 신현숙 등은 경험 교환회에서 다기대운동을 배워왔으며, 사리원 방직공장에 파견되었던 신응화는 해사기(解絲機)를 기계화하는데 성공하였다.<sup>354)</sup>

### ③ 기술자

사회주의권의 원조에서 또한 큰 의의를 갖고 있었던 것은 전문가의 파견이었다. 아고브에 따르면,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에서 전문가를 통한 기술 이전은 일반적인 형태였다.<sup>355)</sup> 이 시기엔 소련을 위시로 중국, 동유럽 국가의 전문

349) 「활발히 전개될 견학 및 경험 교환 사업」, 『로동자신문』, 1953. 12. 14. 1면.

350) 「선진적 기술 경험들을 교환」, 『로동자신문』, 1953. 12. 10. 2면; 견학 및 경험 교환회에서- 노력 영웅 당운실 동무의 선진적 작업 방법을 보급」, 『로동자신문』, 1954. 1. 9. 2면.

351) 「견학 및 경험 교환회에서- 노력 영웅 당운실 동무의 선진적 작업 방법을 보급」, 『로동자신문』, 1954. 1. 9. 2면.

352) 「견학 및 경험교환회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살려」, 『로동자신문』, 1954. 9. 2. 2면.

353) 「착암 기술 경험 교환 및 경기 대회 진행」, 『로동자신문』, 1954. 5. 27. 1면;

354) 「선진 경험을 받아 들어」, 『로동자신문』, 1954. 7. 18. 2면; 「석탄 부문 선진 기술 경험 교환회」, 『로동자신문』, 1954. 12. 5. 2면; 「토건 부문 혁신자 경험 교환회」, 『로동자신문』, 1954. 12. 5. 2면.

가, 주로 기술자들이 북한에 파견되었다.<sup>356)</sup>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이미 기능공이나 기술자가 부족하였기에, 외국, 특히 소련인 기술자들의 도움은 북한 경제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박창옥은 소련 전문가들이 없다면 단 하나의 중요한 생산과업도 사실상 해결하기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며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sup>357)</sup>

전쟁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소련 전문가들의 파견은, 1954년 초 선발대 파견이 있는 후, 195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sup>358)</sup> 이들은 2년 동안 북한에 체류할 예정으로 들어왔는데, 북한 지도부들은 그들의 체류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주길 희망할 정도로 그들을 필요로 하였다.<sup>359)</sup> 1954~1956년 동안 소련은 기술자, 지질학자, 경제학자, 강사 그리고 과학자 등 600여 명의 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하였다. 1955년에서 1961년까지 본다면, 1,680명의 소련인 전문가들이 북한에서 근무하였으며, 그 중 60여 명은 고문단으로 활동하였다.<sup>360)</sup> 김일성은 “형제적 국가들로부터 우리 나라에 수많은 기능공, 기술자, 전문가들이 파견되는 유리한 조건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여” 생산 현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기술기능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생산현장에 파견 나온 소련인 기술자들로부터 현장 전습을 받으라는 주문이었다.<sup>361)</sup> 그는 북한인 노동자, 대학생들을 해외 파견하여 기술 연수를 받거나 유학하는 것보다 당장 북한 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기술을 전수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355) Agov, Avram Asenov, 앞의 논문, 2010, 246쪽.

356) 중국에서 파견한 기술자와 관련해서는 평양시 복구를 위해 중국 건축 기술자들 770명이 북한에 들어왔다는 기사와 회전기계제작공장에 1954년 7월 20일 상해기계제작공장의 공배창, 소계재 등이 파견나왔다는 기사가 확인된다(「중국 기술자들이 왔다」, 『로동자신문』, 1953. 11. 22. 1면; 「벗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로동자신문』, 1954. 11. 13. 3면; 로송삼, 「로동자 아파트를 짓기까지」, 『로동자신문』, 1954. 12. 19. 3면).

357)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1954년 8월 23일~9월 25일)」, 『사료집 73』, 2013, 174쪽.

358) 리국순, 앞의 글, 1960, 249쪽.

359)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5년 7월 25일~8월 25일)」, 『사료집 73』, 2013, 281쪽.

360) Agov, Avram Asenov, 앞의 논문, 2010, 246쪽.

361) 김일성, 「소련·중화인민공화국 및 인민민주주의 제국가들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의 사업경과보고」, 앞의 책, 1988, 636쪽.

이 “형제국”에서 온 전문가들, 특히 소련인 기술자들이 와서 한 일은 우선 첫째, 소련식 기술이나 작업방법을 전파하는 주요한 통로 역할을 담당하였다.<sup>362)</sup> 특히 이들은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문건들을 선진경험에 기초하여 새로 작성하였다.<sup>363)</sup> 두 번째로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생산현장에서 북한의 기술자나 기능공들에게 기술 전습을 실시하였다.<sup>364)</sup> 세 번째로는 복구하거나 새로 건설해야 하는 공장의 설계를 담당하였다.<sup>365)</sup> 평양 교외인 용성에 북한 최초의 육류 콤비나트를 건설하게 되었을 때, 소련의 설계 기사 오시뵈위츠는 이 콤비나트의 건설 대지 선정 및 측량, 구체적인 설계까지 도맡아 실행에 옮겼다.<sup>366)</sup> 네 번째로, 이들 소련 기술자들은 생산현장의 결함이나 문제점 등을 북한 노동자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였다.<sup>367)</sup> 예컨대, 성진제강소에 파견된 야금기사 깔바또브는 기존의 철 장입(裝入) 작업에 큰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제강소 노동자들은 그때까지 광석 내의 탄소 성분을 조사하지 않고 되는대로 장입하였던 것이다. 깔바또브는 그들에게 제일 무거운 원료부터 차례로 로에 넣고 마지막에 가벼운 원료를 넣도록, 그리고 선철을 로에 넣을 때는 원료가 잘 가열된 편에 있는 투입구를 이용하도록 가르쳐 주었다. 그 결과 용해 시간이 14시간에서 8시간 40분으로 크게 단축되었다.<sup>368)</sup> 다섯 번째로, 북한 노동자들이 생산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을 때, 그것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조언을 하였

362) 「우리와 함께 기대앞에 나선 쏘련 기사」, 『로동자신문』, 1953. 11. 6. 3면; 「뜨거운 마음」, 『로동자신문』, 1954. 5. 1. 2면; 「쏘련 기사의 기술적 원조」, 『로동자신문』, 1954. 8. 23. 3면; 「새 장치·새 기계」, 『로동자신문』, 1954. 12. 31. 3면; 박용화, 「선진 기술을 배워」, 『로동자신문』, 1954. 11. 5. 3면.

363) 리국순, 앞의 글, 1960, 250쪽.

364) 「복구 건설 투쟁에 힘차게 나선 흥남 비료공장 로동자 기술자들」, 『로동자신문』, 1953. 9. 21. 1면.

365) 「쏘련 기사의 도움을 받아」, 『로동자신문』, 1954. 3. 16. 2면.

366) 「새로 마련되는 공장」, 『로동자신문』, 1954. 11. 5. 3면.

367) 「평로에서 첫물은 흐른다」, 『로동자신문』, 1954. 6. 10. 2면; 「반다렌꼬 기사와 함께」, 『로동자신문』, 1954. 12. 9. 3면.

368) 「쏘련 기사의 기술적 지도밑에 용해 시간을 훨씬 단축하였다」, 『로동자신문』, 1954. 3. 14. 2면; 박용화, 「선진 기술을 배워」, 『로동자신문』, 1954. 11. 5. 3면.

다. 꼬라깅 기사는 후라이스공 방도순이 플레썬브 바이트에 의한 강력 절삭법을 후라이스 가공에 적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을 내놓았을 때, 그를 고무하여 생각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sup>369)</sup> 마지막으로 북한에 원조 물품으로 들어온 소련 기계의 설치 및 사용법들을 북한 노동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sup>370)</sup>

생산현장의 소련인 기술자들은 북소관계의 경색에 따라, 1957년 10월경 고문단 철수와 발맞춰 귀국하였다.<sup>371)</sup> 그렇긴 하지만, 1953~1956년의 3년간, 북한은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의 원조를 통해 “사회주의 형제애”란 무엇인지 경험할 기회를 얻은 셈이었다. 아고브의 표현을 빌리자면, “밀월 기간”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파견나온 소련인 기술자들을 통해 그러한 “형제애”를 실감하였을 것이다. 소련의 물적·인적 원조를 통해 북한은 전후의 폐허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할 수 있었으며, 산업화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소련은 비록 상호교환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북한에 선진기술을 전수하며 사회주의권의 수장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할 수 있었다.

### 3) 노동자의 세대교체에 따른 생산현장의 변화

#### (1) 신규 노동자들의 생산현장 진출

“어느 건설장에 가나 청년들이 중심 성원이지요. 이를테면 청년들이 핵심으로 일한다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로력 위훈자도 한두사람이 아니라 대중적 범위에서 많은 것입니다.”<sup>372)</sup>

369) 「우리와 함께 기대앞에 나선 소련 기사」, 『로동자신문』, 1953. 11. 6. 3면.

370) 「소련에서 보내온 우수한 기계들」, 『로동자신문』, 1953. 11. 6. 3면.

371) 조수룡, 앞의 논문, 2018, 183쪽; 리국순, 앞의 글, 1960, 250쪽.

372) 윤시철, 앞의 글, 1955, 118쪽.



노력영웅인 최성수는 취재 기자에게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중심 계층은 청년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는 전쟁으로 인하여 노동자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최성수 또한 민청 소속 청년들과 법률학교의 남녀 학생들과 같은 작업반을 꾸려 함께 일하고 있었다.<sup>373)</sup>

전후 복구를 위해서, 그리고 산업화를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기존의 노동자들은 대개 죽거나 군 복무중이었기에 새로운 노동자들을 발굴하고 충원하는 일이 절실하였다. 단순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넘어, 전쟁 기간 절박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배치되었던 노동력을 적절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그러했다. 주을탄광 2갱의 경우 새롭게 청년들이 노동자로 배치되고 나서야 18명의 연로한 노동자들과 여성 노동자들이 갱내에서 나와 다른 간접 부문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었다.<sup>374)</sup>

1953년 9월, 조선노동당 제6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노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동생산성을 제고할 것을 결정하였다.<sup>375)</sup> 그에 따라 전후 복구 시기 노동자 충원은 농민(화전농민), 여성, 군인, 학교를 졸업한 청년 등을 위주로 급격히 진행되었다. 그 밖에도 전쟁으로 파산한 도시 소상공인, 수공업자, 기업가들도 노동자 대열에 편입되었다.<sup>376)</sup> 1953년에서 1956년 사이 평균 재적 노동자 수의 증가는 아래 표와 같았다.

<표 12> 1953~1956년 평균 재적 노동자 수 (단위 : 천 명)

연 도	1953년	1954년	1955년	1956년
평균 재적 노동자 수	574.6	690.0	763.3	808.2

출처 : 『조선중앙년감』 1958년도, 178쪽.

373) 윤시철, 위의 글, 1955, 118쪽.

374) 「탄광은 청년들의 보람있는 일터」, 『로동자신문』, 1954. 8. 29. 3면.

375) 김황일, 앞의 글, 1953. 70쪽.

376) 조정아, 앞의 글, 2003, 159쪽.

급격한 신규 노동자의 증가 결과 공장, 탄광 등은 군대 징집연한이 지난 장년층의 노동자들 일부와 다수의 노동경험이 전무한 신입 노동자들로 구성되게 되었다.<sup>377)</sup> 그리고 이들 신입 노동자의 대부분은 공장 노동이 처음이었다. 1953년 8월 현재 중공업부문 전체 노동자 중 10년 이상의 노동경력을 가진 노동자는 4%도 되지 않았고, 그중 절반 이상의 노동자들은 1년 미만의 노동경력밖에 갖지 못하였다.<sup>378)</sup> 다음은 계층별로 노동자 진출 추이를 살펴보겠다.

#### ① 농민(화전농민)

농촌 또한 전쟁으로 노동력 부족, 축력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도 전후복구건설 시기에 산업 노동자의 수요를 담당하는 저수지 역할을 하였다.<sup>379)</sup> 북한의 농촌 인구는 농업협동화가 진행됨과 동시에 도시로 유출되었다. 북한의 통계에 따르면 1953년 12월 1일 현재 563만 8,000명이었던 개인 농민의 숫자는 1960년 말 현재 479만 명의 협동농장원으로 줄어들었다. 100만 명 이상이 감소한 것이다.<sup>380)</sup> 이들 상당수는 산업 노동자로 진출하였다.

화전농민들도 공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 김일성은 1953년 8월 8일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전민들을 자원에 의하여 다수 공업 분야로 진출시킬 것을 제시하였다.<sup>381)</sup> 그에 따라 각 지역별로 화전민들을 공업 분야로 진출시키기 위한 해설 사업들이 전개되었다. 평안북도 벽동군에서는 선전원들이 화전민 부락들에 파견 나

377) 「핵심 노동자들의 역할을 높이며」, 『로동자신문』, 1954. 8. 31. 2면.

378) 김일성,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47쪽.

379) 김원석,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 발전과 로력 문제」, 『근로자』156, 1958. 11, 31쪽 참조. 한편 북한 지도부는 전시에도 전제로 인하여 빈농화된 농민들 중에 생산직장에 진출을 희망하는 자들은 국가 농·목장 또는 산업직장에 적극 알선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빈민 및 령세어민들의 경제 형편 개선대책에 대하여(당중앙정치위원회 제140차 회의 결정서, 1952년 12월 20일)」, 『사료집 29』, 1998, 239쪽).

380) 『조선중앙년감』 1964년도, 조선중앙통신사, 316쪽의 통계 ‘인구의 장성 및 그의 성별 구성’과 ‘주민의 직업별 구성’을 이용하여 산출.

381) 김일성, 앞의 책, 1956, 85~86쪽.

가 좌담회, 호별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전을 하였다.<sup>382)</sup> 그 결과 다수의 화전민들이 공장에 진출을 하였다.

1954년 말부터는 이른바 ‘재해농민’들의 공장 진출도 있었다. 1954년 북한에는 흉년이 들었다.<sup>383)</sup> 북한 지도부는 농사를 짓기 어려운 재해농민들을 탄광이나 공장에 취업시키도록 결정하였다. 내각 결정 제133호에 의하여 함경북도 재해농민 300여 명은 청진제강소 복구장에 취업하였다.<sup>384)</sup> 또한 함경북도 경흥군 내 19개리의 재해농민 1,000여 명은 아오지탄광에 진출하였다. 다만, 이들이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탄광 노동자로 이직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들의 아오지탄광 진출 원인에 대해 『로동자신문』에서는 당과 정부의 1955년도 영농 준비 사업과 생활 안정 대책 등에 대한 보답의 차원인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sup>385)</sup> 원산요업공장에서는 내각 결정 137호, “함경남도 및 강원도 일부 지역들에서 풍수해 및 조기상해로 인한 재해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데 관하여”에 의거하여 재해농민들을 받아들였다.<sup>386)</sup>

## ② 여성

전후 복구건설 시기에도 여성의 노동자 진출은 계속 강조되었다. 김일성은 1953년 8월 8일 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 노동력을 경공업 부문에 광범히 끌어들이고 상업, 체신, 보건, 문화, 교육기관 등에서도 사무직 근로자로 대대적으로 채용할 것을 제시하였다.<sup>387)</sup> 정전 이후 3개월 만에 평안남도에서만 여성 1만 2,000명이 노동자로

382) 「직장에 나오는 화전민들」, 『로동자신문』, 1953. 9. 17. 3면.

383)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2000, 역사비평사, 363쪽; 1955년도 봄 북한의 식량위기에 관해서는 조수룡,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82~87쪽 참조.

384) 「생산 직장에 나온 재해 농민들 - 새 희망과 기쁨」, 『로동자신문』, 1954. 11. 17. 3면; 「공장에 들어온 재해 농민들을 적극 원조」, 『로동자신문』, 1954. 12. 5. 2면.

385) 「당과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여 재해 농민들 탄광에 계속 진출」, 『로동자신문』, 1954. 11. 23. 3면.

386) 「공장에 들어온 재해 농민들을 적극 원조」, 『로동자신문』, 1954. 12. 5. 2면.

387) 김일성, 앞의 책, 1956, 83쪽.

진출하기도 하였다.<sup>388)</sup> 북한의 여성 노동자 수는 전쟁 말기인 1953년 26.2% 였다가 정전 이후, 제대군인과 빈농 등이 노동자가 되면서 1956년 19.9%로 낮아졌다.<sup>389)</sup> 그렇지만 여성노동자는 이후로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 시기 공장에 들어오는 여성들은 도시나 공장 사택 지구 거주 여성, 그리고 인근 농어촌 여성들이었다.<sup>390)</sup> 또한 원래 노동자의 부인으로 살다가 전쟁 중에 남편이 죽거나 군 복무차 집을 떠나게 되면서 남편이 다니던 직장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나이 많은 여성의 경우에는 자식이 군인이기도 하였다. 이런 여성들은 이른바 ‘군무자 가족’이라고 불렸다.<sup>391)</sup> 군무자 가족인 신유선 탄광의 착암공 리부화는 전쟁 시기 죽은 남편의 뒤를 이어 탄광에 진출하였는데, 3자매가 모두 같은 탄광에서 노동을 하기도 하였다.<sup>392)</sup>

여성 노동자들은 대개 공장 경험이 전무한 미숙련공들이었기에 처음에는 직장 적응이나 기술 숙련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직종에 따라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적 지식이 요구되었는데 과거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또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었다.<sup>39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숙련을 쌓아 올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sup>394)</sup> 『로동자신문』과

388) 「모두다 복구 건설 투쟁에 나서자 - 1만 2천명의 평남도 녀성들이 새로 복구 건설장에 나섰다」, 『로동자신문』, 1953. 10. 13. 1면.

389) 박영자, 앞의 책, 2017, 351쪽.

390) 「우리 직장 소식 - 로력 전선에 녀성 로력 진출」, 『로동자신문』, 1953. 9. 17. 4면; 「로력 전선에서 싸우는 녀성들」, 『로동자신문』, 1953. 11. 22. 3면.

391) 「열심히 배운 것을 남에게 전습」, 『로동자신문』, 1953. 9. 29. 3면; 「녀성들은 로력 전선의 주요 역군이다」, 『로동자신문』, 1953. 10. 25. 1면; 「공장에 들어온 군무자 가족들」, 『로동자신문』, 1953. 11. 20. 1면; 「새로운 기쁨 속에서 일하는 군무자 가족들」, 『로동자신문』, 1953. 11. 24. 1면; 「로력 전선에서 싸우는 군무자 가족들」, 『로동자신문』, 1953. 12. 14. 3면; 「8척 선반기를 다루는 능숙한 솜씨」, 『로동자신문』, 1953. 12. 16. 3면; 「당신의 부탁대로 훌륭한 도리배공이 되었습니다」, 『로동자신문』, 1953. 12. 28. 3면; 「3형제의 로동 녀성」, 『로동자신문』, 1954. 9. 16. 3면; 「모범 일꾼이 된 박옥란 동무」, 『로동자신문』, 1954. 12. 1. 3면; 「년간 계획을 완수하였습니다 - 조국 보위 초소에 선 남편에게」, 『로동자신문』, 1954. 12. 9. 3면; 「군무자의 어머니 리룡옥 동무의 행복」, 『로동자신문』, 1954. 12. 13. 3면.

392) 「3형제의 로동 녀성」, 『로동자신문』, 1954. 9. 16. 3면.

393) 「8척 선반기를 다루는 능숙한 솜씨」, 『로동자신문』, 1953. 12. 16. 3면.

394) 「우리 직장 소식 - 로력 전선에 녀성 로력 진출」, 『로동자신문』, 1953. 9. 17. 4면; 「열심히 배운 것을 남에게 전습」, 『로동자신문』, 1953. 9. 29. 3면; 「녀성들은 로력 전선의 주요 역군이다」, 『로동자신문』, 1953. 10. 25. 1면; 「모범 제사공 김성숙 동무」, 『로동자신문』, 1953. 12. 6. 3면; 「

같은 언론매체에서도 여성들의 노동자 진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둔 여성 노동자들의 사례를 꾸준히 기사화하였다.

특히 이 시기에 여성들은 기존에 남성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분야에도 가리지 않고 진출하였으며, 노동 경험을 통해 여성들 또한 남성 못지 않게, 또한 남성들보다도 뛰어나게 일을 할 수 있음을 몸소 실천하였다. 일부 남성 노동자들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 평양시 건축 트레스트에서 오랫동안 미장공으로 일한 박창옥은 “미장공이란 과거부터 녀성이 해본 일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다”하여 여성들에 대한 기술 전습에 소극적이었다.<sup>395)</sup> 그렇지만, 당시 북한의 노동력 수급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지도부 차원에서도 여성들의 적극적인 생산현장 진출을 주문하고 있었기에, 남성 노동자의 이런 태도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었다.

여성 노동자들 또한 일부는 힘든 일을 여성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일부는 남성에 비해 일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다.<sup>396)</sup> 분출공 김혜숙은 화전농민에서 노동자가 되었는데, 점차 공장 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자 “남성들과 같은 임금을 받고 평등하게 일하는데 남성들에게 저서야 되나!”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남성들에게 지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기술을 배운 김혜숙은 6개월 후에 자기 뜻대로 분출공이 되었다.<sup>397)</sup> 정전 후 곡산광산에 취업한 60여 명의 여성 노동자들은 착암수로 일을 하게 되었으며,<sup>398)</sup> 여성 운반공들 또한 갱내에 들어가 30 Kg가 넘는 광석을 질통에 지고 나르는 일을 하였다.<sup>399)</sup>

윤회복은 전쟁 시기에 공장의 횡권기(橫捲機) 운전공들이 군대로 가면서 그

---

년간 계획을 완수한 녀성 착암수, 『로동자신문』, 1953. 12. 18. 3면  
395) 김창연, 「신입 로동자들의 기능 교양 사업에서」, 『로동자신문』, 1954. 1. 9. 2면.  
396) 강신범, 「로동을 하게 된 기쁨」, 『로동자신문』, 1953. 10. 31. 3면.  
397) 「모범 로동자로 된 기쁨」, 『로동자신문』, 1954. 7. 30. 3면.  
398) 「로력 전선에서 싸우는 녀성들」, 『로동자신문』, 1953. 11. 22. 3면.  
399) 박근, 「광맥을 정복하는 사람들 속에서」, 『조선문학』1954년 6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6, 47~48쪽.

자리를 이어받게 되었다. 횡권기 작업은 힘이 약하면 하기 어려운데다가, 기존에 여성들이 해본 예가 없었다. 그렇지만 윤희복은 매일 30분 전에 출근하고, 업무 시간 이후에도 남아서 계속 노력하여 남성 노동자들도 8시간 동안에 250 Kg 밖에 생산하지 못하던 것을 700여 Kg까지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1953년 20살의 나이에 국기훈장 제3급을 수여받게 되었다.<sup>400)</sup>

여성 노동자들의 실력이 발휘되면서, 순전히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작업 조직들도 나오게 되었다. 고령진역은 일명 “녀성역”이라고 불리었는데, 역장 최기옥 이하 직원 전부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sup>401)</sup> 평양 복구 사업에 참여한 한옥화의 브리가다는 11명의 여성들로 조직되었다. 이들은 스탈린 거리 복구를 맡았는데 굴착 작업을 하면서 남성 노동자들보다 힘이 부족하여 능률이 안나자 브리가다 총회를 열고 작업방식을 바꾸었다. 다음날부터 작업을 3단계로 나누어 4명은 밑바닥을 파 흙을 도랑 중턱 발판에 올리고, 다른 4명은 발판의 흙을 표면으로 파 넘기고, 나머지 3명은 그 흙을 뒤집어 정리하는 식으로 하였다. 3 m 아래로 파 내려 갔을 때에는 네 사람씩 조를 나누어 두레박질 하듯이 흙을 퍼올렸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나누고 협동한 결과 이들은 매일 자기 책임량 대비 180~200%씩의 성과를 거두었다.<sup>402)</sup>

이 시기에 대개의 신입 노동자, 그 중에서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됨으로써 크게 두 가지의 긍정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하나는 생계 유지와 물질적 혜택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 계발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강신범은 남편이 죽은 뒤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서 농사를 도우며 살았다. 그러다 미군의 폭격으로 집과 살림살이를 모두 잃어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노동자로 진출한 결과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배급물자를 받게 되어 생활의 걱정을 덜게 되었다. 면직물을 받아 본인과 아이들의 겨울옷을 만들었으며, 겨울에도 채소와 연탄 등을 배급

400) 「처녀 횡권기 운전공」, 『로동자신문』, 1953. 12. 26. 3면.

401) 「“녀성역”」, 『로동자신문』, 1954. 1. 17. 3면.

402) 「굴착작업에서 모범」, 『로동자신문』, 1954. 6. 22. 4면.

받아 걱정을 덜었다.<sup>403)</sup> 김가도의 경우에도 남편이 전선으로 나간 후 혼자 힘으로 화전을 일구고 살았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채석장에 노동자로 취업하였다. 그 결과 난생 처음으로 사택을 얻어 살림을 꾸릴 수 있게 되었다.<sup>404)</sup> 농촌이나 산악지대에서 농사를 짓던 이들이 공장의 사택에 들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일종의 문화 충격이기도 하였다. 연탄 구들장이 깔려 있어 겨울날 걱정을 덜 수 있었으며, “이런줄 알았다면 진작 공장에 들어올 것을...”하면서 후회하는 이도 있었다.<sup>405)</sup> 그리고 강신범과 김가도 둘 다 중시한 것은 노동자가 되면서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교육기회의 확대는 노동자가 되면서 얻는 가시적인 이득으로서 자녀들이 있는 이들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한편 여성들은 노동자가 되면서 교육과 문화 생활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는 자기 계발과 자아 실현의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구성방직공장 직포공 최복실은 공장에 들어오기 전에 문맹이었으나 1949년 첫 출근한 후 5년 동안 직장 기술학교, 직장 고등 기술원 양성소를 졸업하고, 1954년에는 야간 기술전문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다. 그는 전문기술 뿐 아니라 물리, 화학 등 일반 지식을 배우고자 매일 아침 두시간씩 공부를 하였다.<sup>406)</sup> 강신범은 직장에서 자주 영화와 예술공연을 관람하고 오락회에도 참여하면서 문화생활을 즐겼다. 학습회, 강연회, 독보회, 신문 등을 통해서 정치 시사에 대한 관점을 만들 기회도 얻었다. 김가도 또한 영화 및 예술 공연 감상, 노래와 춤을 배우는 등 문화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평양방직공장의 정방공 김봉례 또한 공장에서 휴식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기에 공장 생활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sup>407)</sup>

403) 강신범, 「로동을 하게 된 기쁨」, 『로동자신문』, 1953. 10. 31. 3면.

404) 「그의 어제와 오늘」, 『로동자신문』, 1953. 11. 8. 3면.

405) 「신입 로동자들의 즐거운 새 생활」, 『로동자신문』, 1953. 11. 27. 3면.

406) 최복실, 「나는 기술자가 되련다」, 『로동자신문』, 1954. 11. 1. 3면.

407) 「정방공들의 선두에서 로력적 위훈」, 『로동자신문』, 1954. 8. 19. 2면.

한편, 북한 지도부도 여성의 공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1953년 9월 모성과 유아 보호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관한 내각 지시 제99호를 내려 직장 내에 탁아소 설치를 장려하였다. 탁아 대상 20명 이상을 가진 직장에는 직장 탁아소가 설치되어야 했으며, 1954년 6월 1일 국제 아동절을 계기로 평양 등 주요 도시에는 도시 탁아소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sup>408)</sup> 전쟁 이전에도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고 있었으나 전후에 더욱 확대된 것이다. 그에 따라 이 시기 직장 탁아소 설치가 늘어나고, 규모도 더욱 커졌다.<sup>409)</sup> 4~7세의 어린이를 위한 직장 유치원도 개설되고 있었다.<sup>410)</sup> 또한 여성 노동자들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직장 내 여성을 위한 위생 보호 시설도 설치되었다. 김춘희가 관리하는 광산에서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하여 2개의 개별 위생실을 증설 정비하였다. 이 신설된 위생실은 4㎡ 이상의 처치실과 8㎡의 준비실로 구분되었다. 준비실에는 여성들의 휴식을 위하여 침대를 놓고 각종 의약품들을 비치하였으며, 처치실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더운 물을 준비하였다.<sup>411)</sup>

이처럼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탁아소와 편의시설의 증가는 여성들의 생산 직장 진출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것이었지만, 모든 직장에 설치한 것이 아니라 주로 여성 노동자가 많은 직장에만 설치하였다는 점에서는 여성들의 생산현장 진출에 대한 당대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지점이기도 하였다.

### ③ 군인과 청년

408) 「아동 보호에 대한 두터운 배려」, 『로동자신문』, 1954. 6. 2. 3면.

409) 「직장 탁아소 보모들이 양성된다」, 『로동자신문』, 1953. 9. 29. 3면; 「훌륭한 직장 탁아소」, 『로동자신문』, 1953. 10. 5. 3면; 「공장 탁아소의 하루」, 『로동자신문』, 1954. 1. 9. 4면; 「따뜻한 배려」, 『로동자신문』, 1954. 3. 8. 3면; 「일하는 어머니를 위한 직장 탁아소」, 『로동자신문』, 1954. 3. 8. 3면; 「공장 탁아소의 어린이들」, 『로동자신문』, 1954. 6. 2. 3면; 「어머니들의 기쁨」, 『로동자신문』, 1954. 6. 22. 4면; 「여성들에게 베푸는 두터운 배려」, 『로동자신문』, 1954. 7. 30. 3면; 「우리 광산 탁아소」, 『로동자신문』, 1954. 9. 26. 3면.

410) 「유치원을 설치」, 『로동자신문』, 1954. 8. 5. 3면; 「공장 유치원의 하루」, 『로동자신문』, 1954. 11. 29. 3면; 「개원된 유치원에서」, 『로동자신문』, 1954. 12. 13. 3면.

411) 「여성 로동자들을 위한 위생 보호 시설을 개선」, 『로동자신문』, 1953. 12. 22. 3면.



전쟁 기간과 전후에 일부 군인들도 생산직장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졌다. 전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 밖에 없었던 “영예군인” 즉, 상이군인들은 부상 치료 후 생산 직장에 배치되기 시작하였으며, 포로 교환 이후에는 “귀환병” 즉, 포로로 잡혀 있다 돌아온 군인들도 생산직장에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전선 고착화 이후부터는 제대군인들도 나왔는데 대개 농촌 출신 병사들은 농촌으로 돌아갔지만, 일부 농촌 출신 병사들과 기술인력 상당수는 공장에 진출하였다.<sup>412)</sup>

상이군인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그들의 조건에 맞게끔 작업과 생활상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였다. 상이군인 김현숙이 일하는 공장 직맹 초급단체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상이군인들의 좌담회를 열고 그들의 애로를 바로바로 해결하여 주려고 노력하였다.<sup>413)</sup> 상이군인 정성한이 북중기계제작소의 선반 견습공으로 취업하자, 직장에서는 그를 위하여 특수 작업 의자를 제공하였다.<sup>414)</sup> 혹은 상이군인들로만 이루어진 직장도 존재하였다.<sup>415)</sup> 한편 귀환병들도 각종 복구 건설 공사에 참여하거나 광산 등에 진출하였다.<sup>416)</sup>

그리고 1956년에는 인민군 병력 감축이 진행되었다. 1956년 5월 북한은 약 8만 명의 군인들을 제대시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들 제대군인 상당수는 농촌으로 돌아가 농촌 노동력의 중심이자 당 조직 간부와 ‘핵심 당원’으로서 활동하였다.<sup>417)</sup> 서홍석은 제대군인들이 다년간의 각종 훈련과 전쟁을 통해 고된 작업에 필요한 육체적 강인함을 키워왔으며 단체생활을 통하여 조

412) 서동만, 앞의 책, 2005, 597~599쪽.

413) 「영예 군인들이 생산 직장에서 힘차게 싸우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3. 10. 13. 3면.

414) 「보람찬 로력 생활 - 영예군인 정성한 동무」, 『로동자신문』, 1954. 12. 11. 3면.

415) 「영예군인 제1생산작업소에서 복구를 끝마치고 생산을 시작」, 『로동자신문』, 1953. 10. 15. 1면.

416) 「귀환병들이 로력 전선에서 싸운다」, 『로동자신문』, 1953. 10. 27. 3면; 「적 포로수용소에서 도라온 귀환병들 로력 전선에서 분투」, 『로동자신문』, 1953. 11. 20. 3면; 「귀환병들은 로력 전선에서 힘차게 싸우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4. 1. 17. 3면.

417) 서동만, 앞의 책, 2005, 598~599쪽.

직문화에 적응하고 자신들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는 정신을 함양해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군에서의 정기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정치·과학 이론을 배우고 시사학습을 통해 당과 정부의 정책에도 익숙하였다.<sup>418)</sup> 그렇기에 제대군인들은 생산현장에서 곧 중심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홍석의 분석은 농촌에 국한된 것이지만, 이는 산업 분야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산업 분야로 진출한 제대군인들 중에서 일부는 원래 전쟁 이전에도 공장에 다니던 노동자들이었다. 신백우는 평양곡산공장 전분공이었는데, 1956년 9월 제대하고 옛 직장으로 돌아갔다.<sup>419)</sup> 하지만 대개의 제대군인들은 처음 공장 노동이나 탄광 노동을 접하게 되었다.<sup>420)</sup> 1956년 12월 제대한 안명철은 평양 정밀기계공장에 취업하여 생전 처음 선반공으로 일하게 되었다. 남포제련소 용해공이 된 홍영환 또한 마찬가지였다. 이 새로운 노동자들은 전선과 군대에서의 경험을 떠 올리며 “적과 싸우던 기세로 노력만 한다면 무엇을 못”하겠냐며 기능 전습에 노력을 기울여 곧 숙련 노동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sup>421)</sup>

제대군인의 산업현장 진출은 북한의 생산현장에 군대식 문화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작업반을 군대 조직과 쉽게 동일시하였다. 제대군인은 작업복 대신 종종 군복을 입고 작업하였으며, 작업반원은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전우’로 부르고, 증산경쟁은 전투로, 노동자는 초소에 선 병사로 비유하였으며, 작업 편제에도 군대식 용어를 사용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의 발기자였던 진응원도 제대군인이었는데, 그는 증산경쟁을 “돌격전”으로 표현하며 용해로 앞에서 작업반원들과 함께 군가를 부르며 작업하였다.<sup>422)</sup> 이런 제대군인들의 문화는 북한 생산현장에 전반적으로 전파되었다. 특히 대중동원운동이 그

418) 서홍석, 「북한 농업협동화 시기 제대군인의 활동」, 『韓國史學報』74, 고려사학회, 2019, 391쪽.

419) 「8만명 제대군인들의 그후 이야기 - 옛일터로 다시 돌아온 모범 브리гада장」, 『로동자신문』, 1958. 2. 2, 4면.

420) 삼신탄광에는 160명의 제대군인이 한번에 배치되었다(「탄광에 나선 제대군인들」, 『로동신문』, 1956. 7. 21, 3면).

421) 「제대후 1년」, 『로동자신문』, 1958. 1. 15, 3면; 「8만명 제대군인들의 그후 이야기 - 원수와 싸워 이긴 그 기세로」, 『로동자신문』, 1958. 2. 2, 4면.

422) 이세영, 앞의 논문, 2010, 19~20쪽.

영향을 많이 받았다. 대중동원운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리수복 영웅 돌격대”, “1211고지 돌격대” 등과 같이 대부분 한국전쟁에서의 전쟁영웅과 승리한 전투의 이름을 따 돌격대를 결성하였다. 또한 대대, 중대, 소대와 같은 군대식 편제를 도입하기도 하였다.<sup>423)</sup>

심지어 한국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포로들도 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 포로들은 전시에 도하 작업대나 철도 복구 작업에 강제동원되곤 하였다. 도하 작업대란 미군의 폭격을 피해 야간에 수송 열차에서 화물을 내려 강을 건너 운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sup>424)</sup> 또한 정전 이후 북한에서 돌려보내지 않은 ‘미송환 국군포로’들도 수용소에서 교화소로 이감시켜 근처 공장에서 노동을 하게 하였다. 교화소는 교화소 수감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탄광이나 군수공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다.<sup>425)</sup> 국군포로였던 J는 교화소에서 미싱을 담당하였으며, 조창호 또한 1958년 강계 교화소로 이감되어 군수품 생산 공장인 강계 26호 공장에서 노동을 하였다. 이들 국군포로들은 교화소에서 석방된 뒤에도 생계를 위해 탄광·광산 등에서 노동자로 살아야 했다.<sup>426)</sup> 북한 정권은 이들이 월남할 것을 경계하여 주로 함경도 일대의 탄광·광산 등에 배치하였다.<sup>427)</sup>

전후 복구 건설을 위해서는 대량의 연료가 필요하였기에 탄광 노동자를 확충할 필요가 있었다. 그에 따라 1954년 여름부터는 농어촌의 청년들 다수를 탄광 부문으로 취업하도록 유도하였다.<sup>428)</sup> 함경북도에서는 1954년 7월 25일

---

423) 김용현, 「1950년대 북한사회 군사화의 내용과 성격」, 『북한연구학회보』6-1, 북한연구학회, 2002, 202~203쪽.

424) 박진홍, 『돌아온 패자』, 역사비평사, 2001, 104~105쪽, 215쪽.

425) 임순희, 「귀환국군포로 생애사 연구: 끝나지 않는 이산」, 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문화언론전공 석사학위논문, 2014, 52쪽.

426) 임순희, 위의 논문, 2014, 52~53쪽; 조창호, 『돌아온 死者: 조창호의 북한 생활 43년』, 지호, 1995, 224~226쪽, 247~249쪽.

427) 임순희, 위의 논문, 2014, 68쪽; 조창호는 1964년 강계 교화소에서 석방된 다음 함경남도 희천군 화풍광산에 취업하였다(조창호, 위의 책, 1995, 247~249쪽).

428) 「탄광의 새 청년 작업반원들」, 『로동자신문』, 1954. 8. 21. 3면; 「탄광 ‘청년 돌격대」, 『로동자신문』, 1954. 10. 14. 3면; 「보람찬 나의 탄광 생활」, 『로동자신문』, 1954. 11. 1. 3면.

어랑군에서 1백 14명, 회령군에서 1백 10명의 청년들을 비롯하여 부령군, 영안군, 화대군 등 농어촌에서 다수의 청년들이 탄광으로 진출하였다.<sup>429)</sup>

이처럼 이 시기에는 전쟁 이전의 노동자 다수가 사라지고, 새로운 노동자들이 그 빈 자리를 채워넣는 ‘세대교체’가 발생하였다. 사실상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국군포로의 경우를 제외하고 볼 때, 이 ‘신세대’ 노동자들은 대부분 공장 경험이 없는 미숙련공이었으며, 해방 이후 성장한 젊은이들이 주축이었다. 이들이 산업 노동자가 되는 것은 따라서 ‘이촌향도’의 과정이기도 하였으며, 미혼자들은 대부분 공장 내 합숙소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었다. 또한 대다수가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의 기억을 가지고 있기에 감정적인 연대의식을 높이기 쉬운 처지이기도 하였다. 북한의 전후 산업화는 바로 이들 ‘신세대’ 노동자들이 주축이 되어 수행되어 갔다.

## (2) 노동생산성 저하 현상 극복을 위한 강은양면책

전쟁으로 인한 파괴와 피해로 기존 노동력 다수를 상실하고, 전후에 새로운 노동력을 충원하면서 이 시기 생산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예컨대, 중공업 부문만 보더라도 1954년 5월 25~27일 중공업 부문 열성자 회의를 통해 생산의 난맥상을 알 수 있다.<sup>430)</sup> 이 회의는 1954년 계획 실행을 위한 4개월간의 사업을 총화하는 자리였는데,<sup>431)</sup> 그 사이 드러난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으려는 회의였다. 중공업 부문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만 하여도 유일관리제가 준수되지 않는 것, 사업에서 관료주의와 형식주의가 지속되는 것,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 기업들을 옳게 관리 운영하지 못하는 것, 독립채산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

429) 「젊은 열정을 석탄 증산으로」, 『로동자신문』, 1954. 8. 9. 1면.

430) 「중공업 부문 전국 열성자 대회 폐막」, 『로동자신문』, 1954. 5. 31. 3면.

431) 「김일성 원수에게 드리는 편지」, 『로동자신문』, 1954. 5. 31. 1면.

것, '내부 원천' 동원 사업에 매우 등한한 것, 노동자들의 조직 정치 사업을 홀시하는 것 등이었다.<sup>432)</sup>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자백이나 다름없었다.

이 호소문에서는 각 공장·기업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하였다. 여기서 제시된 구체적인 문제점들로는 채굴 준비 사업의 미비, 품종별 계획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비교적 공정이 단순하여 하기 쉽고 금액이 높은 생산에만 치중하기, 계획 기간 후반부에 일을 몰아서 하는 돌격식 생산, 기술공정 규율 위반에 따른 불합격품 생산, 설비 이용률 저하, 수입기계 관리 부족, 노동력과 자재 낭비, 청부식 사업, 자재 공급에서의 난맥, '내부 원천' 탐구 미비, 기자재 관리 미비, 절약 및 독립채산제 강화 무관심, 노동생산 능률 제고 무관심 등 그야말로 생산과 관련하여 나올 수 있는 문제점들은 거의 다 제시되고 있었다.<sup>433)</sup>

이 호소문에서는 이어서 국가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여덟 가지 항목을 제시하며 중공업 부문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준수를 호소하였다. 제시된 항목들은 첫째, 증산경쟁운동을 통한 국가계획 수행, 둘째, 노동생산 능률의 제고, 셋째, 자재 공급과 관련한 제도 및 규율 준수, 넷째, 독립채산제 강화, 다섯째, 선진과학과 기술 습득, 여섯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무장, 일곱째, 생산문화 확립, 여덟째, 간첩 등에 대한 경각심 제고 등이었다. 실제로 위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은 보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공장·기업 관리자 측의 무능력이나 운영 실패에서 비롯된 것들이었고, 그 결과가 계획 달성 실패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시정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노동자들에게 미루는 셈이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시기에 생산을 정상화시키고 나아가 증가시킴으로써 북한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역할, 혹은 사실상 유일한 가용자원은 노동력,

432) 「중공업 부문 전체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로동자신문』, 1954. 5. 31. 2면.

433) 위의 기사.

즉 노동자들 뿐이라는 반증이었다. 북한 지도부는 생산의 증가를 노동생산성의 부단한 제고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문제는 노동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였다. 당시 나온 노동당 간부 교육용 자료에 따르면, 레닌의 말을 빌려 노동생산성의 제고는 철강 야금 공업, 기계 건조 공업, 전기 공업, 화학 공업 등 대공업의 생산 발전, 그리고 주민 대중의 교양 및 문화 수준의 제고를 통해 가능하다고 단정지었다.<sup>434)</sup>

문제는 대공업의 발전은 단시일에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현존하는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여 가능한 한도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하는 것이었다. 이는 곧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정리되는데 첫째는 광범위한 균중적 경쟁운동을 전개하는 것, 둘째는 노동 행정의 기계화와 노동 숙련성의 제고, 셋째는 노력 조직의 합리화와 노동규율의 제고였다.

광범한 균중적 경쟁운동, 즉 증산경쟁운동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은 노력 대중의 노동에 대한 자각성과 창의창발성을 발휘시키기 위해서였다. 이 강연자료의 작성자는 북한의 노동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일제하의 그것과 달리 국가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조건 하의 노동이기에 수많은 노력 대중이 자각적, 헌신적으로 노동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한국전쟁 기간 중 나온 노력 영웅들과 생산혁신자 및 모범노동자들의 존재가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로 노동행정의 기계화는 단시일에 달성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간단한 기계화부터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노동숙련성의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력을 생산에 고착시키는” 것, 즉 노동자들을 가급적 항구적으로 같은 직장, 같은 직종에서 오래 일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생산 기술을 습득하고 새 기계 운전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 노력 조직의 합리화란 생산공정과 교대제와 연속 조업제를 정확

---

434) 『공화국 경제 축적의 기본 원천』,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21~22쪽.

히 조직하며, 각 각 공정과 교대와 개인 작업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노동자들을 일정한 기계와 기대에 고착시키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리고 노동규율의 강화를 위해서는 특히 작업 기준량의 제정 및 도급제의 실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sup>435)</sup>

그렇지만 북한 지도부가 노동생산성의 제고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면, 즉 현실에서의 노동생산성은 크게 저하되어 있었다. 라주바예프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업에서의 노동생산성은 1949년 노동자 1인당 평균 147,700원에서 1953년 115,600원으로 22%가 낮아졌다. 라주바예프가 보기에 북한에서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정해진 작업량을 완수해야만 하건만, 많은 노동자들이 정해진 작업규정량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

<표 13> 임금 노동자의 책임작업량 달성/미달성 비율표

구 분	정산된 개수제 임금지급노동자 <sup>436)</sup>	작업기준량 달성자	작업기준량 미달성자	작업기준량 미달성자 비율
중공업성				
1953년 9월	33,805	17,178	16,627	49
10월	35,368	21,878	13,490	38
11월	33,772	24,133	9,639	28
경공업성				
1953년 9월	6,719	4,765	1,954	29
10월	7,633	5,613	2,020	26
11월	6,140	4,429	1,711	28
임업국				
1953년 9월	18,555	13,953	4,602	25
10월	16,598	12,410	4,188	25
11월	14,878	10,352	4,526	30

출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69쪽.

435) 위의 책, 1954, 22~27쪽.

436) 개수제 임금이란 생산 개수나 판매 개수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한다. 도급제 임금으로 번역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였으리라고 본다.

위의 <표 13>에서와 같이 노동자의 25% 이상이 기업소의 작업기준량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었다.<sup>437)</sup> 이처럼 작업기준량을 완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량품도 많이 생산되고 있었다. 1955년 4월 7~9일,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는 무역대표 사쿰과 함께 자강도 구장에 있는 기관차수리공장, 희천공작기계공장과 자동차부속품 공장, 강계시에 있는 3개의 군수공장을 시찰하였다. 그는 이 모든 기업소들에서 전체 노동자의 약 80%가 16살에서 22살까지의 소년과 청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졌다. 그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불량제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일부 제품들의 경우 불량률이 60%를 넘고 있다는 것이었다.<sup>438)</sup>

이 시기 노동생산성이 저하된 원인은 대규모의 신입 노동자 유입 때문이었다. 예컨대 허기남이 관리하는 공장에는 1953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3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새로 들어왔다. 이들 대부분은 산간벽지에 살던 화전민들로 그 중에는 생전 기차를 구경도 못한 이들도 있었다.<sup>439)</sup> 처음 공장에서 노동을 하다보니 신입 노동자들이 일에 매우 서툰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었다.<sup>440)</sup> 그에 따라 오작품 생산이 빈발하고, 노동 유동성이 심화되었으며, 노동규율이 약화되었다.

신입 노동자들을 많이 받은 직장에서는 예외 없이 그들이 얼마되지 않아 직장을 떠나려고 동요하고 있음을 알렸다.<sup>441)</sup> 경공업성의 경우 1953년도 전체 종업원 중 직장을 이동한 비율은 107%가 넘었다.<sup>442)</sup> 사실상 모든 노동자가 한 번 이상 직장을 옮겼다는 뜻이었다. 노동 유동 현상은 노동규율 약화와 궤를 같이 하였다. 신입 노동자들은 무단 결근, 무단 외출, 지각, 조퇴 등 노동

43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앞의 책, 2001, 69~70쪽.

438)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1955년 3월 12일~4월 16일)」, 『사료집 73』, 2013, 252쪽.

439) 「사업경험 - 신입 노동자들을 어떻게 직장에 고착시켰는가」, 『로동자신문』, 1953. 9. 29. 2면.

440) 「새로 들어온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친절히 가르쳐주었다」, 『로동자신문』, 1953. 12. 8. 2면.

441) 「사업경험 - 신입 노동자들을 어떻게 직장에 고착시켰는가」, 『로동자신문』, 1953. 9. 29. 2면; 「핵심 노동자들의 역할을 높이어」, 『로동자신문』, 1954. 8. 31. 2면.

442) 「로동자 신문 자료에 의하여 규률과 질서를 확립하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4. 12. 5. 2면.



규율 위반 현상을 보였다.<sup>443)</sup> 농촌에서 온 노동자들은 주말에 집에 갔다가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기도 하였다.<sup>444)</sup> 백마요업공장의 경우, 1954년 평균 매일 10여 명의 지각, 조퇴자가 나오고 있었는데, 장마철 비가 오던 날인 7월 21일에는 50여 명이 무단 결근을 하고, 100여 명은 지각을 하였다.<sup>445)</sup>

북한 지도부는 신입 노동자들의 유동이나 규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운양면책을 사용하였다. 우선 최고인민회의 1953년 8월 31일 상임위원회 정령 “기업소 및 기관 노동자 사무원이 임의로 직장을 리탈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관하여”를 발표하여 노동자들의 유동 현상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 정령에서는 직장을 임의로 이탈하는 노동자는 재판에 회부되어 인민재판소 판결로 6개월~1년의 교화노동을 선고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직장 책임자가 직장을 이탈한 노동자를 인민재판에 기소하지 않거나, 혹은 임의 이탈자를 채용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에 회부할 수 있게 하였다.<sup>446)</sup>

이어서 1954년 3월 30일에는 내각 결정 제55호로 “국가 사회단체 협동단체 및 기타 기업소 사무기관의 노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노동 내부질서 표준규정”이 개정되었다.<sup>447)</sup> 이 표준규정에는 노동시간과 그 이용, 직장 책임자의 기본 임무, 노동자, 사무원들의 기본임무, 노동자, 사무원의 채용 및 해직 절차와 책벌에 대하여 각각 해당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sup>448)</sup> 이 규정 제6장은 노동자에 대한 책벌조항들을 담고 있다. 제38조는 “노동규율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적으로 책벌하거나 또는 재판에 회부한다”고 되어 있다. 행정적 책벌은 ①주의, ②경고, ③엄중경고, ④감금(3개월까지) 또는 강직, ⑤철직 등으로 구

443) 「사업경험 - 신입 노동자들을 어떻게 직장에 고착시켰는가」, 『노동자신문』, 1953. 9. 29. 2면; 「선동원 사업 경험 - 신입 노동자와의 사업에서」, 『노동자신문』, 1954. 4. 19. 3면.

444) 「신입 노동자들에 대한 나의 경험」, 『노동자신문』, 1953. 12. 14. 2면; 「출근률을 높이기까지」, 『노동자신문』, 1954. 11. 29. 3면.

445) 「노동 규율과 생산 질서를 속히 확립하라」, 『노동자신문』, 1954. 8. 29. 2면.

446) 노동성 노동과학 연구소 편, 위의 책, 1954, 37~38쪽.

447) 노동성 노동과학 연구소 편, 앞의 책, 1954, 39쪽.

448) 「국가 사회 단체 협동 단체 및 기타 기업소 사무 기관의 노동자 사무원들에 대한 노동 내부 질서 표준 규정 개정에 관한 내각 결정 채택」, 『노동자신문』, 1954. 4. 11. 1면.

분되어 있으며, 제40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지각, 조퇴, 결근하거나 시간에 점심을 먹으러 간다든지, 또는 점심시간 후에 늦게 오는 등 노동시간을 허비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①~④의 책벌을 적용할 수 있게 하였다. 제43조에서는 임의로 자기 직장을 이탈하거나 또는 직장에서 난폭한 행동을 한 노동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였고, 제44조에서는 노동자가 자기 잘못으로 불합격품을 내었을 때에는 책벌 여하를 불문하고 물질적 책임을 질 것 또한 규정하였다. 제46조에서는 노동자 등이 국가 및 노동규율을 계속 위반하였을 때에는 직장총회, 또는 기타 군중적 집회에서 동지적 재판을 열 것을 명시하였다.<sup>449)</sup>

서동만, 김연철 등이 이미 지적하였듯이 북한에서는 이 시기 직장 내 노동규율의 강화를 위하여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였다.<sup>450)</sup> 그렇지만, 억압적인 정책만으로는 노동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한 ‘부드러운’ 방법도 함께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북한 지도부는 노동자들 스스로 새로운 직장에 빠르게 적응하고 애착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우선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허기남이 관리하는 공장에서는 신입 노동자들을 위해 다른 노동자들이 양복, 내의, 신발 등을 자발적으로 제공하였고, 합숙소의 식사를 개선하였다.<sup>451)</sup> 안주탄광에서는 신입 노동자들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탄광의 숙련 노동자들을 모아 협의회를 열었다. 이 협의회에서는 신입 노동자들을 위한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고, 숙련 노동자들을 브리гада마다 균형있게 배치하고 그들이 신입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하였다. 또한 살 집을 구하지 못한 11명의 신입 노동자들을 위해 집도 지어주었다.<sup>452)</sup>

449) 노동성 노동과학 연구소 편, 앞의 책, 1954, 46~47쪽.

450) 서동만, 앞의 책, 2005, 627~629쪽; 김연철, 앞의 책, 2001, 129~130쪽.

451) 「사업경험 - 신입 노동자들을 어떻게 직장에 고착시켰는가」, 『노동자신문』, 1953. 9. 29. 2면.

452) 「핵심 노동자들의 역할을 높여」, 『노동자신문』, 1954. 8. 31. 2면.

한편 신입 노동자란 곧 미숙련공을 의미하였으므로, 오작품 생산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sup>453)</sup> 오작품 생산 및 오작 시공은 계획 과제 미달 성으로 이어졌다.<sup>454)</sup> 이는 단지 개별 공장의 문제가 아니라 연관된 직장의 문제로도 이어졌다. 1954년 9월 함남퇴조련와공장의 리이복과 위일환은 『로동자신문』에 공개서한을 보냈다. 6월에 공장에 들어온 3대의 소지성형기가 전부 불량이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중 1대는 희천 기계제작 공장에서, 나머지 2대는 함흥 철공소에서 보내온 것으로, 함흥 철공소에서 보내온 1대만 겨우 돌리고 있는데 가동률은 30%도 되지 않고 있었다. 리이복과 위일환은 두 공장에서 질 좋은 성형기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을 부탁하였다.<sup>455)</sup>

당시 오작품과 불합격품 양산 현상은 많은 생산직장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경공업성 산하 신의주요업공장에서는 1954년 1/4분기에 전체 생산품의 90%의 오작품을 낼 정도였다.<sup>456)</sup> 오작품 생산은 기계도 부족하고, 기능공도 부족한 가운데 기한에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생산을 강행하면서 빈발하였다. 강남 요업공장에서는 기와 생산량을 맞추지 못하자 급하게 기와 성형기를 설치하고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성형기의 부속들이 서로 맞지 않고, 성형기를 돌리는 전동기 벨트는 6조 중 3조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 기계들로 기와를 생산해본 단 한 사람의 경험자도 없는데, 사전에 아무런 기술 교육도 없이 100여명의 무기능공들을 이 사업에 동원하여 결국 100%의 불합격품들을 만들어 내고 말았다.<sup>457)</sup>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신입 노동자들을 최대한 빨리 기능공으로 양성하는

453) 「새로 들어온 노동자들에게 기술을 친절히 가르쳐주었다」, 『로동자신문』, 1953. 12. 8. 2면.

454) 「건설장에서 오작시공을 근절하자」, 『로동자신문』, 1954. 8. 21. 2면; 「로동 규률과 생산 질서를 강화하자」, 『로동자신문』, 1954. 8. 31. 1면; 「소련 대사 수즈달레프의 일지(1955년 3월 12일~4월 16일)」, 『사료집 73』, 2013, 252쪽.

455) 「공개서한- 성능좋은 소지성형기를 만들어 보내라」, 『로동자신문』, 1954. 9. 24. 3면.

456) 「오작품 생산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 『로동자신문』, 1954. 8. 5. 1면.

457) 「기와 생산에서 락후성을 퇴치하라」, 『로동자신문』, 1954. 9. 26. 2면.

일이 생산현장의 화급한 일이 되었다.<sup>458)</sup> 기능공 양성 사업을 게을리하는 직장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평양창광련와공장은 1953년 연간 계획 대비 생산이 46%에 불과하였는데, 기본 원인은 기능공이 부족해서였다. 그렇지만, 부족한 기능공을 양성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sup>459)</sup> 남포전구공장 또한 6급 이상의 기능공이 전체 노동자의 10% 남짓에 불과하였으나 기능공을 양성할 계획을 짜지 않고 그저 상부에서 보충해줄 것만을 기다렸기에 『로동자신문』의 사설에 공장명이 거론되며 비판받았다.<sup>460)</sup>

무기능공들의 기능 수준을 높이려면 먼저 그들에게 표준 조작법, 인계 인수 규정, 안전규정, 공구 사용법, 원단위 소비 규정, 기계 취급 절차와 방법 등을 가르쳐주어야 했다.<sup>461)</sup> 그리고 신입 노동자의 교양 방법으로는 강연, 보고, 해설, 좌담회 등 집체적 방법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숙련공이 개별적으로 맡아서 같이 일하고 생활하는 과정을 통하여 교양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었다.<sup>462)</sup> 기술 교양에 있어서는 각종 기술학교나 직장 강습소를 설치하여 교육하는 집체적 방법과 기능공이 무기능공들을 각기 맡아 실지 작업을 해가면서 가르쳐주는 기능 전습이 있었다.<sup>463)</sup>

신안주역에서는 전체 노동자들의 40%가 되는 신입 노동자들을 위한 집체적 기술 교육을 진행하였다. 신입 노동자들은 직장 강습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담당조역으로부터 철도성의 구성 체계와 각 부문의 역할 및 앞으로 담당하게 될 자기들의 임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직장 강습소에서는 노동자들의 수준에 따라 두 개 반으로 나누어 강습을 진행하였는데, 신입 노동자들은 기

458) 「오작품 생산을 근절하기 위한 투쟁」, 『로동자신문』, 1954. 8. 5. 1면.

459) 「기능공 양성에 무관심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로동자신문』, 1953. 12. 6. 2면.

460) 「로동자들의 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자」, 『로동자신문』, 1954. 9. 20. 1면.

461) 위의 기사.

462) 「신입 로동자들을 성심껏 도와주자」, 『로동자신문』, 1953. 9. 29. 1면.

463) 「신입 일꾼들에 대한 기술 교양 사업」, 『로동자신문』, 1953. 9. 17. 2면; 「공장에서 기술자가 자란다」, 『로동자신문』, 1953. 10. 5. 3면; 「모두 다 새 기술과 새 작업방법을 배우자 - 서로 배우고 가르치여」, 『로동자신문』, 1953. 10. 31. 2면;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는 로동자들」, 『로동자신문』, 1953. 11. 22. 3면; 「기술기능을 배우기 위한 투쟁은 로동청년들의 첫째가는 임무」, 『로동자신문』, 1954. 11. 9. 2면; 「공장의 숙성 성인학교」, 『로동자신문』, 1954. 12. 13. 3면.

술 수준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내반에 망라되었다. 구내반에서는 구내 작업의 각종 기술 규정을 교육한 다음, 모형 교수를 실시하였다. 구내 반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노동자들은 기술 호조반(互助班)으로 승급되었다. 여기서는 직접적인 작업을 통하여 입환(入換) 작업, 조성 작업 등 구내 작업을 배울 수 있었다. 신안주역은 이런 식으로 신입 노동자들을 기능공 수준으로 양성하였다.<sup>464)</sup> 성진 제강소에서도 무기능 노동자들이 야간 기술 전문학교와 기술 전습회에 적극 참가하여 1954년 3/4분기에 573명이 무기능공에서 기능공으로, 331명이 기능 급수가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sup>465)</sup>

기술 교육이 여의치 않은 직장에서는 선배 노동자들의 기능 전습이 중요한 교육 방법이였다. 게다가 선배 노동자들은 단지 기능만 전수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입 노동자들이 공장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같이 맡아서 했다. 일종의 1대 1의 ‘도제적’인 관계가 싹틀 수 있는 조건이였다. 신천직조공장의 선동원 신현순은 신입 노동자 최순남과 가깝게 지내기 위하여 그와 방을 같이 쓰고 생활도 같이 하였다. 그의 과거 생활을 알기 위하여 많은 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추운 날에는 방에 불도 많이 때우고 식사도 같이 하였다. 그가 공장에서 처음으로 당하게 되는 일은 모두 나서서 도와주고 해결해 주었다.<sup>466)</sup> 대개의 공장에서는 기능공 한명이 한두명의 신입 노동자들을 담당하여 기능을 전수하여 주었다.<sup>467)</sup> 허기남이 관리하는 공장에서는 신입 노동자들 중에서 소질이 있는 이들을 기본 건설 부문에서 기계 생산 부문으로 돌리고 기능공들에게 개별 담당제로 기술을 전습하게 하였다.<sup>468)</sup>

464) 「신입 일꾼들에 대한 기술 교양 사업」, 『로동자신문』, 1953. 9. 17. 2면.

465) 「기술기능을 배우기 위한 투쟁은 로동청년들의 첫째가는 임무」, 『로동자신문』, 1954. 11. 9. 2면.

466) 「선동원 사업 경험 - 신입로동자들에 대한 개별선동」, 『로동자신문』, 1954. 11. 27. 3면.

467) 「공장에 들어온지 두달 동안에 5급 선반공으로」, 『로동자신문』, 1953. 9. 21. 3면; 「기술기능 수준을 높이는 것은 모든 로동자들의 의무」, 『로동자신문』, 1953. 11. 24. 1면; 「두 처녀의 기능 전습」, 『로동자신문』, 1953. 12. 20. 3면; 김창연, 「신입 로동자들의 기능 교양 사업에서」, 『로동자신문』, 1954. 1. 9. 2면.

그런데, 이런 개별 전습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포갑공 장옥진은 신입 노동자 림상옥과 김룡실의 기능을 높일 것을 맡았는데, 몇 번 가르쳐 주어도 그들의 기능이 오르지 않았다. 결국 반총회에서 기능 전습을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받고 나서 기능 전습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다른 노동자 최옥란의 경험을 학습해야 했다. 최옥란은 신입 노동자로 하여금 직장에 대한 애착심을 갖도록 해야 하며 기능을 높여 주기 위해서는 그들이 알아듣고 손에 익을 때까지 꾸준히 가르치며 조금도 조금해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sup>469)</sup> 즉, 선배 노동자에게는 상당한 인내심과 배려, 관대함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신천직조공장 수직기공 리인순은 양갑분의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 도와주었다. 열흘 가까이 옆에 붙어서 기능을 가르쳐 주고, 기계가 고장나면 고쳐주고, 경사가 끊어지면 이어주고, 권관이 모자라면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사실 리인순도 이런 과정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토로하였다. 게다가 다른 이를 도와주다 보니 자기 책임량을 달성하는 데에도 많은 지장을 받았던 것이다. 리인순은 이런 미숙련공들이 자기처럼 높은 생산을 내게 되면 공장 차원에서 생산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달래야 했다.<sup>470)</sup>

경우에 따라선 노동자 간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류안비료공장에서는 기능공이 부족한 관계로 기능공들이 무기능공들을 맡아서 같이 일을 해야 했다. 그런데 나이든 기능공인 창오가 책임을 지고 있는 교대조에서는 작업 기준량이 높아지면서 책임량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무기능공들끼리 책임을 둘러싼 싸움이 벌어졌다. 창오 또한 아무리 자기가 오랜 기능공일지언정 한두명의 무기능공을 배정받은 다른 교대조에 비해, 자신의 교대조만 전부 무기능공을 배정한 것에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창오의 교대조가 일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자 다음 교대조의 조장은 인수인계받을 수 없다고 불평을 하면서 조장 간의 말싸움도 벌어지기도 하였다.<sup>471)</sup>

468) 「사업경험 - 신입 노동자들을 어떻게 직장에 고착시켰는가」, 『로동자신문』, 1953. 9. 29. 2면.

469) 「신입 노동자들에 대한 나의 경험」, 『로동자신문』, 1953. 12. 14. 2면.

470) 「뒤떨어진 동무를 도와 주는 증산 선구자」, 『로동자신문』, 1954. 8. 27. 3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신입 노동자들과 함께 생산성과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선배에 의한 기능 전습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는 공장 내에서 신입 노동자들을 이끌어주는 선배 노동자들의 역할을 중요하게 만들었으며, 노동자들간의 사회적 관계가 생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한 가지 단초가 되기도 한 것이다.

이 시기 전후 복구와 산업화를 위해서는 그만큼 생산력을 확보해야만 하였다. 이는 단지 신입 노동자들의 기술 숙련도를 높이고 노동규율을 확립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 더 나아가 전반적인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꾀해야 했다. 전쟁 이전부터 강조되어 오던 증산경쟁운동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며, 특히 이 시기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노력 합리화, 그리고 창의고안을 통한 기계화가 강조되었다.

노력 합리화란 부족한 노동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산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것이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노동력의 재배치였고, 다른 방법은 노력 기준량의 재산정이었다. 후자는 전쟁 이전의 노동 기준량을 재평가하여 당시 상황에 맞게끔 재조정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기존보다 기준량을 상향시킴으로써 노동자가 노동강도를 높이기끔 강제하는 식의 합리화 방법이었다.

우선 전후 복구 건설을 하면서 노동력의 재배치가 진행되었다. 가급적 남성 노동자를 중노동으로, 여성 노동자를 경노동으로 돌리는 방식의 재배치가 있었으며, 사무직이나 노동력이 과다한 분야의 노동자를 줄여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보내는 재배치도 같이 진행되었다.<sup>472)</sup> 예컨대, 정전 직후 자강도의 강계 중앙 우편국에서는 리봉삼을 비롯한 11명의 남자 통신원들을 강계

471) 한명천, 「비료산은 솟는다」, 『조선문학』1955년 11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11, 67~69쪽.

472) 「로력 조직의 합리화를 위하여」, 『로동자신문』, 1953. 9. 15. 2면; 「비생산 로력을 생산 부문에」, 『로동자신문』, 1953. 10. 25. 1면; 「로력 부족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로동자신문』, 1953. 11. 4. 2면.

벽돌공장 벽돌공으로 보내고, 그 대신 벽돌공장의 오순덕을 비롯한 11명의 여성들을 통신원으로 받아들였다.<sup>473)</sup> 경공업성 산하 평양 제1 건설 트레스트에서도 합숙, 주택, 부대건물 건설직장들을 한 개로 통폐합하고, 사무부문을 간소화하였다. 사무부문에 있던 기능자들은 건설장에 돌리고 여성들을 그 자리에서 일하게 했다.<sup>474)</sup>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노동 분야의 여성이 반드시 경노동 분야로 이전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건설 노동자 리명원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주위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로 남성 노동자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알려진 분야에 남아서 일하는 여성들도 존재하였다.<sup>475)</sup>

전후에 노동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는 새 노력 기준량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즉 전쟁 이전에 제정된 노력 기준량을 낡았기 때문에 보다 높은 기준의 노력 기준량을 제정해야 하며, 이는 노력 합리화의 일환으로 정당화되었다. 내각에서는 1953년 내각 지시 제108호 “로력 조직을 개선하며 노력 기준량을 재사정할데 대하여”를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조직된 ‘로력 기준량 재사정 지도위원회’의 사업을 바탕으로 1954년 2월 23일 내각 결정 제31호 “로력 기준량을 재사정 실시할 데 관하여”가 채택되어 노력 기준량 재사정 사업을 경제 전 부문에 걸쳐 실시하기로 하였다.<sup>476)</sup> 이 결정은 ‘로력 기준량 재사정 지도위원회’에서 제출한 『표준로력기준량』을 정확히 적용시킬 것, 그리고 『표준로력기준량』에 지적된 이외의 직종들은 1953년 10월~12월 사이에 해당 부문에 맞는 노력 기준량을 새로 산정하고 직접 실시할 것을 골자로 하였다.<sup>477)</sup>

473) 「남성 로력을 녀성로력으로 바꾸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3. 10. 17. 2면.

474) 「로력이 량비되는 일이 없게하자! - 합리적인 로력 조직으로 건설 성과를 높이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3. 10. 25. 1면 .

475) 리명원, 앞의 책, 1961, 26~27쪽. 리명원은 이후 1959년 4월 80명의 여성들로 이루어진 여성 미장 작업반을 조직하고,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같은 책, 1961, 58~67쪽).

476) 「로력기준량을 재사정 실시할데 관한 내각결정 채택」, 『로동자신문』, 1954. 3. 5. 2면.

477) 『北韓法令集 第4卷』, 대륙연구소, 1990, 296~297쪽. 『표준로력기준량』에서 지적한 직종은 탄광부에서 무연탄, 유연탄의 채탄 및 굴진, 광업부 및 연광업 부문에서 채광 및 굴진, 기본 건설 부문에서 지하굴착 채광 및 지하굴착 굴진, 방직 부문에서 면능직 짜기 및 14번수 면사 뽑기, 고무 부문에서 충고무화 제작 및 신련, 토목건축 건설부문에서 천정 회죽 재벌바르기, 벽체 회죽 재벌바



결국 새 노력 기준량 제정의 목표는 기존보다 기준량을 올리되, 평범한 노동자들도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정해져야 하기에 새 기준량 상향치를 어느 수준에 맞출 것인지가 중요하였다. 이것을 정하는 과정은 합리성에 의하여 보장되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노력 기준량을 올리는 것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없을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해야만 했다. 노력 기준량이 올라가는 것에 불만을 가진 노동자들은 태업, 칭병, 무단결근, 직장 이동 등의 형태로 저항하였다.<sup>478)</sup>

안형만 지배인이 관리하던 공장의 사례는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노력 기준량 제정의 모범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었다. 먼저 새 노력 기준량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로 전시와 상황이 달라졌음을 들었다. 우선 전쟁 기간에 있었던 정전이 거의 사라졌으며, 기계들도 땅굴 속에서 다시 지상으로 올랐다. 또한 파고무 분쇄기가 설치되어 일이 훨씬 쉬워졌다. 노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도 향상되었으며, 새로운 선진적 작업방법들도 도입되었다. 이러한 이유에 근거하여 노력 기준량을 새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19명의 우수한 모범 노동자들과 간부들로 노력 기준량 제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우선 갑피직장의 14개 공정부터 제정 사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제정위원회 일꾼들은 강연회, 좌담회, 여러 가지 직관물 등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노력 기준량을 새로 정해야 할 필요성과 의의를 선전하여 노동자들의 수긍을 끌어내고자 하였다. 그 다음 각 공정별 생산협의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협의회에서는 40여건의 새로운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

르기, 벽체숫대 외위기, 흙초벽 바르기, 벽돌쌓기 인력절취, 일륜차 적재운반, 토운차 운반 및 토사 지게 운반이며 제재부문에서는 원판 테이블 작업, 오립대 생산 테이블 작업, 선톱작업, 환거로 모따기 작업, 갓도 소작업 및 제재반도 작업, 체신선로 부문에서는 중선로 잠주 작업, 중선로 신설공사 전주 구덩이 파기, 전화 선로공사 견주작업, 중선로 공사 지선매기 작업, 전화 신설공사 가선작업, 전화선로 신설 공사 가선작업, 전화선로 신설 공사 방박선 붙이기 작업 및 소선로 신설공사 교차붙이기 작업, 수산부문에서는 명태 활복작업, 명태작태 작업, 캐덕작업, 명란초침, 명란재침 및 상덕작업이었다(위의 기사).

478) 조정아, 「북한의 근대 노동 주체 형성 - 공장의 노동 과정과 이데올로기적 생산 장치」, 『근대 극복을 꿈꾸는 동아시아의 도전』, 청어람미디어, 2004, 278~279쪽.

이를 참고하여 각 공정의 시설 및 노력 조직과 작업 조직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것은 고치고 작업조건을 개선한 후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표준 작업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때 선진적 작업방법을 도입하여 기준량 측정 사업에 착수하였다.

기준량 측정은 기술 기준화 방법을 이용하였고, 중요한 것은 측정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먼저 노동자들 중 자신의 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한 이들의 평균을 내었는데 그 수치는 141%였다. 제일 많이 초과달성한 노동자는 223%를 초과실행하였으나, 모든 노동자들이 이 수치를 따라갈 수는 없으므로, 측정 대상자는 자기 계획을 월 평균 141% 정도로 실행한 이들 중에서 선정하였다. 측정대상자들은 새로 제정한 표준 조작법으로 작업하였고, 측정하는 이들은 그들의 작업을 매 동작별로 측정하여 그에 따른 시간 소비를 계산하였다. 측정은 8일간 계속 실시되었다.

이렇게 측정한 결과를 종합한 결과, 이전 노력 기준량에 비하여 186%의 생산 수치가 나왔고, 측정위원회는 이 수치를 모범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이 참가한 행정 기술 위원회에서 같이 토의하였다. 행정 기술 위원회에서의 검토를 거친 후 다시 노동자들의 생산협의회에 제시하였고, 전체 노동자들의 찬성을 얻어 새로운 노력 기준량을 제정하였다. 갑피 직장의 경험에 기초하여 제화 직장, 로투 직장도 마찬가지로 새 노력 기준량 측정을 실행하기로 하였다.<sup>479)</sup>

이 공장의 새 노력 기준량 제정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노동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들이 취해졌다는 점이다. 노력 기준량 제정 전 과정에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있었으며, 제정의 필요성을 선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또한 생산협의회에서는 기준량이 올라가는 만큼 노동자들의 작업 공정도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의견 수렴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새 기준량을 산정한 후에도 다시 노동자들의 생산협의회에서 그들의 찬성을 얻는 과정을 밟아

479) 「새 노력 기준량을 제정」, 『로동자신문』, 1953. 11. 24. 2면.

서 진행하였다.

두 번째로, 새 노력 기준량의 선정은 가능한 한 합리적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존 노동자들 중에서 최고의 생산 결과를 내는 이의 수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계획을 초과 달성한 이들의 평균 수치를 산정하고, 그 평균 수치에 근접한 노동자들의 작업 동작을 매 동작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한 번이 아니라 8일간 계속해서 측정하여 최대한 정확성을 보장받으려 노력하였다. 즉, 무작정 생산 기준량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도 새로운 작업방법과 기계에 익숙해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달성할 만한 수치라고 판단되는 새 기준량을 책정하였다는 점이다.

이처럼 생산 현장에서는 1953년 말까지 새 노력 기준량 제정과 적용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었다.<sup>480)</sup> 그렇지만, 이 과정이 위 공장 사례처럼 잘 진행된 것만은 아니었다. 형식적으로 진행된 졸속 사례가 속출하였다. 김우택이 관리하는 공장에서는 노력 기준량 제정위원회를 조직할 때 노동자들을 참가시키지 않았고, 선전 사업도 형식적으로 단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진술한 김일성의 결론을 노동자 앞에서 낭독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이 사업을 왜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했고, 생산협의회에서도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력 기준량 측정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되는대로 선정함에 따라 새 기준량이 실정에 맞지 않게 되었다. 즉, 토공운반 공장의 새 기준량은 너무 높아서 17개 작업반 중에서 이 기준을 완수한 반은 5개 뿐이었다. 한편 지게운반 공정에서는 새 기준량이 너무 낮게 제정되어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쉽게 초과달성하였다.<sup>481)</sup>

실상 이 새 노력 기준량 제정에서 핵심은 새 기준량을 측정하기 위한 노동자 선정과 그의 작업동작을 얼마나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분석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이기도 하였다. 홍운구가 관리하는

---

480) 「각 공장에서 새 기준량을 제정」, 『로동자신문』, 1953. 12. 8. 1면.

481) 「형식적으로 제정된 노력 기준량」, 『로동자신문』, 1953. 12. 16. 2면.

탄광에서는 굴진 부문의 측정 대상자를 106%의 책임량을 달성하는 평범한 노동자들로 잡았으며, 운반 부문에서는 운반공 절대 다수가 4급공인데도 수준높은 6급공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또한 운반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측정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굴진 부문에서는 새 기준량이 이전과 동일하게 70 cm로 제정되었고, 운반 부문에서는 지나치게 높이 제정되어 146명의 운반공들 가운데 이를 초과 달성한 노동자는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sup>482)</sup> 원산요업공장에서도 측정 대상자를 선정할 때 브리가다에서 가장 기능급수가 낮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새 기준량도 낮게 책정되었다.<sup>483)</sup>

노동력 부족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서 기계화 또한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이 때의 기계화란 초보적인 수준에서 많은 노동력을 요하는 단순 작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생산 현장에서 노동자, 기술자들이 당면한 현실에 맞게끔 간단한 기계를 창의, 고안할 것이 장려되었다.<sup>484)</sup> 개별 생산 직장에는 ‘대중적 창의 발명 및 합리화 꼬미씨야(위원회)’를 조직하여 노동자들의 기계화 아이디어를 현실화하도록 추진하였다.<sup>485)</sup>

이 꼬미씨야는 공장, 광산, 기업소 및 건설직장 초급단체와 30명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췌흐(Цех)’에 설치되어야 했다. 이 꼬미씨야에는 해당 초급 단체 위원들과 노동자, 기사, 기수, 과학 분야 및 행정 기술 관리 분야 간부들로서 3~15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꼬미씨야의 임무는 첫 번째로, 노동생산능률의 제고, 생산품의 질적 향상, 선진기술 및 선진 작업방법의 도입과 일반화, 설비의 효과적 이용, 생산공정의 기계화, 원료, 연료, 전력, 기자재의 절약과 수입 기자재의 대응 등을 위한 사업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노동자들의 창의 발명이나 합리화 제의를 검토하여 실현 가능하도록 지도 및 지원하는 것, 세 번째로 창의 발명 및 합리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

482) 「잘못 제정된 로력 기준량」, 『로동자신문』, 1954. 4. 29. 2면.

483) 「되는대로 제정된 로력 기준량」, 『로동자신문』, 1954. 9. 28. 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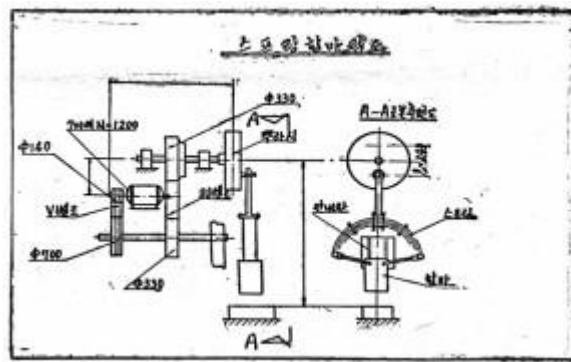
484) 「간접 부문의 로력을 줄여 로력 부족을 해결 하였다」, 『로동자신문』, 1953. 11. 24. 2면.

485) 「활발히 버려지는 창의고안운동」, 『로동자신문』, 1954. 1. 17. 1면.

한 대책을 마련하고 결과를 전파하는 것 등이었다.<sup>486)</sup> 즉,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것을 실현해내서 보급하기 위한 일을 하는 조직이었다. 북한 지도부는 각 생산현장별로 이 꼬미씨야로 하여금 창의고안운동을 벌이고 기계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sup>487)</sup>

현장에서 기계화의 아이디어를 내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노동자의 몫이었다. 현장의 노동 경험 속에서 노동자들에게 절실한 기계화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에 맞는 창의고안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예컨대 성진제강소 공작직장의 김응택은 기존에 쇠를 불로 달구어 장시간 망치로 두드려 바이트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도저히 가공 작업에 필요한 수량을 맞출 수 없었음에 주목하였다. 그는 단조 작업을 기계화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로 느끼고, 여러 연구 끝에 <그림 1>과 같은 스프링 해머(Spring Hammer)를 고안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작업 능률을 6배 높일 수 있었다.<sup>488)</sup>

<그림 1> 스프링 해머 설계도



출처: 『로동자신문』, 1954. 5. 25, 3면.

물론, 노동자들이 무언가 새로운 기계를 창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

486) 「대중적 창의 발명 및 합리화 꼬미씨야에 관한 규정」, 『로동자신문』, 1954. 11. 21. 2면.

487) 「활발히 버러지는 창의고안운동」, 『로동자신문』, 1954. 1. 17. 1면.

488) 「스프링 함마를 고안」, 『로동자신문』, 1954. 5. 25. 3면.

니었다. 흥남비료공장 건설제관직장 용접공 리운호는 스테인레스 전기 용접봉을 창안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집축류산공장을 복구하기 위해 스테인레스 철판으로 만들어진 펌프실 배관과 탱크 등을 수리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수리하는데 필요한 스테인레스 용접봉이 극히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리운호는 기사장의 도움을 받아 『고등 전기용접학』이라는 책을 구해 스테인레스 용접봉에는 탄산 석회를 비롯한 7종의 원료 약품들이 포함되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리 책을 뒤져봐도 그 원료약품의 배합비율은 적혀 있지 않았다. 결국 실험을 통해 해결할 것을 결심하고 실제 실험에 착수하였으나, 정확한 배합비율을 찾아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던 중 1954년 2월 18일자 『쏘베트신보』에 실린 소련 용접공 흐·끄·오뜨세쁘의 「선철 용접에서의 나의 경험」이라는 기사를 보고 비록 선철 용접과 스테인레스 용접은 다른 것이지만 그 원료를 가공하는 원리에 대해 감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마침내 리운호는 36회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37번째의 실험에 성공하여 스테인레스 전기 용접봉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하였다.<sup>489)</sup>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록 기초적인 수준의 기계화라 하더라도 그것을 노동자가 혼자 성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개 같은 직장의 기사나 기술자의 협력이 있을 때 노동자의 창안이 현실화 될 수 있었다.<sup>490)</sup> 따라서, 직장 내 기술자들이 노동자들의 창의 고안에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일 때에는 그것을 현실화하여 기계화하기란 거의 불가능하였다. 림윤진이 관리하는 광산에서는 새 노력 기준량 측정 기간에 노동자들이 200여건에 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하나도 수용되지 않았다.<sup>491)</sup> 리석로가 창안한 작업 방법은 굴진 작업에 있어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아오지탄광 등 일부 탄광에서는 착암기가 사용하기 불편하다거나, 채탄이 문제가 아니라 운

489) 「거듭되는 실패를 무릅쓰고 창안한 스테인레스 전기 용접봉」, 『로동자신문』, 1954. 11. 11. 3면.

490) 「창안운동을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시키자」, 『로동자신문』, 1954. 9. 18. 1면; 「뱃세마로 주장에 성공」, 『로동자신문』, 1954. 12. 19. 2면.

491) 「로동자들의 창발적 제의가 왜 실현되지 않는가」, 『로동자신문』, 1954. 6. 30. 2면.

반이 곤란한 것이기에 구태여 그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새로운 작업 방법을 적용하지 않기도 하였다.<sup>492)</sup>

북한 지도부 측에서는 노동자들의 창의 고안을 장려하고 그 결과 나오는 새로운 기계나 작업방법의 일반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별로, 또는 성별로 창의 고안품 전시회를 열었다. 1954년 5월 25일부터 개관한 중공업성 창의고안품 전시회는 영웅관, 1국관, 지질 탐사관, 기본 건설관, 광업관, 연광업관, 석탄관, 금속관, 기계관으로 각각의 전시를 구분하여 중공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창의 고안품과 기계화 성과, 새로 탐사된 광물들이 전시되었다. 같은 해 12월 24일에 열린 함경남도 창의고안품 전시회에서는 전기, 체신, 광산, 임업, 경공업, 육운, 철도, 화학, 토건, 금속 등 부문별로 전시장을 나누어 250여점의 각종 창의 고안품 실물과 모형들이 출품되었다.<sup>493)</sup>

### (3) ‘신세대’ 노동자와 관리자 간의 ‘생산현장의 정치’

전후복구건설 시기에 들어서 노동력은 부족하고, 공장 복구와 생산 재개 등의 당면 과제는 시급하였다. 게다가 새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은 숙련, 규율, 의식적 측면 모두 관리자 측이 원하는 수준은 될 수 없었다. 뒤집어 보면, 노동자들은 자신의 숙련 여부와 상관없이 자기 이익을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노동하든지, 아니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직장으로 이동하든지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들이었다. 그렇기에, 노동자와 관리자/정권 사이에서는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를 둘러싼 ‘생산현장의 정치’가 벌어지게 되었다.

우선, 정권 측에서는 노동자들을 통제하면서도, 그만큼 반대급부를 제공하여 불만을 무마하고 증산 의욕을 고취시켜야 했다. 먼저 전쟁 동안 강제되었

492) 「창안운동을 대중적 운동으로 발전시키자」, 『로동자신문』, 1954. 9. 18. 1면.

493) 「중공업 부문 창안품 전시회」, 『로동자신문』, 1954. 6. 2. 3면; 「창의 고안품 전시회 성황」, 『로동자신문』, 1954. 12. 25. 2면.

던 전시노동규율이 폐지되었다. 기존의 연구들은 북한에서 전시노동규율이 전쟁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산업화 시기에도 노동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이해하였다.<sup>494)</sup> 그렇지만, 『로동자신문』 기사를 통해 전시 노동규율은 정전 이후 1년 정도 더 지속되다가 군사위원회 결정 제104호에 따라 폐지되었음이 확인되었다.<sup>495)</sup> 노동규율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이미 1953년 8월 31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기업소 및 기관 로동자 사무원들이 임의로 직장을 리탈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관하여”가 공표되었고, 1954년 3월 30일자 내각결정 제55호에 따라 “로동내부질서표준규정”이 새로 제정되었기에, 여기에 전시노동규율까지 계속 부과하는 것은 노동자의 불만을 야기할 수 있을 뿐더러, 상기한 규정들로 대체 가능한 것이었다.

전시노동규율이 폐지되자 1954년 10월 14일 황해제철소 종업원들이 군사위원회 결정 제6호 “전시로동에 관하여”의 폐지 결정을 환영하는 종업원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제강직장 평로 직공장 박정근은 황해제철소 전체 종업원들이 전시에 받았어야 할 휴가금을 전부 국가에 헌납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전국 노동자들에게 호소하기로 하였다. 10월 16일에는 평양연초공장 노동자들이 황해제철소의 그러한 호소에 호응하기로 결정하였다.<sup>496)</sup>

노동자의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이른바 ‘물질적 자극’은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강조되었다. 다만 전쟁 이전과 비교할 때 노동자들의 소비생활 향상을 전망하기는 극히 어려웠다. 1956년 5월 22일 김일성은 소련 대사 이바노프와의 면담 자리에서 북한의 인민들은 여전히 큰 경제적 어려움과 물질적 부족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인민들의 생활 수준은 전쟁 이전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계속해서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sup>497)</sup> 따라서 주로

494) 차문석, 앞의 책, 2002, 99~100쪽; 서동만, 앞의 책, 2005, 630~631쪽; 김연철, 앞의 책, 2001, 128~129쪽.

495) 정확한 폐지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전국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로동자신문』, 1954. 10. 18. 1면).

496) 「전시중의 휴가금을 국가에 헌납하여 연간 계획 실행 기간 단축을 결의하는 황해제철소 종업원들의 호소에 열렬히 호응」, 『로동자신문』, 1954. 10. 20. 1면.



각종 임금의 인상, 주거의 안정성 측면에서 국가의 배려를 강조하였다. 예외적으로 생활에서의 ‘풍족함’을 강조한 경우는 탄광 노동자들의 경우 뿐이었다.

### ① 임금과 물질적 대우

전전과 마찬가지로 전후에도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임금 지급 문제는 주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그에 따라 임금체계를 정비하려는 대책이 강구되었다.<sup>498)</sup> 임금 지불에 있어서는 이른바 평균주의를 퇴치하고 숙련노동과 미숙련노동, 중노동과 경노동, 유해노동과 보통노동 사이에 일정한 임금의 차이를 설정하게 하고, 도급제와 상금제를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을 정착시키고자 하였다.<sup>499)</sup> 그에 따라 1954년 4월 기존의 “도급 임금제, 상금제 및 식량 특별배급제에 관한 결정서”를 폐지하고 새롭게 내각 결정 제56호 “도급 로동 임금제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면서 도급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제 도급제를 실시하는 국가기관, 협동단체, 기업소 및 사업소 등은 이 규정에 의해서만 도급제를 실시하여야만 하였다.<sup>500)</sup>

도급제는 단일, 누진, 공수(工數) 도급제로 세분화하였고, 작업의 성질에 따라 개인, 반, 단체 도급제를 조직할 수 있게 하였다. 개인별로 노동생산능률을 계산할 수 있는 부문에서는 개인도급제를 적용해서 실시하고, 개인별로 계산할 수 없으나 반 또는 단체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 부문에는 반 또는 단체 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누진 도급제는 중요한 생산부문의 핵심적인 작업 공정으로써 다른 생산공정의 노동생산능률 제고에 자극을 주며 제품 단위당 생산 원가를 계획 원가 이하로 저하시키는 조건 하에서 탄광, 광산의 지하 유해노동 부문, 중요한 화학금속 부문의 고열 유해 노동으로서 그 생산공정에서

497) 「소련 대사 이바노프의 일지(1956년 5월 17일~6월 1일)」, 『사료집 73』, 2013, 440쪽.

498) 김연철, 앞의 책, 2001, 136~137쪽.

499) 「로동 임금제의 정확한 실시를 위하여」, 『로동자신문』, 1954. 6. 22. 1면.

500) 「「도급 로동 임금제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내각 결정 채택」, 『로동자신문』, 1954. 4. 11. 1면.

핵심이 되는 부문, 철도공장의 극히 중요한 부문, 그리고 국가적 긴급을 요하는 기본 건설의 핵심이 되는 부문, 기타 국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에서 실시하게 하였다. 공수 도급제는 작업의 전량을 기한부로 주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에 적용하되 건설 및 보수 부문, 임업(제재 부문 제외) 부문, 철도의 공무 및 적하 부문과 육해운의 적하 부문, 어로 부문, 기계수리부문, 제염 부문 노동에 관하여 실시하도록 한정되었다.

이처럼 도급제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하였는데, 그 정착은 난항을 겪었다. 공장·기업소에서 도급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나타났다. 국가건설위원회 산하 평양 제5건설 트레스트에서는 노동자들의 기능 급수를 사정하지 않고 단지 열심히 노동하는 듯한 기색만 보이면 일률적으로 기능자라고 하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하였다.<sup>501)</sup> 중앙 제4건설 트레스트에서도 도급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적용하여 문제가 되었다.<sup>502)</sup>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도급제에서 적절한 기준량을 책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지도부에서는 기술적 기준화 방법의 사용을 요구하였지만 생산현장에서는 그보다는 목측, 눈짐작 등에 의해서 기준량 책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임금 외에도 노동자들에게는 가급금과 상금 등을 지급하였다. 북한 내각은 1954년 2월 23일 내각 결정 제32호로 “전후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급금 제도 설정”을 하기로 하였다. 이 결정으로 4월 1일부터 노동자·기술자·사무원들은 가급금을 지급받게 되어 평균 25%의 임금 인상 효과를 받을 수 있었다. 그 중 석탄 공업 50~55%, 금속 공업 40%, 기계 공업 30%, 화학 공업 30%, 방직 공업 30%, 철도 운수 45%, 수산 30%로 각각 인상되었다.<sup>503)</sup> 평양 도량형기공장 노동자 안창식은

501) 「로동 임금제의 정확한 실시를 위하여」, 『로동자신문』, 1954. 6. 22. 1면.

502) 「도급임금제를 정확히 실시하라」, 『로동자신문』, 1954. 9. 18. 2면.

5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복구 발전 1954년 상반기 국가 계획 실행 총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보도」, 『로동자신문』, 1954. 7. 26. 1면.

내각 결정에 의하여 기본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받게 되어 생활이 보다 더 유족(有足)해질 것에 만족감을 표하였다. 따라서, 그만큼 자신의 기술 수준도 더 높이고 계획을 150% 초과 달성할 것이며, 무기능공을 기능공으로 양성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결의를 다졌다.<sup>504)</sup>

또한 1954년 연말에는 내각 결정 제150호에 따라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연말 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상금 지급은 중앙 및 각 기관들과 평양시 소재 각 기관, 기업소 산하 종업원들에게 기본임금(가급금, 보조금 포함, 도급제 임금 제외)의 100%, 도를 위시한 지방 기관 기업소 종업원들은 기본임금의 50%, 군부대 군무자들과 내무 기관(경비대 포함)은 기본임금의 50%를 한도로 하였으며, 12월 말일 전까지 지급 완료하도록 하였다.<sup>505)</sup> 노동자들은 상금 지급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sup>506)</sup>

한편 1953년 10월 9일 『로동자신문』에는 정진 직후라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탄광 노동자의 넉넉한 생활 수준에 대해 전하는 기사가 올라왔다. 홀동광산 착암공 정인필은 높은 임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주 배급 물자를 받으며, 7급공으로서 언제나 책임량을 초과 달성하기 때문에 매달 많은 도급임금도 받았다. 상금과 상품도 자주 탔다. 1953년도에는 직장에서 300편의 채소밭도 알선해 주었으며, 집에 두 마리 돼지도 기르고 있다. 그는 이렇게 얻은 수입의 많은 부분을 살림살이를 더 넉넉히 마련하는 것과 문화오락사업에 지출하였다. 게다가 매달 200원 이상 저축도 할 수 있었다.<sup>507)</sup> 이 시기에 이런 기사가 올라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의도는 명백히 인민들에게 탄광 노동 분야로의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었다.<sup>508)</sup> 당시 급격한 전후

504) 「가급금을 받게된 감격과 기쁨으로」, 『로동자신문』, 1954. 3. 18. 3면; 안창식, 「독자들로부터 - 가급금을 받게 된 나의 결의」, 『로동자신문』, 1954. 3. 24. 3면.

50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150호 국가 사회 및 협동단체 기관 기업소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연말 상금을 지급할 데 대하여」, 『로동자신문』, 1954. 12. 27. 1면.

506) 「년말 상금에 대한 로동자들의 끊어 넘치는 감격의 선풍 - 보람찬 일터에서」, 『로동자신문』, 1954. 12. 29. 3면; 「년말 상금에 대한 로동자들의 끊어 넘치는 감격의 선풍 - 기쁨에 넘친 로동자 가정」, 같은 신문.

507) 「행복한 착암공의 가정」, 『로동자신문』, 1953. 10. 9. 3면.

복구 및 산업화를 위해 연료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었으며, 탄광 노동은 중노동이자 위험 노동이므로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물질적 혜택을 강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에서는 계속해서 탄광 노동자를 우대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1954년 11월 내각 결정 제142호에 따라 석탄 공업 부문 노동자, 기술자중 갱내 작업에서 10년 이상, 또는 갱외 작업에서 15년 이상 계속 특출하게 근무한 자에게 공화국 공훈 탄부 칭호를 부여하는 국가 표창제를 실시할 것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의하기로 하고, 매년 9월중 셋째 일요일을 탄부절로 정하기로 하였다.<sup>509)</sup> 이는 1954년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석탄 공업 부문 일꾼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 탄부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로 현실화되었다.<sup>510)</sup> 그에 따라 공훈 탄부 칭호가 신설되었고, 탄부절도 정해졌다. 또한 함경북도와 서선 온천 지대에 석탄공업 부문 노동자, 기술자들 전용 정·휴양소를 1955년 내로 신설하기로 하였으며, 노동보호 용구와 작업 필수품의 무상 대여, 영양제의 무상 급여, 근속연한에 따른 연 2회의 가급금 지급, 부양 가족들에 대한 필수품 공급과 석탄 전문학교 학생 및 탄광 부문 노동자, 기술자 자녀들에게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및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sup>511)</sup>

## ② 주거

노동자들의 물질적 조건을 개선하는 일 중에서 주택 수요를 해결하는 일은

508) 『로동자신문』에는 그 이후에도 간간이 탄광 노동자의 유족한 생활을 선전하는 기사가 올라왔다. 사동탄광 굴진공 리중섭은 전후 1년만에 생활이 훨씬 풍족해졌다. 그는 정전 이후 새 사택을 배당받았으며, 라디오와 시계도 사들였다. 그가 부족함 없는 생활을 누리는 이유는 역시 많은 임금과 상급, 그리고 생필품 가격이 인하된 덕분이었다(「사동탄광 굴진공 리중섭 동무의 가정」, 『로동자신문』, 1954. 10. 10. 3면).

509) 「석탄 공업 일꾼들을 우대할데 대한 내각 결정 채택」, 『로동자신문』, 1954. 11. 21. 1면.

5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령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집 3(一九五四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55, 143~144쪽.

511) 「공화국 탄부들의 영예」, 『로동자신문』, 1954. 12. 19. 1면.

특히 급박했다. 미군의 3년간의 폭격으로 인민들의 주거 생활이 극히 곤란해진 데다, 공장 노동자로 취업하는 이들은 대개 고향인 농촌을 떠나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기에 새 거주지에서 살 집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노동자들은 주거나 생활 환경이 좋지 않으면 보다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 이동하였기에 북한 지도부는 정전 직후부터 각 공장, 광산 등 기업들에게 주택 건설을 급히 추진하도록 독려했다.

1954년 12월 20일, 직맹 중앙상무위원회에서는 “주택 생활 및 로동 공급 꼬미씨야에 관한 규정”을 채택하였다. 이는 공장, 광산 등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합숙소 건설을 독려하고, 또한 식생활의 개선을 위해 직맹원들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 꼬미씨야는 개별 직장의 직맹 초급 단체 위원회 산하에 조직되며, 초급 단체 위원회 위원들과 열성 맹원들 중에서 5~2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꼬미씨야는 직장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합숙 및 공공 시설의 건설을 독려·협조하고, 이후 운영 과정을 검열하며,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생활 필수품 구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신경쓰며, 나아가 노동자들의 가족들에게 부업 경리를 장려하는 것 등을 임무로 하였다.<sup>512)</sup>

새 주택은 많은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사회적 노동으로 동원되어 건설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에서 배정한 자재 이외에 추가 자재를 노동자들이 직접 수집하기도 했다.<sup>513)</sup> 노동자는 건설 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자기 집을 짓거나 직장에서 건설하는 사택에 들어가 살 수 있었다.<sup>514)</sup> 직장에서는 독신자들을 위한 합숙소도 건설하였다.<sup>515)</sup> 사택은 아담한 크기의 단독주택이

512) 로동성 로동과학 연구소 편, 『로동법규집 제4부』, 국립출판사, 1955, 182~184쪽.

513) 「시설이 완비된 새 주택에서 명량한 생활을 누리는 로동자들」, 『로동자신문』, 1953. 11. 22. 3면.

514) 「많이 마련되는 주택」, 『로동자신문』, 1953. 9. 29. 3면; 「당과 국가의 배려로 집을 짓는 근로자들」, 『로동자신문』, 1953. 10. 13. 3면; 「따뜻하고 깨끗한 새집」, 『로동자신문』, 1953. 11. 16. 3면.

515) 「진척 되는 주택 건축」, 『로동자신문』, 1953. 10. 21. 2면.

거나 아파트 형태로 건설되었다.<sup>516)</sup>

평양방직공장은 2~3층으로 되어 있는 세 채의 아파트를 건설하였다. 여기에는 2,000여 명의 독신자들과 수백 세대의 가족들이 살게 되었다. 1954년 초에 복구된 이 아파트에는 식당, 구락부, 강당, 도서실, 목욕탕, 위생 처치실, 탁아소, 미장원, 상점들이 있으며 피아노를 비롯한 여러 악기와 문화, 오락, 체육 시설들을 갖추었다.<sup>517)</sup> 황해제철소도 2층으로 된 두 채의 노동자 아파트와 여성 아파트를 복구 수리하였다. 이 아파트는 한 채에 300명씩 수용할 수 있었다.<sup>518)</sup> 평양시에 건축된 노동자 아파트는 각 세대마다 목욕탕과 수세식 화장실이 따로 설비되어 있고, 일광 통풍을 고려하여 세대마다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었다. 각 세대에서는 취사용으로 2 Kw의 전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동 취사장도 따로 설치되어 있었다.<sup>519)</sup>

공장과 가까운 지역에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주거지를 만드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직주 근접의 원칙’에 의한 것으로서, 그 결과 공장 부근에는 사택 마을이 생겨났다.<sup>520)</sup> 이런 사택 지구에는 식당, 매점, 이발소, 목욕탕, 탁아소, 민주선전실 등의 주민 편의시설도 같이 건설하였다.<sup>521)</sup>

한편 이런 아파트 건축은 우리의 전통적인 주거 양식과 맞게 지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해제철소의 아파트에는 침대가 구비되어 있었고, 평양시에 지어진 노동자 아파트도 라디에이터(방열기)가 설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서양식, 특히 소련식 주거 양식의 아파트를 건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림 2>의 건축된 아파트의 외견으로 보아도 알 수 있었

---

516) 리운학이 관리하는 공장의 신축 사택은 방 2칸, 부엌 1칸에 변소, 광, 기타 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시설이 완비된 새 주택에서 명량한 생활을 누리는 노동자들」, 『로동자신문』, 1953. 11. 22. 3면).

517) 「로동자 아파트」, 『로동자신문』, 1954. 4. 11. 3면.

518) 「즐거운 아파트 생활」, 『로동자신문』, 1954. 10. 4.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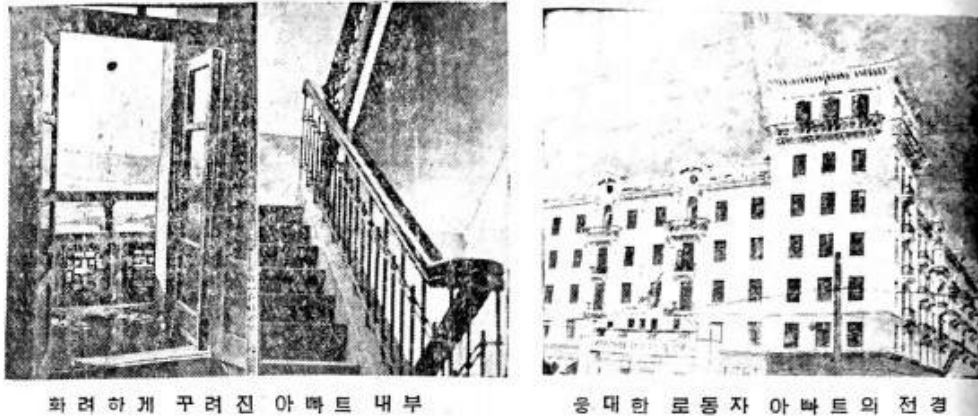
519) 「민족적 건축미를 자랑하는 아파트의 훌륭한 구조」, 『로동자신문』, 1954. 12. 19. 3면.

520) 「흥성거리는 사택마을」, 『로동자신문』, 1954. 10. 8. 3면; 「주택 마을에서」, 『로동자신문』, 1954. 12. 17. 3면.

521) 「세워지는 문화 주택」, 『로동자신문』, 1954. 11. 13. 3면.

다.<sup>522)</sup>

<그림 2> 새로 건축한 노동자 아파트



출처: 『로동자신문』, 1954. 12. 19, 3면.

이처럼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직장도 있지만, 제대로 신경쓰지 않아서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는 직장도 있었다. 1953년 말 『로동자신문』에서는 겨울이 오고 있는데도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 직장들에서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에 특별한 대책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sup>523)</sup> 노동자들도 신문의 독자투고란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화학건설공업성 평양건설사업소의 최군주는 자기 사업소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의 월동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 9월 중순인데도 많은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524)</sup> 고무산 시멘트공장의 박창극은 합숙소 관리에 대해 비판하였다. 합숙소 부엌은 물이 새서 불을 댈 수가 없었으며, 이불도 불충분하고 불결하였다. 합숙소 방에

522) 「즐거운 아파트 생활」, 『로동자신문』, 1954. 10. 4. 3면; 「민족적 건축미를 자랑하는 아파트의 훌륭한 구조」, 『로동자신문』, 1954. 12. 19. 3면.

523) 「과동 준비에서 나타난 결함을 시급히 시정하자」, 『로동자신문』, 1953. 11. 4. 1면.

524) 「생활 문제에 관심 적은 일꾼들」, 『로동자신문』, 1954. 9. 22. 3면.

는 이불을 엮을 선반이나 책상도 없고, 천장은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다.<sup>525)</sup> 서완성이 관리하는 공장에서는 온돌 난방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데다 석탄과 장작도 준비가 부족하였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이 불을 때 달라고 요구하면 합숙 책임자는 “극복하시요!”라는 대답만 하였다.<sup>526)</sup>

이렇듯 주거 문제가 불편해서는 노동자들이 그 직장에 계속 다니기가 어려웠다. 원산고무공장에서 평양고무공장으로 이동한 많은 기능자와 노동자들은 합숙 시설이 충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생활 형편에 대하여 친절히 돌봐 주려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많은 수가 고향으로 돌아갔다.<sup>527)</sup>

### ③ 생활 수준

전쟁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저하된 데다가 전후에도 ‘내핍’이 강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쉽게 나아지지 못하였다.

그가 사는 집은 부엌과 온돌 한방이 있고, 위층에는 마루 두 방이 있는데, 스텀으로 난방이 되어 있었다. (중략) 그러나 가구들이 가득 찼어야 할 방은 헥헥그러한 감을 주었다. 이것은 전쟁 기간에 가장짐물들을 파괴 당한 누구의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이다.<sup>528)</sup>

위 글은 필자가 노동자의 사택을 방문하면서 그 집안의 모습을 묘사한 부분이었다. 정전 이후 2년이 지난 한 노동자 가정의 집안은 텅 비어있는 느낌이었지만, 이것은 전화(戰火)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인 것이라고 설명하는 부분에서, 전쟁 이전처럼 노동자들이 노동을 통한 생활 수준 향상을 전망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반증되고 있다. 이제 북한 지도부가 노동자들을

525) 「합숙의 동기 대책이 안되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4. 10. 14. 3면.

526) 송철, 「합숙방이 매우 춥다」, 『로동자신문』, 1954. 12. 25. 3면.

527) 권상선, 「기능자들이 왜 안착안되고 있는가」, 『로동자신문』, 1954. 3. 18. 3면 .

528) 윤두현, 앞의 글, 1955, 119쪽.



설득하고자 강조한 것, 그리고 주력한 것은 최소한도의 생활은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sup>529)</sup>

북한 지도부는 전쟁 중에도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강조하였다. 직장 부업경리 사업을 활발하게 벌일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였으며, 노동자들에게 신발, 의복 등 생활필수품과 주택과 합숙 및 연료를 원만히 공급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쏟아왔다는 것이다. 특히 내각 결정 160호에 의하여 노동자들에게 기본 식량 배급 외에 보충미를 공급하였고, 내각 결정 146호에 근거하여 면직물, 솜옷을 비롯하여 김장용 채소들과 소금도 공급하였다.<sup>530)</sup> 또한 사회보험제를 강화하여 1954년 7월 1일부터 사회보험 대상자에 대한 외래 약값의 전부를 국가 부담으로 돌리고 그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60%를 부담하기로 내각에서 결정하였다.<sup>531)</sup>

북한 지도부는 이처럼 노동자들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와 당이 들이는 노력을 강조하면서, 물자 공급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현장의 관리직이나 직맹 등의 노력이 부족한 탓으로 돌렸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로 ‘노동공급사업’이 차질을 빚기도 하였다. 손을성이가 초급단체 위원장으로 일하는 직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배정받은 작업복과 겨울용 솜옷을 제때 공급하지 않고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수백벌을 도난당하였다.<sup>532)</sup> 떡미광산에서는 공급부에서 자금을 유용하여 직장 상점에 된장, 간장 등 일상용품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았으며, 주택 건축 계획도 실행되지 못하였다.<sup>533)</sup> 물자 공급이

529) 물론 적게나마 노동자의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해 다룬 기사도 있다. 흥남의 비료공장 노동자인 리운호의 집에는 겹겹 쌓아놓은 이불, 미싱, 경대와 옷들이 있고, 벽에 걸린 시계는 받은 상금으로 사들인 것이었다. 그리고 양복장에는 고급양복이 세벌이나 걸려 있었다(『오붓한 살림』, 『로동자신문』, 1954. 8. 5. 3면).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탄광 노동자들에 한해서는 그 생활 수준 향상을 강조하여 왔다.

530) 「로동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은 동맹 단체들의 주요한 과업이다」, 『로동자신문』, 1954. 1. 11. 2면.

531)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 대한 의료상 방조를 강화할데 관한 내각 결정 채택」, 『로동자신문』, 1954. 7. 4. 1면.

532) 「로동자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은 동맹 단체들의 주요한 과업이다」, 『로동자신문』, 1954. 1. 11. 2면.

533) 「로동자들의 생활 문제에 대한 그릇된 태도」, 『로동자신문』, 1954. 7. 6. 3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sup>534)</sup>

물질적 조건의 보장은 노동자들의 의욕 고취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었다. 그렇지만, 조건이 보장된다고 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이런 저런 이유에 따라 자신의 노동을 통제하고자 하였고, 마찬가지로 관리자 측도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동하도록 만들고자 하였다. 어떻게 노동자의 적극성을 끌어낼 것인가는 노동자와 관리자간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자 타협의 장이었다. 그것은 ‘생산현장의 정치’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었다.

정전 이후 북한의 생산현장에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노동자로 진출하였다. 관리자 측은 그런 복잡한 노동자들이 현 직장에 만족하고 성실하게 노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섬세한 정치력이 요구되었다. 노동자들 또한 자신의 노동력을 왜, 어떤 수준에 맞춰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일상의 정치적 판단을 수행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지 임금과 같은 물질적 조건만을 놓고 하는 줄다리기는 아니었다. 북한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 북한 지도부와 관리자 측이 바라본 노동자의 핵심적 특성은 ‘낙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신입 노동자들은 “비록 오늘 노동자이기는 하나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농사를 지었거나 거리에서 장사나 수공업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이전의 낡은 사상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비노동계급의 낙후성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인식은 강고한 것이었다. 평남관개공사에 동원된 농업노동자들에 대한 오체르크에서 김종환 기사장은 농업 노동자들 중에는 선진적인 이들도 있지만, “도주자”에, “태만분자”에, “요설분자”에, 갖가지 낙후한 현상을 보이는 이들이라고 진술하였다.

534) 「노동 공급 사업의 개선 강화를 위하여」, 『로동자신문』, 1954. 8. 1. 1면; 「근로자들의 동기간 생활안정 대책」, 『로동자신문』, 1954. 11. 11. 1면; 「직장 상점에 왜 물건이 없는가」, 『로동자신문』, 1954. 12. 25. 3면.

강원도 갈목포 목장에서 온 농업노동자 중에는 식당을 책임지게 된 허기범이라는 이가 있었다. 그는 같은 갈목포에서 온 일부 농업노동자들에게 작업이 고되다, 식사 조건이 나쁘다, 숙사가 나쁘다, 그러니 원래 일터에 돌아가 자기가 해오던 편한 일을 하라는 식으로 충동질을 하였다고 비판받기도 하였다.<sup>535)</sup>

이처럼 낙후한 계급적 태도가 남아 있기에 노동자로서의 혜택만 누리고 일은 제대로 안하며 규율 위반도 일으킨다는 인식이었다. 조선맥주공장 노동자 김서운은 자주 무단 결근을 하고, 승인도 없이 작업 중에 이탈을 하며, 낮잠을 자거나, 점심시간이 지난 후에 집에 갔다 30분씩 늦게 돌아오는 등 지각을 다 반사로 하였다. 야간 교대작업 중에는 세 차례나 일자리를 비우고 집에 갔는데, 브리гада 반장이 추궁하자 배가 아파서 그랬다며 핑계를 대기도 하였다.<sup>536)</sup> 선반공 리명준은 자주 지각을 하고, 계획량도 달성하지 못할 뿐더러 휴일이나 시간외 노동으로 전후 복구 사업에 동원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여러 차례 피병을 부리기도 하였다.<sup>537)</sup>

그렇지만 ‘사상적 낙후성’이 반드시 신입 노동자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신입 노동자라고 해서 노동에 대한 동기부여도 없이 억지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사리원자동차사업소의 노동자는 증산경쟁운동에서 이기기 위해서 교체가 필요한 자동차 타이어를 그냥 둔 채 경쟁자에게 인계하였다. 그렇게 해서 경쟁자가 타이어를 교체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런 형태의 ‘사상적 낙후성’은 기존 노동자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sup>538)</sup> 한편, 노동의 동기 측면에서 노동자가 될 것을 선망해온 이도 있었으며, 자신에게 노동자가 될 기회를 제공해준 북한의 정권과 당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sup>539)</sup> 즉, 노동자가 된 자신에 대해

535) 황건, 「열두삼천리벌에서」, 『조선문학』1955년 7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7. 108쪽.

536) 「지각을 일삼고 작업시간에 낮잠을 자는 건달꾼」, 『로동자신문』, 1953. 10. 5. 2면.

537) 「뒤떨어진 로동자를 끌어올린 나의 선동사업 경험」, 『로동자신문』, 1953. 11. 22. 2면.

538) 「켈레톤 - 찌스 42호의 하소연」, 『로동자신문』, 1954. 8. 23. 2면.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성을 갖고 노동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는 이들도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는 갖 노동자가 된 이들의 사상이 전반적으로 낙후하다는 인식 하에 그 해법을 계속해서 비판과 자아비판을 통한 ‘사상개조’에서 찾았다. 물론 비판과 자아비판을 통해 노동자의 행동이 변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황건은 취재나간 평남관개공사현장에서 사업 비판회를 목격하였다. 이 자리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33세의 착암수 김기삼은 동료 노동자들 앞에서 자아비판을 하면서 “눈물을 콧속 흘리고 있는 것이었다.” 그 후 김기삼은 사람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 책임량을 매일 150%이상 하게 되었다고 한다.<sup>540)</sup>

그렇지만, 이런 비판이 별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비판당한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주는 경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10월 13일

오늘 생산량 99%

나도 거의 100%로 자기 계획을 다했는데 왜 이리 말성들이 많을까? 반장은 또 나를 보고 얼굴을 찌푸리는군. 작업 총화 땀 또 무슨 비판을 할 모양이지. 하려면 하라지. 우리 작업반에서야 내 이름이 빠지면 비판할 자료가 없는 걸.

어머님은 내가 이렇게 괴롭게 일하는 것을 모르시겠지.

10월 17일

5분 늦었다고 10분간 비판. 작업 총화 때도 비판받았다.<sup>541)</sup>

---

539) 박근, 앞의 글, 1954, 48쪽; 박태민, 「녀성 기중기 운전수」, 『조선문학』 1955년 5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5, 81쪽.

540) 황건, 앞의 글, 1955, 108~109쪽.

541) 「직포공의 일기」, 『로동자신문』, 1954. 11. 23. 3면.

후일 노력영웅이 되는 직포공 김영숙은 자신의 일기에 작업 총화 자리에서 자신이 받은 비판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루 계획량의 99%를 달성했으니, 거의 100%로 자기 계획을 다 했는데도 비판을 하는 동료들에 대해, 그리고 출근 시간에 5분 늦었다고 10분씩 비판을 들어야 했던 것에 대해 김영숙은 억울함과 괴로운 심정을 토로하였지, 결코 더 잘 해야겠다고 다짐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앞서 언급되었던 리명준의 경우에도 여러 번 비판을 받았지만 불성실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계속해서 그에게 비판을 가하면서 그를 개조하려 하였던 선동원은 리명준의 구체적인 사정도 알아보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비판만 하는 것이 좋지 않은 방법임을 깨닫게 되었다. 리명준이 매번 비판만 받고 위축돼서 자신의 일을 주저하게까지 된 것이다.<sup>542)</sup>

노동자들 중에는 비판에 대해 단지 소극적인 거부감만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불만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직포공 고계월은 브리гада 작업 비판회에서 자신이 5대공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받았다 하여 불평을 말하였다. 그가 비판을 받은 것은 며칠째 지가 책임량의 50%밖에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는데, 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날 무단 결근을 해버렸다.<sup>543)</sup>

군중회의에서 망신을 당한 홍완식은 비판을 선선히 접수치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내일부터 일을 안 나오겠다고 하였다.

(중략)

“모든 동무들이 일에 열성을 내야겠다는데 동무는 숫제 일을 하지 않겠다니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내 비판에 불만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딴 이유가 있는지 숨기지 말구 말해줘요.”

홍완식은 성난 얼굴 그대로 털어 놓았다.

“사람을 그렇게 깔보는 법이 어디 있소? 망신을 시켜도 분수가 있지 술한

542) 「뒤떨어진 노동자를 끌어올린 나의 선동사업 경험」, 『로동자신문』, 1953. 11. 22. 2면.

543) 「신호등 - 그의 결근」, 『로동자신문』, 1954. 11. 13. 3면.

사람 앞에서...”

최정자는 역시 그것이었구나 생각했다. 그는 비판 준 동무의 앞에서 솔직히 사과를 했다. 먼저 동무의 마음을 물어 보았어야 했을 것을 그랬다고 하였다.<sup>544)</sup>

평남관개공사 현장에서 이처럼 유사한 사례가 나왔다. 공개적인 비판을 당한 홍완식은 비판을 수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부터 일을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판 당한 것을 자신을 깔보고 망신을 준 것이라고 느낀 것이다. 결국 비판을 했던 반장 최정자는 자신이 배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여야만 했다. 그 이후 홍완식은 오히려 좋은 성과를 내게 되었다.

비판과 자아비판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면서 관리자 측에서는 이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해법은 생산현장의 인간 관계 강화에서 나오고 있었다. 노동자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 노동자의 욕망과 고충을 몰라서는 성과가 나지 않았다. 만약 노동자들이 생산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것을 단순히 낙후해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원인을 찾아내야 했다. 전술한 김영숙이 생산에 열성을 내게 되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바뀐 계기는 동료 노동자 주두옥의 상냥한 태도와 친절로 인해서였다. 주두옥에게 마음을 터 놓게 되고 나면서 자신 또한 배우고 노력해서 기술을 숙련시켜야겠다고 결심을 할 수 있었다.<sup>545)</sup> 리명준의 경우, 그가 자주 지각을 한 이유는 하숙집에서 아침식사를 늦게 제공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기술 숙련도를 높이고자 선배 기능공에게 물어보아도 “부지런히 연습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되지”라고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기에 실력이 쉽게 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선동원은 리명준의 아침식사가 제때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선배 기능공에게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도록 설

544) 황건, 앞의 글, 1955, 109쪽.

545) 「직포공의 일기」, 『로동자신문』, 1954. 11. 23. 3면.

득을 하였다.<sup>546)</sup>

이런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노동자를 낙후와 선진, 열심히 노동하려는 자와 노동을 회피하는 자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 시기 들어온 다수의 신입 노동자들이 단지 원래 비노동계급이었기 때문에 낙후하다는 식의 인식은 편견일 뿐이었다. 따라서 사상적으로 낙후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싫어한다고 판단하는 것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신입이기 때문에 기술숙련도가 떨어져 있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따라 당연히 여러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많은 부분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었다. 문제는 노동자에게 무엇이 중요한가였다.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에 들어온 19세의 신입 노동자 김철수는 처음에 사무원 직종을 할 것을 제안받았으나, 사무원은 하기 싫고 반드시 생산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특히 카바이드(carbide) 전로공(電爐工)이 되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전로공 자리가 비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배인은 김철수를 토목 직장에 배치시켰다. 그 후 김철수가 토목 직장에서 3일 연속으로 점심시간이 지나서 20분씩 지각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규율을 위반한 것이다. 공장 관리자 측인 공장 신문 주필이 원인을 알아보니 김철수는 점심시간에 카바이드 직장에 가서 견학하다가 늦어진 것이었다.

“(전략) 그런데 철수 동무는 건설 사업을 생산보담 낮게 봅니까? 나는 어느 것이 낮고 높고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두 그렇습니다. 전 단지...”

“음 그래! 카바이트를 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각 다를 수 있지만.”<sup>547)</sup>

김철수가 카바이드 전로공이 되고 싶어한 이유는 바로 자기 아버지 때문이

546) 「뒤떨어진 노동자를 끌어올린 나의 선동사업 경험」, 『로동자신문』, 1953. 11. 22. 2면.

547) 한성, 「로동에 대한 이야기」, 『조선문학』1955년 12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12. 117쪽.

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부터 이 비료공장의 노동자였는데, 정전 직전에 미군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김철수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카바이드 전로공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카바이드 전기로에 배치받게 되었다.<sup>548)</sup> 이 사례는 노동을 둘러싼 일종의 윤리적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직장 측이 원하는 것은 노동자의 직장 고착과 규율 준수였고, 김철수가 원하는 것은 자신이 보다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욕망의 충족이었다. 김철수가 점심시간 이후에 지각을 한 것은 결과로서는 낙후한 행동이었을지 모르나, 그의 동기를 고려한다면 김철수를 낙후한 노동자라고 단정지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결국 김철수의 욕망은 직장 측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위의 사례에서 김철수는 약간의 ‘사고’는 쳤지만, 그것이 자신의 욕망이 달성되지 못해서 벌인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평양제사공장의 조사공 전춘복의 사례는 그와 달랐다. 전춘복은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한 노동자였다. 어릴 때 고아가 된 전춘복은 살아남기 위해 8살의 나이에 일제하 ‘야마주생사공장’<sup>549)</sup>에 취업했었던 인물로서, 전춘복에 관한 기사가 쓰여지던 당시에는 13년의 노동 연한을 가진 22세의 여공이자, 국기 훈장 2급을 수여받은 실력자였다. 공장에서 실수율(實收率)을 높인 최고 기록자이기도 하였다. 공장에서는 노력영웅인 당운실과 김옥순의 뒤를 이을 인물로 기대가 컸으며, 전춘복 또한 스스로의 실력에 대해 자신하고 있었다. 전춘복은 당운실의 뒤를 이어 기존의 절구질 삭서법을 45각도 8자형으로 개선시키고 새로운 침서법을 이용하여 생산에 높은 성과를 냈던 것이다.<sup>550)</sup>

그렇지만, 전춘복은 자신의 실력 만큼이나 자존심도 쏘고, 인정 욕구도 강하였다. 당운실은 실력이 좋은 전춘복에게 공장에서 가장 나쁜 기대(機臺)를

548) 한성, 위의 글, 1955, 111~118쪽.

549) 야마주생사(山十生絲)는 일제하에 평양에 위치한 공장이었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04882>).

550) 임순득, 앞의 글, 1957, 89~90쪽.



말했다. 실력이 낮은 노동자에게 말을 잘 안 듣는 기대를 배치하면 생산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춘복은 이 조치가 자신의 경쟁자 김옥순을 유리하게 만들었다고 속단하고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급기야는 병에 걸렸다는 핑계를 대고 출근을 거부하는 ‘소극적 저항’을 행하였다.<sup>551)</sup>

그렇다고 해서 전춘복이 이른바 ‘낙후한’ 노동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전춘복은 전쟁 중 폭격을 피하여 공장을 이설할 때 기대를 머리에 이고 산골짜기 깊은 곳까지 날랐으며, 정전 이후 공장의 복구 건설을 할 때에는 다른 여공들과 함께 하루 8시간 노동 후에도 기꺼이 복구 작업을 위해 열성을 바치기도 하였다.<sup>552)</sup> 다만, 전춘복은 자신이 현신한 만큼 더 나은 평가나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위해서는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다.

즉, 노동자들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판단의 정합성을 떠나서 노동자들은 자기 노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이들이었다. 즉 자기 노동을 통제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감정이나 행동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선호하는 직종을 찾아가려는 행동, 즉 유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고, 자신의 처우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로동자신문』의 독자 투고란은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갖는 불만을 토로하는 장이었다.<sup>553)</sup> 그런 노동자들이 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결

551) 임순득, 위의 글, 1957, 93쪽.

552) 임순득, 위의 글, 1957, 93쪽, 100쪽.

553)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작업에 필요한 원자재나 반제품의 상태가 불량한 것에 대하여 공개 서한을 쓰기도 하고(「검덕 광산 로동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 품위가 높은 광석을 더 많이 보내달라」, 『로동자신문』, 1954. 4. 29. 3면; 「직물 공장 로동자들에게 - 백색 능직물의 질을 개선하여 주기 바란다」, 『로동자신문』, 1954. 6. 20. 3면; 「왜 광석 생산에서 과동성이 심한가」, 『로동자신문』, 1954. 8. 25. 2면; 「쟁목을 규격대로 보내 달라」, 『로동자신문』, 1954. 9. 2. 3면, 「개별 계약을 지키라」, 『로동자신문』, 1954. 11. 9. 3면), 직장 상점에 상품이 부족하거나 직원이 불친절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독자들로부터-불친절한 직장 상점」, 『로동자신문』, 1954. 6. 4. 3면). 직장의 관리자 측에서 노동보호물자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합숙이나 문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고발하였다(「독자들로부터- 창고 일꾼들은 책임성을 높이라」, 『로동자신문』, 1954. 7. 20. 3면; 「성실치 못한 합숙 책임자」, 『로동자신문』, 1954. 9. 2. 3면; 「문화시설에

국 그들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과 배려를 받고 있다는 감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저 낙후하다고 낮춰보고 비판만 한다면 오히려 얼마든지 유동이나 태업 등의 방식으로 저항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결국 생산현장에서 노동자와 관리자 사이의 관계성이 중요해진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면 관리자 측에서 노동자들이 존중받고 배려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역할은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현장에서 노동자와 직접 대면하고 함께 노동하는 브리гада반장(작업반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다.<sup>554)</sup>

금룡은 현호와 반원들과의 관계며 자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다. 전날 작업 총화 때에 그를 호되게 비판한 일이 생각키웠다.

‘내 비판을 감정적으로 접수한 것일까?’

금룡은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채 며칠을 지냈다. 그러던 차에 하루 현호는 출근하자마자

“애 자식이 갑자기 화독처럼 달아 올라 펄펄 뛰구 있수다”하고 맥없이 말했다.

금룡은 이 말을 무슨 핑계를 꾸미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 그의 태도를 주시했다.

“동무는 우리 작업반 규율을 문란케 하오. 외판을 좀먹는 벌레란 말이요.”

하고 상진이가 갑자기 벼락 같은 소리를 내었다.

(중략)

현호가 조퇴한 후에 금룡은 일종의 고민에 잠겼다. 욕질을 한 상진이보다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퇴증을 해준 자기에게 대해서 더 아니꼽게 생각하고

---

관심을 돌리라, 『로동자신문』, 1954. 10. 22. 3면).

554) 러시아에서 작업반장은 노동자이면서도 중간관리자로서의 위상이 강하였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작업반장은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 임금 수준을 산정하는 권한을 쥔 채 가히 작업장의 “폭군”으로 군림하였다. 러시아혁명 초기에 그 권위가 퇴조되었으나, 신경제정책시기로 들어오면서 다시 권위가 강화되었다. 더 이상 작업반장은 노동자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으며, 작업반장은 노동자를 다시 해고할 수 있게 되었다(류한수, 「공장 작업장의 러시아 혁명 : 작업반장과 노동자의 관계를 통해 본 작업장 권력 지형의 변동」, 『슬라브학보』23-3,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08. 참조).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었다.

‘내가 왜 조금해 하였던가. 그에게 부드럽게 대하지 못했을까?’

금룡은 이렇게 자기를 반성해 보기도 했다.

그날 저녁 금룡은 현호의 집을 방문하고자 그에게 대한 자기의 태도가 옳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555)</sup>

조선소의 작업반장인 김금룡은 신입 노동자인 최현호와의 관계에 대해 고심했다. 최현호는 나이가 40이 넘었고 전쟁 전에는 도시에서 자유 노동, 즉 일용직 노동자로 살다가 공장에 들어온 노동자였다.<sup>556)</sup> 김금룡은 어느 날 최현호가 낙후하다고 호되게 비판을 하였는데, 그러자 다음날 최현호가 ‘칭병’을 하며 조퇴한 것이다. 여기서도 비판이 오히려 노동자의 감정을 자극해서 역효과가 남이 드러나고 있는데, 김금룡은 최현호의 그런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며칠 후 최현호가 다시 자식이 아파서 조퇴를 해야겠다고 할 때, 김금룡은 더 고민에 잠기게 되었다. 최현호에 대해 옆에서 화를 낸 다른 노동자에 대해서보다, 말없이 조퇴증을 끊어준 자신에 대해 더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었다. 즉 최현호는 김금룡이 자신의 말을 반신반의하고 있음을 눈치채고 더 불쾌하게 생각한 것이었다. 반장이 반원인 노동자에 대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존중과 배려가 없어서는 결코 관계가 개선될 수 없는 것이었다.

자신의 태도를 반성한 김금룡은 이후 최현호가 감기로 드러눕게 되자, 직접 배급탄을 날라 주고, 병원에 가서 약을 타다 주기도 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다른 반원들을 데리고 집을 방문하여 벽에다 소련 화보를 붙여주기도 하였다. 이처럼 반장이 태도를 바꾸자 최현호도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되었다. 그 후 최현호는 김금룡을 찾아와 예전 작업 총화 때 비판을 받은 것에 기분이 상해 조퇴하였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후 열성을 보이게 되었다.<sup>557)</sup>

555) 리춘진, 「조선소에서」, 『조선문학』107,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7, 116쪽.

556) 리춘진, 위의 글, 1956, 115쪽.

이 사례에서도 비판을 통한 노동자 통제는 사실상 역효과를 낼 뿐임이 나오고 있었으며, 더욱 중요한 것은 반장이 반원의 생각과 말을 믿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노동자가 단지 생산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장이 그렇게 할 때 노동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었다.

평남관개공사에 참여한 브리가다반장 최청자 또한 브리가다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작업에서 열성을 내며 노동계급으로서의 영예감을 가지게 하고자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휴식 시간마다 오락회를 열고 담화회를 조직하였으며, 서로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매달 나오는 생활비까지 아낌없이 써서 밥참을 사서 제공하였다. 밤에는 여성 노동자들과 함께 남성 노동자들의 빨래를 해 주고, 작업복과 양말을 기워 주기도 하였다. 그런 노력에 힘입어 최청자의 반은 매일 과제를 평균 190%로 초과 실행하게 되었으며, 이후 6명의 모범 노동자를 배출할 수 있었다.<sup>558)</sup> 평양제사공장의 당운실도 전춘복에게 자기의 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잘못은 인정하였지만, “그렇기로서니 어제 오늘 이틀씩이나 일도 안 나가고 이불을 쓰고 누워 있는 춘복이를 눈앞에 보니 지금이 어느 때라고 정말 눈에서 불이 날 지경으로 화가 치밀었다. 빨대로 하자면 이불을 발’길로 걷어 찰 일이로되 남의 총중에 나가면 무슨 일이고 백번 참아야 한다고 타이르던 어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간신히 화를 참고, 전춘복을 달래고 좋은 말로 오해를 풀어주고자 하였다.<sup>559)</sup>

이처럼 노동자에 대한 인격적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이 강조되면 될수록, 그것은 현장에서 노동자를 직접 대면하는 하급 관리자, 즉 브리가다반장(작업반장)의 역할이 중요해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또한 반장과 반원의 관계는 단순

557) 리춘진, 위의 글, 1956, 117쪽.

558) 황진, 앞의 글, 1955, 110쪽.

559) 임순득, 앞의 글, 1957, 94쪽.

히 직장 상사와 후임과 같은 공적인 것에 머무는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여야 함이 강조되어 갔다. 그것을 당운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춘복 동무가 우리 공장을 자기의 대가정과 같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직장으로 밖에 안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춘복 동무의 그 마음이 피와 살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우리들 가운데는 다분히 의무적인 것, 구호적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sup>560)</sup>

비록 전춘복이 실력에 비해 조직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전춘복이 직장과 다른 노동자들에 대해 갖는 감각은 공과 사의 구분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것은 전춘복이 고아 출신이기에 더욱 그러하였을 것이되, 전쟁 이후 공장에 고아 출신 노동자들이 다수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는 단지 한 개인의 개성이 아니게 되는 것이었다. 바로 ‘신세대’ 노동자들의 보편적 특성의 한 단면을 당운실은 전춘복을 통해 간취한 것이었다. 생산현장에서 반장과 노동자간의 사회적 관계의 강화는 노동자의 ‘열성적’ 생산 참여의 전제 조건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 4) 소결

한국전쟁의 발발은 북한의 경제 구조를 급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다수의 청장년 남성 노동자들이 군대에 징집되면서 노동력이 급감하였다. 부족한 노동력은 여성을 통해 보충하려고 하였다. 본격적인 여성의 노동자화 과정은 전쟁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생산시설은 극심하게 파괴되었으며, 생산력도 극히 저하되었다. 정전 직후 북한 경제 주요부문의 생산량은 전정에 비해 30~40%로 축소되었다.

---

560) 임순득, 위의 글, 1057, 101쪽.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진 전후 복구는 자재와 원료, 연료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노동자들의 열성과 노력에 의해 진행되어야 했다. 노동자들은 전후 복구에 필요로 하는 부족한 물자를 스스로 찾아내서 확보해야 했다. 파괴된 도시의 재건, 대규모 토목공사나 탄광개발 등은 민청과 여맹에 속하는 청년이나 여성들의 몫이었다. 이런 동원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노동자로 살아가고자 결심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전후 복구는 소련, 중국,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원조에 힘입어 진행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이 원조를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원조로 인해 북한의 생산현장에는 신기계, 신기술·작업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기술자들이 직접 북한에 와서 생산현장과 도시 복구를 도왔다.

전후 복구와 산업화를 위해서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해야만 했다. 농민, 여성, 군인, 청년층에서 새로운 노동자를 충원하였다. 이들 거의 대부분은 공장 경험이 없었기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노동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북한 정권은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노동자들의 유동을 막고 엄격한 노동규율을 부과하는 한편, 신입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부족한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 합리화와 기계화가 강조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노동자가 충원되는 과정은 노동자의 ‘세대교체’ 과정이기도 하였다.

이 ‘신세대’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해 정권과 관리자들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임금과 물질적 대우, 주거 제공 등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노동자들을 비판·자아비판을 통해 사상적으로 개조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자신을 향한 비판에 불복하거나 저항하기도 하였다. 결국 관리자들은 비판이 아니라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작업반장과 반원의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어야 노동자의 ‘열성적’ 생산 참여가 가능한 것이었다.

## 4. 노동자간 연대의식의 강화와 자립을 위한 산업화의 강행

### 1) 대규모 군중운동을 통한 제1차 5개년계획 수행

#### (1) 대내외적 정치 불안 속에서 추진한 제1차 5개년계획

전후 복구건설 시기에 소련으로부터의 원조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이는 북한 내정에 대한 소련의 개입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소련의 간섭은 북한의 경제정책에 대한 개입에서 시작하여 1955년에 이르면 당내 민주주의 문제까지 거론하였고, 결국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과 이어진 소련과 중국의 내정 개입이라는 일련의 대내외적 정치 갈등으로 비화되었다.<sup>561)</sup> 김일성을 위주로 한 당 주류는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자립경제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는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벌어진 중·소의 내정개입으로 궁지에 몰렸던 김일성은 국제정세의 변화를 틈타 반격에 나섰다. 김일성은 먼저 당 내부부터 정리하였다. 당내 비주류였던 최창익, 윤공흠, 리필규, 서희를 ‘반당종파분자’로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1956년 12월 당중교환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개시하였다.<sup>562)</sup> 그런 가운데 1956년 말, 황해도와 개성시 등 ‘신해방지구’에서 부농, 중농층이 농업협동조합에서 이탈하는 ‘배

561) 북한에 대한 소련의 개입과 그로 인한 갈등은 조수룡, 앞의 논문, 2018, 109~154쪽 참조.

562) 1956년부터 간헐적으로 진행되어오던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은 1958년 12월부터 1960년 말까지 2년여 동안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집중지도사업은 인민들의 계급투쟁을 통해 이들의 위계적 질서를 구축한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사업으로 북한 주민들의 성분 질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정치적으로 위계화되었으며, 공산주의 교양을 통해서도 인민 정체성을 정형화해나갔다(한성훈, 앞의 책, 2012, 434~437쪽).

천바람'이 발생하였다. 김일성 등 당 주류는 이 움직임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sup>563)</sup>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1957년 5월 30일 반혁명분자들을 진압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해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이로서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이 북한 전역에 몰아치게 되었으며, 1년 동안 황해남도과 함경북도 등 도 인민위원회 소재지와 군 인민위원회 소재지에서 ‘간첩도당과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공개재판과 숙청이 진행되었다.<sup>564)</sup>

한편 당내 비주류가 제거됨에 따라 당내 세력 관계는 김일성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당내 비주류의 견제로 인해 하향 조정되었던 5개년계획은 백지화되었다.<sup>565)</sup> 그런 가운데 1956년 12월 11~13일에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957년도 인민경제계획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원조가 줄어든 상황에서 제1차 5개년계획에 소요될 자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원천'에 의존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화절약을 위하여 대외수입에 의존하였던 압연재 및 석탄 문제, 물자 절약 등도 거론되었다. 회의 결과 1957년도 인민경제계획은 중공업, 특히 금속·석탄·기계·전력 및 화학공업 부문의 급속한 발전을 최우선 기본과업으로 할 것이 결정되었다. 또한 외화 절약을 위해서 수출품 생산을 확장하고, 수입대체산업의 확대, 수입탄의 국내 유연탄 및 무연탄 사용으로의 전환도 강조되었다.<sup>566)</sup> 이후 소련과의 협의를 거친 제1차 5개년계획은 한층 성장목표를 높이고 중공업 부문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수정되었다.<sup>567)</sup>

이처럼 김일성과 당 주류 중심으로의 권력 재편 과정과 제1차 5개년계획의

563) 서동만, 앞의 책, 2005, 567~578쪽.

564) 한성훈, 앞의 책, 2012, 435쪽.

565) 조수룡, 앞의 논문, 173쪽.

566) '1957년 인민경제계획에 대하여(전원회의 결정, 1956년 12월 11~13일)', 『사료집 30』, 797~808쪽.

567) 조수룡, 앞의 논문, 2018, 177쪽.



확립 과정은 모두 1958년 3월 3~6일 열린 제1차 당대표자회에서 그 구두점을 찍게 된다. 갑작스럽게 소집된 제1차 당대표자회에서는 제1차 5개년계획에 관한 승인, 그리고 그간의 당내 숙청을 총괄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박금철은 최창익, 박창옥 등을 ‘반당종파분자’의 수준을 넘어 무장폭동인 ‘반혁명·반국가행위’를 획책한 자로 낙인찍었다. 이 당대표자회의 결론은 이후 북한 전역 기층까지 전파되면서 광범위한 당과 정부내 숙청을 불러왔다. 연안파 거의 전원이 숙청되었으며, 소련계는 일부 숙청되거나 행방불명되고 상당수는 소련으로 돌아갔다. 국내계 또한 양적으로 연안파나 소련계를 훨씬 능가하는 숙청을 당하였다.<sup>568)</sup>

동시에 당대표자회에서 제1차 5개년계획이 공식 승인되었다. 5개년계획안을 보고한 국가계획위원장 리종옥은 계획 기간 동안 공업총생산액은 2.6배로 성장할 것이며, 연평균 성장률은 21.5%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실제 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 고속 성장과 중공업 중심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었다.<sup>569)</sup> 김일성은 1957년도의 경제적 성과로서 중공업우선 노선에 이의를 제기한 세력의 오류가 입증되었다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따라서 연안계와 소련계에 대한 숙청은 경제발전노선을 둘러싼 대립을 총정리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sup>570)</sup> 이후 1958년 9월 26~27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개최되어 전 당원에게 5개년계획을 1년 반 앞당겨 완수하도록 “호소”하는 “당중앙위원회 편지”가 채택되었다.<sup>571)</sup> 강력한 산업화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한편, 흐루쇼프의 탈스탈린화와 미국과의 평화공존 노선은 소련과 중국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였고, 이는 김일성에게 ‘자주외교’의 틈새를 마련해준 기회가 되었지만,<sup>572)</sup>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 북중소 협력에 의한 안보가 불가능할

568) 서동만, 앞의 책, 2005, 578~585쪽, 771~778쪽.

569) 조수룡, 앞의 논문, 2018, 177~178쪽.

570) 서동만, 앞의 책, 2005, 773쪽.

571) 서동만, 위의 책, 2005, 776쪽.

572)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 214쪽.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였다.<sup>573)</sup> 이는 남한에 주둔하는 미군의 존재를 더욱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 물론 한국전쟁 이래 북한에서 반미 정서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미국이 정전협정을 무력화하고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려는 움직임을 보였기에 반미 정서가 고조될 수밖에 없었다. 1950년대 미국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3배 이상 늘어난 군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한국군의 감축을 추진하였다. 특히 1955년 이후 미국은 중국과 소련의 후진국에 대한 경제원조 공세와 제3세계의 등장으로 인해 군사원조보다는 경제원조를 보다 강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서 병력을 줄이는 대신 무기를 현대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한반도에 새로운 무기의 도입을 금지한 정전협정 13조 d항을 무력화시켜야만 했다. 1958년에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정전협정 위반을 이유로 정전협정 13조 d항의 폐기를 선언하였고, 핵공격이 가능한 지대지 로켓인 어네스트 존과 280 mm 원자포의 한국 배치를 감행하였다.<sup>574)</sup>

북한에서도 미국이 정전협정 13조 d항을 무력화시키고 신무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정보가 알려지면서 반미 감정이 극도로 고조되었다. 1957년 5월 30일, 외무상 남일 명의로 남한에 신무기를 반입하려는 미국에 대한 비난 성명이 공개되었고,<sup>575)</sup>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는 미국의 정전협정 위반을 성토했다. 군중대회가 열렸다.<sup>576)</sup> 황해제철소 노동자들 중 그림 숨씨가 있는 이들은 “미제 야만들의 만행을 날날이 폭로 규탄”하는 그림을 30여점 그려 이

573) 중국으로부터의 영향력 탈피를 위해서 이 시기 북한 주둔 중이던 중국 인민지원군의 철군이 합의·시행되었지만, 이는 그만큼 북한이 직접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높이는 것이었다.

574) 박대균, 「1950·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 『國際地域研究』9권 3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0, 33~34쪽.

5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일 외무상 성명 발표」, 『로동신문』, 1957. 5. 31, 1면.

576) 「미제의 정전 협정 파괴행위를 반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결의문」, 『로동자신문』, 1957. 6. 28, 1면; 「미제의 정전 협정 파괴행위를 반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진행」, 같은 일자, 2면; 공화국 각지에서 군중 대회」, 『로동자신문』, 1957. 6. 30, 1면.

동 전람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sup>577)</sup> 1958년 7월 12일에는 남일 외무상은 미국이 남한에 “280미리 원자포”와 “오네스트 존 로켓포”를 위시한 각종 신형무기를 반입하고, 춘천 근방에 미군 “제4 유도탄 사령부”를 정식으로 설치하고 유도탄 기지를 설치하려 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sup>578)</sup>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 문제도 불거졌다. 1957년 5월, 함경남도 장연군 락연광산 노동자 김현봉은 1950년 11월부터 약 두달간 고향이었던 락연광산 마을에서 70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이 미군과 치안대에 의해 학살을 당하였음을 고발하는 기사를 『로동자신문』에 게재하였다.<sup>579)</sup> 그런데 약 1년 후, 락연광산 갱도 복구 과정 도중 갱내에서 다수의 민간인 시신이 발견되었다. 『로동자신문』에는 훼손된 시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실렸으며, 학살 생존자들의 입을 빌려 이 학살을 주도한 이가 바로 황해도 신천 민간인 학살 사건의 조직자인 “미군 중위 해리슨”이라고 지목하였다.<sup>580)</sup> 6월 15일에는 갱도 내의 시신을 수습하여 합동 장례식이 열렸다. 처음 500여명으로 추산했던 민간인 희생자의 수는 수습 과정에서 유해가 더 발굴되어 800여명으로 늘어났다.<sup>581)</sup> 북한 전역에서는 미군의 민간인 학살을 규탄하는 군중대회가 열렸다.<sup>582)</sup> 6월에는 황해도 신천군 룡당리에서 학살당한 60여명의 민간인 시신이 추가로 발굴되기도 하였다.<sup>583)</sup>

미국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간첩이나 ‘반혁명분자’같은 내부의 위협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켰다. 정전협정 이래로 북한 사회에서 간첩은 상시적으로 출몰하고 있었다. 그러다 1955년 경부터 소강 상태를 보이던 간첩 적발 기사는 1957년에 들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sup>584)</sup> 『로동자신문』에는 사회 속에 숨

577) 「미제 만행을 폭로하는 노동자 그림 전람회」, 『로동자신문』, 1957. 6. 21, 1면.

5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성명」, 『로동자신문』, 1958. 7. 13, 1면.

579) 「한 광산 마을에서 7백여명을 학살한 미제」, 『로동자신문』, 1957. 5. 9, 3면.

580) 「미제 살인마들에게 영원한 저주가 있으라!」, 『로동자신문』, 1958. 6. 4, 4면.

581) 「원한에 찬 부모 형제들의 죽음을 잊지 말자」, 『로동자신문』, 1958. 6. 18, 3면.

582) 「각지에서 군중 대회 진행」, 『로동자신문』, 1958. 6. 27, 2면.

583) 「계속 드러나는 미제 침략군의 대중적 학살 만행」, 『로동자신문』, 1958. 6. 29, 3면.

584) 「미제의 정탐 살인 도배들에게 인민의 준엄한 심판」, 『로동자신문』, 1957. 5. 20, 3면; 「한 반

어있는 간첩의 예시를 들고, 항상 간첩을 적발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기사들이 자주 올라왔다.<sup>585)</sup> 1958년에는 반간첩 투쟁 전람회가 각 지방에서 순회 개최되기도 하였다.<sup>586)</sup>

이 시기에 간첩보다 더 부각된 것은 ‘반혁명분자’들이었다. 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반격에 나선 김일성은 ‘반당종파분자’를 넘어 남한과 내통하여 적극적으로 파괴활동을 꾀하는 ‘반혁명분자’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제’의 위협 분위기 속에서 1957년 5월 30일 당중앙상무위원회는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라는 결정을 채택하였고, 사회기층에 숨어 있는 ‘반혁명분자’를 색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었다.

『로동자신문』에도 각 공장 등에서 정체를 숨기고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가 적발된 ‘반혁명분자’에 관한 기사가 자주 올라왔다. 이 ‘반혁명분자’들은 대개 한국전쟁 시기에 치안대 활동을 하면서 민간인들을 학살하다가 월남하지 못한 채 북한 사회에 남아 있는 이들로서, 정체를 숨기고 공장에 노동자나 기술자로 취업하여 언젠가 미군이 다시 들어올 날을 기다리며 사보타지나 선동을 행하는 존재들로 묘사되었다.<sup>587)</sup>

예컨대 홍상요업공장 노동자 김례직은 황해도 신천군에서 자치회장을 하면

---

위원장인 간첩 잡은 이야기, 『로동자신문』, 1957. 5. 23. 3면; 「행상으로 가장한 간첩을 체포」, 『로동자신문』, 같은 면; 「미제 간첩들은 인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로동자신문』, 1957. 5. 27. 3면; 「간첩은 마침내 체포되었다」, 『로동자신문』, 1957. 5. 30. 3면; 「교활한 간첩 최호철의 정체는 드러났다」, 『로동자신문』, 1957. 9. 6. 3면; 「간첩 리하섭의 말로」, 『로동자신문』, 1957. 11. 17. 3면; 「자기 죄를 음폐하려던 간첩 서명덕」, 『로동자신문』, 1957. 12. 15. 3면; 「미제의 고용 간첩에 대한 준엄한 심판」, 『로동자신문』, 1957. 12. 27. 3면.

585) 「이런 것은 수상하다」, 『로동자신문』, 1957. 5. 25. 3면; 「간첩조각기XXX2호」, 『로동자신문』, 1958. 7. 8. 3면.

586) 「반간첩 투쟁 전람회에서 그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로동자신문』, 1958. 5. 23. 3면; 「반간첩 투쟁 전람회에서」, 『로동자신문』, 1958. 8. 27. 3면.

587) 「측량과장은 간첩이었다」, 『로동자신문』, 1957. 8. 23. 3면; 「간악한 파괴분자 김리백」, 『로동자신문』, 1957. 10. 2. 3면; 「그의 솔직한 자백」, 『로동자신문』, 1957. 11. 10. 3면; 「반혁명 분자들은 발로되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7. 11. 17. 3면; 「자백한 그들은 새 일군이 되었다」, 같은 면; 「죄과를 숨기려던 반혁명 분자들」, 『로동자신문』, 1957. 12. 6. 3면; 「리명일은 솔직히 자백하였다」, 『로동자신문』, 1958. 1. 15. 3면; 「그의 죄행은 드러났다」, 『로동자신문』, 1958. 2. 14. 4면; 「군중들의 높은 혁명적 경각성으로써」, 『로동자신문』, 1958. 10. 31. 3면; 「그의 죄행은 드러났다」, 같은 면.

서 동생을 치안대장에 얹혀 민간인을 학살하게 한 자였으며, 공장 취업 이후에는 종종 몸이 아프다고 피병을 부려 결근을 하면서,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결근을 하게 유도하였다. 또한 ‘반혁명분자’로 낙인찍힌 리필규와 내통하며 리필규를 우상화하기도 하였다.<sup>588)</sup> 황해제철소 주택사업소 노동자 정태빈은 치안대장 활동을 하면서 민간인 190여명을 학살하였으며, 이후 건설 노동자로 취업하여 고의적으로 공사를 지연시키고, 오작 시공을 하여 국가에 손실을 입혔다.<sup>589)</sup>

생산현장에서 ‘반혁명분자’를 색출하는 작업은 노동자들에게서 복합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한편으로는 경직되고 움츠러 들게 하였다. 기실 ‘반혁명분자’가 행했다는 파괴행위는 대개 소극적인 저항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이제는 소극적 저항을 하는 것 자체도 곧 ‘반혁명분자’로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었다. 한편 색출 작업은 자신의 노동을 통해 내외의 적을 물리치겠다는 결의를 올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1958년 5월 강계 백화점에서 열린 반간첩 투쟁 전람회에 참석하였던 노동자 김용우는 감상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간첩-네가 네 죄과를 깨닫고 인민들 앞에서 진정으로 자수한다면 공화국 정부는 너를 관대히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끝끝내 간첩 행동을 하려고 한다면 너는 박멸될 것이다.

우리들은 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한다. 네 놈들이 전쟁을 도발하며 침략을 기도한다면 미제-네놈들도 박멸될 것이라고...

나는 낮교대에 들어 가는 도중이다. 내가 일한다는 것은 나 하나의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4월에도 나의 증산 의무를 113%로 초과 완수했다. 나는 오늘 더 많은 일을 하겠다. 나뿐이 아니다. 우리 전체 노동자들이 그러하다. 이것은 원수 미제-네놈들을 우리 강토에서 몰아 내는 힘의 원천이다. 이

588)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하자 - 김례직의 정체는 드러났다」, 『로동자신문』, 1957. 10. 23, 3면.

589) 「공장 건설을 파괴하려던 음모를 적발」, 『로동자신문』, 1958. 11. 12, 3면.

힘은 총알보다도, 대포보다도 더 강하다. 나는 이렇게 일한다.

보느냐, 미제야. 네놈들은 당장 물러가라”<sup>590)</sup>

노동자들은 때로 영웅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김덕광산에서 ‘반혁명분자’ 김연하는 갯도 내 휴게실 전기 히터 위에 40개의 폭약과 뇌관 10개를 올려놓고 과열로 폭발시켜 갯도를 파괴하고자 기도하였다. 우연히 휴게실에 들어온 노동자 조두실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번개 같이” 폭약과 뇌관을 끌어안고 휴게실을 뛰쳐 나와 폭발을 막을 수 있었다.<sup>591)</sup>

이처럼 제1차 5개년을 추진하던 시기에 북한은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우방이었던 소련과 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반미 정서의 고조와 내부의 적이라는 실질적이지 ‘상상’된 위협이 부각되었다. 이런 위협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가 정당성을 얻는 것이었다. 여기에 하나 더 정당성을 키우는 것은 ‘남조선’에 대한 인식과 태도였다.

북한이 불 때 남한은 ‘미제’의 강점으로 인해 고통받는 불행한 땅이었다. 남한의 ‘겨레’들은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며, 저임금과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기만과 타락, 낭비 준위의 미국식 문화와 생활 양식”으로 인해 강도, 납치, 사기 사건이 횡행하는 곳이기도 하였다.<sup>592)</sup> 그렇기에 북한에서는 이따금 남한에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발표하곤 하였다.<sup>593)</sup> 1957년에는 남한의 절량 농민들에게 구호미 10만 석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으

590) 「반간첩 투쟁 전람회에서 그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로동자신문』, 1958. 5. 23, 3면.

591) 「그는 목숨으로 광산을 지켰다」, 『로동자신문』, 1958. 9. 24, 5면.

592) 「미제를 몰아내기 전에는 조국 남쪽에서 불행이 없어질 수 없다」, 『로동자신문』, 1957. 5. 11, 3면; 「기아와 빈궁에 허덕이는 남조선 로동자들」, 『로동자신문』, 1957. 5. 18, 3면; 「미국식 생활이 빚어낸 결과」, 『로동자신문』, 1957. 6. 1, 3면; 「남조선 로동자들이 겪고 있는 불행의 근원은 미군의 강점에 있다」, 『로동자신문』, 1958. 5. 21, 3면; 「임금은 낮아지고 물가는 오르고」, 『로동자신문』, 1957. 7. 14, 3면.

593)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전기상 성명 발표 - 남조선에 전력을 송전할 데 대한 문제와 관련하여」, 『로동신문』, 1955. 11. 9, 1면;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남조선 수해 리제 동포들에게 구호 물품을 보낼 데 대한 제의를 적십자 국제련맹 위원장에게 통지」, 『로동신문』, 1956. 7. 16, 2면.

며,<sup>594)</sup> 1958년에는 남한의 실업자들과 유랑 고아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백미 15만 석, 직물 500만 m, 수산물 1만 톤 및 신발 400만 켤레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또한 고아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양육할 의사가 있다고 표명하기도 하였다.<sup>595)</sup> 1959년에는 남한의 풍수해 이재민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우선 백미 3만 석, 직물 100만 m, 신발 10만 켤레, 시멘트 10만 포대, 목재 150만 재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였다.<sup>596)</sup> 남한에서 4.19혁명이 발생한 이후에는 연방제 통일안을 제시하면서, 당장 그것을 접수할 수 없다면 남북 간의 실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경제위원회를 조직하여 경제적 협조와 교류를 실현하자고 제안하였다.<sup>597)</sup> 그렇게만 한다면, <그림 3>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북측에서 실현해줄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제안이 있을 때마다 북한의 노동자들은 “남조선 형제들에 대한 뜨거운 동포애”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곤 하였다. 흥남의 류안직장 노동자 박동섭은 “우리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고 남조선 인민들과 한 자리에서 행복하게 지낼 그 날을 위하여 류안 비료를 계속 증산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sup>598)</sup> 박천견직공장 직포공 김정옥은 남한의 “헐벗고 굶주리는 고아들”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린다며, 하루라도 빨리 자기가 짠 비단을 들고 달려가 옷을 해 입히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느꼈다. 그런 마음을 담아 김정옥은 매일 열 다섯 아이의 옷감을 짜내어 남한의 고아들에게 보내도록 힘쓸 것이며, 5개년계획을 더욱 기간 단축하여 실행하겠다고 결의하였다.<sup>599)</sup> 기양 뜨

5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43호 남조선 절량 농민들에게 구호미 10만석을 무상으로 제공할 데 관하여」, 『로동자신문』, 1957. 5. 9, 1면.

59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96호 1958년 8월 21일 미제 강점하에 신음하는 남반부 실업자들과 유랑고아들을 구제할 데 대하여」, 『로동자신문』, 1958. 8. 22, 1면.

59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결정 제60호 1959년 9월 23일 남반부의 이재민들을 구제할 데 관한 내각 결정 채택」, 『로동자신문』, 1959. 9. 25, 1면.

59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 개막」, 『로동자신문』, 1960. 11. 20, 1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 폐막」, 『로동자신문』, 1960. 11. 25, 1면; 「남북 조선의 경제 문화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 데 대한 의견서」, 『로동자신문』, 1960. 11. 23. 2~3면.

598) 「남조선 형제들에 대한 뜨거운 동포애로 증산의 불'길을 더욱 높이자!」, 『로동자신문』, 1957. 5. 11, 1면.

락또르 공장 종업원들은 그들이 만든 “뜨락또르가 령남과 호남 등 남조선의 기름진 땅을 갈아엎으면서 내달릴 때 남반부 농민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그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대견할지 생각하며 1천대의 트랙터를 남한 농민들에게 보내겠다고 다짐하였다.<sup>600)</sup> 노동자들의 이런 결의가 달성되려면, 북한의 생산 수준은 남북한 전체 경제를 감당할 정도여야 했을 것이다. 산업화를 더욱 다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

599) 「남반부 고아들을 생각하며 더 많은 비단 옷감을 짜겠다」, 『로동자신문』, 1958. 8. 29, 3면.

600) 「남조선 동포들에게 1천 대의 뜨락또르를 보내며 대농기계 공장을 건설해 주겠다」, 『로동자신문』, 1960. 11. 27, 1면.





## (2) 노동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집단적 혁신 운동(천리마운동) 실행

1957년부터 시작한 제1차 5개년계획(1957~1961)은 시작하기도 전에 실패할 위기에 봉착하였다. 제1차 5개년계획의 기본방향을 논의한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김일성은 공업을 “더욱 급속한 템포로 장성”시킬 것을 역설하였다. 그렇지만, 제1차 5개년계획에 필요한 자금원으로 상정한 해외 원조가 급감하였다. 소련과 동유럽은 전후 복구건설 시기에 제공한 원조에 비해 크게 감소한 금액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전후복구 시기 무상으로 10억 루블을 제공하였던 소련은 4억 7천만 루블, 그 중에서 무상원조는 3억 루블만 제공하기로 하였다.<sup>601)</sup> 게다가 중국은 북한에게 어떠한 원조도 제공하지 않았고, 1957년이 되어서야 1년 단위의 상품공급협정을 통해 무역관계만 확대하였다. 소련과 동유럽이 제공한 원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국은 원조를 아예 거부하였기 때문에 5개년계획에서 원조의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었다.<sup>602)</sup> 전쟁 직후인 1954년 북한의 국가예산 수입 중 34.0%에 달하던 원조는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던 1957년에는 12.2%, 1958년에는 4.2%, 1959년에는 2.7%로 급감하였다.<sup>603)</sup>

그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소련인 기술자들도 철수하게 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소련과 중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소련 고문단은 1957년 3월 대부분 철수하였으며, 12월에는 중국 인민지원군의 완전 철수가 합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인 기술자들도 줄어들게 된 것이다. 조수룡에 따르면, 북한의 비공식적인 요청에 따라 1957년 1월 소련 고문단 및 기술자 감축이 합의되었으며, 2~3월 중 대부분 시행되었다. 한편

601) 강호제, 『북한과학기술형성사』, 선인, 2007, 127쪽.

602) 조수룡, 앞의 논문, 2018, 188~191쪽.

603) 國土統一院,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II』, 1988, 550~551쪽; 김상학, 「사회주의 공업화를 위한 우리당의 경제정책」, 『근로자』170, 1960, 29쪽.

리국순은 흥남비료공장에 파견되어 있던 소련인 기술자들은 1957년 10월경 귀국한 것으로 기록하였다.<sup>604)</sup> 비록 1955년 2월 5일 체결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기술자의 파견과 조소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한 기술원조는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파견 기술자의 수는 크게 감소하였다. 1958년 9월 1일 현재 북한에 체류 중인 기술자의 수는 109명에 불과했다.<sup>605)</sup>

이처럼 난제가 중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자립경제노선에 의거하여 제1차 5개년계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sup>606)</sup> 전술하였듯이, 1956년 12월 11일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예비를 적극 찾아내고 증산과 절약을 최대한 이루자”라는 구호를 제시하며 소련이 원조하기를 거부한 강재(鋼材)까지 스스로 생산하여 제1차 5개년계획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sup>607)</sup> 문제는 외부원조가 줄어들 만큼 제1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 드는 재원을 어디서 확보하는가였다. 12월 전원회의에서 ‘예비’를 찾아내라는 것은 개별 기업들에 비축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하라는 뜻이었다.<sup>608)</sup>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체제에서 개별 기업들은 국가로부터 계획 과제는 될수록 적게 받고, 설비, 원료, 자재, 자금, 에너지, 노동력 등 생산 자원은 될수록 많이 받고자 한다 이렇게 확보하여 비축해놓은 자원을 ‘내부 원천’이라고 부른다.<sup>609)</sup> 북한 지도부는 바로 그 '내부 원천'을 활용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한편 절약하고 증산하라는 것은 생산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생산하라는 것으로서, 이는 기술혁신에 의한 노동의 질적 성장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였다.<sup>610)</sup>

---

604) 리국순, 앞의 글, 1960, 250쪽.

605) 조수룡, 앞의 논문, 2018, 183~186쪽.

606) 제1차 5개년계획이 자립경제노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에 대해서는 조수룡, 위의 논문, 2018, 3장 4절 참조.

607) 강호제, 앞의 책, 2007, 129쪽.

608)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들녘, 2001, 83~84쪽.

609) '내부 원천'이란 “수입 또는 외부원조에 의한 물자들과 구별되는 것으로 인민경제 건설에 동원 이용되는 생산자원들(물자, 노동, 자금 등)의 국내원천”을 의미한다(리중원, 「내부원천의 적극적 탐구와 합리적 리용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강력한 물질적 역량이다」, 『경제건설』1957. 1, 경제건설사, 1957, 15쪽).

610) 강호제, 앞의 책, 2007, 142쪽.

이러한 정책은 생산을 책임지는 중간관료들, 기업소 지배인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그러자 북한 지도부는 중간관료를 우회하여 생산현장에서 실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협력해 줄 것을 호소하기로 결정하였다. 후일 ‘천리마운동’으로 불리게 되는 시작점이 바로 1956년 12월 28일 김일성이 강선제강소를 방문하여 현지지도한 날이었다. 김일성 외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들도 12월 전원회의 결정을 노동자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황해제철소, 김책제철소, 흥남비료공장 등 중요 공장, 기업소를 직접 찾아갔다.<sup>611)</sup> 그리고, 최고 지도부의 요청에 대해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제1차 5개년계획은 예상외의 성공을 거두게 된 것이다.<sup>612)</sup>

그렇다면, 노동자들은 단지 김일성과 같은 최고 지도부 인사가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서 협력을 요청한 것에 ‘감응’해서 호응한 것인가?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노동자와 정권간의 ‘거래’의 측면도 함께 존재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최고 지도부의 요청이란 결국 자신들의 노동강도를 올리라는 것이었다. 그것을 받아들여려면, 그만큼 그들도 요구할 것이 있었던 것이다.

소련 대사 푸자노프는 1957년 김일성과 동행해서 함경북도, 함경남도의 여러 공장을 시찰하였다. 인조섬유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부여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김일성에게 약속하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공장의 노동자들과 지도부는 물적-생활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요구를 제기하였다. 공장에 병원이 없고, 식료품, 공산품, 연료의 조달도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보육원에는 침대가 부족하고, 학교 건물은 완공되지 않았다. 김일성은 공장 종업원들이 제기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sup>613)</sup> 소련 대사가 목격한 이 장면은 비단 인조섬유공장에서만이 아니었다.

611) 강호제, 위의 책, 2007, 132쪽.

612) 강선제강소에서 김일성의 요청에 대해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강호제, 위의 책, 2007, 136~139쪽 참조.

김책제철소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은 야간기술학교와 야간대학의 조직, 소련으로의 유학 및 탐방을 통한 공장 기술간부 양성 강화, 노동자들에 대한 공산품 공급 향상, 노동 및 기술적 안전성 보장체계의 엄격한 준수 등을 요구하였다.<sup>614)</sup> 함경북도 탄광 노동자들은 광산 환기시설과 침수예방시설 체계 개선, 주거시설 향상, 식료품과 공산품, 특히 설탕 공급을 늘려줄 것, 군사훈련을 줄여줄 것 등을 요청하였다.<sup>615)</sup> 이처럼 노동자들은 최고 지도부와의 만남을 자신들의 노동과 생활상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최고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노동자들이 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예비’를 찾아내는 것이었다. 여기선 예비란 단지 공장에 비축되어 있는 유희자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드는 요소들을 절약하거나 새로운 원천을 찾아내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였다. 다른 하나는 이른바 기술혁신을 하는 것이었다. 이는 다시 기계의 ‘공칭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과 자신의 기술 숙련을 높이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노동자들이 생산현장에서 무엇을 실천하였는가에 관해서는 후술 하도록 하겠다.

최고 지도부의 요청은 노동자들에게 그간의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들을 보다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자신들이 보다 존중받게 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노동자들은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서 비롯된 생각이나 제안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에는 기술자나 공장 간부들에 의해 그것이 묵살되곤 했지만, 이제부터는 관리직의 그런 태도를 ‘보수주의’와 ‘관료주의’로 공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sup>616)</sup>

---

613)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5월 6일~5월 29일)」, 『사료집 74』, 2013, 55쪽.

614) 위의 글, 2013, 59쪽

615) 위의 글, 2013, 61~62쪽.

616) 김형욱, 「집단지 혁신운동 조직사업에서 나타난 몇 가지 결함」, 『로동자신문』, 1958. 7. 25, 2

김일성이 다녀간 후 강선제강소에서는 계속해서 생산협의회를 열면서 1956년보다 118% 늘어난 1957년도 계획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를 계속하였다. 제강직장에서는 전기로 이용률을 대대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법을 탐구하였다. 진응원은 보수시간부터 단축시키자고 제안하였다. 1956년 보수 시간은 평균 20시간으로, 연간 1천 5백 시간을 소비하였다. 미리 보수 재료를 충분히 갖춰놓고, 냉각수가 통하는 냉각 접시를 만들어 그 위에서 보수 작업을 한다면 노가 식기까지 기다리던 시간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진응원의 제안이었다. 김경준은 “련속 산화법”을 “련속 용해법”으로 발전시킨다면 평균 30분 이상의 제강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으며, 4대의 전기로에서 연간 2천 톤의 강괴를 더 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강괴 생산량이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조괴 능력도 성장되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조괴공로기상은 “단식 캐스<sup>617)</sup> 대신에 쌍식 캐스를 사용한다면 34개의 캐스로 70개의 캐스를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괴 노력도 11명이나 절약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직장장 강룡하도 슬라그(slag) 운반을 합리화하며 재료장에서 그레이텔 흙빠 등을 도입 사용하여 10공수의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분괴직장, 조강직장 등에서도 생산협의회를 열고 새로운 의견들을 제시하였다.<sup>618)</sup>

그 결과 1957년 1월 8일 강선 제강소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1957년도 계획을 초과 완수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짓고 나서게 된 것이다.<sup>619)</sup> 다른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이 생산협의회를 열고 1957년도 계획량을 달성하기 위한 토의를 거듭하였다.<sup>620)</sup>

면.

617) 거푸집을 의미하는 cast로 유추된다.

618) 「설비의 증가 없이 5천톤의 강괴를 더 생산하련다」, 『로동자신문』, 1957. 1. 5, 2면.

619) 「2만톤의 강재를 더 생산하겠다」, 『로동자신문』, 1957. 1. 17, 1면.

620)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도 계획을 초과 완수할 수 있다」, 『로동자신문』, 1957. 1. 1, 1면; 「평양방직공장 노동자들의 생산협의회에서」, 『로동자신문』, 1957. 1. 10, 1면; 「진지한 토의 속에서 숨은 예비와 가능성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 같은 면; 「23만5천톤의 류안 비료 생산에로!」, 『로동자신문』, 1957. 1. 17, 1면; 「13억원 어치의 상품을 더 생산하겠다」, 같은 면; 「8천만원 어치의 증산과

결국 강선제강소의 노동자들은 요구받은 9만 톤 생산을 넘어서 1957년 말까지 12만 톤을 생산하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19만 톤 이상 생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던 김책제철소에서도 생산계획 23만 톤을 4만 톤이나 넘어선 27만 톤을 생산하였고, 흥남비료공장에서는 13톤 능력의 합성탑에서 38 톤의 암모니아를 생산해내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중요 생산현장에서 계획을 초과 달성한 결과, 1957년 공업 총생산액 성장률은 목표치 22%의 두배인 44%에 이르게 되었다.<sup>621)</sup>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성으로 이룩한 이 성과로 인해 북한 지도부와 노동자들은 자신감을 갖고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고 1957~58년 사이는 이후 ‘천리마운동’ 시기로 정리된다.<sup>622)</sup> 그렇지만, 이는 1959년에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앞 시기를 구별짓기 위해 붙여진 명칭이다. 1957년경에는 56년 12월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절약하고 증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여러 부문에서의 개별적인 운동이 전개된 것이었다. 그러다가 1958년 5월이 되면서 “인민 경제의 각 부문에서 발견되고 있는 혁신 운동들”을 보다 광범한 대중적인 규모로 확대·발전시키자는 의미에서 ‘집단적 혁신운동’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었다. 이는 직맹의 제안에 의한 것으로, 집단적 혁신운동이란 생산 혁신자들의 경험과 기술을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 보급·일반화하는 운동이며, 전체 노동자들의 수준을 혁신자들에까지 끌어올리고, 동시에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운동이라는 의미였다.<sup>623)</sup> 따라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발기되기 전까지는 주로 집단적 혁신운동이란 용어가 많이 쓰였다.

하지만, 집단적 혁신운동이란 용어가 나오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천리마’

---

6천만원의 절약을 결의», 같은 면; 「지표별로 계획을 108.7%로 초과 완수하겠다», 같은 면.

621) 강호계, 앞의 책, 2007, 135~136쪽.

622)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 주요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116~117쪽.

623) 「집단적 혁신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자」, 『로동자신문』, 1958. 5. 23, 1면; 「공화국 창건 10주년 경축 증산 성과 확대 각 공장, 기업소들에서 집단적 혁신 운동을 전개」, 『로동자신문』, 1958. 6. 1, 1면.

라는 용어도 나타났다. 1958년 6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3차 회의에서 김일성은 ‘천리마’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 김일성은 “모든 근로자들은 당의 부름에 따라 천리마를 타고 사회주의를 향하여 앞으로 달리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sup>624)</sup>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김일성의 발언이 원인이 되어 이후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 등의 용어가 쓰이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sup>625)</sup>

그런데, 김일성이 이 말을 공식적으로 쓰기 전에 이미 『로동자신문』 등에는 천리마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었다. 『로동자신문』 1958년 6월 6일자 1면에는 “우리는 천리마를 타고 달린다!”는 대제목이 크게 실려 있었다. 그 세부내용은 ‘공화국 창건 10주년 경축 증산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개별 공장 등에서 생산 계획을 완수하고 있다는 기사,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알리는 기사, 평양의 주택 건설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sup>626)</sup> 또한, 이틀 후인 6월 8일, 『로동신문』에는 「천리마」라는 제목의 오체르크가 게재되었다. 그 내용은 만년 광산 박영수 고속도 굴진 브리가다를 현지 취재한 것으로, 굴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박영수 브리가다장이 어떻게 작업 방법을 바꾸었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sup>627)</sup> 이 오체르크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천리마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그는 문득 어릴 때 룡마가 천리 바다를 날아 넘었다는 이야기를 듣던 생각

624) 「모든 것을 조국의 룡성 발전을 위하여 최고 인민회의 제2기 제3차 회의에서 한 김일성 수상  
의 연설」, 『로동신문』, 1958. 6. 12, 1~2면.

625) 강호제, 앞의 책, 2007, 125쪽.

626) 「년간 계획을 완수」, 『로동자신문』, 1958. 6. 6, 1면; 「상반년 계획을 완수」, 같은 면; 「갈로 생산한 인건 팔프로 질 좋은 스프를 생산」, 같은 면; 「평양시의 주택 건설 속도 더욱 높아 간다」; 같은 면; 「조립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조립공들의 경험 교환회」, 같은 면; 「자전거 “체비”를 다량 생산」, 같은 면; 「절삭 경기 대회는 좋은 성과를 거두고 끝났다」, 같은 면.

627) 조근원, 「천리마 - 만년 광산 박영수 고속도 굴진 브리가다에서」, 『로동신문』, 1958. 6. 8, 3면.



이 났다.

우리의 생활이야말로 나래 돋힌 천리마처럼 내닫는다 싶었다.

‘당이여! 조국이여! 나래 돋힌 우리의 생활이여! 질풍처럼 내달리라!’

박영수는 어린 아이처럼 경충경충 뛰어 언덕가를 내리며 입속으로 웅얼대었다.

용마(龍馬)란 동아시아 전설에서 나오는 상상의 동물로서, 등에 날개가 달렸다고 여겨졌다. 그러한 이미지는 얼마 안 있어 6월 15일자 『로동자신문』에 실린 그림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이 천리마를 언급하였을 때 그것은 그의 머리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처럼 비슷한 시기에 생산의 속도를 강조하기 위해 쓰인 표현법을 참고하였기에 나온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천리마운동’이란 표현도 그 ‘저작권’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그림 4> 용마에서 비롯된 천리마의 이미지



출처: 『로동자신문』, 1958. 6. 15, 1면.

### (3) 기술에서 사상 우위로의 전환 : 천리마작업반운동

천리마운동의 아이콘은 강선제강소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강선제강소에서 1958년 하반기를 넘어서면서 생산량 증가현상이 정체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1958년 1월부터 과학원 구성원들이 이곳에 파견되어 현지연구사업을 진행하였고, 노동자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협력이 나름대로 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정체 현상의 원인은 기술 문제는 아니었다. 김일성은 1959년 2월 17~19일 강선제강소를 찾아 현지지도를 하였다. 다시 한번 노동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길 원해서였다.<sup>628)</sup>

김일성의 강선제강소 현지지도가 있는 후, 2월 28일 강선제강소 종업원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노동자들은 강철 및 강재 증산과 문화혁명 수행에서 모범이 되겠다고 결의하였다.<sup>629)</sup> 한편, 당시 강선제강소 제강직장 제3호 전기로의 진응원 작업반은 3월 8일 작업반 총회를 열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할 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인민 경제의 보다 높은 양양을 보장하며 공산주의 교양 사업과 기술 문화혁명 과업 수행에서 선구자적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조직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다.<sup>630)</sup>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선두에 서서 다음 과제들을 성과 있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그것은 첫째, 경제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1차 5개년계획을 1959년 내에 반드시 초과 수행하며 연간계획을 111%로 초과수행하겠다는 것, 둘째, 공산주의 교양 사업을 강화하며 기술·문화혁명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산주의 사상으로 튼튼히 결합하여 자기의 경험을 서로 나누며 부단히 배워 주며 배우는 등 동지 상호간의 우의와 방조를 강화하는 것을 집단생활의 기본으로 하며

628) 강호제, 앞의 책, 2007, 239~242쪽.

629) 「김일성 수상 강선 제강소 일'군들의 사업을 현지 지도」, 『로동자신문』, 1959. 2. 20, 1면; 「김일성 수상의 현지 교시를 받들고 강철 증산과 문화혁명 수행에서 모범이 될 것을 결의」, 『로동자신문』, 1959. 2. 20, 4면.

630)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쟁 형태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발기」, 『로동자신문』, 1959. 3. 11, 1면.

일체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과의 투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sup>631)</sup>

즉, 진응원 작업반원들의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첫 번째는 생산 목표를 반드시 초과 달성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스스로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 작업반 성원들의 일반 지식 수준을 초고중, 즉 고졸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세 번째는 공산주의자답게 생각하고 생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작업반을 ‘생활-학문-노동’의 공동체로 만들겠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각지의 작업반에서도 천리마작업반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하였다. 통성기계공장 조기직장 주성일 작업반, 흥남비료공장 합성직장 김철산 압축기수리작업반, 평양방직공장 방직공장 제2 정방직장 최례순 작업반, 김책제철소 용광로직장 황대연 청년작업반, 남구역 건설트레스트 제1 사업소 최성수 작업반, 함흥기관구 미가서 176호 기관차 김득찬 청년 작업반 등이 바로 호응한 반들이었다.<sup>632)</sup>

직맹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높이 평가하였다. 직맹 측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집단적 혁신운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그 내용을 더욱 더 풍부히 하는 새로운 질적으로 높은 사회주의 경쟁운동이라고 평가하면서,<sup>633)</sup> 즉시 이 운동을 확대·발전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3월 14~15일 개최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12차 확대전원회의에서는 “붉은 전사 집단들의 자원성에 기초한 이 위대한 공산주의적 발기를 적극 지지”하며, 모든 직맹단체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확대되도록 사업할 것을 결정하였다.<sup>634)</sup> 그와 동시에 진응원 작업반에 대해서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sup>635)</sup>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경쟁운동에서 특정한 칭호를 수여받으려면

631) 「결의문」, 『로동자신문』, 1959. 3. 11, 1면.

632)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날로 확대된다」, 『로동자신문』, 1959. 3. 13, 1면; 「각지 근로자들 "천리마 작업반" 운동에 호응 쫓기」, 『로동자신문』, 1959. 3. 20, 1면.

633)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훌륭한 표현」, 『로동자신문』, 1959. 3. 13, 1면.

634)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12차 확대전원회의 결정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하여」, 『로동자신문』, 1959. 3. 18, 1면.

635) 「강선제강소 진응원 작업반원들에게 "천리마 작업반" 칭호를 수여」, 『로동자신문』, 1959. 3. 20, 1면.

그만한 성과를 달성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응원 작업반은 단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발기한지 일주일여 만에 천리마 작업반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최초 발기자로서의 ‘특혜’라고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sup>636)</sup>

그런데 진응원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첫 봉화”를 들었다고 알려졌고, 또 그렇게 정식화되었지만, 운동의 명칭만을 놓고 본다면 처음은 아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량강도에 위치한 유경 임산사업소의 김용세 종합бригада원들은 1959년 2월 13일 бригада 총회를 열고 내각 전원회의에서 한 김일성의 교시 정신에 입각하여 더 많은 원목을 더 빨리 생산할 대책을 토의하고 같은 해 6월 24일 전으로 5개년계획을 완수할 것을 결의하고 천리마 бригада 칭호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 증산경쟁을 전개할 것을 도내 임산 노동자들에게 호소하였다.<sup>637)</sup> бригада란 곧 작업반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이라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명칭만 놓고 본다면 이 임산사업소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먼저 발기된 셈이다. 실제로 직맹의 제12차 확대전원회의 결정서에서도 “강선제강소 제강직장 진응원 작업반원들과 유경 립산사업소 김용세 작업반원들을 비롯한 량강도 내 립산 부분의 생산 선구자들”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발기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었다.<sup>63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응원 작업반만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정통’으로 인정받게 되고, 김용세 작업반에 관해서는 그 이후 행적이 밝혀지지 않게 되었다. 이런 원인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우선,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선제강소가 갖는 위상이 양강도의 임산사업소보다 더 컸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강호제는 천리마작업반운동

636) 1959년 9월 22일, 직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는 “천리마작업반 칭호 수여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참가하는 작업반은 부과된 계획 과제를 매일 초과 수행하는 등 12가지의 평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칭호를 수여받기 위해서 해당 단위부터 직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심사를 받아야 했다(「천리마작업반 칭호 수여에 관한 규정(잠정)(직중중앙위원회상무위원회 1949년 9월 22일 승인)」, 『로동자신문』, 1959. 9. 27, 3면).

637) 「천리마 бригада 칭호 쟁취 운동을 광범히 전개」, 『로동자신문』, 1959. 2. 20, 4면.

638)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제12차 확대전원회의 결정서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확대 발전시킬 데 대하여」, 『로동자신문』, 1959. 3. 18, 1면.

이 촉발될 수 있도록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갖가지 지원을 충분히 해주는 등 “기획의 힘”이 크게 작동했을 것이라고 보았다.<sup>639)</sup> 실제로 진응원 작업반 총회에는 제강소 전체 노동자들과 진응원 작업반원들의 가족들까지 포함 1천여명이 방청객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sup>640)</sup> 또한, 임산사업소의 천리마 브리가다 운동은 그 내용에 있어 기존의 집단적 혁신운동과 별다른 차별점이 없는 것이지만, 진응원 작업반의 경우에는 단지 증산뿐만이 아니라 개별 참가반원들 모두를 기술적, 문화적으로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 공산주의자로 만들겠다는 것, 즉 의식개조도 함께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증산경쟁운동과 차별화되고 있었다.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이후 진응원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선구자로 기록되었으리라고 본다.

진응원 작업반은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어떻게 “하나를 집단을 위하여, 집단은 하나를 위하여” 일하며 생활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되어야 했다. 그들은 작업시간에는 서로 도우며 동료들 독려하고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였다. 교대를 넘겨 줄 때는 항상 로를 철저히 정비하고 원료들을 충분히 마련하여 다음 교대에 넘겨 줌으로써 일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이웃 로에서 장입작업이나 제련작업같은 힘든 작업을 할 때는 항상 그들을 도와주었다.<sup>641)</sup> 작업반원 전원은 1959년 말까지 평균 기능급수를 5.1급에서 6급으로 높이는 동시에 일반 지식을 중졸 수준으로 높일 것, 4~5년 후에는 모두가 기사, 기수로 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따라서 작업이 끝난 후에는 항상 기술 학습에 힘을 쏟아야 했다. 한편, 공산주의자로서 산다는 것은 단

639) 강호제, 앞의 책, 2007, 245쪽.

640) 「새로운 사회주의적 경쟁 형태인 "천리마 작업반" 운동을 발기」, 『로동자신문』, 1959. 3. 11, 1면.

641) 진응원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집단적 혁신운동과 차별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자기 작업반의 생산성과만 신경쓴 것이 아니라 다음 교대의 작업반이 손쉽게 작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것 때문이었다(홍만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발전과 천리마 작업반 운동」, 『8·15 해방 15주년 기념 경제 논문집』, 과학원출판사, 1960, 179쪽).

지 노동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도 “공산주의자답게 문화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었기에, 주말에는 문화생활도 반드시 해야 했다. 그들은 주로 도서관을 다니거나 노어 학습을 했으며, 1주일에 두 번씩은 가족들과 함께 구락부에서 영화나 연극을 관람했다.<sup>642)</sup>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발기된 이후, 이 운동은 주로 금속, 기계공업 부문을 중심으로 하면서 사회 제반 영역으로 널리 퍼졌다.<sup>643)</sup> 1960년 11월 말 현재 1만 9,574개 작업반, 35만 3,500명의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참가하였으며, 이중 911개 작업반이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받고, 15개 작업반은 2중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받았다.<sup>644)</sup> 시작부터 위기였던 제1차 5개년계획은 천리마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이라는 노동자들의 열성적 참여에 힘입어, 1959년 6월에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sup>645)</sup>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전개는 생산현장에서 뛰어난 노동자의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업반을 단위로 한 집단 전체의 성과를 중시하게 만들었다. 이는 결국 작업반원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의미였다. 그에 따라 어떻게 하면 개별 노동자들의 적극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보다 착목해야만 하였다. 바로 ‘인간개조’의 문제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은 단지 경제 발전의 추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적 인간 창조와 개조의 공산주의 학교”가 되어야 했다.<sup>646)</sup>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

642)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배우며, 산다!」, 『로동자신문』, 1959. 4. 3, 2면.

643) 홍만기, 앞의 글, 1960, 172쪽.

644) 「천리마 작업반 운동 계속 확대」, 『로동자신문』, 1960. 12. 20. 1면.

645) 「공업 부문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을 총생산적으로 완수 - 1959년 상반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 발전계획 실행 총화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계획위원회 중앙통계국의 보도」, 『로동신문』, 1959. 7. 16, 1면.

646) 한철야, 「거대한 정신적 운동」, 『로동자신문』, 1960. 12. 31, 3면.

## 2) 자립경제 건설을 위한 생산현장의 고투

### (1) 원자재 절약과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시도

제1차 5개년계획을 강행하면서 해외 원조가 급감하였기에, 최대한의 예비를 찾아내고, 있는 자재와 원료 등을 절약하면서 생산하는 것이 급무가 되었다. 물론 그 이전 시기에도 항상 절약하라는 압력은 있었지만, 이 시기에는 물도 아껴 쓰라고 할 정도로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졌다.<sup>647)</sup> 원자재를 절약은 곧 예비를 찾아내는 방법의 하나이기도 하였기에, 생산현장의 노동자들에게 절약은 일상의 과제였다. 또한, 자립경제의 기치 아래, 원료·연료 뿐 아니라 생산설비나 기계 등도 자체 생산해서 쓰는 것이 중요해졌다. 해외 원조의 감소는 곧 소련제 기계, 연료 등을 수입할 수 있는 외화가 줄었다는 뜻이기에 설비나 기계의 수입대체 국산화가 절실해지고 있었으며, 그에 따라 기계공업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당시 생산현장에서 절약해야 하는 것은, 물론 모든 자재와 원료가 절약 대상이긴 하였지만, 원자재류 중에서는 철재, 건설 자재 등이 중요했고, 연료류 중에서는 수입 유연탄, 휘발유 등이었다.

#### ① 철재

철재 및 자재 절약을 위해서 북한 내각에서는 1957년 2월 26일 명령 제 10호 「고자재 수집 사업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와 동년 3월 4일 명령 제30호 「고금속 수집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관하여」를 발표하였다. 고자재 수집 대상 품종은 낡은 고무, 종이, 파고철, 누더기, 파유리, 파전구, 깡통 등은 물론 소뿔, 소발톱, 소뼈, 가금류의 털 등 축산 부산물 등도 포함되

647) 안희남, 「수로공 이야기」, 『조선문학』135,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1.

었다. 또한 각지에 사장되어 있는 고금속을 수집하는 동시에 금속 공장들에 묻혀 있는 지철 및 스키투 등을 수집·이용할 것, 추후 기계공업성 산하 기업소들에 필요한 고금속을 재질별로 수집하며 수출용 파강 1만 톤을 1957년 상반기 중에 수집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각 기관, 기업소들에서 생산 및 건설 작업 과정에 나오는 강제 절단품 및 각종 절삭밥(부스러기)을 일상적으로 수집하며 흥남비료공장과 본궁화학공장에 매몰되거나 산재되어 있는 고금속을 1957년 중에 1만 톤 이상 수집할 것을 강조하였다.<sup>648)</sup>

물론 내각의 명령이 있기 전에도 개별 공장 차원에서 철재 절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절단철<sup>649)</sup>을 공장 구내에 방치해서 비판받는 공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었다. 노동자 원용준은 『로동자신문』 편집국에 편지를 보내 자신이 일하는 공장의 “구내 식당 뒤에는 자동차로 실으면 10여 차량에 달하는 절단철 무지가 생기고 있다. 이 절단철 무지 속에는 절단 철판과 4분의 3, 8분의 6, 2분의 1 규격 환철 재료도 적지 않게 섞여서 폐물로 되어 가고 있다”고 고발하기도 하였다. 직맹에서는 각 공장에서 폐철이나 절단철을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절단철이 나오지 않도록 원자재의 면적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성진제강소에서 북중기계공장에 보내는 “크랭크”는 800 Kg 짜리인데 정작 그 소재 중량은 2 톤이나 되어, 1,200 Kg이 제작 중에 소모되어 버렸던 것이다.<sup>650)</sup> 한편 대안전기 공장에서는 전동기나 변압기 등에 사용하는 규소강관으로 창고 지붕과 바람벽을 두르고, 벽보판, 난로 연통, 창문 바람막이, 사택 마을의 두레박과 울타리 등으로 사용하여 노동자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sup>651)</sup>

철재를 절약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생산현장에서 파고철을 수집하는 것이었다. 당시 공장부지에는 한국전쟁 당시 폭격으로 부서진

648) 「고자재와 고금속 수집을 전 군중적 운동으로」, 『로동자신문』, 1957. 3. 14, 1면.

649)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남은 철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650) 「철재 절약에서의 관이한 현상」, 『로동자신문』, 1957. 1. 31, 2면.

651) 「웬 규소 강관이 그렇게도 흔한가」, 『로동자신문』, 1957. 3. 7, 2면.



채 방치된 기계설비들이나 폭격을 피해 땅 속에 매립한 자재들도 많이 있었다. 우선 생산현장에서는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내내 파고철 수집 운동을 계속해서 벌여 나갔다.<sup>652)</sup> 원산화학공장 노동자들은 “파고철 1인 1톤 수집운동”을 벌여 400여 톤을 모으기도 하였다.<sup>653)</sup> 황해제철소의 원도중은 작업 도중 공형강(工形鋼)이 부족하자, 한국전쟁 당시 폭격을 맞은 소결로 근처에 공형강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밤새 폭탄 구덩이를 파헤쳐 찾아내기도 하였다.<sup>654)</sup>

두 번째 방법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철재 사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다. 김명재가 지도하는 공장에서는 선반공 김현주의 발상으로 5 mm 절단 바이트를 3 mm로 줄여서 사용하였고, 그 결과 매일 223 Kg의 강철을 절약할 수 있었다.<sup>655)</sup> 구성광산기계공장 제단직장 정상현 브리гада에서는 계속해서 생산협의회를 열어 강제 절약 방법을 토의하였다. 그 결과 기존에 하던 자유단조 대신 형단조법(型鍛造法)을 적용하여 1 년에 2 톤의 강재를 절약할 수 있었다. 또한 두 공정으로 단조하던 “첸 측면 고리”를 한 공정에서 단조하게 방법을 바꾸면서, 25 mm 철판 대신 22 mm 철판을 사용해도 되게 되었다. 이것으로 연 6 톤의 강재를 또 절약할 수 있었다.<sup>656)</sup>

세 번째 방법은 기왕 나온 절단철을 재생하는 방법이었다. 김상철이 지도하는 공장의 신성휴 기사는 기계 가공 부문에서 40% 이상 나오는 절삭밥을 재생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계속 시험하였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는 절삭밥을 분쇄한 다음 가열하여 망치로 두드려서 하나의 큰 쇳덩어리로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이 공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매일 10 톤 이상의 강재를 재생하였고, 이 재생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sup>657)</sup>

652) 「유휴 자재 및 파고철 수집 계속」, 『로동자신문』, 1957. 5. 13, 1면; 「파고철 수집 운동을 군중적으로 전개」, 『로동자신문』, 1959. 5. 20, 1면; 「철재 절약에 군중적으로 동원」, 『로동자신문』, 1959. 5. 27, 1면.

653) 「한편의 철재도 버리지 않는다」, 『로동자신문』, 1958. 12. 12, 3면.

654) 원도중, 앞의 책, 1963, 152~156쪽.

655) 「하루 223키로그램의 강철 절약」, 『로동자신문』, 1958. 1. 10, 2면.

656) 「강제 10톤을 절약키로」, 『로동자신문』, 1958. 1. 12, 1면.

657) 「열간 단조하는 방법으로 쇳밥을 재생」, 『로동자신문』, 1957. 7. 24, 2면.

네 번째로는 절단철을 활용해 다른 제품 생산에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 전천성냥공장에서는 실험실장 김관명이 꾸준한 실험을 통해 성냥 제작에 쓰이는 수입품인 이산화망간을 산화철로 대용할 수 있음을 알아냈다. 이 공장에서는 선반기에서 나오는 절삭밥으로 산화철을 만들어 이산화망간을 대용할 수 있었다.<sup>658)</sup>

## ② 건설 자재

전후 복구에 이어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산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새로운 공장, 주택 건설도 요청되었기에 각종 건설 자재의 부족도 심각한 현상이었다. 북한 지도부는 건설 원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예비를 찾아낼 것을 강조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우선 오작 시공, 반복 시공이 일어나지 않게 할 것을 강조하였다. 날림으로 건축을 하면 결국 다시 지을 수 밖에 없기에 노동력과 자재가 낭비되었다. 이런 오작 시공, 반복 시공이 일어나는 원인은 금액상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공정 계획을 위반하면서 날림 시공을 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두 번째로는 기존 건설 자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용 자재를 찾아서 생산에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는 건설 기계의 이용률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다. 즉, 건설 현장에서의 기계화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것은 곧 노동력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지기에 건설 원가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상을 초래하였다.<sup>659)</sup>

대용 자재의 모범적인 사례는 개성 건설 트레스트에서 나왔다. 개성 지역의 건설을 위해서는 기존에 모든 자재를 주로 평양 지방에서 운송하여 썼는데, 그러다보니 수송이 지연되면 건설을 할 수가 없었다. 이에 인근 황해도 지역에 풍부한 백토를 벽돌 대용으로 사용할 방법을 찾았다. 수차례의 실험을 통해 이들은 백토 블록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백토 블록은 백토 1 m<sup>3</sup>에 석회

658) 「쇠밥 가루로 산화철을 만들어 이산화망간을 대용」, 『로동자신문』, 1958. 1. 15, 2면.

659) 「건설 원가를 더욱 절약하자」, 『로동자신문』, 1957. 7. 7, 1면; 「건설원가를 낮출 수 있는 예비는 많다」, 『로동자신문』, 1957. 8. 18, 1면.

200 Kg을 물과 함께 혼합하여 일정한 틀에 넣고 나무망치로 다져서 뽑아낸 후 5~6일간 햇빛에 말려서 만들 수 있었다. 이 백토 블록은 기존 벽돌에 비해 6분의 1 가격으로 생산이 가능하였다.<sup>660)</sup> 한편 함경북도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상 많이 나는 석탄재를 이용하여 벽돌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함북 건설 트레스트는 석탄재에 16%의 시멘트를 혼합하여 소성 공정 없이 자연 건조시킨 ‘재벽돌’을 생산하였다. 이것을 써서 기존 벽돌을 쓰는 것보다 26만 6천여 원의 건설 원가를 절약하는 효과를 갖고 왔다. 동 트레스트에서는 또한 김책 제철소 용광로에서 나오는 슬래그를 이용하여 “스라크 벽돌”을 생산하기도 하였다.<sup>661)</sup> 백토 블록과 더불어 이 시기에 건설용 부재 생산의 또 하나의 혁신으로 칭송받은 것은 함흥 콘크리트 블록 공장에서 만들어낸 석비레 블록이었다. 석비레는 북한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화강암의 한 종류로, 동 공장에서는 석비레 블록을 생산하여 함흥시의 다층 건물의 외부 벽체, 1~2층 건물의 기초와 지지 벽체로 광범하게 이용하였다. 이 석비레 블록은 원가가 콘크리트 블록의 절반에 불과하였다.<sup>662)</sup>

대용 자재를 쓰는 것 이외에도 건설 현장에서 절약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제도와 질서도 갖추어야 했다. 건설성 제4 트레스트 제1 사업소 종합 브리гада에서는 먼저 자재 취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기존에는 빈 자리면 아무 곳이나 건축 자재들을 쌓아놓고 아무런 통제도 없이 누구나 가져가 쓰게 하였고, 그 결과 자재가 낭비되어도 그 원인이 어디 있으며 얼마나 낭비되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따라서 자재를 인수한 다음에는 보관, 정리를 철저히 하고, 남은 자재들은 정리하여 경비원에게 인계하며, 특히 시멘트, 못 등 창고에 든 자재들은 봉인을 하여 인계하였다. 자재의 입·출고도 책임을 맡은 노동자를 두어 엄격히 통제하였다. 또한 벽돌이 운반 도중 깨지지

660) 「대용 자재를 써서 시공 원가를 낮추고 건설 속도를 높이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7. 5. 23, 1면; 「벽돌 대신 백토 블로크를 사용」, 『로동자신문』, 1957. 6. 14, 2면.

661) 「지방 자재를 리용하여」, 『로동자신문』, 1957. 6. 5, 1면.

662) 「건설용 부재 생산에서 또 하나의 혁신」, 『로동자신문』, 1958. 10. 8, 2면.

않도록 운반공들에게 조심스럽게 작업하도록 하였으며, 깨진 벽돌도 버리지 않고 활용하였다. 또한 벽돌공장에서 현장까지 수송 도중 벽돌이 깨지지 않도록 자동차 운전수들과도 협의하였다.<sup>663)</sup>

### ③ 연료

산업화를 위해서는 화석 연료의 대대적 사용을 필요로 하였다. 산업화 시기에 가장 많이 쓰인 연료는 석탄이었다. 한국에서는 무연탄이 생산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무연탄과 갈탄이 생산되고 있다. 또한 남북한 모두 유연탄은 생산되지 않으므로 산업용 석탄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만 했다. 북한의 석탄 매장량은 현재 15억 3천만 톤으로 추정되어 세계 5위 규모인데, 석탄의 품질은 5,000~6,500 kcal/kg 정도이다.<sup>664)</sup>

북한의 경우 석탄 절약은 국가적 과제로 이미 강조되고 있었다. 1956년 10월 17~19일, 평양에서 석탄 절약을 위한 전국 열성자 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제1차 5개년계획의 실시를 앞두고 석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석탄 절약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자리였다. 이 열성자 회의에서는 석탄을 절약하기 위해 첫 번째로 석탄의 연소율을 제고할 것, 두 번째로 열 관리 사업을 개선할 것, 세 번째로 석탄 소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석탄 소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저하시킬 것, 네 번째로 석탄의 보관 관리를 개선하며 대용 연료와 지방 연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 마지막으로 과학 연구 사업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였다.<sup>665)</sup>

석탄을 절약한다는 것은 특히 산업용으로 쓰는 수입용 유연탄을 절약한다는 의미였기에 이는 외화 절약과도 직결되었다. 따라서 북한 지역에서 많이

663) 「건설장에서의 종합적 경제 절약」, 『로동자신문』, 1957. 7. 19, 2면.

664) 남성욱, 「남북경협을 대비한 북한 지하자원의 관리체계와 관한 연구: 철, 석탄, 아연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43~44쪽.

665) 「석탄 절약을 위한 전국 열성자 대회 개막」, 『로동신문』, 1956. 10. 18, 1면; 「석탄 절약을 위한 전국열성자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 『로동신문』, 1956. 10. 21, 1면.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여 수입탄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많이 나타났다. 과학원 차원에서는 무연탄을 가스화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벌어졌다. 한홍식을 연구 책임자로 한 과학원 연료연구 분야 과학자들과 황해제철소의 기술자들은 1955년 10월부터 황해제철소에 중간공장을 건설하고 무연탄을 가스화하는 실험에 착수하였다. 무연탄을 가스화하면 산업용뿐만 아니라 도시 난방용으로도 높은 효율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즉, 가정에서 소모하는 무연탄량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스화한 열량으로도 난방 및 취사용 연료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었다.<sup>666)</sup>

개별 생산직장에서도 수입탄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자체적으로 찾고자 하였다. 결국 이 문제의 핵심은 수입탄 대신 무연탄을 일부, 혹은 전부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수입탄을 사용할 때와 같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가였다.<sup>667)</sup>

특히 기관차의 경우, 수입탄을 대신해 국내탄, 즉 무연탄으로 운행을 하는 것이 과제로 주어졌다. 1957년부터 무연탄을 사용하여 기관차를 운행하는 것이 시험적으로 진행되다가 1957년 11월 25~26일 열린 철도 운전 부문 일'군 열성자 회의에서 1958년부터 기관차 운행에서 수입탄 사용을 국내산 저열탄으로 완전히 전환할 것을 결의하면서, 1958년부터는 100% 무연탄으로 운행해야만 하였다.<sup>668)</sup> 문제는 무연탄을 사용할 경우 충분한 발열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화실에 탄을 투입하는 조사가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 했던

666) 「무연탄이 가스화된다.」, 『로동자신문』, 1957. 5. 30. 1면. 무연탄 가스화 연구는 이후 시험 단계를 마치고 1963년 8월부터 흥남에 공장을 세우게 되었다. 1964년 11월 2만 톤 능력의 무연탄 가스화에 의한 암모니아합성공장 제1계단 공사가 끝나고 시운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초기에 산업용 및 도시 난방용 연료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무연탄 가스화 연구는 암모니아를 합성하여 질소비료 생산을 늘이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 연구는 부분적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윤명수, 『조선과학기술발전사(해방후편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206~207쪽).

667) 박용곤, 「석탄 절약 대책을 강구」, 『로동자신문』, 1957. 1. 24. 2면; 「꼭쓰 생산에 무연탄을 리용」, 『로동자신문』, 1957. 9. 4. 1면; 「외화 절약을 위한 예비물 그들은 어디서 찾았는가」, 『로동자신문』, 1957. 9. 13. 3면; 「더 많은 외화 절약에로! 국내탄으로 크랭켈을 굽는다」, 『로동자신문』, 1957. 10. 4. 1면; 「꼭쓰 대신 무연탄에 백토를 배합해 쓴다」, 『로동자신문』, 1958. 10. 8. 2면.

668) 「국내탄으로의 전환은 일'군들의 열성 여하에 달려 있다.」, 『로동자신문』, 1957. 12. 8. 2면.

것이다. 무연탄은 수입탄에 비해 발열량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양을 화실에 투입해야만 했다. 투입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화실에 쌓이는 재를 치우는 화상(화실(火室)) 정리 작업 횟수도 급증할 수 밖에 없었다. 당장 조사들의 불만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다. 서평양 기관구의 지정된 기관사가 무연탄 100% 운영을 하자고 제안하자 일반 승무조원들 속에서 시비가 일어났다. 지정된이가 상부에 아침을 한다느니, 공명심에 날뻐다느니, 3대 7로 불 때기도 힘든 판에 무연탄만 쓴다면 공연히 자기들까지 골탕을 먹을게 아닌가 하고 만나는 이틀마다 불쾌한 시선을 던졌던 것이다.<sup>669)</sup> 국내탄으로 달리면 종종 운전 사고도 일어났다.<sup>670)</sup>

“그럼 무연탄을 또 때잔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퇴행 사고두 없이 이렇게 돌아 왔다는 것은 두 동무가 굴하지 않구 용감하게 싸운 덕이네!”

“헛, 두 번만 용감히 싸우다간 불'가마 속에 들어 가구 말겠수다. 인제 또 무연탄을 때자면 나는 조사 노릇을 그만두면 뉘지 정말 무연탄은 못 때겠수다.”<sup>671)</sup>

지정된 기관차의 조사 두 명은 무연탄 시험운행을 마치고서 바로 불만을 제기하였다. 기관조사부터 일을 배웠던 지정린도 이런 “이루 해야될 수 없는 고된 작업을 일찌기 겪어 보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기관차가 무연탄 운영을 하려면 조사들의 투탄 기술을 늘리는 한편,<sup>672)</sup>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몰아서 침묵시키려는 분위기가 생기게 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제 “스코다 152호” 기관차를 몰던 김성득 기관사는 국내탄을 때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상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내

669) 김덕운, 「무연탄의 췌'불」, 『조선문학』123,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11, 74쪽.

670) 박덕수, 「전도 주시!」, 『조선문학』129,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5, 115쪽.

671) 김덕운, 앞의 글, 1957, 75~76쪽.

672) 「분화 기술을 높여 석탄을 절약」, 『로동자신문』, 1957. 10. 11, 2면.

탄 사용을 밀어붙였다.<sup>673)</sup>

무연탄은 그나마 북한에서 많이 나오는 자원이기에 수입탄을 대체할 수 있지만, 휘발유는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휘발유를 절약하기 위해서 자동차 운수 부문에 있어서는 대용연료로 달리는 차를 만들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다.<sup>674)</sup>

노동자로서 대용연료차를 만든 리막동 노력영웅이 이 분야에서 선구적이었다. 1957년 조병규 지배인이 지도하는 공장의 운전사였던 노력영웅 리막동은 휘발유를 절약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신 장작을 연료로 쓰는 ‘신목차’를 만들어 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썼던 목탄차가 가지고 있던 결함을 해결하였는데, 그것은 운행 도중 가스 발생로 뚜껑을 열고 장작을 밀으로 내려보내기 위해 쭈셔야 했던 것이다. 주로 이것 때문에 목탄차 운전에는 조수가 필요했는데, 리막동은 운전사가 주행 도중 운전대에서 내리지 않고도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개조하는 데 성공하였다.<sup>675)</sup>

목탄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휘발유가 없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참나무, 버드나무, 피나무, 소나무 등 마른 나무면 어떤 나무라도 다 사용 가능하였고, 심지어 옥수수 이삭의 속도 사용 가능하였다. 신목차 가스 발생로를 단 북한의 지쓰 150형 화물 자동차는 4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평탄한 도로에서 시속 64 Km로 운행이 가능하였다. 휘발유차가 연료를 연간 39만 4,000원 정도 소비한다면, 신목차는 불과 2만 9,000원 정도면 운행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다.<sup>676)</sup> 신목차가 가진 큰 단점은 장작을 구하는 것, 즉 마른 나무를 공급해줘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1958년에는 같은 공장의 제관공 박봉룡이

673) 박덕수, 앞의 글, 1958, 11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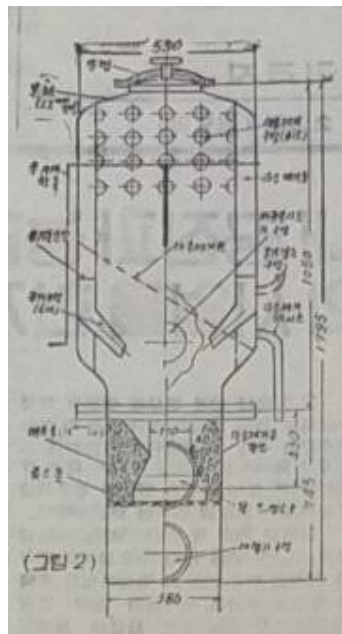
674) 물론 자동차 운전사의 운전기술을 향상시키고, 휘발유 사용을 줄이는 각종 장치를 개발하는 노력도 진행되었다(「7개월간에 85톤의 휘발유를 절약하고 55대를 목탄차로 개조할 것을 예견」, 『로동자신문』, 1957. 9. 4, 1면). 그 중에는 휘발유에 물을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도 시도되었다(「물과 휘발유를 섞어서 사용」, 『로동자신문』, 1957. 5. 25, 2면).

675) 「리막동 노력영웅의 신탄 자동차」, 『로동자신문』, 1957. 11. 20, 2면; 「휘발유 대신 장작을 쓴다」, 『로동자신문』, 1958. 1. 22, 2면.

676) 「리막동식 신목차 가스 발생로」, 『로동자신문』, 1958. 3. 16, 2면.

나무를 건조시켜 장작으로 만들어주는 ‘신목 건조 회전로’를 발명하기도 하였다.<sup>677)</sup>

<그림 5> 신목(장작) 가스 발생로의 구조    <그림 6> 원심력 가스 확산기의 구조



출처: 『로동자신문』, 1958. 8. 22, 2면.



출처: 『로동자신문』, 1958. 8. 22, 2면.

리막동은 신목차 이외에도 휘발유를 절약하는 장치를 발명하기도 하였다. 1958년 리막동은 ‘원심력 확산기’를 발명하였는데, 이것은 바람개비 모양의 간단한 장치로서, 엔진의 카뷰레터(carburetor)에 위치하여 노즐로 들어가는 휘발유 비말을 확산시켜 그 발화를 촉진하고 연소율을 제고하여 휘발유를 절약하게 하는 장치였다. 이 장치를 쓰면 기존보다 16~20%의 휘발유를 더 절약할 수 있었으며,<sup>678)</sup> 원산 자동차사업소에서는 이 장치를 달고 최고 26.1%

677) 「신목차의 전망을 더 밝혀주는 또 하나의 혁신적 창안」, 『로동자신문』, 1958. 8. 22, 2면.

678) 「현 소비 기준보다 16-20%의 휘발유를 절약할 수 있는 원심력 확산기를 창안」, 『로동자신문』, 1958. 4. 27, 2면.



까지도 절약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sup>679)</sup>

한편 이 시기에는 신목차 외에도 대용연료를 쓰는 차들의 발명이 잇따랐다. 리막동보다 얼마 앞서 강계자동차사업소의 김용삼은 목탄에 카바이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이는 목탄차가 휘발유차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sup>680)</sup> 또한 전천탄광에서는 자동차 운전자 김승병이 휘발유 대신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 개조에 성공하였다. 무연탄차의 장점은 휘발유 및 다른 대용연료차들보다 내연기관의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sup>681)</sup> 리막동은 이 무연탄 자동차를 보다 개량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sup>682)</sup> 1959년에는 신평자동차사업소 최준경 운전사는 8톤급 화물차도 무연탄으로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조하는데 성공하였다.<sup>683)</sup> 한편 연안자동차사업소에서는 그 지방에서 풍부히 나는 니탄을 사용하는 니탄가스로 엔진을 제작하기도 하였다.<sup>684)</sup> 심지어 배에도 대용연료가 사용되었다. 대동강해운사업소에서는 열구기관(내연기관의 일종)에 중유 대신 무연탄을 사용하도록 개조하였다. 그들은 자동차 대용연료화가 활발히 추진되었기에 그 성과를 활용하여 손쉽게 개조할 수 있었다.<sup>685)</sup>

북한 지도부는 이처럼 대용연료차가 활발히 개발되자 아예 정책적으로 대용연료를 광범하게 이용하도록 추동하였다. 이미 1957년 10월 1일 내각 명령 제72호 “휘발유용 자동차의 일부를 대용 연료차로 전환할 데 관하여”를 발표하여 일부 자동차의 대용연료 사용을 지시하였던 바, 1958년 7월에는 내각 명령 제73호 휘발유를 절약하고 대용 연료를 광범히 이용하도록 조치를 강구

---

679) 「리막동식 원심력 확산기로 최고 26.1%, 평균 20%의 휘발유 절약」, 『로동자신문』, 1958. 8. 3, 1면.

680) 「목탄에 카바이드를 혼합해 쓰면 성능을 높일 수 있다」, 『로동자신문』, 1957. 10. 11, 2면.

681) 「무연탄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개조에 성공」, 『로동자신문』, 1958. 3. 4, 1면.

682) 「리막동 영웅 석탄 대용 연료차를 제작」, 『로동자신문』, 1958. 5. 21, 2면.

683) 「8톤급 화물 자동차에 무연탄을 도입하였다」, 『로동자신문』, 1959. 7. 10, 2면.

684) 「휘발유 대용으로 니탄을 사용하는데 성공」, 『로동자신문』, 1958. 1. 10, 2면.

685) 「기관실에서 수입 연유를 절약하며 중유 대신 무연탄 가스를!」, 『로동자신문』, 1959. 6. 21, 2면.

하였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경제 모든 분야에서 휘발유 대신 대용 연료를 쓰게끔 하자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위원회 리재영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용연료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원심력 확산기를 비롯한 각종 휘발유 절약기들을 1958년 말까지 자동차 및 가솔린차에 설치하도록 지시하였다. 동 명령에 의하여 리막동, 김승병, 원종철 등 대용연료 도입에 공이 있는 노동자들은 각각 상금 5만 원씩 지급받았다.<sup>686)</sup>

더 나아가 1959년 7월에는 내각 결정 제49호로 수입연료 대신 국내산 연료를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는 경제 모든 분야에서 수입 연료에의 의존을 줄이고 국내산 연료로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그에 따라 첫 번째, 강철 생산에 필요한 코크스를 생산할 때 수입탄 사용을 줄일 방법을 강구해야 했고, 두 번째, 자동차, 트랙터, 선박 등의 연료로 무연탄을 사용하게끔 개조할 것, 세 번째, 시멘트 회전로와 증기기관들에서 수입탄과 국내 고열 갈탄 소비를 절약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sup>687)</sup>

제1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절약도 중요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원조가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국내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기계, 설비를 제공받거나, 기술 이전을 받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이었다. 게다가 원조는 결국 제공하는 나라의 의도가 더 결정적인 것이기에, 그 제공하는 것이 반드시 받는 나라에 필요하리란 보장은 없었다. 예컨대, 소련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육가공 콤비나트의 경우 실제 가동률은 매우 낮았다. 북한 사람들이 소시지와 훈제 제품을 입맛에 맞아하지 않았으며, 북한에서 생산되는 육류 자체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sup>688)</sup>

원조가 안 된다면 수입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북한에서 원하는 것을

---

686) 「공화국 내각에서 휘발유를 절약하며 대용연료를 광범히 리용할 데 관한 조치 강구」, 『로동자신문』, 1958. 7. 30, 1면.

687) 「공화국 내각에서 수입 연료 대신에 국내산 연료를 사용할 데 관한 결정을 채택」, 『로동신문』, 1959. 7. 8, 2면.

688)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5월 6일~5월 29일)」, 『사료집 74』, 2013, 94~95쪽.

소련이나 중국이 수출할 능력이 있는지, 혹은 수출할 의도가 있는지는 별개 문제였다. 1957년 9월 12일, 김일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은 중국을 방문하였다. 북한의 제1차 5개년 계획안을 공유하고, 양국 사이의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북한은 1958년에 짐결탄 70만 톤, 연료용 석탄 17만 톤, 코크스 3만 톤을 구매할 수 있는지 중국에 조회하였는데, 중국도 이미 600만 톤 이상의 석탄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석탄 공급을 거부하면 북한 경제가 어려워질 것을 고려하여 전술한 양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북한은 천연고무 3,300 톤도 요청하였지만 중국은 3,100 톤을 공급하기로 동의하였다. 면화, 면사, 면직물의 경우는 중국도 생산이 부족한 상황이었기에 북한이 요청한 1만 2,000 톤 대신 8,000 톤의 면화를, 1,500 톤 대신 500 톤의 면사를, 1,000만 m 대신 500만 m의 면직물을 공급하기로 동의하였다.<sup>689)</sup> 이처럼 해외 수입 또한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기에 국산화 과제는 더욱 시급하였다.

국산화 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우선 앞에서 다루었듯이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석탄 등 연료 문제였고, 또한 자립경제 건설에 필수적인 설비, 기계류의 자체 생산 문제였다. 그 중 석탄의 문제는 어찌 보면 해법은 단순하였다. 무연탄을 그만큼 더 많이 캐면 되었다. 그러려면 새로운 탄광을 개발해야 했고, 탄광 노동자들이 보다 더 많이 생산하도록 독려하여야 했다.

이 시기에는 평안남도 북부 지역의 탄광들을 새로 개발하였다. 노동자 부족은 기본적인 조건이다보니, 새로 개발하는 탄광들은 젊은 청년들의 자원을 받아 개발하였다. 그러하기에 이름 또한 ‘송남청년탄광’, ‘평남청년탄전’으로 붙여졌다. 정권과 민청 측은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청년들의 자원을 유도하였다. 1957년에는 먼저 송남탄광이 개발되었다. 북한 각 지역에서 자원한 400여명의 청년들은 6월 30일, 기차를 타고 “아무런 설비도 없”이 황무지만이 기다리는 곳으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팔봉산과 송남산 사이의 골짜기에 천

---

689)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10월 1일~10월 25일)」, 『사료집 74』, 2013, 289~290쪽.

막을 치고 탄광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sup>690)</sup> 그리고 약 1년 후 북한 내각은 송남탄광이 위치한 대동강 중류 지대의 개천, 북창, 온산, 순천 4개 군을 포함한 지역의 탄광 지대를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지역의 무연탄 매장량은 10억 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sup>691)</sup> 평남청년탄전으로 이름붙여진 이 대규모 탄광 개발 사업에는 1,700여 명의 청년들이 자원하였다.<sup>692)</sup>

이처럼 새 탄광을 개발하는 동시에, 석탄 증산이 더 없이 강조되었다. 이 시기에는 아오지탄광의 노력영웅 김직현이 발기한 “고속도 굴진 운동”을 전 탄광으로 확대하여 석탄 증산을 꾀하고자 하였다.<sup>693)</sup> 김직현은 1957년 1월 23일 고속도 굴진 방법을 적용하여 한달에 100 m 이상 굴진할 것을 목표로 하는 “100미터 굴진 운동”을 시작하였다. 김직현을 핵심으로 한 장길환 종합 브리гада는 우선 작업 준비를 충분히 갖추어 교대 인계 인수가 끝나고 5분 안에 작업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35분 안에 천공 작업을 마치고 장약 및 발파 작업을 30분 내에 마쳤다. 이들은 발파 효율을 높여 한 교대에 2회 발파를 하면서 하루 평균 5~6 m씩 굴진하였으며 18일 만에 100 m를 굴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sup>694)</sup> 김직현은 이 성과를 인정받아 1958년 1월 21일 2중 노력영웅

690) 「송남청년탄광이 개발된다」, 『로동자신문』, 1957. 6. 30, 2면; 「송남청년탄광 개발 공사에 참가할 청년들 속속 출발」, 같은 면; 「송남청년탄광 정초식 진행」, 『로동자신문』, 1957. 7. 14, 1면; 김근오, 「우리는 송남으로 간다」, 『조선문학』12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10, 110쪽.

691) 「10억톤 이상의 매장량을 가진 “평남청년탄전”이 개발된다」, 『로동자신문』, 1958. 6. 25, 2면.

692) 「평남청년탄전 개발자들에게 승리와 영광이 있으라!」, 『로동자신문』, 1958. 7. 30, 1면; 「평남청년탄전 개발자들을 환송하는 평양시 청년학생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박금철 부위원장의 연설」, 같은 일자, 2면.

693) 「고속도 굴진 운동을 더욱 확대시키자」, 『로동자신문』, 1957. 4. 11, 2면; 「고속도 굴진 운동은 확대되고 있다」, 『로동자신문』, 1957. 5. 30, 1면; 「월 1인당 채탄량을 26톤으로부터 56톤으로!」, 같은 일자, 2면; 「고속도 굴진 경기 대회 진행」, 『로동자신문』, 1957. 6. 21, 2면; 「고속도 굴진을 항구적인 운동으로!」, 『로동자신문』, 1957. 7. 5, 2면; 「고속도 굴진 운동을 전 탄광에 확대」, 『로동자신문』, 1958. 1. 4, 2면; 「고속도 굴진과 두 브리гада」, 『로동자신문』, 1958. 3. 14, 3면; 「고속도 굴진 운동을 어떻게 확대하였는가」, 『로동자신문』, 1958. 3. 30, 2면; 「전국 통일 직종 고속도 굴진 운동에 호응」, 『로동자신문』, 1958. 4. 18, 1면; 「고속도 굴진 운동에 32개의 브리гада가 참가」, 『로동자신문』, 1958. 7. 18, 1면; 「200미터 굴진을 목표로 집단적 혁신 운동을 전개」, 『로동자신문』, 1958. 7. 20, 2면; 「고속도 굴진 방법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수평 갱도에서 월 340미터를 굴진」, 『로동자신문』, 1958. 12. 10, 1면; 「고속도 굴진의 천리마 기수들」, 『로동자신문』, 1960. 3. 16, 2면; 「고속도 굴진을 위하여」, 『로동자신문』, 1960. 9. 17, 2면.

694) 「12월 전원 회의 결정은 석탄 공업 부문 기본 굴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로동자신문』,

칭호를 수여받았다.<sup>695)</sup>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전개된 다음에는 역시 아오지탄광에서부터 “월 1만톤 채탄 운동”이 시작되었다. 굴진 속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탄 생산량을 더 늘리려면 역시 채탄량이 많아야 했기 때문이다. 1959년 10월 5일 아오지탄광 리승환 천리마작업반의 발기로 시작된 채탄장 당 월 1만 톤 채탄운동 또한 전 탄광으로 확산되어 갔다.<sup>696)</sup>

무연탄 증산이 더욱 요구되었던 만큼 탄광 노동자들에 대한 물질적 혜택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1957년도에 탄광 노동자들은 1956년 대비 141.4%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근속년한 가급금도 1956년 대비 141.5% 성장한 2억 4,459만 원을 지급받았다. 각종 상금으로는 1억 1,834만 원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무상으로 받은 영양제, 작업복, 신발 등은 3억 7천만 원으로 환산되었다.<sup>697)</sup> 『로동자신문』과 같은 언론매체에는 탄광 노동자들의 생활이 얼마나 ‘유복’해졌는지를 선전하기 위한 기사들이 틈틈히 올라왔다.<sup>698)</sup>

한편 1954년 제정되었던 ‘탄부절’은 1957년 7월 29일 내각 결정 제63호에 의하여 탄광 및 광업 노동자를 아우르는 ‘광부절’로 확대 개편되었다.<sup>699)</sup> 또한 그에 따라 ‘공훈탄부’는 마찬가지로 광업 및 석탄공업을 아우르는 ‘공훈광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기존의 공훈탄부도 공훈광부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sup>700)</sup>

---

1957. 3. 16, 2면.

695) 「김직현 동무에게 2중 로력영웅 칭호 수여」, 『로동자신문』, 1958. 1. 24, 1면.

696) 「매개 채탄장들에서 월 1만톤 채탄 운동을 전개」, 『로동자신문』, 1959. 10. 18, 3면; 「한 개 채탄장에서 월 1만톤 석탄 캐기 운동 날로 확대」, 『로동자신문』, 1960. 9. 16, 1면; 「한 개 채탄장에서 월 15,000여톤의 석탄을 캐내어 새 기록 수립」, 『로동자신문』, 1960. 10. 2, 1면; 「룡문 탄광 노동자들 한 개 채탄장에서 월 2만 8천여톤의 석탄을 생산」, 『로동자신문』, 1960. 11. 4, 1면; 「1만톤 석탄 캐기 운동의 성과 확대」, 『로동자신문』, 1960. 12. 15, 1면.

697) 「공화국 탄부들이 받는 국가적 혜택」, 『로동자신문』, 1958. 2. 26, 1면.

698) 「광부들에 대한 당과 정부의 배려」, 『로동자신문』, 1957. 9. 11, 1면; 「웃음꽃 가득 찬 광부들의 별장」, 『로동자신문』, 1957. 9. 13, 4면; 「한 탄부의 가정에서」, 『로동자신문』, 1958. 1. 17, 3면; 「날로 오붓해 가는 탄광 마을」, 『로동자신문』, 1957. 9. 13, 4면; 「탄광 마을의 새 살림」, 『로동자신문』, 1958. 3. 3, 2면.

699) 「매년 9월중 세번째 일요일을 광부절로 제정」, 『로동자신문』, 1957. 7. 31, 1면.

이 시기에 연료 국산화 노력과 더불어 주력을 기울였던 것은 각종 설비와 기계를 자체 생산하는 사업이었다. 북한의 기계공업의 발전에 힘입어 가능한 일이었다. 북한 산업 구조의 ‘식민지적 편파성’의 하나로 평가받았던 것은 바로 기계공업의 비중이 극히 낮았다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 북한 지도부는 자체적인 기계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그에 따라 기계공업의 공업별 비중은 1944년 1.6%에서 1956년 17.3%로 성장하였다.<sup>701)</sup> 자립경제 기조의 제1차 5개년계획을 맞아 성장한 기계공업은 그 성과를 내놓기 시작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생산하지 못하던 각종 기계와 설비들을 국산화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황해제철소는 전시에 파괴된 25만 톤급 용광로를 복구하여야 했다. 이 때 1957년 1월 3일, 김일성이 황해제철소를 방문하여 자체적인 기술과 노동력, 설비로 용광로를 복구할 것을 독려했다.<sup>702)</sup> 이에 황해제철소의 노동자들이 적극 호응하였지만, 용광로 건설을 보통 일이 아니었다. 설계 도면만 하여도 수만 장이 필요하였고, 평량차, 송풍기, 권양기, 선회기, 가스 계통, 냉각 계통, 자동 계기, 스킵프 장치 등 600대 이상의 크고 복잡한 기계 설비들을 만들어야 하였으며 철골 조립도 1만 톤이 넘었다.<sup>703)</sup> 이 용광로를 복구하는 공사에는 200만 톤 이상의 물동이 투하되었으며, 합계 210만 공수의 노동력이 투하되었다.<sup>704)</sup>

이런 거창한 사업을 하기에는 기술자도 부족하였고, 자재와 설비도 모자랐으며, 특히 기술 문제가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로 황해제철소의 설계소에는 5년 이상의 일반적 설계 경험이 있는 기술자는 10명도 안 되었다. 그나마도 용광로를 설계했거나 건설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부분의 기

70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광부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로동자신문』, 1957. 7. 31, 1면.

701) 「우리의 힘으로 공장 설비들도 생산하게 된다」, 『로동자신문』, 1958. 5. 18, 1면.

702) 원도중, 앞의 책, 1963, 30~31쪽; 윤명수, 앞의 책, 1994, 134~135쪽.

703) 원도중, 위의 책, 1963, 31~35쪽.

704) 「200만톤의 물동」, 『로동자신문』, 1958. 4. 30. 2면.

술자들은 북한에서 갖 기술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었다. 더구나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니라 당시 최신 기술로 개조 확장해야 했기에 어려움이 더 컸다고 황해제철소 설계연구소 소장 리재철은 회상하였다.<sup>705)</sup> 그러다 보니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선 자체 생산이 어려운 설비들은 수입해서 쓰자는 의견도 나왔다.<sup>706)</sup> 그렇지만, 원도중과 같은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내야 한다는 열성이 강하였고, 기술자들 또한 노동자들과 적극 협력하면서 노력을 기울였다.<sup>707)</sup>

마침내 1958년 4월 25일, 복구 사업을 시작한지 2년여 만에 황해제철소 제1호 용광로는 시운전을 개시하였고, 5월 1일 노동절에 맞추어 조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되었다.<sup>708)</sup> 결국 이 용광로는 모두 북한에서 제작한 설비들로 장비하였다. 복구 수리된 일부 설비를 제외하고 전동기, 펌프류, 감속기, 기중기 등 400여 대 전부 북중, 락연, 룡성기계공장들과 대안 및 평양전기공장에서 제작해서 보내주었다.<sup>709)</sup> 황해제철소의 사례는 이 시기에 북한에서 자체적인 노력과 기술력으로 능히 경제 성장에 필요한 설비와 기계를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국내 최초”로 생산되는 기계류들이 줄을 이었다. 북한 노동자와 기술자들은 역설계(reverse engineering)를 해서라도 일단 시제품을 만들고자 열성을 기울였다.<sup>710)</sup> 예컨대, 북한은 소련에 트랙터 ДТ-14와 ДТ-24 생산용 장비도면 제공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소련은 조만간 이 트랙터들의 생산이 중단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장비도면의 제공을 거부하였다. 원한다면, 수입해서 쓰고 있는 트랙터용 부품 생산 관련 문서는 제공해주겠다고 하면서 말이다.<sup>711)</sup> 그렇지만, 북한에서는 어떻게든 자체 생산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705) 「설계도 기계 설비도 우리 자체의 손으로!」, 『로동자신문』, 1958. 4. 30, 2면.

706) 원도중, 앞의 책, 1963, 36쪽.

707) 「설계도 기계 설비도 우리 자체의 손으로!」, 『로동자신문』, 1958. 4. 30, 2면.

708) 「황해제철소 제1호 용광로와 해탄로 조업식 성대히 진행」, 『로동자신문』, 1958. 5. 2, 2면.

709) 「용광로는 국내산 기계 설비로 장비」, 『로동자신문』, 1958. 4. 27, 1면.

710) 강호제, 앞의 책, 2007, 275쪽.

기양기계공장의 기술자들은 트랙터에 들어가는 1,800여 개의 부분품과 부속품 설계를 1개월 만에 완료하였으며, 노동자들은 생산 속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3교대제를 실시하였다.<sup>712)</sup>

북한 최초의 자체 생산 화물차 “승리 58”형을 만든 덕천자동차공장 노동자들도 수입 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분해해 놓고 직접 5,400여 매의 설계 도면을 작성하였다.<sup>713)</sup> 그들은 자동차용 전문 부속품들을 생산하기 위한 전문 설비도 없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630 건의 창의 고안 및 합리화안을 활용하여 수천개의 공구를 직접 제작하였다. 시제품 생산을 위해 노동자들은 주야 맞교대 작업을 하면서 40일간 거의 전 기간을 공장에서 숙식을 하며 자동차 생산에 매달렸다.<sup>714)</sup>

북한의 당시 생산 수준으로 제작이 불가능한 부속품의 경우에는 대용품을 만들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락원기계공장 노동자와 기술자들은 북한 최초의 굴착기 “천리마”호 제작에 성공하였다.<sup>715)</sup> 총중량 45 톤의 굴착기를 만드는데 가장 큰 난관은 “회전대판”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은 길이 4 m에 넓이 3.5 m의 강철 주물인데 락원기계공장에서는 제작이 불가능하여 북중기계공장에 제작을 의뢰하였다. 그렇지만 북중기계공장에서 두 번이나 제작에 실패하여 기일이 모자라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주강판을 만들지 못한다면 강철판을 용접해서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파견 나온 기사가 이를 반대했는데, 강철판으로는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노동자들의 의견대로 강철판을 만들기로 했는데, 다른 문제는 강철판 설계에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오히려 주강판을 고집했던 기

711)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11월 26일~12월 13일)」, 『사료집 74』, 2013, 336쪽.

712) 「사회주의 건설 도상에서 전취한 또 하나의 승리」, 『로동자신문』, 1958. 11. 16, 1면.

713) 홍원길, 「우리는 5개년 계획을 상리적으로 완수한 기세로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고지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第I輯)』, 1988, 880쪽.

714) 「40일간에 첫 자동차를 생산」, 『로동자신문』, 1958. 11. 19, 1면; 「우리 로동계급이 이룩한 빛나는 로력의 열매」, 같은 면.

715) 「건설장에 출현한 “천리마”호 엑쓰카와뜨르」, 『로동자신문』, 1958. 11. 19, 1면.



사가 나서서 하루 만에 강철판 설계를 완성하는 일도 있었다.<sup>716)</sup>

이렇듯 이 시기에 북한에서 처음 생산에 성공한 것들로 는 전술한 용광로, 트랙터, 화물차 이외에도 디젤엔진, 연사기와 정방기, 볼 베어링, 오토바이, 종합 고속도 굴진기, 전기기관차, 전기제철로, 전기승용차, 자동차 타이어, 타자기, 불도저, 수형선반, 소형화물차, 소형트랙터, 조방기, 공구 연마반, 백색 시멘트 등이 줄을 이었다.<sup>717)</sup>

<그림 7> 북한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트랙터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트랙터를 둘러싸고 있는 김 일성 수상은 비롯한 당의 정부 지도자들  
(조선중앙통신사 제공)

출처 : 『로동자신문』, 1958. 11. 16, 1면.

716) 리영규, 「미디온 후비대」, 『조선문학』139,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3, 99~10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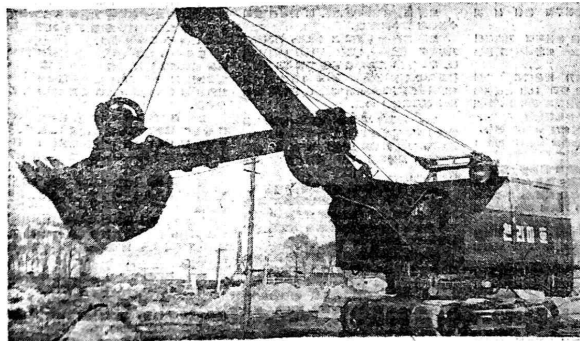
717) 「기술혁명에서 또 새로운 전진 - 디젤기관 생산에 성공」, 『로동자신문』, 1958. 7. 25, 1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사기와 정방기를 생산」, 『로동자신문』, 1958. 8. 24, 2면; 「볼베어링을 생산」, 『로동자신문』, 1958. 9. 21, 1면; 「오토바이 “천리마”호를 생산」, 『로동자신문』, 1958. 11. 19, 1면; 「종합 고속도 굴진기를 제작」, 『로동자신문』, 1958. 11. 21, 1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소형 전기기관차 “전기화 58”호를 생산」, 『로동자신문』, 1958. 11. 23, 2면; 「우리나라에서의 첫 전기 제철로」, 『로동자신문』, 1958. 11. 26, 4면; 「전기승용자동차 “천리마”호가 나왔다」, 『로동자신문』, 1958. 11. 26, 4면; 「자동차 타이어를 생산」, 『로동자신문』, 1958. 12. 7, 2면; 「타자기 “제비” 생산에 성공」, 『로동자신문』, 1958. 12. 9, 4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불도저를 생산」, 『로동자신문』, 1958. 12. 21, 2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13미터 타닝그반을 생산」, 『로동자신문』, 1958. 12. 24, 1면; 「우리나라 기계공업이 거둔 또 하나의 성과 8미터 타닝반을 제작」, 『로동자신문』, 1959. 9. 4, 1면; 「소형화물자동차 “평양”호 시제품을 생산」, 『로동자신문』, 1959. 1. 9, 1면; 「소형 트랙터 “사리원호 59”를 생산」, 『로동자신문』, 1959. 1. 30, 1면; 「소형 트랙터 “풍년 60호” 시제품 완성」, 『로동자신문』, 1960. 8. 7, 1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조방기를 제작」, 『로동자신문』, 1959. 4. 10, 1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구 연마반을 제작」, 『로동자신문』, 1959. 11. 20, 2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백색 시멘트를 생산하는데 성공」, 『로동자신문』, 1960. 6. 5, 1면.

<그림 8> 북한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화물 자동차



출처 : 『로동자신문』, 1958. 11. 19, 1면.

<그림 9> 북한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굴착기



출처 : 『로동자신문』, 1958. 11. 19, 1면.

<그림 10> 북한에서 처음으로 생산한 불도저



출처 : 『로동자신문』, 1958. 12. 21, 2면.

기계·설비류를 국산화하려면 결국 발명 및 창의고안이 활발해져야 했다. 1957년 2월 2일 내각 결정 제8호 “창의 고안 사업을 일층 발전시킬 데 관하여”가 채택되었다. 이 결정은 “창의 고안에 관한 규정”과 “창의 고안에 관한 보수 규정”을 승인하여, 노동자들 사이에서 창의 고안 사업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특히 창안권 및 특허권의 취득, 창안자의 권리, 특전, 의무 및 보호와 창안의 실현 및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칙들을 명시하여 노동자들의 창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고자 하였다. 창안권 소유자는 자기의 발명 또는 기술적 개선에 대하여 해당 규정에 의한 보수를 받으며 창안권을 상속인에게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sup>718)</sup>

북한 지도부는 기계의 발명 등은 북한의 현실과 특성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sup>719)</sup> 이는 노동자들의 창안이 그 건수에 비해 도입과 보급이 잘 진행되지 않았기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1957년도의 결정 이후 1958년 공업 부문에서 3만 7천 건의 발명 및 창의고안 제기가 이루어졌으나, 생산에 도입되는 비중은 34%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sup>720)</sup>

노동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창안을 돕기 위하여 생산현장에서는 노동자와 기술자 사이의 협력을 강화시켰다. 그것이 ‘실천 브리гада’와 ‘종합작업반’이었다. 실천 브리гада란 “창발적 발기를 실험과 제작을 통하여 생산에 도입하는데 성공함으로써 그를 직접 해당 부분에 도입, 보급시켜주는 립시적인 특수한 브리гад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생산혁신자와 숙련 노동자, 직맹 간부 및 기술자들이 함께 포함되었다. 종합작업반도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기술자를 함께 묶은 조직이었는데, 실천 브리гада에 비해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진 이들로 구성되었다. 실천 브리гада가 직장이나 작업반 단위로 조직되었다면 종합

718) 「창의 고안 사업을 일층 발전시킬 데 관한 내각 결정 채택」, 『로동신문』, 1957. 2. 16, 1면; 「창의 고안 사업을 일층 발전시킬 데 관한 내각 결정과 관련한 질문과 대답」, 『로동자신문』, 1957. 2. 21, 2면.

719) 「모든 로동자들이 창의고안자가 되고 발명가가 되자!」, 『로동자신문』, 1959. 5. 22, 1면.

720) 김성오, 「대중적 창의발명 운동과 직업동맹단체들의 과업」, 『로동자신문』, 1959. 4. 1, 2면.

작업반은 공장·기업소 단위로 조직되었다.<sup>721)</sup>

국산화 과정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이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수입 견직기를 대체하는 국산 견직기를 만들려고 했던 기능공 리재귀는 그 과제가 자신에 주어지자 “영광스럽게 생각”하였다. 제작에 착수하기 위해 평양 방직공장에 설치된 최신형 수입 견직기를 견학한 리재귀는 그렇지만 제작에 실패하였다. 리재귀에게는 다행히도 다시 견학할 기회가 생겼다. 그는 그 때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저는 해방 후 자기가 일본놈들을 위해서 고용 로동을 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없는 행복감에 사로 잡혔었습니다. 허나 그것도 다시 기계를 보러 가게 된 행복보다는 덜 했던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입니다!”<sup>722)</sup>

그는 해방의 기쁨보다도 수입 견직기를 다시 보러 가는 것이 더 기쁘다고 느낄 정도였다. 이것은 자신의 노력이 인민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실감하는데서 오는 성취감과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국산 굴착기 시제품을 만들었던 락원기계공장 김준도 작업반장도 비슷한 소감을 토로하였다. 굴착기 제작에 참가한 작업반원들 대부분은 17~23세 정도의 무기능공들이었다.<sup>723)</sup> 그렇지만 그들은 한 가지라도 더 많이, 빨리 배우려는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사업에 적극적이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섰기에 작업반장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 굴착기를 제작하면서 처음 부딪힌 난관은 치차(톱니바퀴)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 처리였다. 국내 최초의 시도인 만큼 그만 실패하였는데, 일부에선 설비가 있는 중국 심양에 가서 만들어오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렇지만 젊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든

---

721) 강호제, 앞의 책, 2007, 191쪽.

722) 김영석, 「혁신자」, 『조선문학』125,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 77쪽.

723) 리영규, 앞의 글, 1959, 98~99쪽. 김준도 작업반장은 어차피 무기능공들이라면 차라리 젊은이들이 낫다고 생각하였다.

지 직접 만들고 싶어했다. 결국 기사의 지도를 받으며 스스로 처리하는데 성공하였다.<sup>724)</sup>

이 시기 기계·설비 국산화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국내 최초’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자긍심, 그리고 경제 건설에 필요한 외화를 절약하고 수입품을 대체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일종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었다.

## (2) 노동력 부족 극복을 위한 기술혁신의 강조

이 시기에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하여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렇지만 1958년 농업협동화가 완료되면서 농촌에서 신규 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려워졌기에, 북한 지도부는 그 대안으로 여성 노동력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노동력 절약을 위한 합리적 제안들을 조장·발전시키기 위한 전당적·전인민적 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sup>725)</sup> 북한 지도부는 1956년 2월 상무위원회 결정으로 부양가족 노동력을 인민경제 각 부문에 광범히 받아들일 것을 결정하였다.<sup>726)</sup>

그러나 북한 지도부가 전체 여성의 노동계급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부의 노동행정 간부들은 여전히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각 공장·기업소의 간부들은 이런 저런 구실을 붙여 여성 노동력을 될수록 제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노동성은 분기와 연별로 여성 노동자 증대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직적 대책을 지시하였다. 첫째, 당 정책에 따라 노동자·청년·여성 조직 등 대중 단체와 함께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을 선전하고 탐구할 것, 둘째,

724) 리영규, 위의 글, 1959, 100~101쪽.

725) 「인민경제 각 부문에서 노동생산 능력을 일층 제고하며 로력을 애호 절약하기 위한 전 당적 전 인민적 운동을 조직 전개할데 대하여」(상무위원회 결정 1956년 2월 16일), 『사료집 30』, 1998, 829~831쪽.

726) 김원석, 앞의 글, 1958, 34쪽.

동일한 기업소라도 직종·기대·가공별로 생산 제품과 생산형태 등을 파악하여 여성의 일자리를 기업소·기대·제품·생산형태별로 조사할 것, 셋째, 작성된 계획과 조사된 일자리에 따라 여성 동원 대책을 세울 것, 넷째, 탁아소·유치원·대중식당 및 공동 세탁소 등 편의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것 등이었다.<sup>727)</sup>

중앙의 강제에 힘입어 1954년을 기준으로 여성 노동력은 1955년 73.5%, 1956년 143%, 1957년 164%로 증가했다. 여성 노동자의 급격한 증대는 1958년을 기점으로 이루어졌다. 1958년 2월 27일 북한 정권은 노동력 보충 및 정책에 관한 내각 결정 제25호를 채택하여 노동력 사업에 대한 행정지도를 체계화했다. 동시에 노동력 원천조사와 분배, 노동력의 계획적 보충과 조절, 성인 여성의 광범위한 취업, 노동력의 불법적 해직 방지 등을 조치하였다.<sup>728)</sup>

1958년 6월 말이 되자,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노동자 비율은 23.5%였다. 그러나 여전히 각 기관과 기업소 간부들은 특히 기혼 여성 노동자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sup>729)</sup> 건설 부문의 경우 일부 직장에서는 들어오려는 여성들에게 “당신이 높은 곳에서 중로동을 할 수 있는가?” 등으로 위협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여성이 할 수 있는 사무직마저도 “기관의 특수성”이나 “기술 문제”를 핑계로 채용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며, 여성을 채용한 직장들도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작업에 배치하거나, 탁아소, 유치원, 개별 위생실 등을 설치하지 않기도 하였다.<sup>730)</sup>

이에 북한 지도부는 1958년 7월 19일 내각 결정 84호 “인민경제 각 부문에 녀성들을 더욱 인입시킴에 대하여”를 공포하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용이하게 만들고자 하였다. 남성을 중노동 부문으로 보내고 그 자리에 여성을 배치하는 ‘남녀 노동력 교체사업’을 활발히 진행시켰고, 그 결과 방직공업, 일용

727) 박영자, 앞의 책, 2017, 343~344쪽.

728) 박영자, 위의 책, 2017, 344~345쪽.

729) 박영자, 위의 책, 2017, 345쪽.

730) 김동찬, 「기관, 기업소 건설장 등에서 녀성로력을 더욱 광범히 인입하자」, 『로동』1958-10, 로동기술도서출판사, 1958, 30쪽.

품공업을 비롯한 경공업과 여러 부문의 생산직장에서 여성이 일하게 되고, 교육받은 여성들은 부기원, 통계원과 같은 사무원으로 취업하였다.<sup>731)</sup> 계속되는 여성 노동력 증가 정책에 의하여 1956년에 비해 1960년 9월 말 현재 노동자·사무원의 총수는 약 64만 명이 증가하였다. 이 중 여성의 수는 1956년 17만 명에서 약 50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 50만 명 대부분은 기혼여성이었다. 전체 노동자·사무원 중 여성 비율은 1956년 20%에서 1960년 9월 말에는 34%로 증대되었다.<sup>732)</sup>

또한 이 시기에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국, 일본에 거주하는 교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노력하였다. 북한은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조선족의 이주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1959년 길림성 등에서 북한으로 1만 2,977가구, 5만 2,014명이 이주하였다. 그들 중 3분의 1은 노동력이 부족했던 황해남도, 황해북도 및 평안남도의 농촌에 배치되었고, 3분의 2는 공장에 배치되었다. 이후로도 계속 조선족의 이주가 이어졌다.<sup>733)</sup> 또한 같은 해부터 재일교포 귀국자들도 북한에 도착하였다. 제1차 귀국자는 2,942명이었고, 1962년까지의 귀국자는 가족을 포함하여 7만 4,335명이었다.<sup>734)</sup>

전후부터 1960년까지 북한의 연평균 노동자 증가율은 14.2%였다. 산업노동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인구증가율 3.4%의 4배 이상의 속도로 급증하였다. 산업노동자 증가에 따라 노동력 구조도 변화하였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66.4%, 2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29.7%로 농업인구가 절대적으로 많았다. 2차 산업 인구의 비중은 제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5개년계획이 종료하는 1959년에 이르면 1차 산업 44.4%, 2차 산업 52%로 역전되었다.<sup>735)</sup> 1957~1960년 사이 평균

731) 오유석·구수미, 「여성들의 삶과 의식변화」,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한울아카데미, 2004, 211쪽.

732) 박영자, 앞의 책, 2017, 348~349쪽; 여성 노동자·사무원 증가 비율은 『조선중앙연감』 1961년도, 208쪽, 341쪽.

733) 선즈화, 앞의 책, 2017, 677~678쪽.

734) 선즈화, 위의 책, 2017, 672쪽.

재적 노동자 수의 증감 추이는 아래 <표 14>와 같았다.

<표 14> 1957~1960년 평균 재적 노동자 수 (단위 : 천 명)

연 도	1957년	1958년	1959년	1960년
평균 재적 노동자 수	844.5	983.1	1381.0	1458.0

출처 : 1957년 수치는 『조선중앙년감』 1958년도, 178쪽; 1958년 수치는 『조선중앙년감』 1959년도, 204쪽, 1959~1960년 수치는 『조선중앙년감』 1961년도, 341쪽.

그렇지만, 급격한 산업화에 비해 노동력 증가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으며, 신규 노동력이란 결국 미숙련공, 무기능공이었기에 산업화 시기에 걸맞는 노동자로 육성하는 일이 중요하였다. 근본적으로는 교육 체계를 개편하여 장차 산업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였다. 1959년 10월 학제를 개정하여, 인문계열의 중등교육기관인 고급중학교가 폐지되고, 초급중학교 졸업생이 입학하는 2년제 기술학교와 기술학교 졸업생이 입학하는 2년제 고등기술학교가 신설되었다.<sup>736)</sup>

또한 기술혁신이 끊임없이 강조되었다. 김일성은 1958년 3월 19일, 전국청년사회주의건설자대회에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명을 수행하지 않고는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 할 수 없”다고 하여, 기술혁신은 혁명으로까지 그 중요성이 격상되었다. 기술혁명이란 곧 기계공업의 대대적인 발전을 요하는 것이었기에<sup>737)</sup> 이 시기에 나온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은 기계화의 모범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이 운동은 주을 아마공장의 노동자 김대식이 시작한 것이었는데<sup>738)</sup>, 공작기계를 이용해서 새로운 공작기계의 부품을 제작해서 공작기계를 늘리는 운동이었다.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기계와 부속

735) 조정아, 앞의 글, 2003, 158쪽.

736) 신효숙, 「종합기술교육의 도입과 현 실태」,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景仁文化社, 2006, 145~146쪽.

737) 리응삼, 「기술 혁명을 더욱 촉진시키자」, 『로동자신문』, 1958. 9. 26, 2면.

738) 리직, 「교훈」, 『조선문학』146,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10, 88~89쪽.



품 생산이 요구되었기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공작기계를 스스로 생산하는 것은 자립경제 기조와도 걸맞았고, 공작기계가 있는 공장이면 어디서나 가능한 방법이었다. 당 중앙위원회 확대상무위원회는 1959년 5월 7일 각 공장 기계가 한 대 이상의 새 공작기계들을 생산하게 할 것을 군중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sup>739)</sup>

1960년에 들어서는 프레스 작업을 광범히 도입하여 생산제품의 질을 높이고 원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생산능률을 올리고자 하였다. 당 중앙위원회 8월 확대전원회의에서 프레스 작업을 광범히 도입할 것을 강조하였고, 직맹 측은 1959년의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다.<sup>740)</sup>

노동자들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한 명의 노동자가 여러 대의 기계를 조작하는 ‘다기대 운동’이 강조되었다. 다기대 운동은 주로 방직, 방직 등 섬유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이 시기 다기대 운동으로 유명한 노동자는 평양방직공장의 직포공 주병선으로, 그는 1958년 1월 29일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받았다.<sup>741)</sup> 주병선은 혼자서 서른 두 대의 기계를 담당하는 ‘32대공’으로 다른 사람의 3배 정도를 생산할 수 있었다.<sup>742)</sup>

이처럼 개별 노동자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여러 대의 기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력의 합리적 배치, 즉 기존보다 적은 노동력으로 생산을 차질없이 수행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집중하였다. 예컨대, 강선제강소 제강직장 노동자들은 기존에 한 개 로에 배치되었던 열두 명의 제강공들을 일곱 명으로 줄일 수 있었다. 그 비결은 두 개로의 인원이 상호 협조하는 것이었다. 즉, 첫째로가 장입 후 두 시간 정도 여유를 가지게 될 때 둘째로의 산화 작업 및 제련작업을 협조하고, 그 로의 출강이 끝

739) 「공작 기계의 새끼치기 운동을 전군중적으로!」, 『로동자신문』, 1959. 5. 13, 2면.

740) 「도처에서 프레스를 새끼치고 프레스 작업을 도입하자」, 『로동자신문』, 1960. 10. 15, 1면.

741) 「직포공 주병선 동무에게 노력영웅 칭호를 수여」, 『로동자신문』, 1958. 2. 2, 2면.

742) 리직, 앞의 글, 1958, 16~17쪽.

나고 장입이 끝나는 대로 첫째 로의 제강공들은 물론 둘째 로의 노동자들도 첫째 로에서 협동하여 산화 작업과 제련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즉 두 개의 작업반이 한 개의 종합작업반으로 통합된 것이다.<sup>743)</sup>

그러려면 무기능공들을 기능공으로 양성하는 것 만큼이나 기능공들을 다기능공으로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한 노동자가 여러 가지 기능을 습득하는 현상은 공장 내 기능공이 부족한 결과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났다.<sup>744)</sup> 그렇지만, 다기능공이 늘어날 경우 직종이 서로 다른 노동자들도 상호 협조가 가능하고, 개별 공정들도 함께 합쳐서 진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강조된 것이었다.<sup>745)</sup>

### 3) 작업반을 단위로 한 노동자간 연대의식 강화

#### (1) 노동자간 관계 강화의 주도자 : 열성노동자와 천리마 작업반장

제1차 5개년계획 시기 천리마운동,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이른바 ‘열성노동자’라고 불리운 이들, 그리고 작업반의 핵심 역할을 한 작업반장들이었다. 열성노동자들은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 이후 이어진 일련의 정치적·사회적 재편 과정 속에서 등장하였다. 기층에서의 ‘반중파투쟁’은 직업동맹이나 노동당의 물갈이를 야기하였다. 이 때 공장·기업소 단위에서 당 주류의 입장에 동조적인 노동자들이 조직 재편성의 중심축으로 떠올랐다. 이들 열성노동자들은 생산 부문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올리면서 직업동맹의 기층 간부로 선출·등용될 수 있었으며,<sup>746)</sup> 반중파투쟁을 거치면서 당원 수가 줄어든 상

743) 박태민, 「로동복을 갈아 입고」, 『조선문학』138,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2, 110쪽.

744) 「일곱가지 기능을 소유한 동무」, 『로동자신문』, 1958. 11. 9, 3면; 「녀성 다기능공 최복동 동무를 자랑한다」, 『로동자신문』, 1958. 12. 7, 3면.

745) 원도중, 앞의 책, 1963, 90~91쪽.

746) 박창희, 앞의 논문, 2009, 161~163쪽.

황에서 보다 손쉽게 입당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sup>747)</sup>

북한 지도부는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각 부문별 열성자 회의를 개최하여, 1년간의 성과를 총화하는 자리를 가졌다. 기존에도 특정 부문별로 열성자 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1956년 12월 전원회의 결정 실행 총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런 자리를 통해 1차 5개년계획 완수의 중요성을 각인하고, 열성노동자들에게 보다 동기 부여를 하려고 한 것이었다.<sup>748)</sup> 기계공업성 열성자 회의에 참석하였던 리재귀는 그 회의에서 김일성이 “매개 기계공업 부문 일’군들이 5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옳게 인식하라”고 하자, 자신을 “미약하나마 한 사람의 혁명가로 생각”하기도 하였다.<sup>749)</sup>

그러면 열성노동자란 어떤 특성을 가졌기에 열성노동자로 분류될 수 있었을까? 우선 그들은 당과 최고지도자에 대하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본궁화학공장 노력영웅 송광은은 40여 종의 발명품을 만들어 낸 노동자였다. 1953년 12월 말 복구건설공사 중인 본궁화학공장에 취업한 그는 기계화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각종 창의고안들을 제시하였지만, 이론적인 설명을 완전히 하지 못하였기에 다른 노동자나 간부들에게 비난을 받곤 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의 유일한 신념은 당이 하라는 일인데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다.”<sup>750)</sup> 또한 “우리가 당이 하라는 대로 해서 못 한 일이 무엇인가. 쏘련에서 우

747) 1957년 10월 110만 명이었던 노동당원수는 1958년 3월 100만여 명으로 줄어들었다(이태섭, 앞의 책, 2001, 155~156쪽).

748) 「12월 전원회의 결정 실행 총화를 위한 석탄공업 부문 북부지구 열성자 회의 진행」, 『로동자신문』, 1958. 1. 24, 1면; 「12월 전원회의 결정 실행 총화를 위한 경공업성 열성자 회의」, 『로동자신문』, 1958. 1. 29, 1면; 「화학공업성 열성자 회의」, 같은 면; 「석탄공업 부문 열성자 회의 개막」, 『로동자신문』, 1958. 1. 31, 1면; 「12월 전원회의 결정 실행 총화를 위한 전기성 열성자 회의 개막」, 『로동자신문』, 1958. 2. 2, 2면; 「교통성 열성자 회의 개막」, 『로동자신문』, 1958. 2. 5, 1면; 「금속 공업 부문 열성자 회의 개막」, 『로동자신문』, 1958. 2. 9, 1면; 「평양시 건설 일’군 열성자 회의 개막」, 『로동자신문』, 1958. 2. 13, 1면; 「기계공업성 열성자 회의 결의문」, 『로동자신문』, 1958. 2. 16, 3면.

749) 김영석, 앞의 글, 1958, 80쪽.

750) 박근, 「로력과 지혜의 영웅」, 『조선문학』130,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6, 9쪽.

주 로켓도 당이 하자고 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 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열성노동자도 있었다.<sup>751)</sup>

당에 대한 믿음은 당이 자신을 돌봐주고 길러주었다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다. 노력영웅 주병선은 “내가 오늘처럼 된 것은 결코 나 자신의 힘만으로 된 게 아니지요. 어느때나 친어머니처럼 친절히 나를 가르쳐 주고 이끌어 준 당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당에 의해 새로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며,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한다고 다짐하였다.<sup>752)</sup>

열성노동자들이 당에 대해 보이는 믿음은 곧잘 최고지도자에 대한 그것과도 연결되었다. 냉경 차륜을 제작할 책임을 맡은 철도공장 주조직장 김병천 직공장은 취재차 온 작가에게 냉경 차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같은 해 3월 김일성의 현지지도의 감격부터 말하였다. “수상 동지의 교시를 들을 때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까지 흘렸다는 것, 신조 화차를 만들 것을 제시하시면서 조선 로동 계급은 당의 호소를 물불을 헤아리지 않고 완수한다고 말씀하시었을 때에는 가슴이 뿌듯해지기만 하는 심정이었다는 것, 이 때 받은 흥분으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었다.<sup>753)</sup>

두 번째로 열성노동자들은 사상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였다. 자신이 가진 기술 수준이 낙후함을 일정한 기능공 리재귀는 자신이 기술 학습에 게을렀고, 기술 이론 수준이 낮았고, 게다가 선진기술을 더 열심히 배우려 들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비판하면서, 그것은 단지 기술만 아니라 자신의 사상이 낙후한 증거라고 생각하였다.<sup>754)</sup> 열성노동자의 이런 태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향하였다. 본궁화학공장 농약직장에서 제1차 5개년계획의 1년 반 단축이 가능한가 여부를 두고 노동자들끼리 토론이 벌어졌다. 과학적·이론적 근거를 갖고 가능성을 계산하자는 '최 동무'에 대해 '이 동무'는 “동무

751) 전동우, 「편지」, 『조선문학』139,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3, 108쪽.

752) 리직, 앞의 글, 1958, 23~24쪽.

753) 리춘진, 「직공장 김병천」, 『조선문학』14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5, 114쪽.

754) 김영석, 앞의 글, 1958,77쪽.

는 그 사상적 병'집부터 고쳐야겠소. 기어이 하겠다는 결의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못 한다는 전제를 두고 달려드니 될거나 뭐요.”라며 반박하였다.<sup>755)</sup>

세 번째로 열성노동자들은 자신의 일과 관련하여 매우 금욕적·극기적인 태도를 가졌다. 그들은 다른 노동자들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참가한 원도중은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참가하면서 나는 자기 자신에게 한층 더 요구성을 높였다. 항상 남 먼저 나가서는 동무들의 작업 준비까지 갖추어 주었고 일이 끝나면 그 날 작업에서 동무들이 불충분하게 일한 것들을 일일이 고쳐놓곤 하였다. 허구헌 날을 하루 같이 이렇게 맞고 보내기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만 몇 분만이라도 더 누워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 때, 좀 일찍 들어 가 쉬었으면 싶은 때가 없지 않았다.

그럴 때일수록 나는 약해지려는 마음을 채찍질해야 했다.

‘공산주의적 인간이 되자면 부단히 수양을 쌓아야 한다. 이젠 이만 하면 됐다는 그런 기준은 있을 수 없다. 안일해지려는 마음부터 극복해야 한다.’<sup>756)</sup>

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열성노동자들은 대부분 이처럼 행동하였는데, 필요하다면 야근은 당연한 것이었고,<sup>757)</sup> 여차하면 직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아예 퇴근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sup>758)</sup> 열성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작업의 성취를 앞세우는 태도를 고집했다. 김책제철소 1호 용광로 내부에 50m<sup>3</sup>에 달하는 불순물이 응고되어 이것을 제거하여야만 하였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 용광로 외벽을 일부 절단하고 작업은 순조롭게 끝났지만, 문제는 구멍 난 외벽을 수리하는 일이었다. 용해공들은 로가

755) 박근, 「일년반 단축을 위하여」, 『조선문학』135,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1, 7쪽.

756) 원도중, 앞의 책, 1963, 161~162쪽.

757) 강능수, 「봄은 이렇게 왔다」, 『조선문학』13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8, 99쪽.

758) 현회균, 「전력 만세!-로동 일기 중에서-」, 『조선문학』145,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9, 102쪽.

식은 것을 기다리지 않고 화염과 가스를 극복하면서 바로 수리 작업을 하기로 결단하였다.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릴레이식으로 작업을 이어갔고, 이 소식을 들은 비번 노동자들이나 다른 직장의 노동자들도 돕기 위해 뛰어들어 1주일을 계획했던 수리 작업을 이틀 반 만에 끝마칠 수 있었다.<sup>759)</sup>

이처럼 고통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 성과를 우선시하는 태도는 단순한 물질적 대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열성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에 상응한 대가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이들은 자신들의 자기희생적 노동을 국가나 최고지도자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정당화시키고 있었다.

“저 산’밭을 넘어서 평양 한복판을 마음 속에 그려보란 말일세, 꼭 보이는 것이 있네...”

그제사 동무들은 뜨겁게 웨쳤다.

“당 중앙이 있습니다...”

“옳네, 거기에서 수상님이 우리들의 일을 보살피고 계시네.”

동무들의 표정은 엄숙해졌다.

당! 목숨보다도 귀중한 당! 우리의 피’줄과 숨’결이 하나로 잇닿아 있는 당 중앙위원회를 령도하시며 수령께서는 이 시각에도 우리 황철에 대하여, 강철 노동자들에 대하여, 바로 이 용광로에 대하여 생각하고 계시리라!

우리는 그때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sup>760)</sup>

용광로 복구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 영하 25도가 넘는 맹추위 속에 연일 60 m 상공의 용광로 꼭대기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에게 이런 감각이 없었다면, 그 노동은 견딜 수 없는 ‘고역’이 되었을 것이다.<sup>761)</sup>

열성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는 모범, 또는 추동자의 역

759) 현훈, 「화염보다 더 뜨겁다」, 『조선문학』129,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5, 124~126쪽.

760) 원도중, 앞의 책, 1963, 76쪽.

761) 원도중, 위의 책, 1963, 67~78쪽.

할이었다면, ‘천리마 작업반장’은 조직가, 조정자, 또는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천리마작업반운동 이전부터 작업반장은 작업반원의 교양이나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맡아 왔다. 그런 역할은 제1차 5개년계획에 들어서서 전반적으로 생산 성과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천리마작업반운동 단계에 들어서면 일부 뛰어난 노동자의 성과 만이 아니라 집단적인 성과를 중시하게 되었기에, 작업반 전원을 조직하고 추동할 수 있어야 했다.

1956년 말, 작업반을 옮겨 반장이 된 박봉수는 반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제때 해결해 준다면 기세는 자연히 오르기 시작할 것이며, 일단 그렇게만 되면 생산성은 순조롭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작업반장이 챙겨야 할 것들은 끝이 없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반원들을 보살피는 것이었다. 박봉수는 생손을 앓게 된 노동자 김순자를 위해 사탕에 비누를 짓이겨 직접 가져다 주었다.<sup>762)</sup> 이후 박봉수는 반원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사실 작업반원 동무들이 저를 무척 따릅니다. 합숙에 있는 동무들은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듭니다. 그리고 일요일이면 나더러 영화 구경을 가자구 조르지요. 혹 명일날이 닥쳐오면 우리 집에서 떡 추렴을 할 때도 있습니다.”<sup>763)</sup>

이처럼 작업반장은 반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바탕으로 반원들을 어떻게 추동하는가가 중요하였다. 노력영웅이기도 한 주병선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각별”하다는 평을 들었다. 같은 공장에는 “망나니”라는 별명이 붙은 기계운전공 김기영이 있었다. 그는 재주가 좋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성격이 강하여 직포공들의 기피 대상이었다. 주병선은 김기영과 함께 일을 하면서 비판이나 욕설 대신 차분하게 타일러 갔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기영의 좋은 점을 더 많이 이야기했고 될수록

762) 천청송, 「모범기'발」, 『조선문학』117,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5, 100~101쪽.

763) 천청송, 위의 글, 1957, 104쪽.

그의 약점을 밝히는 것을 삼갔다. 주병선이 비판을 멀리하고, 작은 성과라도 높이 평가해줌으로써 김기영은 “심한 량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 이후부터 성실히 작업에 임하게 되었다.<sup>764)</sup>

주병선의 이와 같은 교양 방법은 이른바 ‘긍정 교양’의 전형이 되는 것이었다. ‘낙후’하다고 평가받는 노동자가 주위로부터 계속 비판만 받고, 그로 인해 오히려 더 엇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그보다는 작은 선행이라 할지라도 세심하게 찾아내서 칭찬하여 노동자들 사이에서 인정받게 해주는 것이었다.

갈등의 중재자, 일반 노동자의 후견인으로서의 작업반장의 위상은 천리마작업반운동 단계에 들어 더욱 높아졌다. 특히 이 시기에 등장한 평양제사공장의 길확실 천리마 작업반장은 북한 지도부나 다른 노동자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이미 천리마작업반 칭호를 받은 작업반의 반장으로서 높은 보수를 받으며 명예롭게 일하고 있던 그가 굳이 뒤떨어진 작업반을 맡겠다고 자진하여 나섰기 때문이었다.<sup>765)</sup> 뒤떨어진 작업반에 가게 되면 임금도 낮아지고, 노동강도도 올라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이런 길을 택한 것에 대해 직맹 측은 “나 자신보다 집단을 더 소중히 생각하며”, “뒤떨어진 동지들과 집단을 도와 다 같이 선진 대렬에 서서 혁명 과업을 더욱 빛나게 수행하려는 높은 자각성과 혁명적 열정”이라며 극찬하였다.<sup>766)</sup>

당시 길확실의 결단을 알게 된 노동자들은 그 이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였던 것 같다. 수동광산 전차 운전공 김봉철은 『로동자신문』 편집국에 편지를 보내 길확실의 근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sup>767)</sup> 그래서인지 길확실에 관해서는 제법 많은 기사가 실렸다. 길확실은 결국 낙후했던 작업반원들을 전원 추동하는데 성공하여 두 번째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참가하여 다시 천리마

---

764) 리직, 앞의 글, 1958, 18~20쪽.

765) 「사회주의 경쟁의 새로운 봉화 평양 제사 공장 길확실 천리마 작업반장 자진하여 뒤떨어진 작업반을 맡아 나섰다」, 『로동자신문』, 1959. 9. 13, 2면.

766)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모범」, 『로동자신문』, 1959. 9. 25, 2면.

767) 「길확실 동무는 낙후한 동무들을 도와주고 있다」, 『로동자신문』, 1960. 1. 13, 3면.





평양 제사 공장  
길 화실 천리마 작업반장

<그림 11> 길화실

출처 : 『로동자신문』, 1960. 5. 1, 1면.

작업반 칭호를 생취하는데 성공하였다.<sup>768)</sup> 그는 심지어 세 번째로 작업반을 옮기는 모범을 보기까지 하였다.<sup>769)</sup>

길화실이 뒤떨어진 작업반을 천리마작업반으로 끌어올린 비결은 바로 “동지를 귀중히 여기고 또 그들을 진정으로 도와 준다면 락후한 사람이 없다”는 믿음이었다. 뒤떨어진 동료들을 교양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멸시하고 욕설로 대하는 관료주의적 사업 작품을 결정적으로 시정하며 언제나 그들에게 친근하게 대하고 차근차근 깨우쳐 주며 개별적인 담화의 방법으로 인내성 있게 설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었다.<sup>770)</sup>

길화실이 새로 옮긴 평양제사공장 조사 제2 직장 1교대 1작업반의 노동자들은 대부분 초등 교육을 받고 함흥 기능진수학교를 갓 나와 취업한 나이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이들은 평양

에서의 일과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었다. 길화실은 반장으로 옮기자마자 이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 합숙소로 들어갔으며, 개별 반원들의 성격과 배경, 가정환경 등을 깊이 파악하였다.<sup>771)</sup> 그리하여 반원 각자의 기질이나 실력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교양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정당한 요구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기울였다.<sup>772)</sup> 예컨대, 무용에 취미가 있는 신순자가

768) 「길화실 동무는 두번째 천리마 작업반 휘장을 받았다.」, 『로동자신문』, 1960. 5. 1, 1면.

769) 「길화실 로력 영웅 또다시 뒤떨어진 작업반으로.」, 『로동자신문』, 1960. 12. 24, 2면.

770) 길화실, 「조선직업총동맹 제3차 전국대회에서 한 토론」, 『로동자신문』, 1959. 11. 3, 6면.

771) 「호상 방조와 협조 정신의 힘」, 『로동자신문』, 1959. 9. 25, 2면.

키가 작다는 이유로 공장 무용썬클에서 받아주지 않자, 즉시 공장 직맹을 찾아가 신순자가 무용썬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다. 리금순이 연애 문제로 고민하자, 작업반 성원들이 함께 도와서 “행복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도 하였다.<sup>773)</sup>

길확실은 단 한 명의 반원도 포기하지 않았다. 공장 일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무단 결근을 하는 김경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곳까지 15회를 찾아갔으며, 이 반원과 관계있는 46명의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길확실은 “정말 무척 애 먹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 작업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라고 회고하였다.<sup>774)</sup>

길확실이 작업반장으로서 반원과 맺은 관계는 그야말로 ‘우애(fraternity)’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전부터 산발적으로 나타나던 조정자·조직가로서의 작업반장의 역할은 길확실에 이르러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험을 통하여 한가지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리 락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혁명 위업을 위해 싸우는 혁명 동지로 아끼고 사랑하고 인내성 있게 교양한다면 우리가 개조 못할 “타고난 락후분자”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지를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결함을 시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중략)

내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락후한 동무들의 대개는 과거 일찍부터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했으며 동무들의 진심으로 되는 충고와 방조를 맛보지 못한 데서 자기를 고립 무원한 환경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참다운 동지적 사랑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입니다.

772) 「길확실 동무는 락후한 동무들을 도와주고 있다」, 『로동자신문』, 1960. 1. 13, 3면.

773) 길확실, 『천리마 작업반장의 수기』, 직업동맹출판사, 1961, 68~69쪽.

774) 길확실, 「뜨거운 사랑으로 동지들을 방조」, 『로동자신문』, 1960. 8. 19, 4면; 길확실, 위의 책, 1961, 80~101쪽.

(중략)

락후한 동무들을 료해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게 된 다음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발견해 내어야 하며 그것을 조장 발전시키면서 결함을 시정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sup>775)</sup>

길확실의 노하우는 노동자들의 ‘집단주의적’ 관계 형성, 천리마작업반운동에서 작업반장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길확실의 사례는 지면과 강연 등을 통해 퍼져 나갔으며,<sup>776)</sup> 다른 공장에서도 길확실을 따라 하는 운동이 벌어졌다.<sup>777)</sup>

그리하여 제1차 5개년계획과 완충기가 끝나고 제1차 7개년계획이 시작되려는 즈음, 한설야는 “오늘의 노동자는 다만 육체 노동자인 것이 아니라 정신 노동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과 감정을 조화시키는 사업이 없이는 천리마 작업반으로 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천리마작업반운동은 곧 “거대한 정신적 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평하였다. 그러려면 작업반장이 “매개 인간을 료해하는 동시에 어디에 약한 고리가 있는가를 료해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주는 사업 방법을 자기 사업의 지침으로 하”여야 하며, “이것이 없이는 공산주의에 의한 인간개조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sup>778)</sup>

## (2) ‘작업반 공동체’와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의 시도

제1차 5개년계획은 북한 사회와 체제 형성에서 중요한 변곡점을 넘는 시기

775) 「아끼고 사랑하고 돕자」, 『로동자신문』, 1960. 12. 14, 2면.

776) 「길확실 동무 초청을 받고 평양시 내 대학들에서 강연」, 『로동자신문』, 1960. 7. 1, 1면.

777)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의 모범」, 『로동자신문』, 1959. 9. 25, 2면; 「어머니다운 배려와 방조가 필요하였다」, 『로동자신문』, 1959. 8. 21, 3면; 「정복화 청년 천리마 작업반원들도 뒤떨어진 작업반을 도와 나섰다」, 『로동자신문』, 1959. 9. 25, 2면; 「뒤떨어진 작업반에 나간 직맹반장」, 『로동자신문』, 1960. 6. 10, 2면; 「길확실의 모범을 더욱 일반화하자」, 『로동자신문』, 1960. 8. 31, 3면; 「길확실 로력 영웅의 모범을 따라 붉은 천리마 공장을 만들기 위하여」, 『로동자신문』, 1960. 9. 11, 3면.

778) 한설야, 「거대한 정신적 운동」, 『로동자신문』, 1960. 12. 31, 3면.

에 진행되었다. 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이 완료되었다는 선언이 그것이었다. 1958년 8월 농업협동화와 개인상공업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완료되면서,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이행이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사회주의 체제 발전의 시기로 들어섰다. 체제 발전의 주체는 물론 인민이며, 산업화라는 당면 과제를 생각할 때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불가결하였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적극성을 발양시키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1958년 11월 김일성은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를 발표하였다. 이 문헌에서 김일성은 사회주의 사회에 들어선 이상 앞으로의 과제는 생산력을 더욱 끌어올려 사회주의 건설을 완성하고 공산주의로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다.<sup>779)</sup> 그러기 위한 당면목표는 사회주의 완성을 위한 생산력 확충, 즉 제1차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완수가 되어야 했다. 그러면 어떻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것인가. “근로 대중을 공산주의 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는 것, 즉 인간개조가 바로 그 비결로 강조되었다.<sup>780)</sup>

그렇다면,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는 사회에서 인민이 가져야 할 의식, 즉 공산주의적 의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인민들이 그 의식을 가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의 해답은 인민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예상되는 계급, 즉 노동자들이 제시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당위’가 천리마운동에서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의 변화·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생산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드는 방법은 어떠했을까?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먼저, 공산주의에 반대되는 의식구조인 이기주의를 제거하고, 대신 ‘집단주의’를 내세우는 것, 집단주의의 준거가 되는 집단은 곧 ‘작업반’이 되었다. 두 번째로, 인간개조를 위한 교양 수단으로 비판과

779)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근로자』157, 1958. 12. 4, 8~9쪽.

780) 리홍중,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에 대하여」, 『근로자』152, 1958. 7, 45쪽; 윤하규, 「근로자들 속에서의 집단주의 교양」, 『근로자』159, 1959. 2, 124쪽.

욕설이 아닌 칭찬과 긍정 교양이 도입되었다, 세 번째는 집단주의적 인간관계를 작업반에서 구현해야 했다. 그것은 상호부조와 우대를 통한 ‘연대(solidarity)’의 공간으로 작업반 내 관계를 만들 때 나올 수 있는 것이었다.

노동자 개개인의 이기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동과 생활 속에서 이기적인 행동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이 나왔다. 천리마작업반운동에 참가한 남포제련소의 리재옥은 이기적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그것은 “말로는 집단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쉬운 일만 골라잡으려고 했으며, 옆에서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어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리재옥은 “나야 야간 전문 학교에 다니니까 남보다 좀 편안히 일해야 내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이기주의적 계산이 있었다고 고백해야 했다.<sup>781)</sup>

이기주의는 단지 개개인이 가진 욕망만 논하는 것이 아니었다. 집단 이기주의도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집단 이기주의는 증산경쟁운동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작업반 계획 수행만을 우선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원도중이 속한 작업반에서는 어느 날 작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있던 10 mm 철판을 당분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대신 이웃 작업반이 철판을 급히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 철판들은 원도중의 작업반이 애써 절약하면서 모아 두었던 것이다. 다른 작업반들은 것처럼 절약하지 못해서 난항을 겪게 된 것이었다. 이웃 작업반에서 철판을 빌리러 찾아오자, 작업반원들은 “거 뭐 남의 불에 게 잡자는 격이로군요.”, “그렇게는 안 되지요. 이 철판들이야 애당초 계획에 없는 것이고, 말하자면 우리 ‘재산’인 걸요. 우리도 이걸로 한 몫 단단히 봐야겠수다.”하며 내어주는 것을 거부하였다.<sup>782)</sup> 원도중은 이런 태도를 집단 이기주의로 비판하였던 것이다. 이를 북한에서는 ‘작업반 본위주의’라고 불렀다. 자기 작업반만 생각하고 공장 전체의 이익, 나아가 국가 전체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 태도라는 것이었다.

---

781)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천리마 작업반" 운동은 공고 발전시킬 수 없다」, 『로동자신문』, 1959. 6. 19, 2면.

782) 원도중, 앞의 책, 1963, 140~141쪽.

이기주의 문제는 노동자들이 임금 수입 등을 노동의 목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한 태도와도 연관되었다. 사회주의 체제 완료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노동자들이 수입에 관심을 갖는 것은 그다지 부정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많이 일한 만큼 많이 벌어가는 것이 노동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제1차 5개년계획이 시작되고, 천리마운동 단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었다. 안주탄광 노동자 리근재는 어느 날 자신의 노동의 결과에 대해 동료 노동자들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전략) 사실, 나는 그 밥상에서까지 나의 생활과 행복을 볼 수 있었던 말야. 그렇지 않아도 순회 우승기 수여와 함께 내게까지 돌아올 네가지 상금을 대충 쳐보니 이 달 임금과 또 이 달의 초과 상금까지 해서 1만 5천원은 되겠단 말야(하략).”

리근재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한 동무를 매섭게 노려 보았다.

“왜 비웃는 거야? 날 경제주의자로 보구서 비웃는거야?”

(중략)

“사실, 내가 경제주의자는 아냐, 우리가 상금을 많이 타는 것은 조국과 인민에게 그만큼 이익을 준 걸 의미하거던. 말하자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사회주의 건설에 나두 한몫을 했단 걸 말한단 말야. 그러니 나두 좋구 조국과 인민두 좋구.”<sup>783)</sup>

리근재는 자신이 임금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혹여 ‘경제주의자’로 비판받을까 저어하였다. 즉, 물질적 이익만 바라고 일하는 사람처럼 비춰지는 것을 경계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고수입을 얻는 것은 그만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 것을 의미하기에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밝히는 것, 혹은 노동에 대해 물질적 이익과 결부하여 행동하는 것은 김일성이 공산주의를 운위한 이후 비판 대상이 되었다.

783) 리근영, 「아름다운 하루 -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조선문학』116,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4, 43쪽.

원도중은 ‘낙후한’ 젊은 노동자를 교양하는 일을 맡았다. 젊은 노동자와의 대화 도중, 노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화제가 나왔다. 젊은 노동자는 바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 답을 하였다. 노동은 “당과 국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원도중은 이를 한 마디로 부정하였다. “우리 시대의 노동은 곧 혁명 투쟁이란 말일세!” 노동은 그 어떤 기분으로나 명예나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을 쳐부수는 전투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숭고한 의무이며 영예라는 것이 원도중의 주장이었던 것이다.<sup>784)</sup>

1959년 초, 『로동자신문』에는 한바탕 ‘이기주의’ 비판이 일었다. 신문 ‘지상토론’의 형식을 빌려, 개별 공장 노동자들이 자기 직장에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노동자를 공개 비판하는 내용들이었다. 이기적인 노동자란 곧 자신은 최대한 일을 쉽게 하면서 돈을 많이 벌려는 이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북중기계 공장의 황룡익은 오작을 일으켜 계획도 미달할 뿐더러, 기대 청소도 잘 하지 않았으며, 대형 선반공으로서 공지를 갖지 못하고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려 한다고 비판받았다.<sup>785)</sup> 이 비판 기사가 올라오자, 곧 이와 유사한 공개 비판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sup>786)</sup>

이런 공개 비판류 기사가 거의 매호에 실리다가 3월 11일자에 와서 로병태라는 노동자 비판에서 가히 절정을 이루었다. 평양 콘크리트 공장의 용접공 로병태(29세)에 대하여 직장 동료 여럿이 『로동자신문』에 그를 비판하는 편지를 투고한 것이었다. 생활필수품 직장 김경선은 로병태가 이직하여 오면서, “도급제 하는 곳”, “수지가 맞는 곳”을 찾는다고 발언하였을뿐더러, 기준량을

784) 원도중, 앞의 책, 1963, 173쪽. 그렇다고 하여, 이 시기에 노동자들이 물질적 이익에 대해 갖는 ‘욕망’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로동자신문』에는 노동자들이 사익을 챙기기 위해 저지르는 부정적인 행위들이 비판조로 실리곤 하였다(「어느 것이 진짜 자기 일인가」, 『로동자신문』, 1957. 1. 10. 3면).

785) 「황룡익 동무는 붉은 전사답지 못하다」, 『로동자신문』, 1959. 1. 9, 3면.

786) 「이러한 사상으로는 공산주의로 갈 수 없다」, 『로동자신문』, 1959. 1. 11, 3면; 「이기주의 사상을 가지고 공산주의로 갈 수 없다」, 『로동자신문』, 1959. 1. 14, 3면; 「임롱만 동무는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으려는 리기주의자다」, 『로동자신문』, 1959. 1. 21, 3면; 「상급만 바라고 일하는 사람」, 『로동자신문』, 1959. 2. 4, 3면; 「리건모 동무는 개인의 돈벌이만 생각한다」, 『로동자신문』, 1959. 2. 16, 2면.

따지는 태도, 작업 조건을 따지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일하기 힘든 산소 용접 대신 자기만 조건이 좋은 전기 용접으로 옮겨 수입을 많이 얻으려 다는 이기적인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전기 용접으로 옮겨서도 일을 대충 하여 오작 시공을 내었다. 공무동력직장 수리공 엄명준도 로병태를 비판하였다. 2월에 공무동력직장에서 다공관 브록크 형틀을 수리할 때 기능공이 부족하여 기능공 1명 당 무기능공 2명으로 조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로병태는 기능공 두 명만으로 한 조를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조 단위 도급제이다 보니 기능공 둘이 한 조로 일하면 훨씬 고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로병태는 요구가 접수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소극적으로 일하였으며, 무단결근도 하였다. 철근 직장의 리진삼은 로병태가 특하면 “이 새끼, 저 새끼”하면서 주먹을 내 흔들며, “한대 치받을가?”, “없다 없어!”하면서 불손한 태도를 취하고 행패를 부린다고 비판하였다.<sup>787)</sup>

개별 노동자를 이처럼 전국에 다 배포되는 신문지상에서 공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긴 하였다. 로병태가 비판을 받은 지점은 세 가지라고 볼 수 있다. 첫째, 돈을 많이 주는 일만 찾아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 생각했다. 둘째, 그나마 일을 잘 했으면 문제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을 것인데, 일도 불성실하게 하였다. 셋째, 이것은 로병태의 품성이 그러한 것인지, 혹은 집단의 압력에 저항하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평소 폭력적인 언동을 하여 집단의 안녕에 문제를 일으켰다. 로병태는 그야말로 이기적인 노동자의 전형으로 떠올랐다.

로병태의 사례가 워낙 충격적이어서였는지, 로병태의 전 직장이었던 평양택시사업소의 차량관리지도원 박기호는 그가 이전 직장에 있었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신문에 투고를 하였다. 택시사업소의 수리 작업은 도급제가 아니라 정액제였기에 로병태는 도급제가 적용되고 수입이 높은 건설 직장으로 이직하겠다고 말하곤 하였으며, 증산 경쟁에서도 상금이 적용되지 않으면 불평을 말

787) 「로동에 대한 로병태 동무의 태도는 옳지 않다」, 『로동자신문』, 1959. 3. 11, 3면.



하기가 일쑤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직 당일에 로병태는 지금까지 계속 비판을 받으며 여러 동무들의 애를 태웠지만 다른 직장에 가면 새출발할 것이며 노동당원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까지 하고 떠났는데, 보아하니 그것은 역시 말뿐이었다는 것이었다.<sup>788)</sup>

이쯤 되자 로병태와 일면식도 없는 여러 노동자들이 그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sup>789)</sup> 박천건직공장 직포장장 윤치훈은 과연 로병태는 이 많은 비판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였으며, 구성광산기계공장 검사부 안종현은 대체 직맹 단체는 그를 어떻게 교양하였길래 저 모양이냐며, 비판의 화살을 직맹에도 돌렸다.<sup>790)</sup>

상황이 이렇게 되자, 로병태는 백기 투항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또한 『로동자신문』에 투고하여 공개적으로 자아비판을 했던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신문에 자신이 고발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망신을 당한 것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자신을 비판한 동무들을 하나씩 찾아 다니며 따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충고와 교양을 받으며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앞으로 스스로의 사상 정치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배우며 낡은 사상 잔재를 뿌리뽑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것이 자기비판의 요지였다.<sup>791)</sup>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곧이어 동공장의 용접브리гада장 정재현이 투고하여 로병태가 벌써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였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난 일요일 작업에 그는 어려운 일을 맡아 밤늦게까지 다 완수하고 집으로

788) 「그는 우리 택시 사업소에 있을 때도 리기주의자였다」, 『로동자신문』, 1959. 3. 18, 3면.

789) 「피 흘리며 싸운 청년들을 생각하자」, 『로동자신문』, 1959. 3. 22, 3면; 「폼팔이'군과 같은 행동을 그만두라」, 『로동자신문』, 1959. 3. 22, 3면; 「로병태 동무! 동무는 학습에 잘 참가합니까?」, 『로동자신문』, 1959. 3. 25, 3면; 「민주 수도 건설자들의 영예를 손상시키지 말라」, 같은 면; 「혁명을 위하여 김수복 동무는 생명도 바쳤다」, 『로동자신문』, 1959. 3. 29, 3면; 「하루빨리 붉은 전사가 되시오!」, 같은 면;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가져야 한다」, 『로동자신문』, 1959. 4. 1, 3면.

790) 「로병태 동무, 비판이 접수됩니까?」, 『로동자신문』, 1959. 4. 1, 3면; 「직맹 단체는 그를 어떻게 교양했는가?」, 같은 면.

791) 로병태, 「비판을 접수합니다. 참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로동자신문』, 1959. 4. 3, 3면.

돌아갔다는 것이다.<sup>792)</sup> 같은 공장의 직맹 관계자들도 연달아 로병태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편지를 투고하였다.<sup>793)</sup> 그런데, 로병태 사례를 지면으로 접한 노동자들은 조금 분이 덜 풀렸던 모양이었다. 룡성기계공장 단조직장 한학기는 로병태의 자아비판이 불충분한 것 같고 사상 개조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잘하길 바란다는 훈계를 늘어놓았다.<sup>794)</sup> 로병태의 사상 학습 여부를 궁금하게 여겼던 리세일도 다시 편지를 보내 앞으로 잘 하라고 충고하였다.<sup>795)</sup> 평양정밀기계공장 검사부 변창훈은 로병태의 전 직장 차량관리지도원 박기호를 호명하며, 지도간부로서 노동자 교양에 실패한 책임을 물었다.<sup>796)</sup> 비판의 범위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넓어질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편집국에서 지상토론 코너를 종결해버려 아쉽게도 로병태 사례는 그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 일련의 과정은 로병태 개인보다는 신문의 주 독자층인 노동자들 전체에게 보내는 신호였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듯 하다. 즉,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비공산주의적인 것이며, 그런 태도를 취하면 북한 전체 노동자들 앞에서 로병태처럼 공개 망신당하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당신의 행동으로 인해 당신 직장 동료 혹은 간부들까지 비난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기주의를 버려야 할 것이다라는 식의 경고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기주의를 쫓아 낸 자리에는 ‘집단주의’가 들어서야 했다. 나 자신보다는 집단 전체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윤리적 태도를 의미하였다. 노동자들에게 그 집단주의를 실천하는 준거가 되는 집단은 무엇보다도 작업반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 노동자들을 작업반 내에서 집단주의적으로 일하게 할 것인가? 그것이 곧 공산주의적 인간개조의 길이었는데, 이를 주동하는 인

792) 「그는 진실한 노동자가 될 것이다」, 『로동자신문』, 1959. 4. 5, 3면.

793) 「나도 책임을 느낀다」, 『로동자신문』, 1959. 4. 10, 3면; 「그를 인내성 있게 설복 교양하지 못했다」, 『로동자신문』, 1959. 4. 12, 3면.

794) 「맹세를 꼭 실천하리라고 믿는다」, 『로동자신문』, 1959. 4. 10, 3면.

795) 「로병태 동무 자기 반성을 꼭 실천에 옮기자!」, 『로동자신문』, 1959. 4. 12, 3면.

796)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사업이다」, 『로동자신문』, 1959. 4. 17, 3면.

물은 앞에서 설명한 열성노동자와 작업반장 같은 이들이었다. 그리고 그 개조 방법으로는 칭찬과 긍정 교양이 크게 부각되었다.

기존의 교양 방법인 비판, 혹은 욕설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 문제였다. 이는 이미 전후 복구건설 시기에도 일정하게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길확실이 택했던 방법이 의미가 컸던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정당한 의견을 제기하였는데 상급자나 관리자 측이 이를 묵살한다고 여기거나, 혹은 관리자측이 합당하다 하더라도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을 하며 대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sup>797)</sup> 성혜량은 이런 문화와 관련하여 도그마적 계급의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였다. 노동계급이 피지배계급이던 과거사회의 하층계급의 무지, 비문화, 조야함이 마치 혁명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칠고 상스럽고 무뚝뚝한 것이 ‘혁명적인 품모’이고, 부드럽고 겸손한 예의 바르고, 특히 유식한 인상은 ‘비혁명적인 품모’로 낙인찍히기에, 사람들이 짐짓 거친 말과 조잡한 행동을 자행하기에 이른다고 성혜량은 해석하였다.<sup>798)</sup>

이미 이전 시기부터 드러나고 있었듯이, 노동자들의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 비판이나 욕설은 그다지 효과가 없거나, 역효과를 불러왔다. 기존의 교양 방법이 상투화되었기에 나오는 현상이었다. 원도중의 작업반에 새로 배치된 ‘김동무’는 주택 건설장에서 수리공으로 일하다가 온 청년이었다. 결론, 지각, 조퇴, 태공, 계획 미달 등 전형적인 ‘낙후한’ 노동자였다. 원도중이 이 노동자를 교양하고자 먼저 대화를 나누려고 하자, 그는 오히려 앞질러서 “내야 뭐 개조대상이라면서요? 아무튼 교양을 잘해 주슈.”하고 말문을 가로막았다. 두 번째로 천리마작업반운동 시기에 자주 쓰인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인용하여 교양하려 하자, 그는 제목만 한번 훑어보더니 “벌써 읽어 본 지 오래입니다.

797) 「욕설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로동자신문』, 1958. 2. 14, 3면; 「호령과 욕설로 일하는 관리 일꾼들」, 『로동신문』, 1959. 7. 28, 2면.

798) 성혜량, 앞의 책, 2000, 296~297쪽.

내가 뭐 그렇게 무책임하고 자각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나도 할 때에는 합니다.”하고 대꾸하였다. 때로는 나서서 자아비판을 하기도 하였다. “헤이함 때문에 결근을 했었다. 혁명하는 로동자로서 자각이 부족한 탓이우다.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겠수다.”<sup>799)</sup>

이 김 동무는 이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또 비판하려 들 것이라고 이미 마음의 벽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당시, 노동자 교양을 위한 지침서처럼 쓰인 『항일 빨찌산 참가자들의 회상기』를 들이대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그런 식의 접근법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 마음에도 없지만 적당히 자아비판하는 태도를 취하여 비판의 예봉을 피할 줄도 알고 있는 것이었다. 이런 김 동무에게 기존의 비판 방법이 효과가 없는 것은 당연하였다.

길확실의 성공에 힘입어, 이 시기에 공산주의적 인간개조 방법은 긍정적인 싹을 찾아 ‘칭찬하기’로 바뀌었다. 물론, 개별 노동자의 수준에 따라 그에 맞는 교양을 주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하에서이긴 하지만 말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도 존중받고 배려받는다느 느낌을 가지면서 노동에 보다 적극성을 떨 수 있었다는 것이다. 평양방직공장 24대공 계련순은 기대를 수리하는 운전공이 매우 태만하여 고심이였다. 몇 번 충고도 주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이후 계련순은 방법을 바꿔, 운전공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면서 간단한 고장을 발견했을 때는 일부러 운전공을 찾아 가 스페너를 빌려 직접 기대를 수리하였다. 작업 비판회에서 자기 기대의 가동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 날이면 계련순은 그 공을 운전공에게 돌렸다. 이렇게 하자 이후 계련순이 스페너를 빌리러 가면 운전공은 도리어 자기가 와서 고쳐 놓게 되었던 것이다.<sup>800)</sup>

노동자들의 의식을 개조한다는 것은 결국 노동자들의 행동을 바꾸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의식의 개조 여부는 행위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노

799) 원도중, 앞의 책, 1963, 164~167쪽.

800) 리택진, 「고귀한 수확-평양 방직 공장을 찾아서-」, 『조선문학』127,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3, 74~75쪽.

동자들이 기존에 해오던 행동을 바꿔야 한다면, 그럴만한 동기가 필요한 것이었다. 행동 변경의 방향은 ‘이기주의적’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집단을 고려하며 사는 것이었다. 인간의 개별성이 갖는 자아 존중 의식을 해치지 않고 집단을 생각하게 하려면, 결국 그 집단이 ‘나’의 연장선에 놓여있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첩경이 될 것이었다. ‘연대의식’의 성장이 필요했다.

길확실이 이야기하였듯이 개별 노동자의 행동에는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비판만 가해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 원인을 알려면 결국 사람의 내면, 즉 의식세계를 깊이 이해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했다. 내면을 알고자 한다면, 그만큼 서로 깊은 관계를 맺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작업반을 단위로 한 ‘집단주의’ 형성의 전제 조건은 바로 관계성에 놓여있었다.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 정도의 사이가 된다면, 즉 마치 ‘형제’와 같은 정도의 관계를 맺는다면, 자연스레 서로를 이해하고, 행동도 바뀌나갈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작업반이 그런 ‘우애’가 흐르는 집단임을 자각시키려면, 서로 돕고 돕는, 상호부조의 태도가 필수불가결하였다. 힘든 것을 다 함께 나누면서 동고동락한다는 감각은 ‘우애’적 관계를 발양하기에 유리한 것이었다. 당시 노동자들 대다수는 젊은이들이었고, 그들은 어린 시절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가족 상실, 직장 취업에 따른 ‘단신 부임’ 등의 상황을 보편적으로 겪고 있었다.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이런 경험을 가지는 다수의 젊은이들에게 작업반이 마음을 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작업반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가 갖는 장점이 될 수 있었다. 윤세중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벌어지는 대안 전기공장이 마치 “동지적 우애”와 “형제적 사랑”을 갖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 서로 도와주는 대가정과 같다고 묘사한 바 있다.<sup>801)</sup>

따라서 작업반을 주도하는 열성노동자나 작업반장은 몸소 ‘우애’를 실천해야 했다. 우선 서로의 흥금을 터놓을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사이가 되려고 노력해야 했다. 원도중은 전술하였던, 기존의 교양 방법이 소용없던 ‘김 동무’

801) 윤세중, 『천리마공장 사람들』, 직업동맹출판사, 1965, 250쪽.

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이때 원도중이 택한 방법은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었다. 자주 자기 집에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였으며, 막내딸에게는 김 동무를 친오빠처럼 대하며 어울려 놀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가정적인 단란한 분위기 속에서 김 동무는 마음을 열게 되었고, 원도중은 그의 속내와 과거를 알게 되었다. 김 동무는 어려서 고아가 되었고, 유랑하면서 자라다가 처음 노동자가 되었다니 갑자기 비판만 받게 되면서 더욱 마음의 문을 닫게 된 것이었다. 여차피 “판에 박은 락후 분자가 인정을 받으면 얼마나 받겠는가, 아무래도 그들하구는 다른 처지인데...”하는 반발심이 생긴 것이다. 원도중은 김 동무를 깊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그를 형식적으로 대하였고,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 않았음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한 사람의 잘못은 우리 모두의 잘못입니다.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부터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원도중의 결론이었다.<sup>802)</sup>

작업반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를 통해 강한 결속력을 느끼게 된다면, 노동자의 자발적인 상호협조가 뒤따를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작업반을 넘어서 직장이나 공장, 국가를 생각하는 것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처럼 작업반원 모두가 기꺼이 상호협조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서 노동 의욕을 고취시킬 때 천리마작업반운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당시 북한 사회가 생산과 재생산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것도 작업반을 중심으로 그 성원들을 끌어모을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박영자는 북한에서는 생활과 노동의 경계가 불분명하며 노동에 의해 생활 세계가 침식당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sup>803)</sup> 당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공장 내 합숙소에서 단체 생활을 하였다. 그 안에서 자연스레 집단적으로 어울려 생활하게 되는 것이었다.<sup>804)</sup> 또한 가족이 있어 따로 사는 노동자들도 그 주거지인 사택 마을이 직

802) 원도중, 앞의 책, 1963, 168~171쪽.

803) 박영자, 앞의 책, 2017, 379~466쪽.

804) 진동우, 앞의 글, 1959, 107쪽.

장 근처에 모여 있기에 항상 직장과 긴밀한 연결 속에 놓여 있었다.

게다가 제1차 5개년계획 시기에 열성노동자들은 계획 달성을 위해 직장에서 살다시피 했을 뿐 아니라 가족들이 공장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기대하였다. 황해제철소 용광로 건설 시기에는 “몇날 몇밤이 되어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들과 자식들의 식사를 날라 오는 아낙네들 역시 추위를 맞받아 싸우면서 수천 수만 매의 내화 벽돌을 다듬었다. 자진하여 이 일을 맡아 나선 그들도 오직 끼니를 끓일 때만 집에 가 있었다.”<sup>805)</sup> 고열탄을 수집하는 대중적인 운동이 벌어졌을 때에 원도중은 가족들도 동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효가 적고 많은게 문제가 아니라 당원의 가족으로서 제철소의 대소사를 함께 걱정하고 아파하는 것이 응당한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sup>806)</sup> 비날론 공장 알테히드 직장 기계조립 공사를 위해서 작업반장 전호 부부는 공사 현장에 침소를 차렸다. 이 ‘모범’이 알려지자 다른 노동자의 부인들도 전부 공사장에 들어와 잔심부름과 일을 도왔다.<sup>807)</sup>

### (3) 속도에 대한 강박과 자기희생의 정당화

제1차 5개년계획은 이처럼 연대의식이 높아진 노동자들의 적극성에 기대어 수행되었다. 노동자들은 생산 과제에 비해 부족한 자재와 설비, 노동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열의와 ‘집체적 지혜’를 모아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열기를 이용하여 북한 지도부는 5년짜리 계획을 1년 6개월 단축시켜 달성하는 위업을 이루고 싶어하였다. 천리마운동이란 이미 속도에 대한 상징으로 넘쳐나고 있었다.

평양 재건 과정에서는 건축 속도가 강조되었다. 1957년 10월 열린 조선로

---

805) 원도중, 앞의 책, 1963, 66쪽.

806) 원도중, 위의 책, 1963, 163쪽.

807) 「4.1 돌격대」, 『비날론 공장 건설』, 국립건설출판사, 1961, 325쪽.

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박금철은 건설 분야에서 수공업적인 방법을 퇴치하고 조립식 방법으로 전환하여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조립식 건설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설계의 표준화와 규격화, 건설 부재 생산의 공업화, 시공의 기계화였다.<sup>808)</sup> 이어서 1958년에는 내각 결정 제34호로 건설을 조립식으로 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할 것이 결정되었다.<sup>809)</sup>

건설을 조립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이었다. 평양시를 건설 중인 노동자들은 1958년내로 도합 2만 세대의 주택을 새로 짓겠다고 결의를 내면서 주택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립식 방법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다.<sup>810)</sup> 평양 제4 건설 트레스트 장갑봉 브리가다에서는 노동자들과 건설성 중앙설계 연구소 기술자들이 힘을 합쳐 “통방 블록크”를 만들었다. 주택의 방 하나를 통채로 블록으로 만든 것이다. 이 대형 블록의 입방당 중량은 1 톤 500 Kg이며, 총 무게는 4 톤 400 Kg이었다. 이것을 기중기를 이용해서 조립한다면, 건설 속도를 4배 더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었다.<sup>811)</sup> 제5 건설 트레스트 백용필 종합 브리가다는 이 통방 블록크 3개를 이용하여 2개의 방과 취사장을 갖춘 중간복도식 다층주택 한 세대를 36분에 조립하였다. 이는 기존 한 세대 조립 시간보다 약 70분을 단축한 것이었다.<sup>812)</sup> 이처럼 조립식 건축 방법을 이용하여 평양시 건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그 결과 1958년 12월 25일, 2만 839세대의 주택 건설을 완공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sup>813)</sup>

친리마운동 시기 속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 시대의 기적!”이라고

808) 박금철, 「기본 건설 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 『로동자신문』, 1957. 10. 20, 2면.

809) 「건설을 조립식 방법으로 혁신할 데 대한 제 대책에 관한 내각 결정 채택」, 『로동자신문』, 1958. 4. 4, 1면.

810) 「년내로 2만 세대의 주택 건설을 결의」, 『로동자신문』, 1958. 5. 7, 2면.

811) 「블록크 한 개로 집 한 방을 만든다」, 『로동자신문』, 1958. 5. 16, 1면.

812) 통방 블록크를 이용한 조립식 주택은 건설 속도를 올리는데 적합하였을지 모르지만, 우리 전통적인 생활방식에 맞는 건축 양식은 아니었다. 통방 블록크 주택은 온돌을 없애고 부엌의 취사열을 이용한 2개의 방열기로 난방을 하는 구조였다(「통방 블록크로 1세대를 36분간에 조립」, 『로동자신문』, 1958. 6. 20, 1면).

813) 「평양에서 2만 829세대의 주택을 완공」, 『로동자신문』, 1958. 12. 19, 1면.



불리했던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 공사였다. 해주와 하성을 잇는 이 80.5 Km의 철도는 1958년 5월 10일 공사에 착수하였다. 공사 착수 전인 4월 21일 열린 교통운수부문 청년열성자 회의에서는 이 철도부설 공사에 청년들이 자원으로 담당할 것, 그리고 1959년 5월 1일 전까지 공사를 완수할 것을 결의하였다.<sup>814)</sup> 내각에서는 이 공사를 촉진시키기 위한 결정 제46호를 채택하여 건설에 드는 노동력 및 기자재 공급을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제반 대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sup>815)</sup>

그런데, 공사 착공 한달 즈음이 지난 1958년 6월 16일, 철도 부설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청년 건설 트레스트 청년열성자 회의가 열렸다. 청년 건설 트레스트 민청위원장 송길호는 해주췌멘트공장에서 3호 소성로를 8월 15일까지 복구 조립할 것을 결의하였다면서, 이 공장의 시멘트 생산을 위한 원료와 생산된 시멘트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58년 8월 15일 전에 철도를 개통하자고 제기하였다.<sup>816)</sup> 여기에 참석자들이 호응하면서 이 공사는 급물살을 탔다. “5백 삽 뜨고 허리 쉬기 운동”, “천 삽 뜨고 허리 쉬기 운동” 등 초인적인 노력 경쟁운동이 벌어졌으며, 현장에서의 소기계화를 통해 작업 능률을 향상시켰다. 그 결과 이 공사에 참여한 5,000여 명의 청년들은 계획을 9개월 앞당겨, 공사 시작 75일 만에 공사를 완수하는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이다.<sup>817)</sup>

이처럼 제1차 5개년계획은 노동자들의 열의에 의한 ‘속도전’이 유래없이 벌어졌다. 그 중 천리마작업반운동 시기, 북한의 산업화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비날론 공장 건설은 그 속도에 대한 강박이 절정을 이룬 사례였다. 비날론은 북

814) 「해주-하성간 철도 부설 공사를 자진 담당하여 수행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교통 운수 부문 전체 청년들에게 호소」, 『로동자신문』, 1958. 4. 23, 3면.

815) 「공화국 내각에서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 부설 공사를 촉진시킬 데 관한 결정을 채택」, 『로동자신문』, 1958. 5. 14, 1면.

816) 「또 하나의 애국적 발기 - 해주-하성간 철도를 금년 8.15 전으로 개통시킬 것을 결의」, 『로동자신문』, 1958. 6. 18, 1면.

817)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 부설 공사 기본적으로 완공되어 시운전 진행」, 『로동자신문』, 1958. 8. 1, 1면; 「해주-하성간 광궤 철도 개통식에서 한 김일성 수상의 축하 연설」, 『로동자신문』, 1958. 8. 13, 1면; 「12일 해주에서 개통식 성대히 진행」, 같은 면.

한에서 풍부한 무연탄을 이용해 만들 수 있는 합성 섬유였다. 비닐론의 생산 자체가 이미 북한식 ‘자립경제’의 상징이자, 북한의 산업화 능력을 국내외에 떨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북한 지도부는 비닐론 생산 단지의 건설을 다그쳤다.

1958년에 본공화학공장 인근에서 건설을 시작한 비닐론 공장 건설은 내각 결정 제122호 “비닐론 및 염화비닐 공장 건설을 촉진시킬데에 관하여”에 의하여 계획보다 앞당겨 완공하기로 결정되었다.<sup>818)</sup> 1960년 8월 28일 김일성은 비닐론 공장 공사 현장을 포함한 흥남 지역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 지도하였다. 김일성은 당에서 비닐론 공장을 자체의 기술과 설계, 기자재로 단시일 내에, 즉 1961년 5월 1일 전까지 1단계 공사를 끝내고 1961년 말까지 2단계 공사를 완성할 것을 결정하였다고 강조하였다.<sup>819)</sup> 9월 1일에는 비닐론 공장 건설 관계 부문 열성자 회의가 열렸다.<sup>820)</sup> 건설장에는 “모든 것을 비닐론 공장 건설에로!”라는 구호가 쓰여진 현수막이 휘날리는 가운데 건설 속도를 올리기 위한 광풍이 몰아쳤다.<sup>821)</sup> 공장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들과 군인들은 서로 노력경쟁을 체결하고 속도를 올렸다.<sup>822)</sup> 마침내 1961년 5월 6일, 비닐론 공장 준공식이 열렸다.<sup>823)</sup>

속도에 대한 ‘강박’은 그만한 부작용을 갖고 왔다. 우선 생산의 질이 저하되었다. 1959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 내각 제1 부수상은 공업 생산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몇 년 사이에 공업 생산이 급격

---

818) 「비닐론 - 우리 나라에서 처음에서 합성 섬유 공장이 건설된다」, 『로동신문』, 1958. 1. 26, 2면; 「비닐론 공장 건설 공사 착수」, 『로동신문』, 1958. 3. 21, 1면; 「공화국 내각에서 비닐론 및 염화 비닐 공장 건설을 촉진시킬 데 관한 대책을 강구」, 『로동신문』, 1958. 10. 22, 1면.

819) 「모든 힘을 비닐론 공장 건설에로!」, 『로동자신문』, 1960. 8. 31, 1면.

820) 「비닐론 공장 건설 관계 부문 열성자 회의 진행」, 『로동자신문』, 1960. 9. 3, 2면.

821) 「김일성 수상의 현지 지도에 고무되어 세찬 건설 투쟁으로 약동하는 비닐론 공장 건설장」, 『로동자신문』, 1960. 8. 31, 1면.

822) 「비닐론 공장 건설에 동원된 군무자들과 로동자들 사회주의 경쟁을 체결」, 『로동자신문』, 1960. 9. 22, 1면.

823) 「로동당 시대의 거대한 승리 김일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지도자들의 참석 하에 비닐론 공장 준공식 성대히 진행」, 『로동자신문』, 1961. 5. 7, 1면.

히 성장하였지만, 대신 일부 공장, 특히 적지 않은 경공업 기업소들에서 많은 오작품을 내고 있으며 합격품이라 하더라도 등급이 낮은 제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sup>824)</sup> 김일의 보고 이후 3월에 열린 직맹 중앙위원회 제12차 확대전원회의에서 위원장 리효순도 공업 생산품의 질을 높이는 과업을 직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리효순은 공업생산품의 질이 낮은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태도를 보였다.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사상 의식 속에 남아 있는 낡은 사상 잔재를 청산하고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를 확립하며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것이 직맹 단체 제일의 과업으로 제기한 것이다.<sup>825)</sup>

생산품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는 노동자의 사상 문제라기보다는 계속해서 높은 생산 성과만을 내놓을 것을 강요하는 지도부의 압박, 속도만을 위주한 증산경쟁운동 등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다. 이는 “오작 안내기 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유홍철의 경우를 통해서도 간취할 수 있다. 희천공장 기계공장 선반공 유홍철은 겨우 스물다섯의 나이에 6년 반 동안 12만여 개의 제품을 만들면서 단 한 개의 오작품도 내지 않아 유명해졌다. 그도 처음 공장에 들어간 1953년에는 오작품을 냈지만, 자신이 만들 생산품을 철저히 연구, 분석하고, 자신감이 생기기 전에는 일에 착수하지 않는 신중함을 갖추어 이후로 한 건의 오작품을 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그의 모범적인 노동이 그간 알려지지 못했던 것은 “매달 자기 계획을 130%씩 해내면서도 오작을 내지 않았으나, 오작 생산은 있으면서도 자기 계획을 180~200%씩 해내는 여느 혁신자들의 높은 생산 숫자에 파묻혔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가 신입 노동자일 때에는 신중하게 일하다보니 생산능률이 떨어졌었고, 동료 노동자들이 “자기 계획을 미달하면서 오작이나 안 내면 무얼 하겠는가?”고 비웃어 댔던 것이다. 도급 책임량까지 채우지 못하니 수입도 낮아졌다.<sup>826)</sup> 이처럼 속도와 생산성만

824) 김일, 「공업 생산품의 질을 제고할 데 대하여」, 『로동자신문』, 1959. 2. 25, 3~4면.

825) 리효순, 「공업 생산품의 질 제고를 위한 직맹 단체들의 과업에 대하여」, 『로동자신문』, 1959. 3. 15, 2~3면.

을 강조하는 분위기와 구조에서는, 비록 유홍철 같은 예외적 경우도 있긴 하지만, 노동자들이 생산의 질을 따져가며 일하기는 어려운 문화가 생겨나는 것이다.

제품의 질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노동보호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개혁 시기부터 강조되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노동보호 사업이었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는 점차 생산현장에서 노동보호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미 1957년에 함경남북도를 시찰한 푸자노프 소련 대사는 자신이 방문한 거의 모든 기업들의 소방대책이 매우 불량함을 지적하였다.<sup>827)</sup> 1959년에 들어서 박택정은 노동보호 감독원들이 자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논설을 『로동자신문』에 실었다. 그 뒤로도 『로동자신문』에는 계속해서 노동보호 사업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기사가 주기적으로 올라왔다.<sup>828)</sup> 이는 현장에서 노동보호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었다.

북한 지도부는 노동보호에 대한 책임을 직맹 측에 돌렸다. 리효순은 직맹 중앙위원회 제13차 확대전원회의에서 당의 노동보호 정책을 직맹 일꾼들이 정확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장의 직맹 간부들이 노동보호 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sup>829)</sup> 혹은 노동자들이 아직 신입이라 기능이 부족하거나, 방심하고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

---

826) 「대소 10여만개의 제품을 가공하면서 한건의 오작도 안 났다」, 『로동자신문』, 1959. 12. 13, 2면; 「불길은 집단 속에 확대되고 있다」, 『로동자신문』, 1960. 3. 30, 2면; 「12만개의 부속품을 오작 없이」, 같은 면.

827) 「소련 대사 푸자노프의 일지(1957년 5월 6일~5월 29일)」, 『사료집 74』, 2013, 87쪽.

828) 「본받을만 한 경험」, 『로동자신문』, 1959. 2. 11, 2면; 「로동 보호 안전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경험 교환회 진행」, 『로동자신문』, 1959. 7. 31, 2면; 「당의 로동 보호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같은 면; 「당의 로동 보호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자!」, 『로동자신문』, 1959. 8. 21, 1면; 「로동 보호 사업을 개선 강화하기 위한 경쟁을 광범히 전개하자」, 『로동자신문』, 1959. 9. 25, 2면; 「로동 보호 기술안전 사업을 강화하자」, 『로동자신문』, 1960. 2. 14, 1면; 안승호, 「우리 당의 로동보호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자」, 『로동자신문』, 1960. 7. 13, 3면; 「당의 로동 보호 정책을 철저히 관철시키자」, 『로동자신문』, 1960. 9. 11, 2면; 「로동 보호 사업을 더욱 철저히」, 『로동자신문』, 1960. 12. 21, 2면.

829) 「당의 로동 보호 정책을 정확히 관철시킬 데 대하여」, 『로동자신문』, 1959. 8. 22, 2~3면.

고가 발생한다는 것이 지도부의 인식이었다.<sup>830)</sup> 어느샌가 북한 지도부는 그들이 비판하였던 일제강점기의 자본가처럼 잘못을 노동자 개인에게 떠넘기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역시 근본 원인은 생산 계획을 다그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었다. 생산현장에서는 제1차 5개년계획 시작 즈음부터 안전을 포기하면서라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을 상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보수성과 소극주의를 버리라는 천리마운동의 구호에는 안전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경멸’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었다. 1957년 스코다 148호 기관차를 몰던 기관사는 화실에서 가스가 새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것을 수리하려면 기관차를 멈추어야만 하는 상황이었건만, 최영욱 기관사는 젖은 가마니를 뒤집어 쓴채 그대로 수리도구를 들고 화실 속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조사들은 위험하다고 말렸건만, 그는 수리를 위해 기차를 멈췄다면 열차 운행에 큰 지장을 주었을 것이라면서, 이런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일수록 “자기 몸도 아끼지 않는 그런 애국적 헌신성과 용감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교하였다.<sup>831)</sup>

그나마 최영욱 기관사는 사람의 목숨이 오가는 판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였지만,<sup>832)</sup> 북한의 생산현장에서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가고 있었다. 윤세중이 용해공들 취재를 나갔을 때, 그들은 출강 도중에 이미 로의 보수 작업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런데 왜 출강 중에 로 보수를 합니까? 위험하지 않아요?” 윤세중이 급하게 묻자, 용해공 추상수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보수 시간을 단축하느라고 그러지요.”<sup>833)</sup>

목표 달성을 위해서 노동보호나 안전 규정을 지키는 것은 황해제철소 직장

---

830) 「안전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로동자들을 교양」, 『로동자신문』, 1959. 8. 21, 2면.

831) 박덕수, 「영웅 기관차」, 『조선문학』120,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8, 104~105쪽.

832) 박덕수, 앞의 글, 1957, 105쪽.

833) 윤세중, 「용해공들 - 불'길 치솟는 로 앞에서-」, 『조선문학』115,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3, 130쪽.

장의 말처럼 “안전제일주의”라고 폄하되고 있었다. 안전을 고려하며 일하는 것이 생산 성과를 내는데 지장을 준다면, 이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는 명백해지고 있었다. 황해제철소 직장장 한기창은 출선(出銑) 과정에서 안전을 고려하여 로의 온도를 떨어뜨리려는 젊은 기수에게 그것은 “안일한 방법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출선하기 위해 로의 온도를 떨어뜨리면 “이미 생겼던 통풍로가 콕스와 광석 부스러기 때문에 죄다 메꿔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통풍로를 뚫는 데 많은 풍압이 소모되고” “그만큼 콕스도 더 소비”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직장장의 이유였다. 직장장은 그 날 기어코 로의 온도를 최고로 유지하라고 기수에게 명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 온도를 보장하지 않는 날에는 비판대에 올려 세우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sup>834)</sup>

노동보호가 유명무실해진 채 강압적으로 성과를 추동하려는 상황에서 안전 사고는 이미 준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제 사고는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바쳐서 감내해야 하는 노동계급의 자기희생의 한 장이 되었다. 그 또한 제1차 5개년계획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을 비날론 공장 건설과정에서 확연히 꽃피웠다. 비날론 공장 건설 과정을 담은 북한 공식문헌에서는 노동자들의 ‘영웅적’ 성취를 따로 지면을 할애하였다. 그 중에서 네 건의 사례는 작업 도중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에 관한 것이었다. 그 중 두 개는 실제로 노동자가 큰 부상을 당한 사례였다. 그러나, 이미 북한 공식문헌은 그러한 안전사고를 당한 것 자체가 바로 노동계급으로서, 또한 공산주의적 근로인민으로서 가장 고매한 덕성을 드러낸 것으로 상찬하고 있었다.

초산정류직장 건설이 거의 완공되어갈 무렵인 1961년 3월 말경, 5월 1일 조업 개시는 이미 정해진 채, 마감일에 맞춰 돌격 노동이 실시되고 있었다. 이때 조립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임시로 용접을 한 9 톤 무게의 굴뚝 기둥이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건설 지원차 나와있던 인민군 리인식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말했다. 기둥이 무너진다면, 건물 붕괴는 물론 아

834) 박태민, 「용광로 리용 계수 0.56」, 『조선문학』136,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2, 18~24쪽.

래쪽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참혹하게 죽거나 다칠 상황이었다. 리인식은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기둥에 묶여있는 밧줄을 손에 쥐고 잡아당겼지만 한 사람의 힘으론 어림도 없었다. 더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한 순간, 리인식은 밧줄을 감아 권 주먹을 그대로 밧줄 고리에 집어넣어 자기 팔목으로 제동을 걸기로 결심하였다. 사정없이 잡아당기는 힘에 의하여 고리에 낀 그의 주먹 뼈는 으스러졌고 손목도 끊어지고 말았다. 그의 이런 끔찍한 자기희생으로 인하여 기둥이 기울어지는 속도가 늦춰졌고, 다행히 다른 노동자들이 이를 발견하여 더 큰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sup>835)</sup>

리인식 만이 아니었다. 비날론 공장 건설 과정에서 노력영웅 고두만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굴뚝 속에 그대로 들어가 청소를 하였으며, 한 제관공 작업반장은 가열되고 있는 철판을 밟고 서서 단조 작업을 하였다. 그의 용감한 행위에 다른 작업반원도 전부 그를 따라 가열된 철판을 밟고 작업을 하게 되었다. 공장 배수로 기초공사 작업중 흙 사태가 일어날 위기에 처하자 동원된 인민군 병사 세 명은 자기 몸을 그대로 버팀목처럼 끼워서 붕괴를 막아내기도 하였다. 그들의 행위가 목표 달성을 위해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헌신적인 것은 인정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북한 지도부가 노동자에게 이처럼 대의나 작업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것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 상찬·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이처럼 위험과 고통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의식의 기반은 바로 ‘우애’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집단주의에 있었다.<sup>836)</sup>

#### 4) 소결

835) 「붉은 심장 - 공산주의 전사 리인식 영웅에 대한 이야기-」, 『비날론 공장 건설』, 국립건설출판사, 1961, 292~295쪽.

836) 「불보다 더 뜨거운 심장 - 로력 영웅 고두만 동무에 대한 이야기-」, 「한 제관공에 대한 이야기」, 『평화의 전사들』, 모두 위의 책, 1961.

소련과의 관계 악화, 대내외적 안보 위기의 증가 속에서 당 비주류를 숙청 하는데 성공한 김일성은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강행하였다. 자립경제 건설을 통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실행된 제1차 5개년계획은 외부 원조가 급감한 가운데 노동자들의 적극적 호응과 열의에 기대어 수행할 수 밖에 없었다. 노동자들은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생산현장에서 예비를 찾아내고, 기술혁신을 이루어 나가야 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당시 집단적 혁신운동이라 불렀던 천리마운동을 받기하였다. 천리마운동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 완료 선언 이후 공산주의 발전을 전망하는 가운데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발전하여, 작업반을 단위로 한 증산과 인간개조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다.

제1차 5개년계획 시기, 외부원조의 감소로 인하여 생산을 위한 각종 원자재, 연료 등이 부족하였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원료·연료, 각종 설비·기계의 국산화가 매우 중요해졌다.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석탄 등 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에 대량으로 존재하는 무연탄을 더 많이 캐야 했다. 그에 따라 이 시기 대규모 탄광 개발이 추진되었으며, 여기에는 청년들이 대거 동원되었다. 또한 기계공업의 발전에 힘입어 이 시기 다수의 기계, 설비 등의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국산화 과정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이를 영광스럽게 여겼으며, 역설계를 해서라도 시제품을 만들고자 열성을 발휘하였다.

노동력 부족도 더욱 심각해졌다. 1958년 농업협동화 완료로 인해 농촌에서 신규 노동자 확보가 어려워졌기에, 여성의 생산현장 진출이 더욱 장려되었다. 하지만, 양적 노동력 확보는 한계가 있기에 더 중요한 것은 기계화와 기술혁신이 끊임없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차 5개년계획은 추진되었는데, 이를 생산현장에서 주도한 이들은 열성노동자, 그리고 작업반장이었다. 열성노동자들은 당 주류의 입장에 동조적인 노동자들로 당과 최고지도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사상성을 중시하며, 매우 금욕적·극기적이며 성취를 우선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작업반장은 그에 비해 조직가, 갈등 조정자,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천리마작업반운동 단계에서 작업반장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대표적인 작업반장은 길확실이었다. 길확실은 타고난 낙후분자는 없으며, 동료들 동지로서 진심으로 믿고 아끼고 사랑하고 인내성 있게 교양할 것을 설파하였다. 길확실은 작업반을 노동자들의 연대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데 기여하였다.

제1차 5개년계획은 사회주의 이행의 완료라는 북한 체제의 중요한 변곡점 전후로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공산주의 건설을 전망하면서, 노동자들의 의식을 먼저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 천리마작업반운동이 전개되었다.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집단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태도를 의미하였다. 이를 위해 이기주의적 태도에 대한 대대적 비판이 전개되었으며, 노동자 개조를 위한 수단으로 칭찬과 긍정 교양이 강조되었다. 이런 개조의 과정은 바로 작업반 내 인간관계를 통해 실천되었다. 그러려면 작업반을 상호부조와 '우애'에 입각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작업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는 노동자들의 열의와 참여를 높일 수 있었고, 이런 아래로부터의 열기를 이용하여 북한 지도부는 5개년계획을 3년 6개월만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속도와 자기희생에 대해 강요하는 문화로 나타났다. 속도의 강요는 생산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안전을 고려하며 일하는 것을 멸시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책임을 다하는 것을 상찬하는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그에 따른 인명 손실이나 희생은 마치 노동계급의 숭고한 자기희생처럼 미화되기에 이르렀다.

## 5. 결론

이상 본론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방 직후 북한의 산업은 사실상 마비 상태였다. 생산시설은 파괴되었으며, 노동자와 기술자도 부족하였다. 이런 가운데 남아 있던 노동자들은 공장을 복구하고 조업을 재개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소련 또한 이를 지원하였다. 그런 가운데 1946년의 민주개혁 조치는 북한 지역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법령의 실시를 통해 노동자들은 8시간 노동,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회보험제, 노동보호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다.

당시 북한 정권은 노동자들과 일종의 ‘쌍무적 계약관계’를 지향하였다. 즉, 노동자에게는 증산과 규율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정권과 관리자에게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양자가 완전히 대등한 것은 아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비해 노동조건이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였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참여한다는 열정을 갖거나, 생활 수준의 향상, 고급 직종으로의 진출과 같은 개인적 동기에 의거하여 자발성을 보였다. 그렇지만, 새로운 국가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기에 보은해야 한다는 인식도 드러내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생산현장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모범노동자들도 나타났다. 이들도 사상적인 추동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성실함이나 노력, 경쟁심에 근거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한국전쟁의 발발은 북한의 노동 문제에도 큰 변화를 불러왔다. 3년간의 전쟁으로 생산시설은 극심하게 파괴되었으며, 기존의 남성 노동자들도 대거 생산현장에서 사라졌다. 전시에 생산현장을 지킨 것은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전후 복구와 산업화는 모든 것이 부족한 가운데 노동자들의 열성과 노력으로 진행되었다.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농민, 여성, 군인, 청년 등에서 새로운 신입 노동자가 대거 들어오면서 노동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이 ‘신세대’ 노동자들의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해 정권과 관리자 측은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임금과 물질적 대우, 주거 제공 등 물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강한 노동규율과 비판·자아비판을 통해 통제하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그런 압력을 순순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결국 관리자들은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작업반장과 반원의 사회적 관계가 강화되어야 노동자의 ‘열성적’ 생산 참여가 가능했던 것이다.

북한의 전후 복구는 소련, 중국, 동유럽 등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원조에 힘입어 진행되었다. 북한 지도부는 원조를 바탕으로 산업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원조 결과 생산현장에는 신기계, 신기술·작업방법이 도입되었다. 또한 외국 기술자들이 직접 북한에 와서 생산현장과 도시 복구를 도왔다.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이 벌어지면서, 북한 경제와 노동 문제에도 영향이 미쳤다. 소련·중국의 내정 개입에 불만을 가진 김일성은 당 비주류를 숙청하고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강행하였다. 자립경제 건설을 통한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렇지만, 해외 원조가 급감하는 가운데 강행된 제1차 5개년계획은 시작부터 위기였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자들의 적극적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노동자들은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공을 위해 생산현장에서 예비를 찾아내고, 기술혁신을 이루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천리마운동이 나오게 되었다. 천리마운동은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 완료 선언 이후 공산주의 발전을 전망하는 가운데 ‘천리마작업반운동’으로 발전하여, 작업반을 단위로 한 증산과 인간개조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다.

제1차 5개년계획 시기, 생산을 위한 각종 원자재, 연료 등의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국산화 문제가 불거졌다. 수입에 의존했던 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무연탄의 대량 채굴과 대체연료 활용이 모색되었다. 또한 기계공업의 발전에

힘입어 다수의 기계, 설비 등의 국산화가 이루어졌다. 국산화 과정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이를 영광스럽게 여겼으며, 역설계를 해서라도 시제품을 만들고자 열성을 발휘하였다. 제1차 5개년계획 시기에는 노동력 부족 문제도 더 심각해졌다. 1958년 농업협동화 완료로 인해 농촌에서 신규 노동자 확보가 어려워졌기에, 여성의 생산현장 진출이 더욱 장려되었다. 하지만, 양적 노동력 확보는 한계가 있기에 기계화와 기술혁신이 더욱 강조되고 있었다.

1958년 북한은 사회주의 이행 완료를 선언하였다. 이제 사회주의 너머를 전망하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의식개조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에 따라 증산과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동시에 추구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이 나오게 되었다. 공산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집단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태도를 의미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 속에서 이기주의적 태도에 대한 대대적 비판이 전개되었으며, 의식개조를 위한 수단으로 칭찬과 긍정 교양이 강조되었다. 개조의 과정은 바로 작업반 내 인간관계를 통해 실천되었다. 그러려면 작업반을 상호부조와 '우애'에 입각한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였다.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작업반장의 역할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작업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는 노동자들의 열의와 참여를 높일 수 있었고, 아래로부터의 열의를 바탕으로 북한 지도부는 5개년계획을 3년 6개월 만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는 곧 속도를 강조하고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문화로 나타났다. 속도의 강요는 생산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안전을 고려하며 일하는 것을 멸시하고,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책임을 다하는 것을 상찬하게 만들었다. 그에 따른 인명 손실이나 희생은 마치 노동계급의 숭고한 자기희생처럼 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본 논문이 찾은 결론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 이후 노동자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젊은 신입 노동자들이 들어왔다. 이들은 생산현장에서 연대의식이 높아질 때 직장에 대한 애착을 갖고 노동 의욕을 고취할 수 있었다. 이는 전후 복구 단계에서 반원과

반장 간의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통해 그 단초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것이 천리마작업반운동을 통해 작업반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북한의 집단주의가 공동체적 관계가 성립 가능한 작은 단위인 작업반을 통해 구현되었기 때문이다. 상호부조가 강화되면서 연대 의식이 높아진 노동자들은 적극적인 증산 의욕을 보일 수 있었다. 이것은 북한식 ‘사회주의’ 노동자의 중요한 특성이 되었다.

둘째, 국가에 의한 강한 노동통제와 강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도 나름의 합리적 의사 결정에 의거하여 자기 노동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노동자들은 개인적인 동기나 물질적 이득에 따라 직장을 선택하기도 하고 유동하기도 하였다. 초기의 모범노동자 또한 사상적인 이유라기보다는 본래 가진 성실함이나 경쟁심과 같은 이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노동자들은 만일 자신의 사정이 어려울 때, 관리자 측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만한 어깃장도 부릴 줄 알았다. 노동자들은 현지지도 나온 김일성을 보고 감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필요한 조건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단지 물질적 이해관계만 추종한 것도 아니었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이 인민경제 건설에 이바지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열의를 보였다. 다만 그들도 개인마다 각자 추구하는 바나 욕망이 있었기에, 그것을 생산현장에서 풀어가거나 인정받고자 하였다. 북한의 노동자는 국가와 관리자 측이 일방적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해와 요구에 대해 존중하고 합당한 대우를 제공할 때 그만한 열성과 의욕을 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범노동자들이라고 해서 사회주의 사상에 투철해서 모범인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인정 욕구가 강한 노동자였던 것이기도 하였으며, 체제에 충실하고 실력이 뛰어난 노동자라 하여도 자기 기분에 따라 의식적으로 ‘낙후한’ 행동을 자행할 수도 있었다. 노동자의 사상을 개조하려는 ‘총화’ 방법에 대해서 수용하는 이도 있으나, 외려 모욕당했다고 느껴 화를 내는 노동자도 있었다. 일견 ‘낙후’해

보였던 노동자들도 계기에 따라서 적극적이며 성실한 노동자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록 자료의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보인 다양하고 역동적인 군상은 북한 체제를 정권의 동원과 통제로만 설명하는 것이 편협한 지반 위에서 서 있음을 반증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로동자신문』을 비롯하여 그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북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몇 가지 새롭게 찾아낸 사실들이 있었다. 우선, 기존 연구들에서 전시노동규율 폐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었으나, 『로동자신문』을 통해 정전 이후 1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것이 폐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초의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강선제강소에서 벌어졌다고 알려져 왔는데, 같은 의미를 지닌 ‘천리마 브리гада 운동’이 바로 직전에 유경임산사업소에서 발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후자의 운동 또한 당시에는 천리마작업반운동의 공동 시초로서 인정받았으나, 얼마 안 있어 정권의 의도에 따라 묻혀지고, 강선제강소의 운동만이 정통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다. 그 밖에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던 ‘북한노획문서’를 통해서도 기존 연구에서 전후에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던 노동수첩제가 전쟁 이전에 이미 실시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가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권, 즉 위로부터의 압력은 노동 참여의 외적 조건으로서 작동할 수는 있으나, 노동자의 자발성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 비록 노동자의 자발성 또한 끊임없이 동원과 통제의 과정 속에서 도출된다 할지라도, 근본은 개별 노동자의 내적 동기에서 비롯되고 있다.

둘째, 그 내적 동기를 발양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관계 맺는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생산현장에서 ‘작업반’이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작업반은 결국 직장의 생산 단위라는 점에서 노동자의 온전한 자발성에 근거한 집단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은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어려움에 처한 북한 경제의 측면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열의와 협력을 고

취시키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자발적 조직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생산현장의 실례를 위주로 북한 노동자들의 진면목에 다가서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다음 문제들을 계속 고민해야 할 것이다.

첫째, 천리마작업반운동 이후 1960년대 노동과 노동자 문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천리마작업반운동 시기 보여주었던 작업반의 역할은 그 이후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기하였듯이 작업반은 직장의 생산 단위라는 점에서 볼 때 온전한 자발적 조직은 아니다. 또한 작업반 내 노동자 관계도 한편으로는 평등한 개인 간의 관계를 담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반장-반원 관계에서 드러나는 후견-피후견 관계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것이 천리마작업반운동 단계에서 노동자 연대의식의 발양에 좋은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둘째, 북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보다 직접적으로, 보다 선명히 들을 수 있는 자료를 계속해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자료의 확보가 어렵다면, 그만큼 이론과 연구방법론을 갈고 닦을 필요가 있다. 셋째, 남북 노동자 비교, 혹은 사회주의 노동자 비교를 통해 북한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야 할 것이다. 넷째, 궁극적으로 북한 인민의 역사상을 그려나가기 위해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인테리까지 아울러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신문, 잡지>

『로동자신문』

『로동신문』

『근로자』

『인민』

『경제건설』

<결정집, 연감, 일지, 사전>

『경제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85

『조선대백과사전』, 백과사전출판사, 199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령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집 1 (一九四八~一九五〇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령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집 2 (一九五一~一九五三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령 및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집 3(一九五四~一九五五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955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각년도판

<수기, 회고록>

길확실, 『천리마 작업반장의 수기』, 직업동맹출판사, 1961

리명원, 『건설 작업반장의 수기』, 민청출판사, 1961



원도중, 『강철 전사의 수기』, 직업동맹출판사, 1963  
전현수 편저, 『쉬띠꼬프 일기(1946~1948)』, 국사편찬위원회, 2004  
『레베데프 비망록』

<단행본>

고창훈, 『노동보호 실제 사업에 있어서의 제문제』, 국립출판사, 1955  
『공화국 경제 축적의 기본 원천』,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김일성,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56  
로동성 노동과학 연구소 편, 『노동법규집 제1부』, 국립출판사, 1954  
로동성 노동과학 연구소 편, 『노동법규집 제4부』, 국립출판사, 1955  
『노동자임금표』, 로동성, 1949  
배영기, 『생산 직장에서의 노동 위생』, 국립출판사, 1955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사법국 편, 『北朝鮮法令集』, 1947  
『비날론 공장 건설』, 국립건설출판사, 1961  
『우리들의 작업 합리화』, 노동자신문사, 1954  
윤명수, 『조선과학기술발전사(해방후편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4  
윤세중, 『천리마공장 사람들』, 직업동맹출판사, 1965  
『조선로동당 제4차 대회 주요문헌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경제법학연구소, 『해방후 우리나라의 인민경제 발전』, 과학원출판사, 1960

<남한·일본에서의 편집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김선안 역, 『러시아문서 번역집 XXIX -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АВП P), 러시아국립사회정치사문서보관소(РГАСПИ)』, 선인, 2017

- 朴鐘濤 편, 『러시아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I』, 선인, 2010
- 『북한관계사료집』, 국사편찬위원회
- 『北韓法令集 第4卷』, 대륙연구소, 1990
- 『北韓最高人民會議資料集』, 國土統一院, 1988
- 『주북한소련민정국 3개년 사업총결보고: 1945년 8월~1948년 11월』, 러시아 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
- 『朝鮮勞動黨大會資料集』, 國土統一院, 1988
- 木村光彦 編譯, 『旧ソ連の北朝鮮經濟資料集 1946-1965年』, 知泉書館, 2011

<논설>

- 강능수, 「봄은 이렇게 왔다」, 『조선문학』13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8
- 고일환, 「현지보고 - 남포건직녀공들」, 『로동자』1949년 3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 근로자편집부, 「로동규를 강화를 위하여」, 『근로자』1949년 14호, 1949
- 김귀, 「현지보고 - 원산조선소의 하루」, 『로동자』1949년 4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 김근오, 「우리는 송남으로 간다」, 『조선문학』122,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10
- 김덕운, 「무연탄의 해'불」, 『조선문학』123,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11
- 김동찬, 「기관, 기업소 건설장 들에서 녀성로력을 더욱 광범히 인입하자」, 『로동』1958-10, 로동기술도서출판사, 1958
- 김두만, 「쏘련채탄기사들의 방조로 탄주식 채탄을 장벽식으로」, 『로동자』조쏘 친선 특별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1
- 김두석, 「오늘의 휴양은 내일의 증산」, 『로동자』1949년 6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 김문숙, 「기술자 양성에 결의높은 김용길 동무」, 『로동자』1949년 1호, 북조선

- 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 김문웅, 「현지보고 - 건설의 투사들」, 『로동자』1949년 10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 金民道, 「民主主義勞動規律의 強化에 對하여」, 『근로자』17, 1948
- 金成律, 「勞動災害와 豫防對策」, 『로동』1, 1949. 3
- 김영석, 「혁신자」, 『조선문학』125,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
- 김영철, 「젊은 개발자」, 『조선문학』133,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9
- 김원경, 「국가의 우대에 대하여 열화같은 증산으로 보답」, 『로동』3, 로동성, 1949. 7
- 김원만, 「쏘련기사의 기술적 방조로 강선제강소는 복구되었다」, 『로동자』조쏘친선 특별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1
- 김원석, 「사회주의 건설의 비약적 발전과 로력 문제」, 『근로자』156, 1958. 11
- 김일성, 「공산주의 교양에 대하여」, 『근로자』157, 1958. 12
- 金章烈, 「火田農民의 職場轉出에 關한 內閣決定의 正確한 實施를 爲하여」, 『로동』5, 1949. 12
- 김정호, 「뽀나도리 기관수에게 운전기술을 배우던 때를 회상하면서」, 『로동자』조쏘친선 특별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1
- 김찬, 「산업발전과 인민의 물질·문화수준향상에 대한 전망」, 『근로자』1950년 3호, 1950
- 김춘점,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의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의 향상」, 『우리나라의 인민경제발전 1948-58』, 국립출판사, 1958
- 김태선, 「나는 구락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 『로동자』1950년 1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50
- 김호철, 「로동계급 속에서 자라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김성학 동무」, 『로동자』5,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0
- 김황일, 「로력 후비와 로력 원천 해결의 길」, 『근로자』96, 1953. 11

- 남궁滿, 「製絲工場記」, 『朝鮮文學』창간호, 北朝鮮文學藝術總同盟, 1947. 9
- 당운실, 「생산책임량을 초과 완수하는 기쁨으로」, 『로동』3, 로동성, 1949. 7
- 로수역, 「직장위원회의 사회보험 협조사업에 대하여」, 『로동자』1949년 5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 로수역, 「정확한 도급제 실시를 위한 몇가지 문제」, 『로동자』1949년 12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 리국순, 「홍남비료공장 노동자들이 걸어 온 승리의 길」, 과학원역사연구소근세 및최근세사연구실 편, 『력사론문집 제4집(사회주의건설편)』, 과학원출판사, 1960
- 리금순, 「로동법령과 녀성」, 『로동』3, 로동성, 1949. 7
- 리근영, 「아름다운 하루-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조선문학』116,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4
- 리영규, 「미더운 후비대」, 『조선문학』139,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3
- 리인견, 「제품의 질적향상을 위해 싸우는 당운실 동무」, 『로동자』1949년 1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 리정하, 「무사고 정시 운행으로」, 『로동』3, 로동성, 1949. 7
- 리정화, 「모범로동자가 되기까지」, 『로동자』1949년 11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 리중원, 「내부원천의 적극적 탐구와 합리적 리용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강력한 물질적 력량이다」, 『경제건설』1957. 1, 경제건설사, 1957
- 리직, 「10년간」, 『조선문학』13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7
- 리직, 「교훈」, 『조선문학』146,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10
- 리창덕, 「일하며 배우고 배우며 일하자」, 『로동』3, 로동성, 1949. 7
- 리춘진, 「복구장으로」, 『조선문학』1954년 7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7
- 리춘진, 「조선소에서」, 『조선문학』107,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7
- 리춘진, 「직공장 김병천」, 『조선문학』14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5

- 리택진, 「고귀한 수확-평양 방직 공장을 찾아서-」, 『조선문학』127,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3
- 리홍중, 「사회주의적 생활 태도에 대하여」, 『근로자』152, 1958. 7
- 리효운, 「문학 장르 오-체르끄에 관하여-창작 방법을 중심으로-」, 『문학예술』 5권 12호, 문예총출판사, 1952. 12
- 「모범로동자 좌담회 - 치렬히 전개되는 개인경쟁」, 『로동자』1949년 4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 박근, 「광맥을 정복하는 사람들 속에서」, 『조선문학』1954년 6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6
- 박근, 「로력과 지혜의 영웅」, 『조선문학』130,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6
- 박근, 「일년반 단축을 위하여」, 『조선문학』135,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1
- 박덕수, 「영웅 기관차」, 『조선문학』120,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8
- 박덕수, 「전도 주시!」, 『조선문학』129,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5
- 박병일, 「광산 탄광 립산 로동자들의 우대에 대한 정부의 배려」, 『로동자』 1949년 7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 박일, 「八대지공에 빛나는 김춘길 동무」, 『로동자』8,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2
- 박임선, 「탄광 광산 로동자들의 우대에 관한 내각결정은 공화국북반부의 정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실증한다」, 『로동』3, 로동성, 1949. 7
- 박임선, 「二개년인민경제 계획과 로력수급및 정착에관한 몇가지 문제」, 『인민』 4권12호, 1949
- 박종모, 「탁아소의 하루」, 『로동자』1949년 6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 박진, 「오체르크 - 채석 브리가다」, 『조선문학』1954년 1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4. 1

- 박철, 「증산에 돌격하는 원산철도공장」, 『로동자』5,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0
- 박태민, 「녀성 기증기 운전수」, 『조선문학』 1955년 5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5
- 박태민, 「용광로 리용 계수 0,56」, 『조선문학』136,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2
- 박태민, 「로동복을 갈아 입고」, 『조선문학』138,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2, 본사기자, 「함북탄전 답사기」, 『로동자』2,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집행위원회, 1948. 6
- 「산업부문 경제 및 직맹 열성자 대회에서 진술한 김일성수상의 총결 연설」, 『근로자』1949년 22호, 1949.
- 신승만, 「날로 향상되어가는 로동자의 물질문화생활」, 『로동』1, 로동성, 1949. 3
- 辛承萬, 「建設部門의 賃金調節 및 都給制의 正確한 實施를 爲하여」, 『로동』2, 로동성, 1949. 3
- 안희남, 「수로공 이야기」, 『조선문학』135,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11
- 양기영, 「모범로동자 대의원 김태런 동무」, 『로동자』5,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0
- 원기년, 「로동행정사업의 강화를 위하여」, 『로동』2, 1949. 6
- 유경숙, 「로동녀성들의 투쟁 - 남녀평등권법령 발표 삼주년을 맞으며」, 『로동자』1949년 7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 윤두현, 「창조자들-8.15 해방 10주년을 맞는 한도겸 동무를 찾아서-」, 『조선문학』1955년 8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8
- 尹祥鎬, 「工場安全施設에 對하여」, 『로동』2, 로동성, 1949. 6
- 윤세중, 「용해공들-불'길 치솟는 로 앞에서-」, 『조선문학』115,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3

- 윤시철, 「로력 영웅 최성수」, 『조선문학』 1955년 10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10
- 尹義燮, 「勞動手帖制를 正確히 實施하여 勞動者의 技術技能을 향상하자!」, 『로동』1, 1949. 3
- 윤하규, 「근로자들 속에서의 집단주의 교양」, 『근로자』159, 1959. 2
- 윤행중, 「2개년 인민경제계획과 1950년도의 보다 높은 성과를 위하여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인민』1950년 1호, 1950
- 李樂默, 「社會保險의 長成과 成果」, 『로동』3, 로동성, 1949. 7
- 임순득, 「따뜻한 손'길 속에서-조사공 전춘복의 걸어 온 길-」, 『조선문학』114,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2
- 임해, 「1949년 인민경제계획 제1·4분기 예정숫자 실행에 있어서의 몇 가지 경험과 금후 과업에 대하여」, 『인민』1949년 5호, 1949
- 전동우, 「편지」, 『조선문학』139,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9. 3
- 鄭義烈, 「勞力需給事業을 成果있게 保障하자」, 『로동』1, 로동성, 1949. 3
- 정준택, 「1947년도 인민경제발전에 관한 예정숫자 실행에 대한 전망」, 『인민』1947년 4호, 1947
- 조달봉, 「쏘련기사들의 방조로 조선산업은 면모일신」, 『로동자』조쏘친선 특별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8. 11
- 조명수, 「현지보고 - 쏘련기사 찌쓰또브씨와의 반년간」, 『로동자』1949년 10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1949
- 조정국, 「독로강의 분류」, 『조선문학』131,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7
- 車淳鵬, 「勞動法令違反者와의 鬪爭」, 『로동』3, 1949. 7
- 채규달, 「正當한 賃金組織은 生産力을 높인다」, 『로동』2, 로동성, 1949. 6
- 蔡奎達, 「鑛山炭鑛部門에 있어서의 正確한 賃金制 實施를 爲하여」, 『로동』5, 로동성, 1949. 12
- 채규달, 「로력임금부 사업의 一年」, 『로동자』1949년 12호, 북조선직업총동맹

- 중앙위원회, 1949
- 천청송, 「모범기'발」, 『조선문학』117,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7. 5
- 최인준, 「현지보고 - 금강산 발전소」, 『로동자』1949년 3호, 북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1949
- 최호동, 「로동법령과 문화건설」, 『로동』3, 1949. 7
- 태성수, 「조쏘량국간의 경제및 문화협조에대한 협정과 우리공화국의 번영 발  
전의 一年」, 『인민』5권 3호, 1950
- 한봉선, 「나와 모범로동자」, 『로동자』1949년 12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  
회, 1949
- 한선옥, 「六대기를 운전하기까지」, 『로동자』1949년 11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  
앙위원회, 1949
- 한설야, 「강철-성진 제강소에서-」, 『조선문학』1955년 9호, 조선작가동맹출판  
사, 1955. 9
- 한성, 「로동에 대한 이야기」, 『조선문학』1955년 12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12
- 한성, 「맹세」, 『조선문학』103,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6. 3
- 韓昌南, 「勞働者 事務員들의 生活水準改善向上對策에 關하여」, 『근로자』21,  
1948
- 현훈, 「화염보다 더 뜨겁다」, 『조선문학』129,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8. 5
- 현희균, 「전력 만세!-로동 일기 중에서-」, 『조선문학』145, 조선작가동맹출판  
사, 1959. 9
- 홍만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경쟁 운동의 발전과 친리마 작업반 운동」,  
『8·15 해방 15주년 기념 경제 논문집』, 과학원출판사, 1960
- 홍복수, 「산전산후의 보호를 받고」, 『로동자』1949년 6호, 북조선직업총동맹중  
앙위원회, 1949
- 홍지훈, 「탄광에 있어서의 안전시설」, 『로동자』2, 북조선직업총동맹중앙집행위



원회, 1948. 6

황건, 「열두삼천리벌에서」, 『조선문학』1955년 7호,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7

## 2. 연구문헌

### 1) 단행본

강호제, 『북한과학기술형성사』, 선인, 2007

郭健弘, 『日帝의 勞動政策과 朝鮮勞動者』, 신서원, 2001

김경미, 「1945-1959년 북한의 임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김광운 외,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김보근, 「북한 ‘천리마 노동과정’ 연구: ‘소련식 테일러주의’의 도입·변질과정」,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김성보,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역사비평사, 2000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역사비평사, 2001

김재웅, 『북한 체제의 기원』, 역사비평사, 2018

남근우, 「북한의 복종과 저항의 정치 : 생산현장에 나타난 공식/비공식 사회관계(1950-70년대)」,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박영자, 「북한의 생산관리제도와 노동자 계급」,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박영자, 『북한 여자: 탄생과 굴절의 70년사』, 엘피, 2017

박정진, 「북한의 ‘생산정치(Politicis of Production)’와 노동자 조직의 성격변

- 화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정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6
- 박진홍, 『돌아온 패자』, 역사비평사, 2001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 북한 사회주의 건설의 정치경제학-』, 연구사, 1994
- 서동만, 『북조선 사회주의체제 성립사 1945~1961』, 선인, 2005
- 성혜량, 『등나무집』, 지식나라, 2000
- 선즈화 저, 김동길·김민철·김규범 역, 『최후의 천조(天朝)』, 선인, 2017
- 송두율, 『소련과 중국: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 농민 지식인』, 한길사, 1990
- 신대원, 「전후 북한의 사상개조운동 연구: 1955년 ‘反貪汚·反浪費 투쟁’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7
- 윤해숙, 「북한 대중 동원 정책의 전개와 노동의식의 변화(1946-1961)」,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상의, 『일제하 조선의 노동정책 연구』, 혜안, 2006
- 이세영, 「북한 노동자층의 형성과 의식 변화-‘천리마작업반운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 이승목, 「북한 집단주의의 형성 및 변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5
- 이시연, 「북한 원조의 정치 경제학 : 1950년대 소련 중국 동유럽 사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
- 이태섭, 『김일성 리더십 연구』, 들녘, 2001
- 임순희, 「귀환국군포로 생애사 연구: 끝나지 않는 이산」, 북한대학원대학교 사회문화언론전공 석사학위논문, 2014
- 임해원, 「식민지 산업화시기 노동자들의 대응 연구-노동이동을 통해 본 식민 권력과 저항-」,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장인숙, 「북한의 ‘대중운동’의 성과와 한계: ‘천리마운동’에서 ‘제2 천리마대진군’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북한연구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2001
- 조수룡, 「전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과 ‘자력갱생’ 경제의 형성」, 경희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8
- 조정아, 「북한의 근대 노동 주체 형성 - 공장의 노동 과정과 이데올로기적 생산 장치」, 『근대극복을 꿈꾸는 동아시아의 도전』, 청어람미디어, 2004
- 조창호, 『돌아온 死者: 조창호의 북한 생활 43년』, 지호, 1995
- 차문석, 『반노동의 유토피아』, 박종철출판사, 2002
- 한성훈, 『전쟁과 인민 -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 -』, 돌베개, 2012
- Agov, Avram Asenov, “North Korea in the Socialist World: Integration and Divergence, 1945-1970”, Ph. D.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10
- Chase, William J., *Workers, society, and the Soviet State*,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87
- Gerschenkron, Alexander,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a book of essays*, NY: Fredrick A. Praeger, 1965
- Kim, Cheehyung Harrison, *Heroes and toilers: work as life in postwar North Korea, 1953-1961*,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 Kuromiya, Hiroaki, *Stalin's Industrial Revolu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Siegelbaum, Lewis H., *Stakhanovism and the Politics of Productivity in the USSR, 1935-1941*,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2) 연구논문

- 강윤희, 「스탈린의 산업화 전략과 소련 공산당 기능의 변화, 1928-1932」, 『국제정치논총』42-4, 한국국제정치학회, 2002
- 고요한·김옥주·정준호, 「북한 천리마 운동과 보건 의료 인력의 동원, 1956-1961」, 『한국과학사학회지』40-3, 한국과학사학회, 2018
- 권오윤, 「해방 후 노동조합으로서 북한 직업동맹의 성격 변화(1945~1950)」, 『北韓研究學會報』8권 1호, 2004
- 권오윤, 「북한의 변화추진 가능세력으로서 직업총동맹의 검토」, 『大韓政治學會報』13권 2호, 2005
- 김경옥, 「천리마시대(1956~1972)의 북한 교육교양에 대한 연구」, 『현대북한 연구』21-1,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2018
- 김선호, 「6·25전쟁기 북한의 서울시민 전출사업 연구」, 『서울과 역사』102, 서울역사편찬원, 2019
- 김성보, 「1960년대 남북한 정부의 ‘인간개조’ 경쟁」, 『역사와 실학』53, 역사실학회, 2018
- 김성보, 「남북국가 수립기 인민과 국민 개념의 분화」, 『한국사연구』144, 한국사연구회, 2009
- 김용현, 「1950년대 북한사회 군사화의 내용과 성격」, 『북한연구학회보』6-1, 북한연구학회, 2002
- 김재웅, 「북한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전개와 성격」, 『역사와현실』56, 한국역사연구회, 2005
- 김재웅, 「해방된 자아에서 동원의 대상으로-북한 여성정책의 굴절(1945~1950)-」, 『한국사연구』170, 한국사연구회, 2015
- 김재웅, 「북한의 민간자원 동원정책과 일상적 동원체제의 형성(1945~1953)」, 『한국사연구』175, 한국사연구회, 2016
- 남근우, 「북한 노동문화의 형성과 균열에 관한 연구: 공업화시기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50-4, 2010

- 남성욱, 「남북경협을 대비한 북한 지하자원의 관리체계와 관한 연구: 철, 석탄, 아연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 류한수, 「공장 작업장의 러시아 혁명 : 작업반장과 노동자의 관계를 통해 본 작업장 권력 지형의 변동」, 『슬라브학보』23-3,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08
- 박영실, 「『로동신문』을 통해 살펴본 북한의 전후 복구 과정(1953~1958년)」, 『통일문제연구』59, 평화문제연구소, 2013
- 박영자, 「6·25전쟁과 북한여성의 노동세계: ‘파괴와 反생산’의 전쟁에서 ‘창조와 생산의 주체’였던 여성 연구」, 『아시아여성연구』45-2,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6
- 박창희, 「정전 후 북한 노동자 조직의 성격 변화-1953~1958년을 중심으로-」, 『사림』34, 수선사학회, 2009
- 박태균, 「1950·60년대 미국의 한국군 감축론과 한국정부의 대응」, 『國際地域研究』9권 3호,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0
- 방기중·Suzy Kim, 「정부 수립기 북한의 국가 자주성 인식」, 『東方學志』143,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8
- 손철성, 「노동의 종말과 호모 라보란스의 위기」, 『시대와 철학』21권 2호,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2010
- 신효숙, 「조소 과학기술협력위원회 자료로 본 북러 과학기술협력」, 『현대북한 연구』8-3, 북한대학원대학교, 2005
- 신효숙, 「종합기술교육의 도입과 현 실태」, 북한연구학회 편, 『북한의 교육과 과학기술』, 景仁文化社, 2006
- 예대열, 「해방이후 북한의 노동조합 성격논쟁과 노동정책 특질」, 『역사와 현실』70, 2008
- 예대열, 「해방이후(1945~1950) 북한 경제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史叢』86,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5

- 오유석·구수미, 「여성들의 삶과 의식변화」,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한울아카데미, 2004
- 윤경섭, 「북한·소련의 전시체제 형성 과정 비교 연구-초기 '전시상태'와 국가기관 개편을 중심으로-」, 『사림』61, 수선사학회, 2017
- 이수연·Dean J, Ouellette, 「북한의 경제특구와 노동규율(2)-노동보수제도를 중심으로-」, 『勞動法論叢』47,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9
- 이세영, 「1950년대 북한 노동자층의 형성과 의식 변화-‘천리마작업반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163, 2013
- 이세영, 「1945~1950년 북한의 과학기술과 근로인민 형성에 대한 인식」, 『동방학지』174, 2016
- 이영미, 「북한의 문학 장르 오체르크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2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4
- 이주철, 「북한의 국영기업관리와 노동정책-1946~1948년을 중심으로-」, 『史叢』46,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997
- 이채욱, 「戰後 소련 경제의 변화와 노동계급」, 『인문과학연구』9-1, 서원대학교 미래창조연구원, 2000
- 전현수, 「산업의 국유화와 인민경제의 계획화: 공업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2-1, 북한대학원대학교, 1999
- 조수룡, 「1945~1950년 북한의 사회주의적 노동관과 직업동맹의 노동통제」, 『역사와 현실』77, 2010
- 조수룡,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생산과 중·소의 지원」, 『軍史』8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3
- 조정아, 「산업화 시기 북한 공장의 노동규율 형성: 교육과 동원의 결합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7-1, 북한연구학회, 2003
- 조준배, 「동원을 넘어 동의와 지지의 기제로-스탈린 공업화와 소련 노동조합의 간부 양성 및 교육-」, 『東國史學』46, 東國史學會, 2009

- 조준배, 「복지국가를 향하여?: 스탈린 공업화와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1933~34」, 『동국사학』50, 동국사학회, 2011
- 조준배, 「소련 사회보험제도의 기원: 질병급여 지급소에서 사회보장 현장까지」, 『서양사연구』47, 한국서양사연구회, 2012
- 차문석,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 생산체제」, 『통일문제연구』15-1, 평화문제연구소, 2003
- 차문석, 「북한 노동 일상의 세계와 접근방법」, 『현대북한연구』11-3, 북한대학원대학교, 2008
- 하재룡, 「북한 산업화와 노동정책」, 『노동연구』14, 1997
- 한모니까, 「북한의 인민 만들기와 감정 정치-‘신해방지구’ 『개성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3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8

## ABSTRACT

### The Formation of ‘Socialist’ Workers and Changes in Production Sites in North Korea(1945~1960)

Lee, Se Young  
Dept. of History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how workers were formed during the course of North Korea's industrialization, and how their perceptions and practices again affected the North Korean production site and economy.

From liberation in 1945 to before the Korean War in 1950, North Korea was building a democratic reform and promoting a people's democratic system. While those who have been working since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rmed the mainstream of the North Korean workers, they were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the North Korean economy. An important task of the North Korean production site during this period was to restore production facilities that Japan destroyed and left, and to increase production capacity by replenishing workers and technicians.

In accordance with the Labor Law, which was implemented as part of



the Democratic Reform Measures in 1948, workers were guaranteed the right to 8 hours of work, principle of equal wages for the same labor, social insurance, and labor protection. In a more advanced working condition tha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workers showed their spontaneity based on their enthusiasm for participating in the construction of a new country, or their personal motives such as improving living standards and entering advanced jobs. However, he was also showing the recognition that he should be repaying grace because he is receiving favor from the new country. In the meantime, exemplary workers appeared to play a central role in the production site. They were also performing well on the basis of their personal sincerity, effort, and competitive spirit rather than by ideological drive.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1950 also caused significant changes in North Korea's labor issues. The three-year war severely destroyed the production facilities, and many of the existing male workers disappeared from the production sites. For post-war restoration and industrialization, the destroyed production sites had to be restored and new workers had to be recruited.

In order to fill the shortage of labor, a new generation of workers came from peasants, women, soldiers, young people, and so on. The government and the managers were forced to struggle to inspire the “new generation” workers to work. It was not very successful to try to control workers through strong labor rules and criticism and self-criticism. Eventually, managers had to learn that respecting and caring for workers' interests and needs was more positive for production. Only when the

social relations between the working group leader and the members were strengthened was it possible for the workers to participate in the “enthusiastic” production.

North Korea's production sites were restored and industrialized with the aid of socialist countries such as the Soviet Union, China and Eastern Europ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sought to promote industrialization based on aid. As a result of aid from socialist countries, new machines, new technologies and working methods were introduced at the production site. In addition, foreign engineers came directly to North Korea to help with the production site and the city.

In 1956, the “Scandal of the August Plenary Session(8월 전원회의 사건)” took place, affecting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labor issues. The mainstream of the party, led by Kim Il-sung, carried out heavy industry-oriented industrialization to build a self-reliant economy. However, since foreign aid was plunging, the construction of such an economy would have been a long way without the active response and enthusiasm of the workers.

To promote the success of the first Five-Year Plan, the workers promoted the Chunlima Movement and the Chunlima Working Group Movement.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completion of socialism in North Korea, the Chunlima Movement developed into the Chunlima Working Group Movement in anticipation of the development of communism. The Chunlima Working Group Movement focused on the increase of production and consciousness reforming at the same time, centering on the working group.

During the first five-year plan, localization problems were raised to fill the shortage of various raw materials and fuels for production. In order to solve the fuel problem, which depended on imports, mass mining of anthracite and utilization of alternative fuels were sought. Also,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the machinery industry, a number of machines and facilities were localized.

1958, North Korea declared completion of socialism. Now looking beyond socialism, the question of reforming workers' consciousness was raised. Being a communist meant abandoning egoism and thinking collectively and living. To this end, massive criticism of selfish attitudes among workers has been developed, and as a means of consciousness restructuring, emphasis has been placed on praise and positive modeling. The process of reconstruction of consciousness was practiced through human relations within the working group. To do this, it was a priority to create a community based on mutual aid and "fraternity". Collectivism, centered on the "working group community(작업반 공동체)," could increase worker enthusiasm and participation.

However, the government's desire for early achievement of the First Five-Year Plan was demanding sacrifice beyond workers' devotion. The compulsion of speed degrades the quality of the product, and further contemplates working with safety and contempt, and admiring fulfilling responsibilities even at risk. The resulting loss or sacrifice of life has beautified as a sublime self-sacrifice of the working class.

The conclusions and significance of this article through the above are as follows.

First, a number of young new workers came in after the war, as the generation of workers changed. They were able to cultivate a willingness to work with an attachment to the workplace when solidarity increased at the production site. As the mutual aid was strengthened, the working class, which had increased solidarity, could show an active desire to increase. This became an important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socialist” workers.

Second, even if there was strong labor control and coercion by the state, workers tried to control their own labor based on their own rational decision-making. Workers were able to choose and move according to their personal motives or material gains. Nevertheless, the workers positively evaluated their work as contributing to the construction of the people's economy. North Korean workers were enthusiastic and motivated when the state and managers did not unilaterally force labor, but respected their interests and demands and provided reasonable treatment.

Third, various aspects of North Korean workers were confirmed in this article. Exemplary workers were not good at socialist ideas, but were exemplary because of their sincere and strong desire for recognition. Even workers who are faithful to the system and have excellent skills could sabotage consciously according to his/her mood. At first glance, the workers who seemed to be ‘lagging behind’ also turned into active and sincere workers. Although there are data limitations, the diverse and dynamic military image seen by the workers demonstrate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s only description and mobilization and control of the regime stands on narrow ground. Although there are data limitations, the

diverse and dynamic perceptions and practices seen by workers show that there is a limit to explaining the North Korean regime as functioning only with mobilization and control of the regime.

---

Key words: Workers, labor laws, new generation, external aid, industrialization, independent economy, collectivism, mutual aid, fraternity, working group